

ASAN

2013

미래포럼

2013. 1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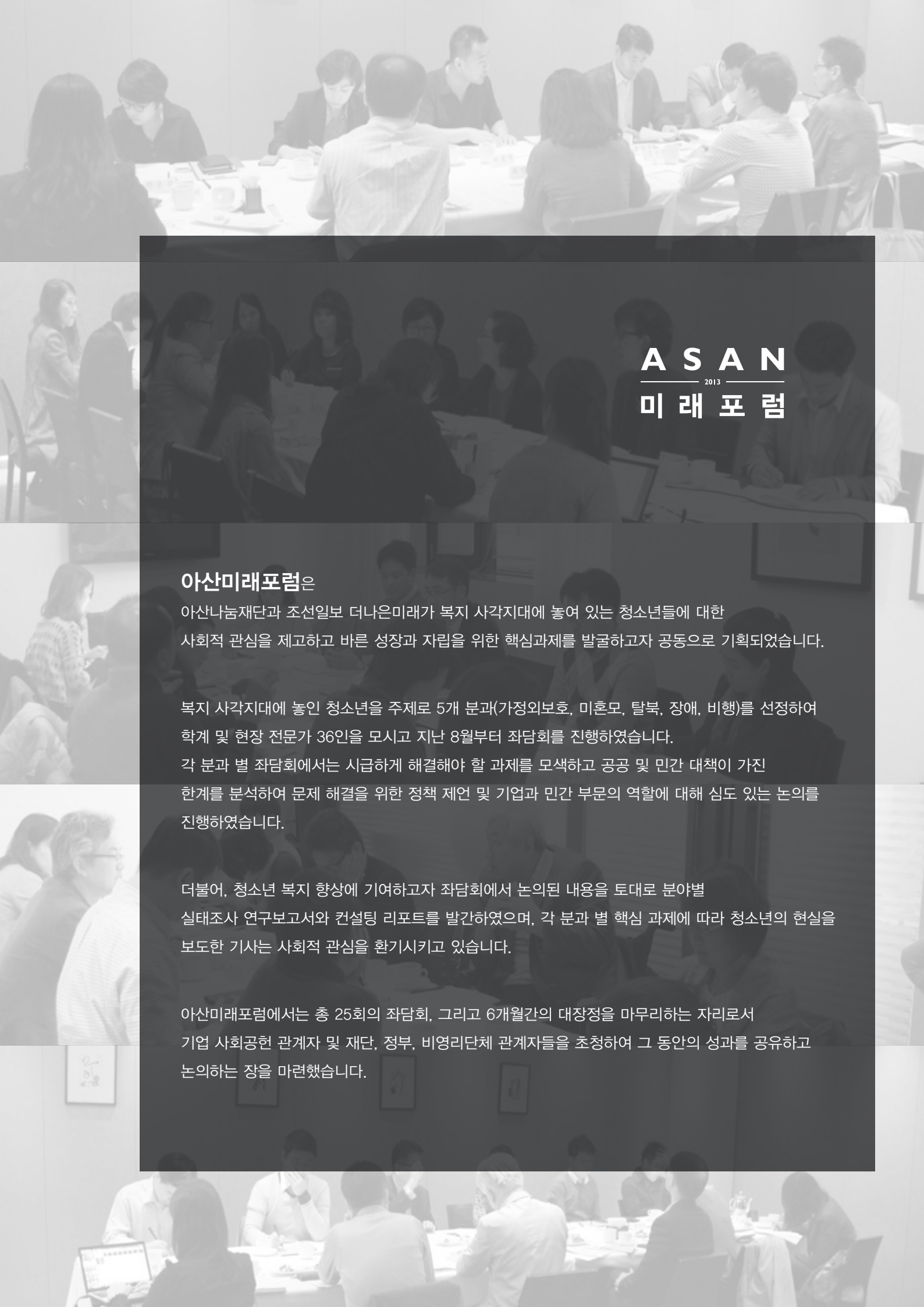
사 각 지 대 청 소 년 의

자 립 과 성 장 을 위 한

민 간 부 문 의 솔 루 셴 모 색

CONTENTS

아산미래포럼 소개	2
인 사 말	3
정진홍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최재성 아산미래포럼 공동운영위원장	
허인정 아산미래포럼 공동운영위원장	
분과 및 분과위원 소개	6
가정외보호 청소년 분과	3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3
컨설팅 리포트	3
청소년 미혼모 분과	3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3
컨설팅 리포트	3
탈북 청소년 분과	3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3
컨설팅 리포트	3
장애 청소년 분과	3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3
컨설팅 리포트	3
비행 청소년 분과	3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3
컨설팅 리포트	3
더 나은미래 기사	3
기관 소개	3



ASAN 2013 미래포럼

아산미래포럼은

아산나눔재단과 조선일보 더 나은미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바른 성장과 자립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자 공동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주제로 5개 분과(가정보호, 미혼모, 탈북, 장애, 비행)를 선정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6인을 모시고 지난 8월부터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분과 별 좌담회에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고 공공 및 민간 대책이 가진 한계를 분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기업과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와 컨설팅 리포트를 발간하였으며, 각 분과 별 핵심 과제에 따라 청소년의 현실을 보도한 기사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산미래포럼에서는 총 25회의 좌담회, 그리고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로서 기업 사회공헌 관계자 및 재단, 정부,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인사말



정진홍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삶은 고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억조차 같지 않습니다. 넉넉한 삶이 있는가하면 모자라는 삶도 있습니다. 잘 갖춘 사람이 있는가하면 성기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이 이렇게 고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고르게 만들겠다고 대패질하듯 세상을 깎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칫 우리 모두를 온통 성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고르게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삶의 구조는 어떻게든 바꿔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균배'라는 방법에서부터 '평등'이라는 이념에 이르고, 다시 '정의'라는 지고한 덕목에 이르기까지, 아득한 때부터 이 일을 풀어내려는 정성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사랑의 나눔'만이 이 잘못을 되잡는 유일한 규범이라는 사실을 터득하고는 이를 위한 법령도 만들고 제도도 구축하고 일정한 사업도 펼치곤 하였습니다. 늘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늘 실패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태를 두루 살펴 준비를 잘 하면 사랑의 나눔은 그만큼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조선일보의 '더 나은 미래'와 '아산나눔재단'은 더불어 손을 잡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과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하는 문제를 고민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 오신 전문가들, 실제로 이 일을 실천해 오신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제까지 한 일에 대한 깊은 성찰, 현실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인식,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열린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제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임이 '나눔이 구현되는 새로운 미래의 장'의 열림을 확인하는 뜻 깊은 날이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최재성

아산미래포럼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심한 빈곤을 벗어난 거의 유일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구 오천만 여명의 분단 국가이면서도 삼성, 현대, LG, SK 등의 대표적인 글로벌기업들을 만들어낸 국가이기도 합니다. 6.25전쟁이후 1인당 평균 국민소득 \$60 수준에서 \$22,000의 수준을 보여준 OECD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복지 부문에서도 괄목할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어 글로벌사회에서는 부러움과 벤치마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경제성장과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빈곤, 소외, 복지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한국사회의 모습은 학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깊은 우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취약집단이 있습니다. 가정외보호 청소년, 청소년 미혼모, 탈북 청소년, 장애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 그들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사회의 관심은 제도권 교육문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취약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주변적 사안으로 취급되어 실질적인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 취약 청소년들은 청소년으로서의 기본적 어려움과 더불어 이중 삼중의 추가적인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절박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아산미래포럼은 중복적 위험상황에 놓여있는 이들 취약 청소년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류사회의 경계를 벗어나 주변인으로 고착화 되어가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민간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발시켜 이들 취약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보고자 아산미래포럼을 기획한 것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그 동안 학계와 실천현장의 전문적 진단과 분석, 그리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공개합니다.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허 인 정

아산미래포럼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6개월에 걸친 아산미래포럼의 여정이 12월 5일, 작은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이 마침표는 포럼 분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여정이 끝났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화두(話頭)를 공유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잊지 않고 지켜보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아산미래포럼 5개 분과는 청소년 미혼모, 장애 청소년, 비행 청소년, 가정외보호 청소년, 탈북 청소년들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교수, 기자, 정부 관계자, 현장 전문가, 컨설턴트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 제언을 담은 학술 보고서와 민간 재원으로 실행 가능한 사회공헌 사업안을 기획하고, 현장을 발로 뛰어 담아낸 기획기사를 연이어 보도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각 분과에서 다루는 이슈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도 생겼습니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교육부가 공식 발표를 하고, 비보호 탈북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멍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위원들은 민간 차원의 솔루션을 고민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정책을 한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또 민간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 모델이 정부의 관심 속에서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을 받아야 함에 공감해 왔습니다. 그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위치에 있기에 든든한 옹호 그룹이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아산미래포럼은 6개월 동안 고민한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 사회 기여를 목표로 한 이번 포럼은 청소년들을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가족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긴 인생을 절망으로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 아산미래포럼이 제시하는 대안들이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외보호 청소년 분과

위탁 가정과 아동양육시설 등의 가정외보호 환경에서 자라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퇴소전, 후의 자립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봉 주 분과위원장

現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現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원장
現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회장
前 University of Chicago Chapin Hall 아동복지연구소 부교수
University of Chicago 사회복지학 박사



김 광 빈 분과위원

現 동명아동복지센터, 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 원장
現 한국아동복지협회 부회장
前 한국아동복지학회 부회장
前 관악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 그네 운영위원장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김 수 현 분과위원

現 돈보스코자립생활관 자립지원전담요원
한경대학교 화학공학과



김 현 수 분과위원

現 (사) 들꽃청소년세상 이사장
前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前 안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前 안산시평화로운학교지원협의회 공동대표
한신대학교 신학과



신 혜 령 분과위원

現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및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단장
現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문위원
前 중앙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획사업 시설청소년자립지원 전문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조 규 필 분과위원

現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조교수(학업중단대응TF팀장)
現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이사
前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자활교육팀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조 민 선 분과위원

現 세이브더칠드런 후원관리부장
前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장
前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 미혼모 분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면서, 자녀의 양육을 선택한 엄마이기도 한
청소년 미혼모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 승 희 분과위원장

現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現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연구위원장
現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김 남 희 분과위원

現 동방사회복지회 에스더의 집 사회복지사
前 죽전주간보호센터 팀장
前 다함장애인자립센터 활동보조코디네이터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 지 혜 분과위원

現 협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조교수
前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SNU멘토링 사업부 전문위원
前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서울아동패널연구단 전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목 경 화 분과위원

現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前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리
일본문리대학교 상경학과



여 윤 자 분과위원

現 구세군두리홈 미혼모자시설 사무국장
現 엔젤스토리 사무국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이 미 정 분과위원

現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現 한국청소년상담원 희망센터 청소년정책 운영위원
現 행정안전부 지방자치행정 평가위원
前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여성연구 선임연구원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사회학 박사



허 난 영 분과위원

現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前 이엠사회서비스교육개발원 교육기획본부장
前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사업팀장
前 한국여성의전화 이주여성팀장, 가족팀장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탈북 청소년 분과

비보호·무연고를 포함한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미래의 통일 사회에서 남·북한을 매개하는 성숙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국 초기에서부터 기관 퇴소 후, 자립에 이르기까지의 지원방안에 대해 찾고자 합니다.



최재성 분과위원장

現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現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現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회장
現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위원장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사회복지학 박사



김선화 분과위원

現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부장(서울북부하나센터)
現 평화복지재단 노원실버센터 운영위원
前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박사



마석훈 분과위원

現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 우리집 대표(운영위원장)
現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운영위원장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 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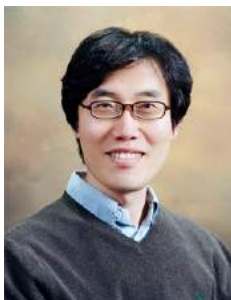
박 상 영 분과위원

現 탈북청소년교육공동체 셋넷학교 대표(교장)
現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前 탈북청소년을 위한 경동대안학교 돌배학교 교장
前 서울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윤 상 석 분과위원

現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現 서울시교육청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위원장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前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 사무국장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



이 기 영 분과위원

現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現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및 자문교수
前 보건복지부 장관실 복지정책자문관
Ohio State University 사회복지학 박사



조 명 숙 분과위원

現 여명학교 교감
前 자유터 학교 교장
연세대학교 교육행정학 석사

장애 청소년 분과

다중차별과 낮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전환서비스를 통해 성인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박 경 수 분과위원장

現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現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위원
前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
前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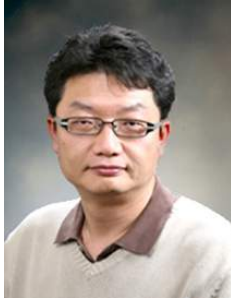
김 은 영 분과위원

現 비영리 민간단체 캠프힐마을 슈타이너학교 교장
前 은평대영학교, 한국경진학교 교사
前 극동대학교 강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 석사



김 주 영 분과위원

現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前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前 한국복지대학교 교육연구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 박사



김 치 훈 분과위원

現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
 前 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국장
 前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제정추진연대 집행위원장
 前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APDF)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Syracuse University 특수교육학 박사



변 경 희 분과위원

現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現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
 現 삼육재활센터 감사
 前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 위원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직업재활학 박사



이 계 윤 분과위원

現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고문
 現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인등급심사위원
 前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前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총장
 송실대학교 사회사업학 박사



이 용 표 분과위원

現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現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부회장
 前 (사)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회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최 복 천 분과위원

現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前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前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부 겸임교수
 University of Leeds 사회정책학/장애학 박사

비행 청소년 분과

비행청소년이 컴퓨터 이용하는 과정이나 보호관찰과정에서 성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변화하고 다시 한 번 사회로 재통합되는 과정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더 심각한 비행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정 익 중 분과위원장

現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現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現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이사
現 세이브더칠드런 이사회 감사
University of Washington 사회복지학 박사



김 현 정 분과위원

現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책임관 (청소년비행예방)
現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요원
前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문분류심사관
홍익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 (수료)



명 성 진 분과위원

現 세상을품은아이들 대표
現 예수마음교회 담임목사
現 인천지방법원 국선보조인
백석대학교 기독교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박 현 동 분과위원

現 (사)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 사무총장
現 의정부시이동청소년쉼터 '포텐' 소장
前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이사)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 박사



이 형 섭 분과위원

現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前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前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천 창 암 분과위원

現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복지관 관장
前 한국청소년연맹 사업추진본부 본부장
前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
국민대학교 한문학과



황 인 국 분과위원

現 (사)한국청소년재단 상임이사
現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
前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
前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SESSION I.

가정외보호 청소년 분과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컨설팅 리포트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자립지원: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아 산 미 래 포 럼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개념

- 모든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되고 양육될 권리를 가짐
- 하지만 가정이 그러한 보호와 양육을 제공할 형편이 되지 않거나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아동·청소년은 그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가정 밖에서 보호받아야 함
- 아동·청소년이 가정 밖에서 보호되는 경우 복지국가에서는 그 보호의 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국가가 부모를 대리해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국가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가정에서 보호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게 되는데, 보호의 형태는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으로 나눌 수 있음
- 아동복지의 원칙은 가정에서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득이 가정 밖에서 보호될 수밖에 없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임
- 아동복지의 원칙에 의하면 아동이 가정 밖에서 보호될 수밖에 없을 때라도 국가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 밖에서 보호해야만 할 때는 새로운 가정을 마련해주는 입양이 가정외보호의 최우선 대안이 돼야 함
- 입양될 수 없는 아동의 경우는 가정과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환경에서의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복지시설의 순서로 보호의 대안이 모색돼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는 입양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가정위탁의 비중이 낮은 편이어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가 많은 편임
- 2011년을 기준으로 가정외보호 아동·청소년의 규모는 약 34,000명에 달하고 있음
- 이 중 약 16,000명의 아동·청소년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고, 또 다른 약 16,000명이 가정위탁에, 그리고 약 2,200명이 공동생활 가정(그룹홈)에서 보호되고 있음

□ 가정외보호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의 중요성

- 국가와 사회는 가정을 대신해서 가정외보호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
- 그러한 노력은 미성년 시기에 가정외보호 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수준의 보호와 발달지원을 포함함
- 가정에서 보호 받고 양육되는 아동·청소년들이 적절한 연령에 가정을 떠나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족의 도움으로 쌓듯이, 국가와 사회는 가정외보호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성년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줄 필요가 있음
- 가정외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보호받고 있는 미성년 기간에만 국한 돼서는 안 되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가정외보호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밝지 못함
- 현재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외보호 청소년은 18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퇴소하여 자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¹⁾

1)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 일반 가정에서는 자립의 개념이 대부분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직장을 얻어 결혼하여 분가하였을 때를 지칭한다면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경우는 자립의 개념이 너무 어린 시기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실제로 많은 수의 가정외보호 청소년은 퇴소 후 주거, 취업, 건강, 사회 적응 등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아산미래포럼 가정외보호 청소년 분과 내부 자료, 2013)
- 가정외보호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하여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제 2 절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다음 장에서는 가정외보호 현황과 시설퇴소 청소년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봄
 - 제3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외보호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제4장에서는 현재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자립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함
 - 제5장에서는 가정외보호 청소년 자립지원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 2 장 가정외보호와 보호종결 현황

제 1 절 가정외보호 아동·청소년 현황

□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형태는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로 이루어져있음

□ 가정위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가정에서 보호하는 제도. 조부모에게 대리양육을 하는 대리양육가정과, 친인척에게 양육을 위탁하는 친인척위탁가정, 그리고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일반위탁가정이 이에 해당됨

○ 아래 <표 1>은 최근 가정위탁 보호 현황을 보여줌

<표 1> 가정위탁 보호 현황

연도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2009	12,170	16,608	7,809	10,947	3,438	4,503	923	1,158
2010	12,120	16,359	7,849	10,865	3,365	4,371	906	1,123
2011	11,630	15,486	7,463	10,205	3,351	4,260	816	1,021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가정위탁의 대부분은 종래의 ‘소년소녀가장’ 아동들을 조부모에게 대리양육하는 형태인 대리양육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리양육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고령이고 그들 자신이 건강 등의 문제가 있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아산미래포럼 가정외보호 청소년 분과 내부자료, 2013)

○ 고령의 조부모가 성인기로의 전환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롤 모델 역할을 수행하기가 사실 상 힘든 등 일반 가정에서 기대될 수 있는

자립에 필요한 지원과 환경 조성이 취약할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임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아동 5-7인으로 가구를 구성하여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보호 형태
- 아래 <표2>는 최근 공동생활가정의 현황을 보여줌

<표 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연도	시설	보호인원
2009	687	1,993
2010	764	2,127
2011	876	2,241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수는 약 2,000명 내외로 아동 복지시설보호와 가정위탁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규모임을 알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보호사업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시설에서 보호, 양육하는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이 대표적인 보호 형태임
- 아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복지시설보호사업은 그 목적과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여러 세부 시설형태로 나누어짐

〈표 3〉 아동복지시설 종류

시설 명	내용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는 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 아래 〈표 4〉는 시설 유형별로 시설 수와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의 최근 현황을 보여줌

〈표 4〉 아동복지시설 현황

연도	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09	239	16,239	2	65	11	514	12	262	13	368
‘10	238	15,787	2	69	11	495	12	235	14	402
‘11	242	15,313	1	32	10	455	12	249	12	113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시설보호 아동의 절대 다수는 양육시설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2011년을 기준으로 약 15,000명이 넘고 있음
- 양육시설의 수는 전국적으로 2011년에 242개소에 달하고 있지만,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지원시설은 12개에 불과한 실정임

제2 절 가정외보호 종결 현황

- ☐ 18세가 되면 가정외보호 아동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는 퇴소, 가정위탁에서는 지원이 끊기게 됨
- ☐ 2012년에는 964명의 청소년이 18세 이상이 돼 시설에서 퇴소했고, 1,895명이 가정위탁을 종결했음
- ☐ 이곳에서는 퇴소 후의 현황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자료가 축적된 시설 퇴소 청소년의 현황을 중심으로 가정외보호 종결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 시설퇴소 청소년 현황

〈표 5〉 시설퇴소 아동 현황: 2010-12

(단위: 명)

구분	만기퇴소	연장종료	계
2010	642	227	869
2011	639	334	973
2012	605	359	964

자료: 아동자립지원사업단(2013). ‘2010~12년도 퇴소아동현황’

-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약 1,000명의 청소년이 시설에서 보호연령 만기로 퇴소하고 있음
- 그 중 약 2/3는 18세가 도달하여 퇴소하는 아동이고(만기퇴소) 나머지 1/3은 대학진학, 취업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보호를 연장했다가 그 사유가 없어져 퇴소하는 청소년(연장종료)임

□ 퇴소 청소년 진로 현황

○ 아래 <표 6>은 시설 퇴소 청소년의 최근 진로 현황을 보여줌

<표 6> 양육시설 퇴소 아동 진로 현황: 2010-12

(단위: 명, %)

	진학	취업	기타*	계
2010	232 (26.7%)	421 (48.4%)	216 (24.9%)	869 (100%)
2011	285 (29.3%)	445 (45.7%)	246 (25%)	973 (100%)
2012	231 (24%)	499 (51.8%)	234 (24.3%)	964 (100%)

*기타: 취업준비 중, 군입대 등

자료: 아동자립지원사업단(2013). '2010~12년도 퇴소아동현황'

- 최근 현황을 보면, 퇴소 청소년의 약 절반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으며 진학률은 20%대 중반 정도에 머물고 있음
- 전체 인구 대학진학률이 2012년 기준으로 약 70%임을 감안하면 진학률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진학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표 7> 참조), 진학의 대부분이 2년제 전문대학 수준이어서, 미래 직업경쟁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교육성취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표 7>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 대학 진학 현황: 2010-12

(단위: 명, %)

구분	1년제 (비학위과정)	2년제	3년제	4년제	미입력	계
2010	2 (0.9%)	149 (64.2%)	23 (9.9%)	53 (22.8%)	5 (2.2%)	232 (100%)
2011	8 (2.8%)	136 (47.7%)	36 (12.6%)	90 (31.6%)	15(5.3%)	285 (100%)
2012	4 (1.7%)	109 (47.2%)	38 (16.5%)	70 (30.3%)	10 (4.3%)	231 (100%)

자료: 아동자립지원사업단(2013). '2010~12년도 퇴소아동현황'

- 취업의 경우에도, 서비스직, 기능직, 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직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8> 참조)

<표 8>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 취업 형태 현황: 2010-12

(단위: 명, %)

구분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직	판매직	농업/ 어업	기능직	기계조 작/조립	단순 노무직	기타	소계
10'	7 (1.5)	80 (16.6)	23 (4.8)	83 (17.2)	10 (2.1)	2 (0.4)	47 (9.8)	104 (21.6)	83 (17.2)	43 (8.9)	482 (100)
11'	5 (1.0)	60 (11.4)	38 (7.2)	98 (18.6)	16 (3.0)	4 (0.8)	103 (19.6)	67 (12.7)	99 (18.8)	36 (6.8)	526 (100)
12'	7 (12)	66 (11.5)	38 (6.6)	98 (17.1)	21 (3.7)	0 (0.0)	118 (20.6)	113 (19.8)	66 (11.5)	45 (7.9)	572 (100)

자료: 아동자립지원사업단(2013). '2010~12년도 퇴소아동현황'

- 취업을 한 경우에도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직업이 대부분이어서 월 평균 소득이 101-150만원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음(<표 9> 참조)

<표 9> 양육시설 퇴소 취업 청소년 월평균 소득 현황:2010-12

(단위: 명, %)

구분	80만원 이하	81만원 ~100만원	101만원~150만 원	151만원 이상	계
2010	32 (6.6)	140 (29.0)	259 (53.7)	51 (10.6)	482 (100)
2011	40 (7.6)	83 (15.8)	317 (60.3)	86 (16.3)	526 (100)
2012	87 (15.2)	63 (11.0)	290 (50.7)	132 (23.1)	572 (100)

자료: 아동자립지원사업단(2013). '2010~12년도 퇴소아동현황'

□ 퇴소 청소년 주거 현황

- 진로와 더불어, 주거를 해결하는 것은 퇴소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임
- 아래 <표 10>은 최근 퇴소 청소년의 주거 현황을 보여줌

〈표 10〉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 주거 현황: 2010-12

(단위: 명, %)

		2010	2011	2012
정부지원	영구임대주택	9 (1.0)	4 (0.4)	1 (0.1)
	전세주택	91 (10.5)	84 (8.6)	116 (12)
	자립생활관	63 (7.2)	77 (7.9)	81 (8.0)
	공동생활가정	8 (0.9)	5 (0.5)	7 (0.7)
	기타	2 (0.2)	32 (3.3)	39 (4.0)
개인지원	전세	31 (3.6)	13 (1.3)	13 (1.3)
	월세	133 (15.3)	147 (15.1)	151 (15.7)
	자가	25 (2.9)	21 (2.2)	14 (1.5)
	친인척	91 (10.5)	65 (6.7)	66 (6.8)
	기숙사	212 (24.4)	233 (23.9)	238 (24.7)
	고시원	11 (1.3)	9 (0.9)	17 (1.8)
	친구집	32 (3.7)	27 (2.8)	21 (2.2)
	귀가	14 (1.6)	158 (16.2)	99 (10.3)
	기타	147 (16.9)	98 (10.1)	101 (10.5)
계		869 (100)	973(100)	964(100)

자료: 아동자립지원사업단(2013). ‘2010~12년도 퇴소아동현황’

-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 정부지원으로 전세주택을 얻거나 자립생활관에 입소한 경우와 대학 진학으로 기숙사에 입사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 거주할 곳을 찾는 과정에서는 월세가 높은 비중임을 알 수 있음
- 취업상태가 불안정하고 월수입이 낮은 상태에서는 월세 형태의 주거는 상당히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임

제 3 장 가정외보호 청소년 자립지원서비스 현황

- 정부 차원에서 가정외보호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가 강조되고 보다 체계화된 계기는 2007년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자립전담요원이 배치되고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임
- 가정외보호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주로 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2012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가정위탁 청소년도 자립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됨

- 아래에서는 정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정외보호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의 현황을 부처별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1. 보건복지부

-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

-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은 가정외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아래 <표 11>에 요약한 내용과 같은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용노동부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

<표 11>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업 내용

구분	세부사업내용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전, 월세 주택임차대금 마련 · 금융기관 이용안내 · 인근 지역 연계망 구축
진학지원	· 장학사업 연계 · 등록금, 생활비, 교재비 등 지원 및 후원 · 학교 부적응, 학습능력 저하, 일반생활상담
취업훈련연계 (고용노동부)	· 학생: 직업 선택 지원, 직업지도프로그램, 직장 체험프로그램 · 취업준비생: 맞춤형선으로 일자리 확보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등
자립지원시설	만 18세~25세 시설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며 주거, 상담, 정서, 자립서비스 등을 지원. 전국에 12개소 운영 중

자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홈페이지

- 특히 2011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퇴소전 자립지원 프로그램인 Ready?와 퇴소후 프로그램인 Action!을 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음

○ Ready?와 Action!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Reday?’ 프로그램: 입소 후 부터 퇴소 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표 12> Ready?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단계별구분	Lv.1	Lv.2	Lv.3	Lv.4
대상자 (미취학~ 퇴소전)	미취학~초2	초3~6년	중1~3년	고1~퇴소전
중점 프로그램	· 기초학습 · 독서지도 · 집단프로그램	· 심리, 정서 지 지체계 · 경제교육 · 학습지도	· 진로적성검사 · 자립지원 예비 사정 및 계획	· 자립사정 · 취업 및 진학상 답
프로그램 수행인력	· 자립지원 전담요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 생활복지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생활지도원: 프로그램 운영 · 자립지원위원회: 정기적인 자문 및 평가			

- ‘Action!’ 프로그램: 퇴소 후부터 자립생활에 정착할 때까지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표 13> Action!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서비스지원	· 취업형과 진학형으로 구분 · 사회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구축 · 상담 및 사례관리 · 진로지도 및 인턴쉽 프로그램 · 긴급생활자금지원 및 의료지원 ·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수행인력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부처별 지원연계 · 자립지원전담요원: 상담, 사례관리, 자체 해결 가능한 지원 연계

□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 보건복지부는 만기 퇴소 가정외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자체 별로 1인당 최소 300만원 이상의 자립지원정착금을 지급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음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Child Development Account)

- 일종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시설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자체)에서도 같은 금

액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

□ 바람개비 서포터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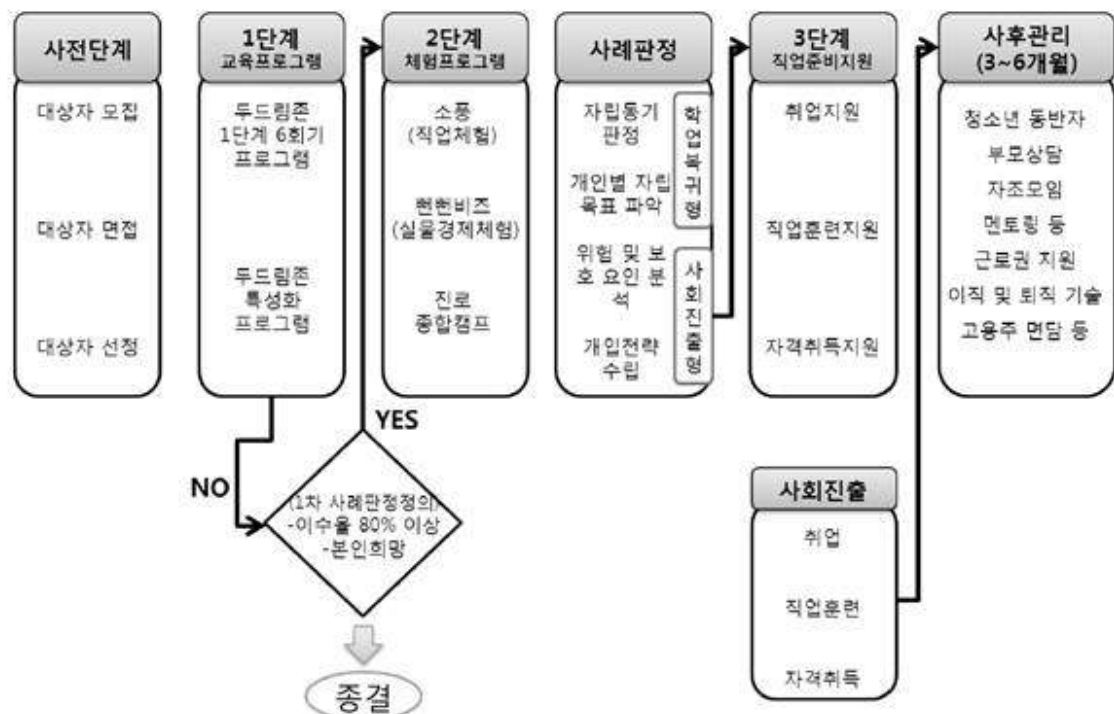
- 아동복지시설 등을 퇴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퇴소 후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선배들이 직접 멘토로 나서 퇴소준비를 앞둔 후배들을 격려 지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2. 여성가족부

□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두드림존’

- 자립을 필요로 하는 만 15~24세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동기부여, 경제교육, 학업지속 연계, 직업훈련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그림 1〉 두드림존 프로그램의 단계별 운영 흐름도



자료: ‘시설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20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 고용노동부

□ 뉴스타트 프로젝트

- 시설 청소년의 취업 및 복지 지원을 위해 아동자립지원사업단, 폴리텍 대학, 워크넷을 연계하여 희망하는 퇴소시설 청소년들에게 입학의 기회를 마련, 복지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취업사관학교

-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무상 직업훈련, 숙식제공,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수료 후 취업지원을 제공함

제 4 장 가정외보호 청소년 자립의 문제점

- 이상에서 살펴 본 다양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외보호 청소년은 자립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의 어린 연령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임(아산미래포럼 가정외보호분과 내부자료, 2013)

-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과연 21세기 한국사회에서 18세 청소년이 자립생활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타당한가임

- 원칙적으로 18세에 보호조치를 종료하는 현행 규정은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와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청소년 연령의 범위로 제시하고 있는 24세 이하 기준으로 볼 때도 문제가 있음
- 일반 가정의 아동의 경우는 자립을 한 후에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돌아갈 가정이 있지만 가정외보호 청소년은 그러한 가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립을 기대할 수 있는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시설보호 청소년의 자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청소년들의 시설의존성의 문제임

- 오랜 기간 시설에서의 생활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받는 ‘객체’로서의 자아상을 가지게 함
- 홀로서기에 필요한 ‘주체’로서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동기부여가 안 되어있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라도 효과가 있을 수 없음

□ 가정위탁 청소년의 경우는 대부분이 조손가정(70%)이어서 성장기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성인 롤 모델을 기대할 수 없음

- 성장기에 성인 롤 모델의 부재는 자립준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함
-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조언이나 상담 등을 기대하기가 어려움

□ 진학 후에 대학 중퇴의 문제도 심각함

- 퇴소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상당수가 진학 후에 대학을 중퇴하고 있는 현실임(아산미래포럼 가정외보호 분과 내부자료, 2013)
- 청소년의 입장에서 진학을 하게 되면 보호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에서도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하지만 일단 진학을 한 후에는 기초학업능력의 부족과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해야 하는 이유로 학점 관리가 힘들어짐
- 학점이 적정 수준이 안 되면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등록금 압박을 받게 되 중퇴하는 경우가 많음
- 중퇴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보호의 연장이 불가능해짐으로 주거 문제까지 함께 마주치는 상황에 처함

□ 불안정한 취업의 문제

- 약 50%의 청소년이 퇴소 후 취업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단순 아르바이트나 생계유지형 취업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자립이 어려움
- 취업을 하면 다른 모든 지원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상 자립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음
- 가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일 때 원가정으로 귀가한 퇴소 청소년이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가족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므로 부모들이 오히려 정규직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음

□ 불안정한 주거의 문제

- 퇴소 청소년에게 주거 문제는 당장 직면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임
- 주거 불안은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임
- 특히 월세로 사는 경우에는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필요함

□ 자립 정보의 접근성 부족

-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실제로 퇴소 전·후에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임
- 정보 제공이 제공자 위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들이 정작 서비스가 필요할 때에도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음

□ 유사시 필요한 초기 종자돈의 부재

- 사회진출 초기 정착에 필요한 종자돈이 없어 월세나 자격증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이 많아 경제적 자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또한 긴급한 생활자금(핸드폰 요금 연체 등)의 수요가 있을 때 이를 적절히 해결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업 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시설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 시설 청소년의 경우 정서장애, 행동장애 등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미비한 실정임

□ 가정복귀 후 원가정과의 갈등 문제

- 퇴소 청소년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오랜 기간 시설생활로 가정생활에의 적응이 힘들 수도 있고, 가족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 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시설 실무자의 자립지원 역량 문제

- 시설보호 청소년의 자립지원은 일시적인 프로그램 차원이 아니라 시설 실무자들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나 현재 시설 실무자들의 역량은 부족한 형편임

제 5 장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자립지원 개선 방향

□ 보호종료 연령을 24세로 상향 조정

- 현재 18 세로 되어 있는 보호종료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
- 현재는 원칙적으로 18 세가 되면 보호를 종료하고 예외적으로(진학이나 직업교육·훈련 등) 보호를 연장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실에 맞게 24 세(청소년 기본법 기준)까지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종료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
- 현재 퇴소 이후에 사후관리 등이 힘든 실정을 고려하면 24 세까지 보호 원칙으로 변경할 경우에 사후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시설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립체험관 운영 및 동기유발 프로그램 제공

- 시설 내에 여가 공간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숙사를 마련해 퇴소 전에 최소한 3개월 동안 독립적인 생활체험의 기회를 제공
- 가정외보호 기간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 캠프, 동기유발 및 성취 지향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한 자립심 함양
- 자원봉사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시상을 하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도입
-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동호회 형태로 봉사 및 기부 클럽을 구성하여 나눔과 베품의 기회를 제공
- 청소년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받기만 하는 ‘객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하는 ‘주체’로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가정위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 현재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시설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사실임
- 현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배치돼 있는 총 8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의 힘만으로 전국에 산재한 각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가정위탁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든 형편임
- 2012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가정위탁 청소년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아직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자립정착금이나 대학등록금을 가정위탁 청소년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대학진학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대학 진학 후 생활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외의 생계지원금 제공
-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 재학생과의 버디 프로그램 등 도입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 자립준비 과정에서 영역별로 세분화된 교육 및 체험 학습 지원 확대(예: 현재 여성가족부의 두드림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
- 현재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퇴소 전·후 가정외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
- 퇴소 후에는 맞춤형 유급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 주거 안정 지원 강화

- 주택마련자금 기회 확대 및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 퇴소 후 전세지원 주택에 입주 시, 지속적인 저축과 월별 생활비 계획 수립 등의 조건을 부여해 지속적인 주거생활이 가능케 하는 지원방안 마련
- 퇴소 후에라도 필요 할 때는 입주할 수 있는 거점별 퇴소 청소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제공

□ 자립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 양육시설과 위탁가정으로 방문하여 자립준비를 돕는 자립코칭도우미 파견
- 자립준비도 검사, 자립능력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맞춤형 자립진단 및 계획수립 지원
- 퇴소 후에는 멘토링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라이프코치 지원
-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폰서 연결 및 정기적 상담 제공
- 각 지역별, 시설별로 ‘바람개비서포터즈’와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해 퇴소 후 자립한 선배와 가정외보호 청소년을 연계해 정서적지지 기반 조성 및 유대감 형성

- 퇴소 청소년이 주거할 지역과 근접한 자립생활관 등 관련 시설과 연계해 위기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계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 자립정보 접근성 향상

-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및 앱 개발 보급
- 자립생활 및 취업을 돕는 가상체험 게임 개발(예: Job Marble 게임) 및 인터넷 상담 창구 제공

□ 자립지원기금 조성을 통한 위기상황 지원

- 자립지원기금 조성을 통해 퇴소 후 청소년에 대한 의식주, 취업훈련, 질병치료를 위한 긴급 지원 확대
-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원비, 자기개발비 등 유사시 자립준비에 소요되는 절박한 비용을 신청하도록 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급
- 퇴소 청소년의 직업체험 등 자립교육 관련 바우처와 주거·임대 관련 바우처 확대

□ 가정외보호 청소년 대상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지역 병원, 전문적인 심리상담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관리 지원
- 가정외보호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종합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퇴소이후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무기력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 원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확대

- 원가족 간담회, 캠프 프로그램 등을 정례화
- 원가족 복귀이후에도 가족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자립형 그룹홈 및 자립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실무자 역량 강화

- 실무자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실무자들 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보교환 및 교육 기회 제공

□ 아동복지사업 국고보조 사업 환원

- 아동복지사업이 지방이양 된 후 지자체별 아동복지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가정외보호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은 가정을 대신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국고보조 사업으로의 환원이 필수적임
- 현재 지역 별로 편차가 큰 자립지원정착금, 자립전담요원 지원 등의 문제도 국고보조 사업의 환원으로 해결할 필요
- 현재 노인, 장애인 등의 분야는 국고보조 사업으로의 환원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동복지 분야는 논의에서 조차 제외된 실정임
-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적인 책무성의 확보를 위해 아동복지사업의 국가보조 사업으로의 환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임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사업단. (2013). 2010-12 년도 퇴소아동현황.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아산미래포럼 가정외보호 분과 내부자료 (2013).

여성가족부. (2012). 2012 청소년 백서. 여성가족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시설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SESSION 2.

청소년 미혼모 분과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컨설팅 리포트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 지원 방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승희

아 산 미 래 포 럼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

- 청소년 미혼모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서 다른 취약한 청소년들에 비해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였음. 이는 혼전순결이 여전히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속에서 청소년의 임신은 곧 불량, 탈선이라는 공식으로 보기 때문에 장애나 가족의 구조적 결손,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한 직, 간접적인 피해자라기보다는 비행과 일탈의 주도적인 대상으로 다르게 취급되어 옴
- 저출산 국가로서 아동의 해외입양을 지양하는 정책이 강조되면서 미혼모들의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친 양육 정책이 제공되기 시작함
-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기존의 법보다 입양절차시 요구되는 동의서 및 가족관계등록에 자녀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입양을 꺼리는 미혼모들이 늘어남¹⁾.
-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조금씩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가는 것도 한 몫을 차지함
- 2007년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부모, 조손가족, 미혼모에 대한 정책지원이 포함됨. 특히 양육미혼모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서 양육미혼모 자립지원시설인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추가 설치 및 운영은 물론 미혼모자시설의 출산 직후 미혼모에 대한 자녀 양육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미혼모에 대한 정책방향은 미혼모의 평균연령 20대를 고려하여, 조기

1) 서울지역 소재의 K미혼모자시설의 경우 2011년 입소자 50명중 23명(46%)이 양육을 선택하였으며, 2012년 62명중 46명(74%)이 양육을 선택하였다. 입양과 양육선택의 비율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양육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입을 통해 이들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빈곤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지원은 매우 취약함

- 영국과 미국 등의 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주안점은 미혼모들의 경제사회적 자활성의 접근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투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면서 경제사회적 자립능력의 제고와 차별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제까지 대부분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들은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학력, 경제적 자립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였음. 그러나 최근에는 양육미혼모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중 청소년 미혼모들의 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임
- 청소년 미혼모들은 성인 미혼모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무엇보다 청소년으로서의 중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정책이 제공되어야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 미혼모들이 자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서비스 등을 고찰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자립을 하고자 할 때에 겪게 되는 고충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자녀를 양육하는 9-24세미만 청소년 미혼모 (법정기준인 청소년한부모의 범위와 다소 다름)
- 주택문제를 제외한 양육과 보육, 취업, 교육, 심리정서지원,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다룸

□ 연구방법

○ 문헌고찰

- 전문가 FGI : 미혼모당사자가 아닌 미혼모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실무자들, 미혼모자시설 사회복지사, 미혼모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하였음. 미혼모당사자가 아닌 직·간접적인 지원과 연구를 한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구성한 것은 오히려 이들이 수년간의 청소년 미혼모들을 지원하고 연구하면서 경험하게 된 사례와 개입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알고 있으며, 해결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더 적절하다고 보았음
-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점과 아울러 기존의 미혼모자시설이나 민간기관에서 해결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음. 이러한 방향의 심층인터뷰자료를 바탕으로 자립지원정책의 한계와 해결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어린나이에 자녀를 양육하고자 선택한 청소년 미혼모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1회에는 자립지원방안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었으며, 이때 나온 주제들이 양육과 보육, 취업, 교육, 건강, 심리정서문제였음. 2회기 때부터는 주제별로 토론을 실시하였음. 진행방법은 연구 참여자마다 각기 선택한 주제에 따라 조사 연구한 내용(사례연구, 기관서비스경험, 기존연구보고서 분석)을 발표하고, 이러한 발표 자료를 토대로 나머지 연구 참여자들이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분석방법은 중심으로 논의한 자립을 위한 5개의 주제(양육과 보육, 취업, 학습, 건강, 심리정서)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함

제2장 본 론

제1절 청소년 미혼모의 현황

□ 청소년 미혼모 출산 및 가구현황

- 청소년 미혼모의 현황을 한해 분만건수에서의 차지하는 24세 이하의 여성의 비율과 한부모가족에서 청소년 한부모가 차지하는 비율로 살펴 보았음 <표1>에서 청소년의 분만비율은 전체의 6-7%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만 비율 자체는 상승하고 있지는 않지만 줄어들고 있지도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표1> 연령별 출산 건수

(단위: 건(%))

()안의 수치는 총 출산건수 대비 비율

	2007	2008	2009	2010	2011
19세 미만	3,467(0.7)	2,774(0.6)	2,815(0.63)	2,934(0.62)	2,998(0.64)
19~24세	31,883(6.47)	28,173(6.05)	24,911(5.6)	24,538(5.22)	24,648(5.23)

자료: 통계청(각년도)

- <표2>의 한부모가족 성별 및 연령별 현황에서 청소년 미혼모에 해당되는 것은 모자가정을 중심으로 보면 됨. 청소년한부모와 청소년 미혼모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청소년한부모의 대부분의 구성이 여성이고, 미혼상태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한부모의 실태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를 현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음. 다만 표2에서 20-29세에 해당되는 연령이 만24세미만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20세 미만으로만 한정해서 변화추이를 보면 2000년도에 모자가정은 930,857가구였으나 2005년 1,083,020가구, 2010년 1,246,690가구로 증가하고 있음

〈표 2〉 한부모 가족 성별 및 연령별 현황

(단위: 가구)

연도	합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0	모자가정	930,857	1,276	82,812	189,229	307,648	222,423	130,769
	부자가정	329,997	129	4,143	34,751	86,903	61,328	32,743
	계	1,123,854	1,405	56,655	223,980	394,551	283,751	163,512
2005	모자가정	1,083,020	1,187	46,322	215,446	391,585	260,237	168,243
	부자가정	286,923	213	4,913	36,208	113,715	85,262	46,612
	계	1,369,943	1,400	51,235	251,654	505,300	345,499	214,855
2010	모자가정	1,246,690	835	49,342	209,808	443,861	339,865	202,979
	부자가정	347,448	219	8,012	37,228	122,084	117,042	62,863
	계	1,594,138	1,054	57,354	247,036	565,945	456,907	265,842

자료: 통계청(각년도)

□ 청소년 미혼모의 입양과 양육의 선택

- 국내외 입양 아동 가운데 미혼모의 아이가 전체 입양아의 90%이상, 이중 10대 미혼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60%정도였음(2001년 한겨레신문). 그러나 이후 4대 해외입양기관에 아동을 의뢰한 미혼모 중 2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2,007명(58.3%), 2003년 1,748명(46.1%), 2004년 1,355명(39.3%)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임
- 이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자녀를 입양 보내고자 할 경우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2012년 8월부터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입양 절차가 종전에 비해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우리사회내의 인식과 수용 정도가 점차 개선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제2절 청소년 미혼모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

□ 자립지원 정책

-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복지법(1989.4)에서 미혼여성을 모로 인정하고 모자가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음. 이에 따라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과 미혼모의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의 보호시설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청소년 미혼모에게 청소년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법적인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이 전부이며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청소년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수급의 여부가 달라지고 나머지는 성인 미혼모와 동일하게 적용됨

□ 경제적 지원

- 청소년한부모들이 경제적 지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비지원의 확대와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여성가족부, 2011)
-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청소년한부모의 58.8%로 조사되었으나(여성가족부, 2011) 수급대상이 되지 않은 청소년한부모들이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추측할 수 있음
- 부모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부모재산이 반영이 되어 미혼모들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임
- 친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친부모의 금융정보나 신용정보 등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친부모로부터 받아야 하고, 친부모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미혼모는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움

-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1:1매칭으로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 5만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2010년도에 지원한 자에 한해 지원하며, 2012년부터 신규는 폐지되었음. 현재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에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양육지원 등을 하고 있음
- 아동양육비의 경우 2004년도 월 2만원에서 점차 증액되어 만12세 미만인 경우 월7만원이며, 만 12세 자녀로 확대되었음. 청소년 한부모는 이보다 더 상향되어 2011년도에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됨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비용은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수강하게 될 학원 등으로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표 3〉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내용

초기위기지원	미혼모, 부자 가정에 대한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5만원 지원 (25세 이상 부모의 경우 월 7만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비	고등학교 이하 학업 중단자에게 학원비, 교재비 지원 (연 최대 154만원)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정규 고교 과정 이수 희망 시 수업료, 입학금 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	24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며 취업, 학업 활동 시 월 10만원 지원

자료: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보고서(2013)

□ 보육지원

- 청소년 미혼모들의 경우 대부분이 미취학아동임을 고려할 때 받을 수 있는 양육 및 보육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이 있음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월 7-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함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가국 평등소득 50%이하의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임
(복지로, <http://bokjiro.go.kr>)

□ 취업지원

-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별도의 취업지원은 존재하지 않고, 저소득 취약계층 취업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이 있음
- 취업지원계획에 따른 취업상담과 취업알선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과 취업계획 수립 시 5만원,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최대 월 20만원의 생계지원, 취업 성공으로 근로를 유지할 경우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3회에 걸쳐 분할 지원하며, 취업을 통해 자립하여 탈 수급할 경우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함

□ 의료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된 경우, 의료급여의 수급자의 지위도 함께 갖게 된다. 미혼모들을 위한 의료보호는 지역 내의 병원 및 보고소 등에서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상분만 등과 같이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를 지급받음. 1종 대상자에 한해서 건강생활유지비²⁾가 실시됨. 그러나 위의 내용 등은 청소년미혼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임
- 최근에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mampan 카드가 추가로 지원됨.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소득, 재산기준 없으며, 청소년 산모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2) 건강생활유지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 시행에 따른 보상제이다. 1인당 연간 7만 2천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병·의원 및 약국 이용 때 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0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본인의 질환에 비해 무분별한 병·의원 이용과 약물 오남용 등을 막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1인당 월 6천원씩 수급권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다. 가상계좌에 적립된 건강생활유지비는 병원, 의원,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하고,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분기별로 해당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된다(허난영, 2013)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함. 지원 금액은 1회 임신 당 120만원 범위 내이며, 1일 10만원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함

〈표 4〉 고운맘과 맘편한 카드 이용 비교

구 분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지원대상	모든 산모	만 18세 이하 산모
지원금액	임신 1회당 50만원 이내 (다태아 임신 시, 70만원 이내)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이용한도	지원금 잔액 범위 내 사용가능	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분만 시 잔액 범위 내 사용가능)
신청방법	방문 접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인터넷 접수 (우리카드 홈페이지)
증빙서류	임신헌인서	임신헌인서, 주민등록등본
이용기관	고운맘카드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산부인과 병·의원 및 조산원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 병·의원
홈페이지	http://www.gounmom-card.com	http://card.wooribank.com

※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인 경우, 맘편한카드와 고운맘카드를 동시에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3만원의 초음파 검사비가 나왔다면 고운맘카드 6만원 결제, 맘편한카드 7만원 결제가 가능하다(허난영, 2013).

□ 교육지원

- 미혼모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빈곤층의 미혼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드는 비용은 미국의 경우 매년 400억 달러가 소요될 정도로 복지비용을 발생시킴(Klein, 2007)
- 미혼모의 교육단절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부담이 되므로 미혼모가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이후의 빈곤층으로 떨어진 미혼모에 대한 부양비를 비교하였을 때에 적게 소요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되는 것임(Brace & Hunt 2008; Haskins 2006; Kali & Danziger 2000)
- 청소년 미혼모를 일시적인 복지대상으로 바라보고 잠시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에 대

한 가치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자립지원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함.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예산 절감 효과 등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허난영, 2013)

○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혼모자시설 내 대안학교는 위탁형 대안학교에 해당됨.

- 2012년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4개, 울산과 부산에 각각 1개씩 운영되고 있음. 교과과정은 주 35-40시간 제공되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을 필수로 하여 40%를, 대안교과는 60%를 구성하여 운영됨
- 미혼모의 학습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대안학교는 시작자체로서의 큰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현재 대부분 위탁생들이 극히 소수여서 활발히 운영되고 없음
- 이는 위탁형 대안학교의 특성상 현재 재학 중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가장 큰 제약점이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이미 학교를 중퇴하거나 자퇴한 청소년 미혼모들의 경우 대안학교에서 교육이 제공되지 못함
- 학생 본인이 원한다 할지라도 가족들의 반대와 입소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위탁형 대안학교를 선택하지 않음

□ 심리정서지원

○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다양한 심리정서지원 중에서 학위논문위주로의 1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미혼모자시설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함

- 5개의 미혼모자시설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혼모자시설마다 프로그램의 구분에 대한 명시 등이 각기 달랐고, 분류도 제 각각이어서 기관의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 중 교양, 심리정서, 입양모와 양육모지원의 내용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표 5〉 미혼모자시설의 심리정서프로그램

기관	심리정서프로그램의 내용
A	• 교양교육: 일반교육 - 풍선아트, 수공예, 태교, 예절, 퀼트 등. • 심리정서지원: 심리미술치료 • 양육모 지원 : 물품지원, 기관연계, 자립지원, 교육지원, 산모도우미, 직업연계지원, 행사지원
B	• 교양교육 : 비즈공예, 종이접기, 퀼트, 노래교실, 태교음악, 컴퓨터활용 • 심리정서지원: 길위의 희망찾기(자아회복프로그램) • 입양모 지원: 입양모를 위한 상실감극복 프로그램, 진로를 위한 교육지원 상담 • 양육모 지원: 퇴소 양육모 자조 모임(2013) : 부모교육멘토링 프로그램, Good Family
C	• 교양교육:리본공예, 퀼트, 펠트 및 점핑공예, 손뜨개, 풍선공예, 십자수 • 심리정서지원: 상담프로그램: 개별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MBTI, 에니어그램) • 양육모지원: 양육모나들이지원사업,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D	• 양육모지원: 양육모 자조 모임 : 해피 맘 싱잉(행복한 엄마들의 노래)
E	• 교양교육: 실용영어, 독서토론, 악기(피아노, 기타, 플룻, 오카리나 등) 연주법을 배우면서 정서적 안정 및 태교, 리본공예*선물포장 • 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심리 및 진로검사 - MBTI 검사, 홀랜드 검사, 정신과상담, 신앙교육 • 입양/양육모지원: 아기장래결정집단 • 양육모지원: 부모교육
기관 별 비교 내용	■ 개별, 집단 상담, 심리 검사를 통한 심리정서 지원이 주를 이루었음. 즉, 심리정서 지원은 주로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 잘 나타나지 않음. 기관의 현 상황, 외부 지원 등에 따라 프로그램은 매우 유동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음. 대표적으로 입양과 양육집단에 대한 개입은 상실감 완화 프로그램, 양육모 교육, 아기장래결정프로그램 등이 있었으며, 그 밖에 미술, 음악 등 예술 치료, 교양 교육 프로그램 다양(취미, 공예품 등), 문화체험 활동 등이 있음. 일부 기관에서는 퇴소자들을 중심으로 한 양육 미혼모 자조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음. ■ 시설 간 편차의 편차는 프로그램의 종류나 수준 등이 달랐으며,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들이 있음. 심리정서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개입방안에 대한 매뉴얼 작업과 동시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교육이 필요함

자료: 김지혜(2013)의 내용을 일부 재구성함.

제3장 미혼모자립고충과 해결대안: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³⁾ 분석 결과

제1절 양육과 보육의 고충과 해결방안

□ 양육과 보육의 고충

○ 양육에 자신 없어 함

- 주변에 양육을 도와줄 성인이 없고, 가족이 없는 청소년미혼모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양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함
-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못해서 자녀의 안전을 본의 아니게 위협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무엇보다 출산하자마자 아주 기초적인 양육기술과 함께 장기적으로 아동의 발달단계 따른 양육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됨

- ※ 이들이 엄마로 살아가면서 내가 키우는 게 맞나 이런 불안감이 있고 친정이고 시댁이면 물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엄마가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키우면서 자신이 없어 해요(연구참여자 라).
- ※ 부모 역할 미숙으로 어떻게 아이 기저귀 하나 갈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 할 것인가를 걱정이 많아요. 가령 아이가 다른 문제로 계속 울고 있어도 분유만 주면 괜찮은 줄 알고 계속 분유만 주는 미혼모 아이도 있을 정도로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연구참여자 다)
- ※ 보통 엄마들이 공동체생활을 하거나 비좁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놀 수 있는 환경이 안되고, 때로는 폭력이나 아주 심한 폭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나중에는 아동의 문제 정서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연구참여자 다)

3) 전문가집단인터뷰에 참석한 청소년미혼모 분과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본문에는 연구참여자 가-바로 구분으로 표시되었음.

참여자명단	구분	소속기관	직위
목경화	연구참여자 가	미혼모자지원민간기관	대표
허난영	연구참여자 나	미혼모자지원민간기관	사무국장
여운자	연구참여자 다	미혼모자시설	사무국장(사회복지사)
김남희	연구참여자 라	미혼모자시설	직원(사회복지사)
이미정	연구참여자 마	정부산하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지혜	연구참여자 바	대학교	교수

○ 아이를 맡길 데가 없음

- 자녀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임
- 가족이나 친척들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직접 보육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개인생활이나 취업교육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움
- 미혼모지원기관의 실무자들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늘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데 초등학교 방과 후 시간과 비교할 때 현재 아이돌보미 시간은 좀 더 늘려야 함

※ 항상 이 엄마가 공부를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위한 무슨 준비 하거나 할 때마다 양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한 10명(미혼모)이 한다고 하면 사이즈가 삼십이 됩니다. 아이 10명, 자원봉사자 10명이 항상 동반을 전제로 해요(연구참여자 나)

※ 3개월쯤 되면 교육 받아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더 키워서 오라고 안 받아요. 적어도 아이가 일 년, 6-7, 8개월 되어야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년까지 맡길 때가 없어서 고민하죠(연구참여자 다)

※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일년에 480시간인데, 초등학교 방과 후 시간은 720시간입니다. 그래서 720시간을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비용도 단계별로 있는데, 보통 수급자 한부모 경우에 천원의 부담이 있는데 사실상 하루에 8시간 정도 아이돌보미를 썼을 때 8천원이 적지 않은 돈이라 엄마들이 비용의 부담도 느끼죠(연구참여자 나)

□ 양육과 보육고충의 해결 대안 1 : 양육 멘토의 발굴과 연계

○ 청소년 미혼모의 양육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조모임 등을 활용한 부모교육이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됨

-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부모교육과 상담을 자조모임에서 제공한 상담자는 미혼모들에게 좋은 양육 멘토가 되어서 대리부모로서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지역의 종교단체와 지역주민들을 활용하여 그들의 인력을 재창출하는 방안으로 지역의 보육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보육이용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이때에 양육멘토나 보육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교육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이 강조됨

- ※ 부모교육 안에 자기를 보는 시간을 갖는 상담이 점점 5년째 되면서 변화가 보이고, 교수가 바뀌지 않고 계속 상담하고 집단 프로그램 해주고. 그 분을 어떤 멘토처럼 느끼면서 부모교육에 관해서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구나 하는 심리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요. 살면서 멘토가 될 꾸준히 지지해 줄 사람 말입니다(연구참여자 라)
- ※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동네 교회, 성당 같은 많은 종교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정년퇴임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동네 보면 돌아다니시는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저는 실버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혼모 분들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 가)
- ※ 우려되는 것은 자원봉사자나 그런 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연구참여자 바)

□ 양육과 보육고충의 해결대안 2 : 기존 전달체계의 활용

- 자조집단이나 지역사회의 보육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지역적 편차나 자원의 연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그러므로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함
 - 무엇보다 양육과 보육이 필요한 시점은 시설에서 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는 때이나 이때 실질적으로 보육이나 양육서비스를 받는 것은 이중수혜로 되어서, 수급조건이 박탈되거나 지원수급비가 상당히 감소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
 - 기초생계비 항목을 보면 생계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가 있는데 양육, 보육의 항목이 따로 없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수당과 양육비 수당을 생활비로 보고 있기 때문임
 - 현재의 정책지원으로는 양육과 보육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이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기존의 전달체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인근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에게 방문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청소년미혼모들에게 기본적인 가사와 양육의 코치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 다문화 경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가사도 가르치고. 하는데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 코치나 코디네이터가 오셔서 아이 어떻게 양육하는지 가사는 어떻게 할지 코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 도입한다면 청소년 자립이 그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연구참여자 가)

※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산모도우미 서비스가 있는데, 이 또한 해산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이 중수혜라고 해서 서비스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기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실효성 아주 낮은 사업이고요(연구참여자 다)

□ 양육과 보육고충의 해결대안 3 : 미혼모 스스로 보육지원

- 미혼모들이 보육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미혼모들이 자신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본인들이므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받아서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함
- 기관에서 적극 수용하여 일부 기관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미혼모들이 공동육아 혹은 미혼모자시설이나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함께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으로 보육의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한부모들의 욕구도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음

※엄마들이 하는 말이 보육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기들한테 베이비시터나 나이 많은 언니들한테는 산모도우미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이 돈을 받고 기관에 있는 엄마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멘토 역할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연구참여자 다)

※싱글맘 협동조합 만들어서.. 목적은 일시 돌봄과 놀이가 가능한 실내 키즈카페를 엄마들끼리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미혼모 경우에는 직접적인 취업활동보다는 경험을 쌓는 실습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키즈카페를 통해서 지역사회 싱글맘도 함께 보듬고 지역주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연구참여자 다)

제2절 취업의 고충과 해결대안

□ 취업고충

○ 양육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계약직에 머물게 됨

- 자립지원을 위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는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막상 고액의 교육을 받았다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어 포기하게 됨

※한부모센터에서 피부미용 자격증반이 있는데. 비용이 200-300만원 정도 드는 수업을 다 받아서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취업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피부미용 관련 직업이 일하는 시간대가 주로 저녁시간, 주말이라서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연구참여자 가)

※청소년 미혼모들이 주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인데 주말에 일을 할 때도 애를 맡겨야 하는데 맡길 곳이 없어서 다 포기하게 됩니다(연구참여자 라)

○ 선부른 교육선택으로 교육불량자가 됨

- 교육불량자라는 공식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 선부르게 교육에 참여하다가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임
- 이렇게 될 경우, 정작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됨
- 청소년미혼모들에게 무조건 교육을 받도록 권유할 것이 아니라 진로 탐색이나 진로상담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일주일 정도 시범기간을 설정하여, 교육을 받아본 후에 교육을 계속 받을 것인지를 7일후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취업교육의 중도탈락과 실패율을 다소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임

※ 청소년 경우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패키지프로그램 하는데 단계별로 이수할 때 돈이 나오니까 엄마들이 용돈이 없다 보니까 교육의 목적보다는 용돈으로 받아쓰고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활동해야 인센티브 주다 보니까 적성 파악하기도 전에 상관없는 것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율도 낮고 대부분 중간에 실패하는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등록을 하고 제대로 참여를 안 하면 전산에서 교육불량자라고 뜬다. 그래서 막상 하고 싶은 것을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불량자라고 뜨는 것 때문에 자격이 박탈당하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연구참여자 다).

□ 취업고충의 해결대안 1: 일자리확대와 사후관리지원

- 최근에 취업이나 대학전형에 사회적 약자를 선발하는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고 최근 공무원시험에서 한부모 특별전형이 생겨났음.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혜택을 기업에 주는 것처럼 한부모를 고용하는 것도 필요함
- 취업사후관리가 필요함. 취업 후 아이의 보육이나 건강문제 등으로 긴급한 서비스가 필요할 때에 이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직업을 잃게 될 위험에 놓임
 - 6개월-1년 정도 직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간 동안 위기 시 자녀보육과 돌봄을 맡을 수 있거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취업사후관리지원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

※요새 학력이 대학 졸업장이 거의 고졸 졸업장이랑 같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직장을 가고 싶어하고, 더 스펙을 많이 쌓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성과를 보여줄 것이냐가 관건이고 또, 올해 어머니들이 한부모 특별 전형해서 공무원 시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장애인만 있었는데. 한부모 된 경력이 2년 이렇게 되어야 하긴 하지만. 미혼모 중에서 그렇게 되어서 공무원 합격한 분들 있습니다(연구참여자 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이 취업해서 일을 나가실 때 보육이 기본적으로 지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례에 나오신 분⁴⁾은 일을 하신지 1년이 되어 갑니다. 그 동안 활동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대신 일을 해주신 덕분에 이 분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죠(연구참여자 가)

□ 취업고충의 해결대안 2: 자립의 건넌목을 보충해주어야 함

-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생김으로써 지원이 감소하는 현행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기관에서는 자립을 독려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경제적 지원

4) [사례1] 주5일 근무할 수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으나, 아이가 수족구가 걸려서 1주일 동안 어린이 집을 갈 수 없어서 아이를 봐줄 분이 없어서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 두게 됨

[사례2]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분은 현재 9시 출근 8시 퇴근 2교대를 하고 있으나,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 방학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근무지(커피숍)에 자주 데리고 오다보니 식당 아주머니와 친하게 지내면서 식당 아주머니 쉬는 방에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함

※ 사례2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KB은행, 월드휴먼브리지3단체가 협력한 취업프로그램임 월드휴먼브리지에서 바리스타를 교육과 설비를 담당하고, KB은행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협회에서 미혼모당사자 선발해서 취업을 하게 하였음 이 한분을 취업시키기 위하여 협회 활동가 4명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힐 때 까지 돌아가면서 아이를 돌보거나, 취업하신 분이 근무를 하지 못 할 때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활동가들이 무상으로 커피숍에서 대타로 일을 하기도 함(목경화, 2013).

을 후원금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나 이는 특정기관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모든 미혼모들은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됨

- 수급을 탈피할 것인가? 아니면 수급에 머물 것인가? 그러므로 무엇보다 청소년 미혼모들에게는 이러한 건널목의 유예기간을 설정해주고, 일정정도 의료보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이 안정적인 소득수준에 이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열심히 하면 대학도 갈 수 있고 과장, 팀장도 될 수 있다 하는데 열심히 하고 급여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급여가 150만원 미만 선, 여기서 걸렸어요. 모든 지원이 끊기니까요. 급여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의료급여도 끊기고 내가 더 야근 하고 일해서 급여를 보존을 할 것인가 올릴 것인가에서 오는 갈등을 하게 되죠(연구참여자 다)

※ 아이를 키고 있으면 그래도 50만원 에서 70만원 정도 나오는데,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면 30만원이나 무일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지속적으로 직장을 갖고 일을 해서 계속 돈이 들어온다면 괜찮은데, 순간 내가 아프거나, 아이가 아픈 경우 지속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불안정해져서 힘들어하십니다(연구참여자 가)

제3절 학습고충과 해결 대안

□ 학습고충

○ 학습권에 대해 무심한 교사들

- 여전히 학교는 미혼모들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들의 교육권에 대해서 무심함. 미혼모학생이 학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학부모들의 심기를 불편해할 것이라고 전전긍긍함
-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습권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중단이 인권침해임을 선언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미혼모자시설 내에 대안학교를 통해 이들의 교육지속을 지원함
- 교육권은 우리국민의 가장 기본권이며,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미혼모는 자퇴권고 1순위임

- ※ 경기도 동구청 의정부는 화가 나서 선생님들이 전화를 합니다. 이 친구가 재학 중에 임신 했다고 하고 위탁교육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위탁 정식은 학교에서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모르고 애들은 청소년 상담센터나 쉼터 이런 데서 소개 받고 오니까요(연구참여자 라)
- ※ 아이들이 자퇴를 하고 나면 위탁교육을 받지 못하니 자퇴 후에 학교에 다시 복교신청을 받아주시고 아이들이 위탁교육을 받게 하면 어떨겠냐고 말씀을 드려도 학교에서는 복교신청에 대해서 부정적이시고 받아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연구참여자 라)
- ※ 교육부에 이야기를 하면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하고, 학교장님들은 학부모들이 반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연구참여자 가)

○ 실효성 낮은 검정고시비용

- 다른 지원비에 비하면 최대 154만원까지 검정고시비용을 지원해줌.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없음. 결국 학원에만 지원되는 검정고시 비용이기 때문에 미혼모자시설 대부분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은 자원봉사자나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게 됨

- ※ 저희는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임신부니까 또래가 있는 학원에 안 가려고 합니다. 이 지원비는 당사자한테 들어오는 비가 아니라 학원에 갔을 때 수강비로 학원에 직접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처음에는 시설에서도 검정고시 수요자가 많으니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지원비가 학원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것으로 책정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임신 초기에는 학원에 다니지만 점점 표시가 나면서 몸도 불편하고 주위 시선도 있고 해서 다니기 힘들고, 안 가려고 합니다(연구참여자 다)

□ 학습고충 해결대안

- 청소년 미혼모가 여전히 임신이라는 이유로 자퇴를 권고당하거나 대안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학교장이나 학교, 혹은 그들의 부모들로 인하여 박탈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이미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소송을 통해서든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서 범국민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함
- 현재로서 가장 수월한 대안이 되고 있는 검정고시는 인근의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생들에게 학교나 기관의 장학금을 후원해주고, 이들이 멘토로서 학업을 지원해 준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함
- 대안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 교사들의 확보가 필요한데 퇴임한 교사들의 인력활용을 적극 강구하는 방안이 나옴

- ※ 자퇴를 권유하는 그 부분이 많이 제제가 되어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안 지키는 거죠. 그게 사실 교육권 침해로 법정소송을 하면 학교가 무조건 집니다. 그걸 학교도 아니까 우회적으로 압력을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피켓 들고 나가는 등 사회적 액션을 취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연구참여자 마)
- ※ 후원자가 E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학교에 장학금 600만원 기부해서 받은 장학생 4명이 저희 집에 와서 검정고시 교육을 3년간 해오는데 백프로 합격해요. 거의 1:1로 하니깐 학력이 쑥쑥 올라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다)
- ※ 요즘 교직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많잖아요. 그런 자원을 활용하면서 대안을 만들면 무조건 정부에 요구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연구참여자 다)

제4절 건강고충과 해결대안

□ 건강고충

○ 청소년 미혼모 뿐 아니라 자녀도 건강이 취약함

-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 뿐 아니라 이미 취약한 원가족에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 이미 출산 전부터 건강상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경우들이 많음
- 임신 중에도 양육을 할 것인지 입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압박감 등으로 건강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청소년 미혼모들이 산전관리가 취약하다보니 저체중이나 미숙아를 출산하는 비율이 높고 자녀들도 면역력이 떨어져, 잦은 병치레를 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함

- ※ 원가족과의 단절 사례가 많죠. 보통 빈곤이 대물림 된다고 하는데 빈곤과 건강의 악화가 동일선상에서 따라다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몸이 더 약하고 그래서 일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예요(연구참여자 나)
- ※ 취업 교육 받다가도 아이가 많이 아프고 유행성 전염병에 대체로 많이 걸립니다. 그럼 어린이집도 못 갑니다. 오지 말래서요. 그리고 면역력이 낮아서 쉽게 낫지도 않고. 엄마들도 건강이 취약하니 아이들도 같이 잘 아픕니다(연구참여자 나)

○ 의료서비스자격조건이 엄격함

- 청소년 미혼모들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여 의료급여 1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음. 가족과 단절되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녀의 의료비 충당을 본인이 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함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들에 대해서 지역의 보건소에서 영양프로그램은 혜택을 받을 경우, 양질의 식품을 제공받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됨
- 하지만 이것도 소득을 기준으로, 자녀의 건강상태가 아주 취약한 경우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청소년미혼모는 많지 않음. 자녀들인 경우, 아주 취약하지 않더라도,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장기적인 건강발달을 충분히 위협한다고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범위를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엄마들 가장 많이 의존하는 부분은 세대분리하고 수급 받아서 의료 급여 1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마들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부양의무자기준이나 일부 소득 있는 엄마의 경우 조건부 수급 등으로 2종 받기도 합니다. 1,2종 차이가 크죠(연구참여자 나)

※ (보건소영양플러스 서비스의 경우) 6개월-1년 지원해주고 대상자는 아이들의 건강을 책정하는데 1-100 단계 나누는데 백으로 갈수록 좋은 건데요 1-10해당대상으로 지원해줍니다. 건강이 아주 취약해야 합니다. 그 정도의 대상자만 혜택을 주니깐 평균이 50인데 10까지만 하니까,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득과 아이의 건강상태를 다 보는데 소득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에서 법정으로130을 봐서 그 대상자의 건강은 10인 해당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입니다(연구참여자 가)

○ 필수 예방접종이 제한되어 있음

- 어린 자녀들에게 예방주사는 매우 필수적임. 예방접종은 필수와 선택접종으로 나뉘게 되는데 어린 자녀들에게 걸리면 치명적인 뇌수막염을 예방하는 접종도 선택으로 구분되어 있음. 그러나 1회 접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3-4차 접종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선택접종을 받으려면 추가의료비 지출은 1회당 10만원, 총30-40만원이 더 필요함
- 월 생활비 30만원-50만원 정도로 생활해야 하는 청소년 미혼모들에게는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이 됨. 청소년미혼모들은 선택을 모두 필수로 전환하기보다 선택 중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고가인 선택접종을 필수로 전환해주는 것이 필요함

※ 아이들이 전염병 많이 걸리는 것도 표준 예방 접종도 필수만 되어 있는데 필수가 아닌 접종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못해서 가령 뇌수막염, 로타바이러스 접종을 하면 뇌수막염 걸리는 확률 낮는데 장염, 폐렴 등은 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한번에 10~15만원인데 3~4차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혼모 기초생활수급권이라 월 생활비가 많아야 70만원이고 아니면 30~50만 원 선으로 가용할 수 있는 생활비가 그 정돈데 이 10만원을 접종으로 맞는 것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연구참여자 가)

※ 엄마들이 선택접종 전부를 필수로 못해준다면 로타바이러스와 수막구균 두 개 라도 해달라고 말해요. 비싸기도 하고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고, 이것으로 인해 어린이집도 못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해요(연구참여자 나)

□ 건강고충 해결 대안

- 건강고충은 의료서비스 비용의 발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등이 중점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 보완되고, 개선될 수밖에 없음
- 청소년의 자립이 필요한 일정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의료보호 1종으로 청소년 미혼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선방안이 요구됨
- 수당처럼 평생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지원을 하면 평생 건강의 문제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개선이 요구됨
- 일정기간 의료서비스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일 필요함

※ 양육수당도 주는 데 이것은 지속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지원이라서 계속 요구를 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당처럼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니까 정책기조로 봐선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연구참여자 마)

※ 소아 협회나 이런데 곳이란 결탁이 되면 소아과 의사가 다 가입이 되어있는데 전국구 어디를 가거나 받을 수 있게 하면 접근성의 문제 해결할 수 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일 가깝고 자주 가는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고 교육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민간의 병원과 MOU를 맺어서 선택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가)

제5절 심리정서고충과 해결대안

□ 심리정서고충

○ 가족단절로 인해 심리정서 문제가 심화됨

- 청소년 미혼모들은 시설에 있는 동안에도 가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다. 이후 기관을 퇴소한 이후에 이들의 고립감은 더욱 가중됨
- 특히 시설에 입소하는 미혼모들의 경우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취약한 경우가 더욱 많은 것이 확인됨

※출산 이후 상담해보면 뭐가 힘들냐고 하면 입양 보낸 친구는 아이, 이런 거 생각했는데 여럿한테 물어봐도 제일 힘든 것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연구참여자 라)

※되려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시설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편견 때문에 집에서 출산보다는 시설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오히려 성폭행이나 성매매 친구들이 더 많고, 사회적 편견이나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조금 나아진다는 측면도 보이고, 오히려 한부모 가정이거나 정말 취약한 친구들이 시설 찾는 게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라)

○ 단기상담 위주로 제공됨

- 미혼모자시설에서 미혼모들에게 제공되는 상담은 단기상담인 경우들이 많음. 무엇보다 이들이 출산 전에는 기관에 머물지만 출산 이후에는 일주일 이내로 퇴소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임
- 과거보다는 심리치로나 상담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비용지원은 되고 있지 않음
- 미혼모기관의 프로그램들이 미혼모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강사중심의 일반인 대상의 상담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혼모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거쳐 가기는 하지만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상담수준에 머물기 쉽다고 지적됨
- 대상에 따라서 장기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지역사회 미혼모가 대상이기 때문에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미혼모의 문제가 자녀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 미혼모에 대한 상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경

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주기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시설 같은 경우 정부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치료지원 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됐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7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일년에 한 2000-2500만원 정도 자부담 들어서 하는 상황입니다(연구참여자 라)

※전국민 대상으로 해서 효과 있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해도 효과 있을법한 프로그램을 미혼모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것이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이 이들의 내면을 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치료 경우에는 저도 해보고 했지만 50회 정도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분노와 적개심과 이런 게 애도가 되고 풀어지는데 보통 예산문제도 있고, 기간의 문제도 있고 실적도 빨리 내야 하니 십 회기 정도, 길면 이십 회기 정도 합니다(연구참여자 나)

※양육 하면서 4-5년 되다 보니 이 친구들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만이 아니라 아이와 맞물려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설이나 지역사회에서 아직 많이 다루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나)

□ 심리정서고충의 해결대안 1: 자조모임 활성화

○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질적인 집단 안에서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지지 등을 제공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최근 퇴소한 미혼모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자조모임이 활성화되면서 그 효과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

- 단순한 자조모임도 충분한 가치가 있겠지만 자조모임을 통해서 부모상담이나 교육, 의료상담 등이 같이 포함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친구들한테는 공동 관심사가 부모교육이었던 것 같고, 지금 7가정이 하고 있는데, 최고 나이 많은 아이가 여섯 살부터 세 살까지의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모여서 받고 있는데 그 안에 자기를 보는 순간이 실은 진짜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 받고 더 알고 나니 더 무섭다고 하지만 그것을 거쳐서 나아갈 길이 더 보인다고 합니다(연구참여자 라)

※주말마다 자조모임 가지면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경제적 지원보다도 이런 부분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연구참여자 다)

□ 심리정서고충의 해결대안 2: 사후관리

○ 자조모임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라면, 기관과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정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자신이 머물렀던 시설인 경우들이 많음

- 지역사회 내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한부모지원센터 등에 사후관리를 의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기관들이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지원도 필요함

※저희가 퇴소한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연결은 하는데 그쪽은 또한 시설에서 퇴소한 친구들 심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꼭 퇴소 이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쪽으로 연결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기관에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다)

※퇴소 후에도 기관에 돌잔치 같은 행사가 있으면 오는 가정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도 친정 같은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친구들한테는 연결고리가 되는 구심점이 필요하고, 미혼모의 입장으로 아이를 낳게 된 것은 안 좋은 추억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변화되었던 기관,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기관의 독자성이나 역량을 키워주면 좋겠어요(연구참여자 라)

□ 심리정서고충의 해결대안 3: 역량강화지원

- 심리정서문제는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와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의 대학이나 학교들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은 애로점과 사례들을 나누면서 역량강화를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나옴
- 이를 위해서 주말에 주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경우 지역주민센터나 지역의 도서관 등이 주말에 개방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됨

※여러 가지가 통합적으로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심리정서에만 초점을 두었다기 보다 기본적인 건강, 정신건강, 양육교육, 방문지도, 학습지도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모델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인상 받았습니다. 애착이론 등 여러 이론 등을 기반으로 하고 그런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해서 그 안에서 다차원적으로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역할들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대학, 병원, 학교들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 모델이 개발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연구참여자 바)

※현재 당사자로서 거대한 성공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다듬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고, 아이 잘 키우는 어머니들이 와서 나는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내가 어떻게 미혼모가 됐고, 또 직업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떻게 직업을 갖게 되었다는 것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비당사자 한부모분들은 미혼모는 아니었지만 미혼모가 될 뻔 했던 분들, 이혼을 하셔서 한부모가 된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참가자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가자분들이 ‘저런 분들이 저렇게 키우니까 나도 키워볼까?’ 하는 그런 자신감이나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가)

제6절 기타

□ 성교육 및 피임의 필요성

- 미혼모지원기관 실무자들이나 미혼모자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서는 이들의 재임신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을 매우 강조함
 -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성관계시 피임을 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피임을 대체로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11)
 - 늘 너무나 반복되어 식상한 대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여전히 실시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임
 - 실질적인 피임방법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성과의 관계에서 피임을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관계로 머무르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심리적인 위축감이나 자존감이 낮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미혼모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이며, 점차 더욱 강화되고 있는 서비스가 성교육임⁵⁾. 성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의 임신 자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재임신도 예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교육의 강화와 확대 등은 매우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재임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이들 피임을 꼭 시키라고 말씀 드리고 저희도 아이들이 퇴소하기 전에 피임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루프는 최소 2달 후에나 가능해서 임팔란트는 최소 28일 이후에 가능해서 해주려고 하지만 28일 전에 입양시켜버리는 아이들은 기관을 떠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다시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연구참여자 라)

※청소년 특징은 심대일수록 임신 사실을 잘 모릅니다. 보통 8-9개월 돼서 알고 낳을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낳는 순간 임신했다는 것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연구참여자 나)

※이십 대보다는 십대가 재임신율이 100%입니다. 남자가 싫어한다든지 남자에게 굉장히 끌려다니는 입장이고요. 십대나 청소년은 그런 차원으로 다루면 안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것까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라)

5) 청소년의 임신율을 줄이기 위하여 연방정부의 CAPC(Canada Action Program for Children)와 CPNP(Canada Prenatal Nutrition Program) 기금에 의해 프로젝트 수행. 전체 목표는 가능한 많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청소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로서 십대 임신율을 낮추는 것. 주요 내용은 적극적 행동(pro-action), 임신연기(postponement), 준비와 지지(preparation/support). 미혼모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성 자체보다는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발달 과정 성취(자아형성, 유연성을 기르는 것 등)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4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 미혼모지원민간기관의 실무자들과 미혼모자시설의 사회복지사, 미혼모연구자들이 청소년미혼모의 자립의 고충을 양육과 보육, 취업교육, 학습, 건강, 심리정서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청소년 미혼모의 가장 취약성은 가족과 단절됨으로서 오는 심리적 사회적 자원의 취약성과 학업수행과 취업, 양육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미혼모들과는 다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 공통적으로 취업과 교육을 통한 자립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양육기술을 가르치고, 부모교육을 지원하는 것, 또한 취업과 교육의 지속을 위해서 보육이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그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던 건강의 고충은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모의 자녀들에게도 큰 것이어서 이들의 건강문제도 자립의 큰 걸림돌이 됨을 알 수 있음

제2절 결론

- 첫째, 양육과 보육은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으로 연계망이 취약한 미혼모들에게 매우 절실한 것으로서 취업과 보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서비스를 지원한 것과 같이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해 가사 및 양육코치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비공식적인 자원으로서 부모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친정엄마 맺어주기, 외할아버지 만들기 등의 부모멘토의 연계가 일부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 실효성도 있으므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 긴급하게 자녀돌봄을 해줄 수 있는 지역사회인력을 활용한 지역보육 네트워크의 구성과 미혼모 스스로가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둘째, 취업교육은 무조건 교육에 참여하는 기존의 방식을 지양하고, 취업 교육 전 충분한 진로탐색과 진로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취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임
 - 또한 취업 이후에는 6개월-1년 동안의 취업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서 양질의 취업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셋째, 학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임신으로 인한 자퇴권고가 만연한 학교현장에 대해서 강경한 사회적 옹호활동을 하는 것이 요구되며, 현재 진행되는 대안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안학교입학자격조건의 완화와 학생 수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입장이 분명해져야 함
 -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현행 학원에 지원되는 최대 154만원 검정고시지원비용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기관의 자원봉사자들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후원하고, 이들이 학습지원을 하는 방안도 가능함
- 넷째, 건강은 양육, 보육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기본적 요건이기 때문에 청소년 혼모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예방접종과 영양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적극적으로 지역의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약회사 등의 후원처를 개발하여 자녀들의 예방접종이나 건강관리를 지원해야 함
- 다섯째, 심리정서지원을 위해서는 미혼모자조집단과 미혼모자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후관리의 강화가 해결대안으로 제기됨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7)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서울:국가인권위원회
- 김은지.장혜경. 이미정. 최인희, 여유진(2011). 청소년한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자립지원방안연구. 서울:여성가족부
- 김지혜(2013). 청소년미혼모 심리정서프로그램. 아산미래포럼 내부자료.
- 김혜영.이미정.이택면.김은지, 선보영, 장연진(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서울:여성가족부.
- 목경화(2013). 청소년 혼모 취업지원서비스(사례중심). 아산미래포럼 내부자료.
- 백혜정,김지연,김혜영, 방은령, 김현주(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2009) 보육실태조사. <http://stat.mw.go.kr>
- 여성가족부(2005) ‘미혼모부자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 여성가족부(2011). 2011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서울: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서울:여성가족부
- 여운자(2013). 청소년미혼모 양육 및 보육지원 서비스. 아산미래포럼 내부자료.
- 허난영(2013). 청소년미혼모 건강지원 서비스. 아산미래포럼 내부자료.
- Brace, A., Hall, M., & Hunt, B.(2008). Social, economic and health costs of unintended teen pregnancy: The Circle of Care Intervention Program in Troup County
- Kali, A., & Danziger, S. (2000). How teen mothers are faring under welfare reform. *Journal of Social Issues*, 56, 775-798.
- Klein, J. D.(2007). Teen Pregnancy Remains a Problem in America, Teen Pregnancy and Parenting, Lisa Frick(ed). MI:Greenhaven press.

[청소년 미혼모 분과] 사업 제안

ARCON
arts & community network

청소년 미혼모 분과 사업제안서 전체 프로세스

STEP.1 환경분석

1. 사회 이슈
2. 정부 정책
 -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 주요 부처별 정책
3. 주요 통계 및 현황
 - 출산 현황
 - 한부모가족 현황
 - 입양 및 유기·위탁 현황
 - 인공임신중절 현황
4. 핵심 과제 도출

STEP.2 핵심과제 검토

1. 건강
 - 임신 중 건강관리
 - 출산 후 신체적 건강관리
 - 출산 후 정신적 후유증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2. 자립과 양육
 - 양육
 - 직업교육
 - 경제활동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3. 교육
 - 학업 지속 여부
 - 교육 지속 유형 및 중단 사유
 - 향후 학업 계획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STEP.3 프로그램 제안

1.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self-help 집단
 - WE(WISH&ENJOY)
1. 키즈카페
2. 청소년 미혼모 교육 지원



* index

청소년 미혼모

- I. 환경분석
 - 1. 사회 이슈
 - 2. 정부 정책
 - 3. 주요 통계 및 현황
 - 4. 세부 핵심 과제 도출



* index

청소년 미혼모

- I. 환경분석
 - 1. 사회 이슈



1. 사회 이슈

청소년 미혼모의 출생 및 낙태, 영유아 유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립의 어려움, 정신적 후유증 치료 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음

2013년 ~

“혼외 출생 증가, 영유아 유기 늘어”

- 01. 15 불법입양 한국 영아, 국내 송환 가능성 커져
- 02. 05 ‘입양특례법의 그늘’ ‘대형마트 신생아 유기
10 영아살해, 사해유기 20대女 항소심서 형량 ↑
18 갓 낳은 아이 마당에 묻으려던 20대 미혼모 입건
- 03. 10 31개월 된 아들 살해 뒤 자살기도 30대 미혼모 검거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했던 임신 33주의 임신부 사산
- 04. 07 미혼 산모에게 입양전 산후돌봄 비용 지원
14 서울 베이비박스에서 버려진 아기 3년새 184명
- 05. 07 2살 아들 모텔방에 버려둔 채 PC방 전전한 10대 엄마
10 지난해 국내외 입양 23% 줄어.. 입양특례법 영향
13 미혼모 홀로서기에는 인식
23 낙인 찍고 손발 묶는 사회 편견에 갇힌 미혼모
24 청소년 한부모 낙태 비율 10명 중 2명꼴
- 07. 01 서울시, ‘임신부터 2세까지’ 가정방문 건강관리
04 대낮 갓난아기 지하철역에 버린 20대 미혼모 입건
07 입양홍보회 설립자 모리슨, 입양특례법 재개정 촉구
10 미혼모 시설에 영아 버리고 달아난 20대 입건
하루 빵 하나로 사는 미혼모, 편견 없어야...
18 영아 살해 20대 미혼모 집행유예
- 08. 22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갓난아기들
27 작년 혼외 출생 1만명 넘어...신생아 100명 중 2.1명
포용대책 없나
- 09. 13 13세 미혼모 끔찍한 ‘영아 살해 유기’..창밖에 던져

- ✓ 입양특례법의 영향으로 아동이 유기되는 사례가 급증한다고 지적함*
- ✓ 서울 베이비박스에는 지난 3년간 약 280명이 들어왔으며 그 중 약 200명은 최근 1년 새에 들어왔음
- ✓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때 적절한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및 사회적 지지체계와 핫라인이 필요함
- ✓ 2012년 혼외 출생아는 1만 144명으로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으며 10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해 자립의 기회마저 갖기 어려운 실정임
- ✓ 청소년 미혼모의 영아 살해, 자살 등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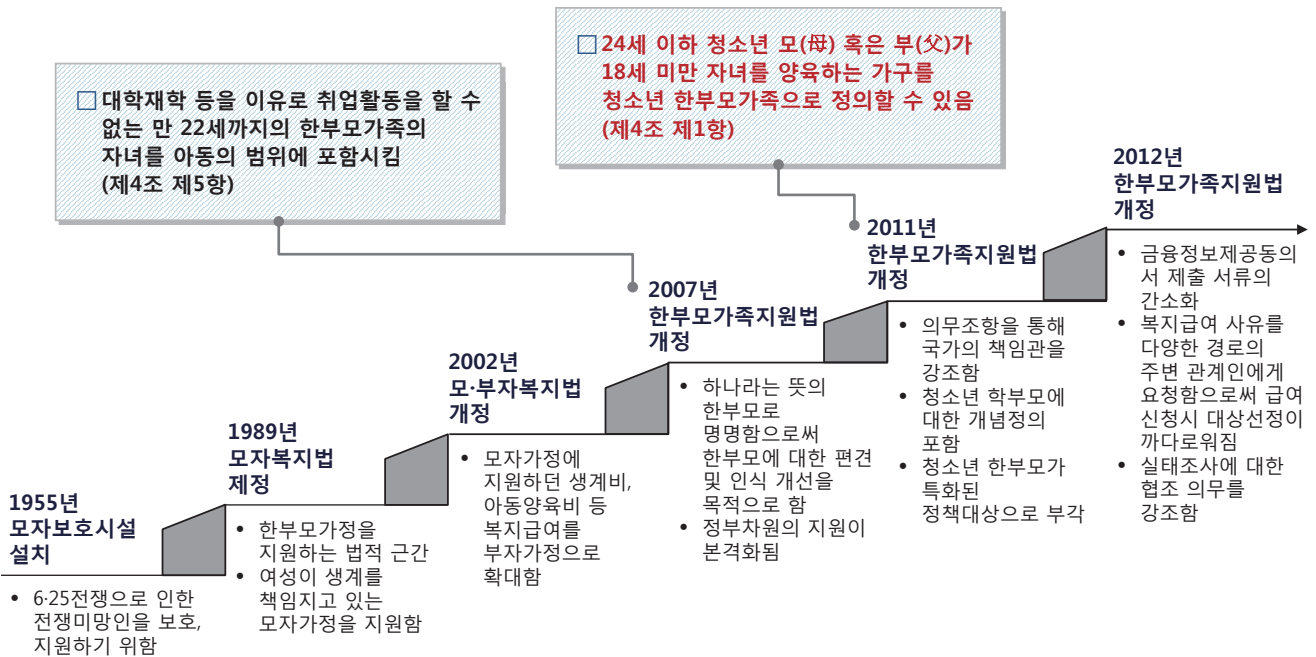


청소년 미혼모

- I. 환경분석
2. 정부 정책
 - 2-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 2-2. 주요 부처별 정책
 - 2-3. 결론 및 시사점

2-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점차 발전하였으며, 2011년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서 '청소년 한부모'가 특화된 정책대상으로 부각되었음



2-2. 주요 부처별 정책 ①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법령으로 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시행 부처로서 청소년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크게 양육지원과 자립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 개요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

2 주요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아동 양육비(만 12세 미만 아동, 월 7만원), 교육비(중고등학생 자녀 연 5만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 아동 양육비(아동 1인당 월 1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 학비(입학금, 수업료 실비), 자립지원촉진수당(만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경우 자립활동시 월 10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1인당 대여한도액(무보증 1,200만원, 보증 2,000만원, 담보 5,000만원)
- 주거지원 서비스, 권역별 지원기관,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3 예산

여성가족부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총 550억3400만원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487억4400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5억41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37억49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36억원
저소득한부모가족 대출지원	4억원
가족역량강화지원	37억5400만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15억1600만원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79억4500만원

2-2. 주요 부처별 정책 ②교육부

교육부는 학생 미혼모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1 개요

교육부는 청소년 미혼모가 올바른 교육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개입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국 10곳의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주요 지원 내용

- **전국 청소년 학생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
 - 미혼모 보호시설에 교육기능을 부여해 입소 기간 동안 받은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함
 - 서울(나래대안학교), 부산(마리아모성원, 사랑샘), 대구(대구 헤림원), 인천(바다의별학교), 경기(고운학교, 동방누리학교), 강원(마리아의집), 충북(충북자모원), 제주(애서원)
- **교육권 보장 노력**
 - 학생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되며 이의 내용을 학교 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라고 지도함
 - 학교밖 미혼모의 재입학 절차 및 학생 미혼모의 위탁교육 등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안내를 권고함

3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운영방침

대상	•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중 임신으로 인하여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 미혼모 • 지방소재 학교 학생의 경우는 해당 교육청이 인정하면 위탁 교육가능 • 퇴학·자퇴·휴학 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 교육 가능
위탁 절차	• 학생의 원적학교에서 해당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위탁 교육 추천(전화, 공문)
학적	• 원 소속 학교(중3,고3의 경우, 위탁학생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재적 학교의 졸업장 가능)
출결/성적	•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취득한 것을 재적 학교에서 그대로 인정
교육 과정	• 교육과정은 중학교 주당 33시간, 고등학교 주당 35시간 / 보통교과 40%, 대안교과 60%
위탁 기간	• 재적 학교장이 위탁 요청한 기간, 위탁기간 만료시 원적학교에 복귀

2-2. 주요 부처별 정책 ③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시행부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보호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취약가족 지원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음

1 개요

보건복지부는 평생복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 복지 가정 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미혼모의 보육, 임신 출산 지원, 취약아동 보호체계 지원, 보건 의료 지원 등을 하고 있음

2 주요 지원 내용

- **긴급지원**
 - 긴급생계지원, 장제급여(수급자 사망시 장례비용 50만원 지급)
- **소득지원**
 - 생계급여(1인당 약 14만원 정도)
- **주거지원**
 - 현금 및 현물급여(시설입소자는 제외)
- **자립지원**
 - 자활급여, 자산형성지원, 생업자금 융자
- **의료지원**
 -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½종 분류, 건강보험료 지원
- **양육(교육)지원**
 - 맘편한카드,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산급여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미혼모) 유형별 제공 서비스

시설 유형 (보호기간/연장기간)	서비스 내용
미혼모자시설 (1년/6개월)	• 숙식 무료 제공, 분만의료 혜택 • 자립 지원: 직업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2년/1년)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2년/6개월)	• 숙식 무료 제공 • 자립 프로그램 실시
모·부자 보호 시설 및 모자 자립시설 (3년/2년)	• 주거 제공(주,부식비 개인 부담) •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 심리 정서적 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 준비 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2-3. 정부 정책 - 결론 및 시사점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정부 정책은 지원이 부족하고 각 부처 간 협력 미흡하며 양육·자립의 어려움, 신체적·심리적 건강 지원, 학습권 보장 등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함

결론 및 시사점

정부 부처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지원서비스 마련

-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 아동 양육,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와 규모의 실효성이 강화되어야 함
- 청소년 미혼모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부재하여 통합지원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간 합의 부족으로 청소년 미혼모를 지원함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함
- 각 부처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업무 공유 및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지원서비스가 필요함

양육, 자립의 전방위적인 맞춤형 지원 제도 필요

-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주거·교육·양육·자립·위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청소년 미혼모의 대부분은 임신 또는 출산과 동시에 학업을 포기하므로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갖기 어려움
- 직업과 경제력 부재로 인해 안정된 양육과 취업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미비함
- 양육, 교육, 취업 등 전방위적인 맞춤형 지원 제도가 필요함

청소년 미혼모와 태아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지원 필요

- 출산전·후 의료보호 및 양육 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치료 등의 지원이 부족함
- 임신 사실 인지 부족, 엄마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양육방법 훈련 부족, 성장과 영양의 불균형 등에 따른 엄마와 태아의 신체적 건강 악화를 초래함
- 관계의 단절과 안정되지 않은 주거환경,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소외감 높고 자아존중감 낮음
- 청소년 미혼모와 태아를 위한 초기 양육지원, 의료보호 확대, 심리/정서적 지원 마련이 시급함

학교 복귀 및 학업 지속 등의 학습권 보호

-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이원화된 사업 진행으로 혼선을 빚고 있으며, 교육부의 확고한 정책 마련 부재,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대부분의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중단함
- 청소년 미혼모를 향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함께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안교육 위탁 확대, 중장기 사업운영계획 등을 마련하여 학습권을 보호해야 함



청소년 미혼모

I. 환경분석

3. 주요 통계 및 현황

3-1. 출산 현황

3-2. 한부모가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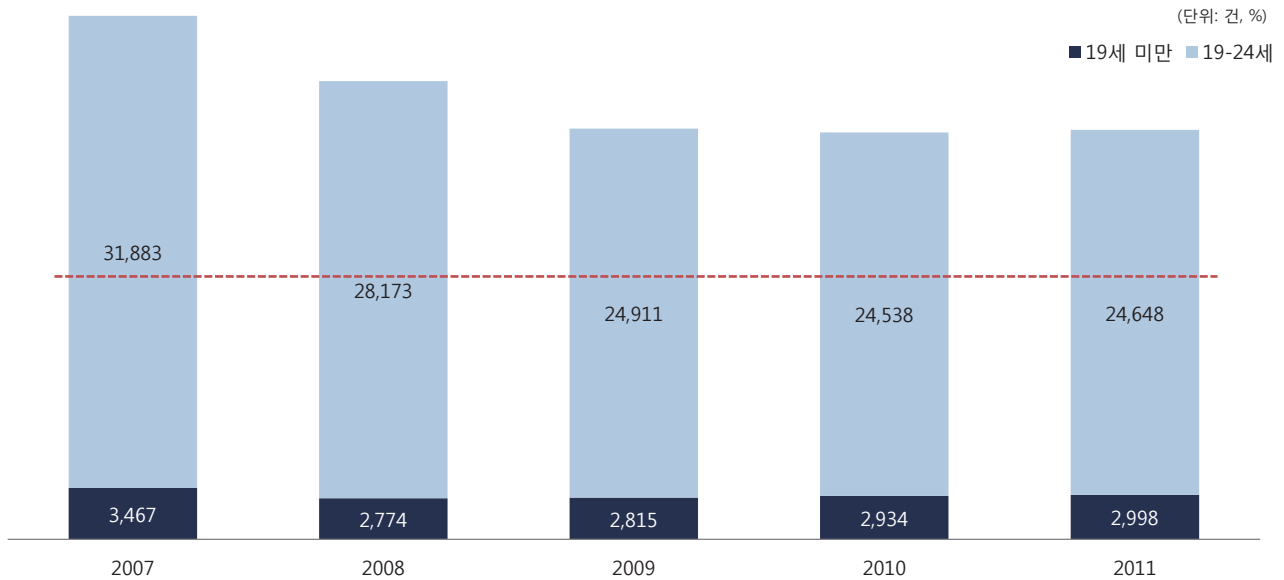
3-3. 입양 및 유기·위탁 현황

3-4. 인공임신중절 현황

3-1. 출산 현황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나타난 모의 연령별 출산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출산 건수는 평균 약 29,000건이며 전체 여성 출산율의 약 6.4%를 차지하는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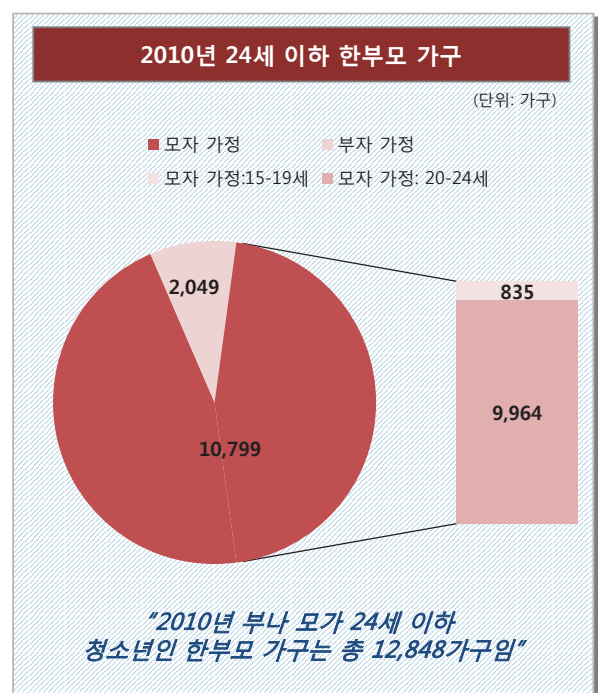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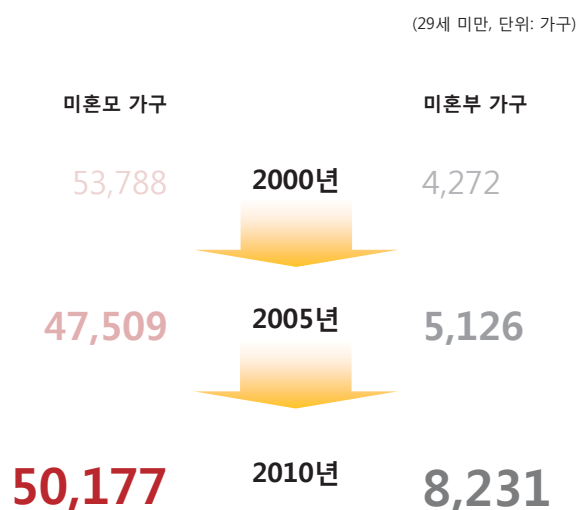
*"청소년의 분만건수를 보여주고 있을 뿐 혼인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청소년 미혼모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3-2. 한부모가족 현황

청년세대 한부모 가구는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 가구 중 모자가정은 10,799가구로 전체 청소년 미혼모는 일만 여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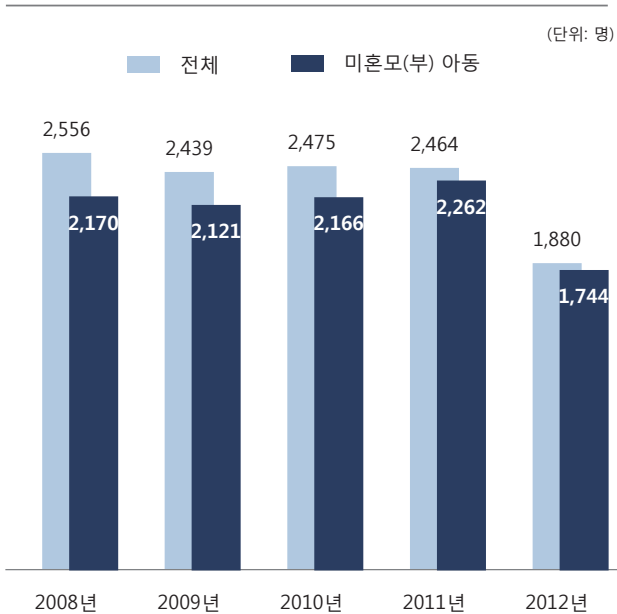
청년세대 한부모가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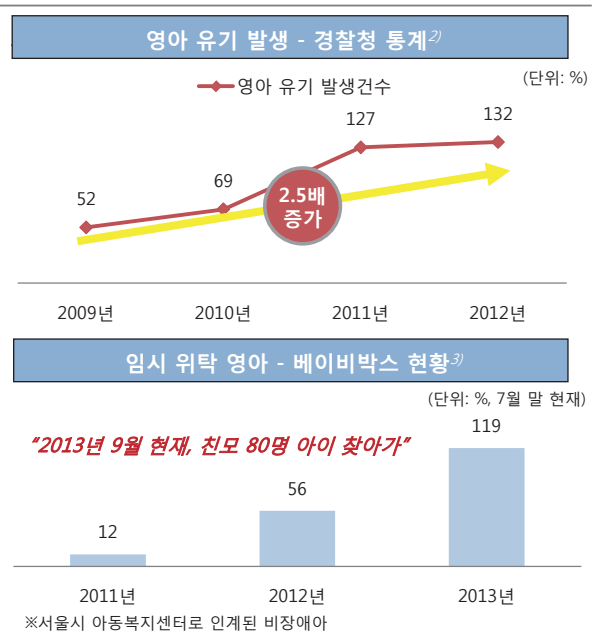
3-3. 입양 및 유기·위탁 현황

국내외 입양 추이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 입양의 80~90% 이상이 미혼모(부) 아동이 차지하고 있으며, 영아 유기·위탁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입양 현황¹⁾



연도별 영아 유기 발생건수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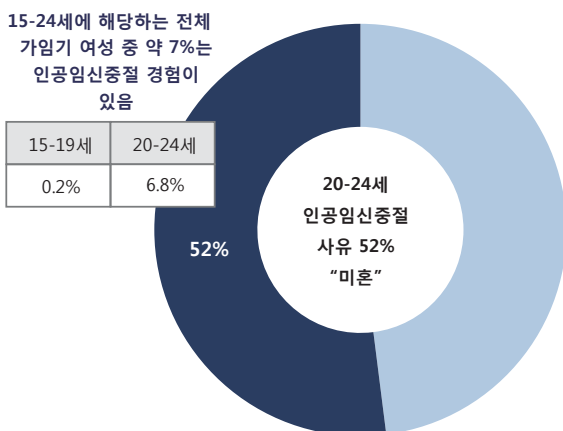


1) 보건복지부(2008, 2009, 2010, 2011, 2012), 국내외 입양현황 통계
2) 먹고살기 힘들다지만... 버려지는 아이 크게 늘었다, 문화일보, 2012-12-27
3) 넘쳐서 슬픈 '베이비박스', 동아일보, 2013-0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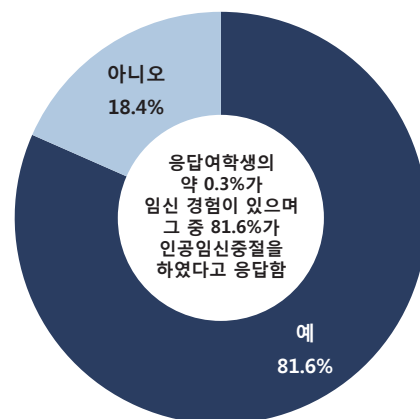
3-4. 인공임신중절 현황

15-24세의 전체 가임기 여성 중 약 7%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으며, 임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81.6%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였음

가임기 여성 중 인공임신중절 경험 현황¹⁾



청소년의 인공임신중절 경험 현황²⁾



"24세 이하 임신을 경험한 청소년 미혼모의 약 67%는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다고 재해석할 수 있음"

1)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2011),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2)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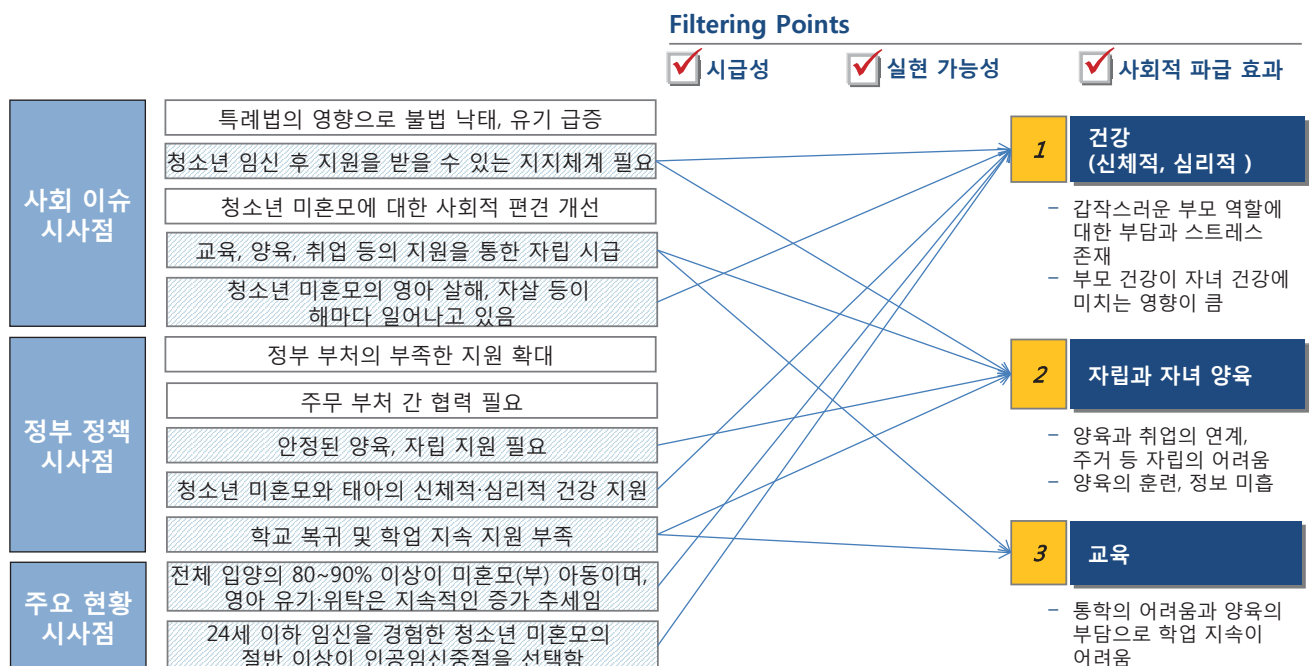
청소년 미혼모

I. 환경분석

4. 핵심 과제 도출

4. 세부 핵심 과제 도출

주요 현황 및 정부 정책과 사회 이슈의 시사점을 종합하고 시급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세부 핵심 과제 즉, 건강, 자립과 자녀 양육, 교육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 index

청소년 미혼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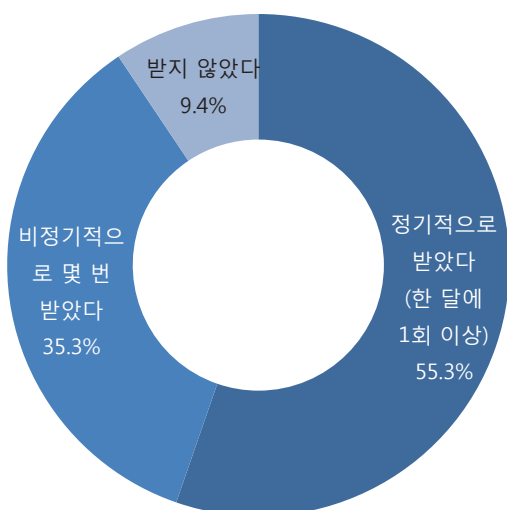
II. 핵심과제 검토

1. 건강
2. 자립과 양육
3.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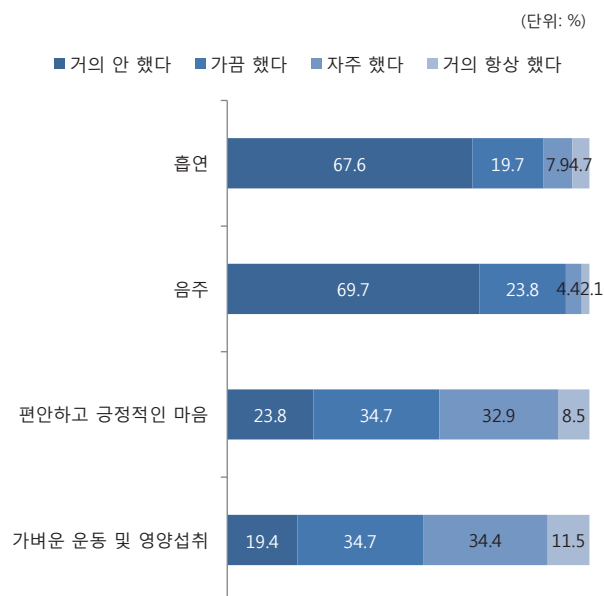
1. 건강 - 실태조사 ①임신 중 건강관리

임신 후 출산을 한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경우는 55.3%였으며, 임신기간 동안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임신 기간 동안 임산부/태아에 대한 산부인과 검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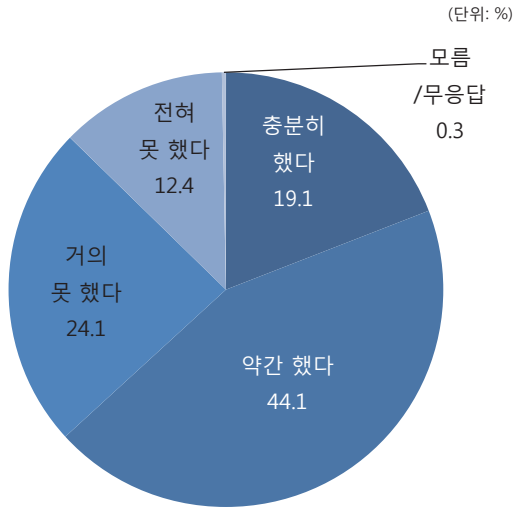
임신 기간 동안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행동



1. 건강 - 실태조사 ②출산 후 신체적 건강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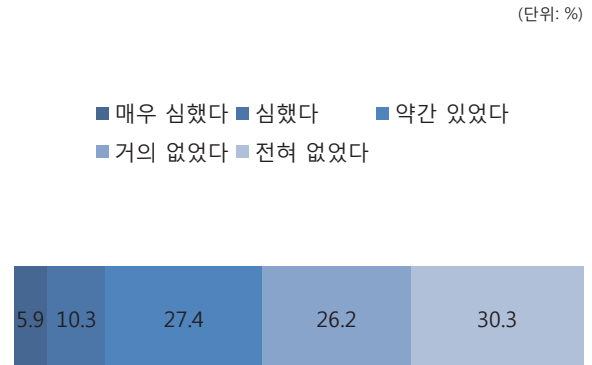
출산 후 산후조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비율이 전체의 1/3 이상이었으며, 신체적 후유증이 있었다는 응답률도 43.6%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음

출산 후 산후조리 여부



"산후조리 못 했다 36.5%"

출산 후 신체적 후유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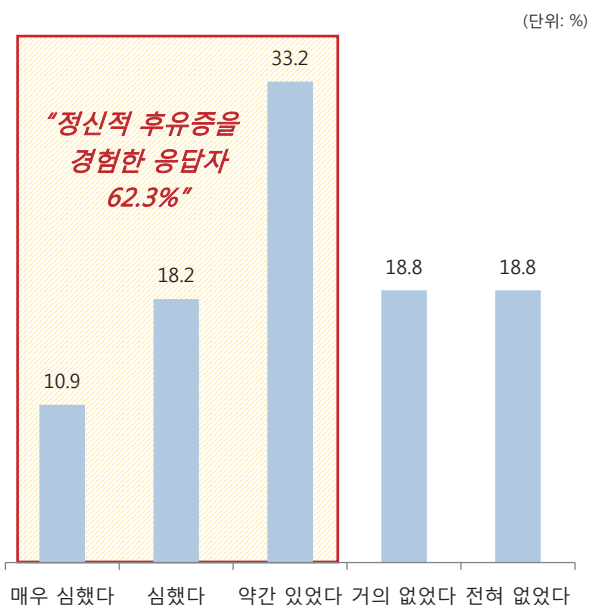


"신체적 후유증 있었다 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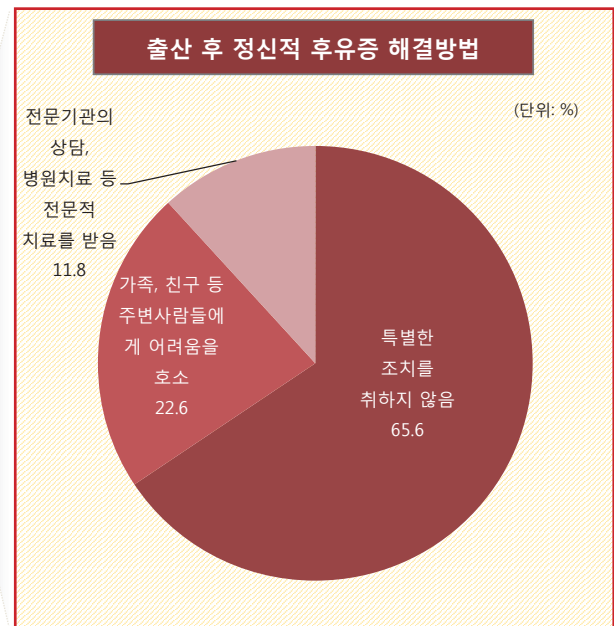
1. 건강 - 실태조사 ③출산 후 정신적 후유증

힘든 임신기간을 거친 후 출산하는 청소년 미혼모는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한 청소년 미혼모의 상당수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출산 후 경험한 정신적 후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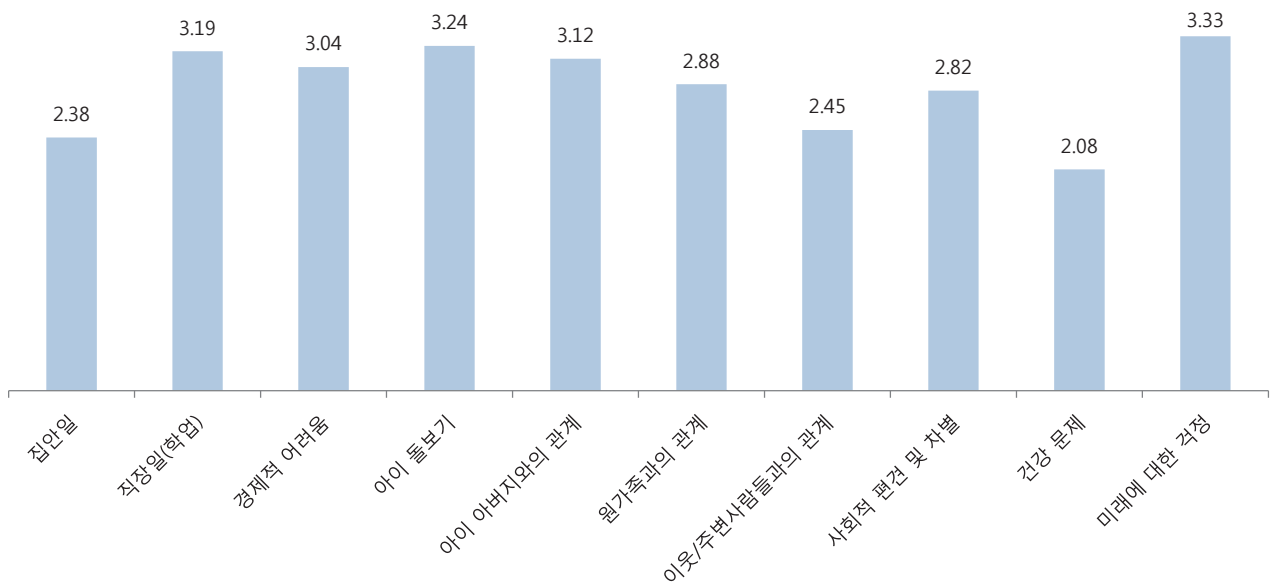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한 응답자 62.3%"



1. 건강 - 실태조사 ④ 일상생활 스트레스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개월 간 일상생활 영역별 스트레스를 측정한 결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고, 아이 돌보기, 직장일(학업)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았음



*각 영역별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측정했으며, 점수(① 거의 없다, ② 적은 편이다, ③ 많은 편이다, ④ 매우 많다)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1. 건강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질병,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상태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미비하므로 신체적·심리적 지원 강화와 확대 방안이 요구됨

신체적 건강의 취약함

- **신체가 취약합니다. 많은 사례 속에서 접한 것을 모으면 엄마들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고 열세네 살 때 많이 가출하여 그 상태에서 임신해서 태교는 커녕 돌보지 못한 채로 애가 나오고 이런 것이 계속 되면서...**
- 엄마들도 건강이 취약하니 아이들도 같이 잘 아픕니다
- 여러 엄마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인데 청소년 미혼모 경우에 건강상향 양호한 사람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원가족과 단절 그리고 사회적 지지나 지원이 부족하고 성장이나 영양 어려움...
- 출산 이후 몸조리를 잘 못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다 보니 만성화된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적 건강의 취약함

-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가중되면서 불안한 심리가 아이들한테도 전이가 되고, 그로 인해 아이들은 질병에 노출되고 어떤 경우에는 발달장애 겪기도 합니다
- 아이들이 어리니까 생활이 스트레스...
- 지속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상담이 도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꾸 끊깁니다
- **심리 정서적 불안정, 특히 분리불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대인 기피, 우울 불안 등은 상대적으로 청소년 미혼모에게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업, 취업, 주거 등에서 확실한 게 없는 데서 오는 불안 때문입니다**

- 퇴소 이후에는...기준에 있었던 기관에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지체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심리, 정서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 기관마다 보니까 프로그램 편차가 심하고 강사 의존도가 높습니다
-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선택 부분의 접종은 잘 못 받습니다

지원 정책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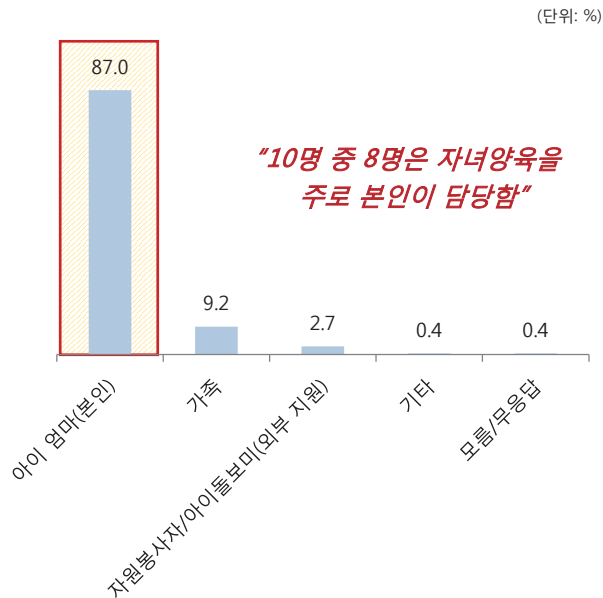
- 미혼모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상담사 등을 양성하는 게 함께 나아가야 할 것 같고...
- 장기 상담을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자원 발굴해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나 아동 연령 등을 고려해서 차별적인 지원프로그램 되어야...**
- 살면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좋은 부모님이나 그에 준하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을 때까지 돌봐줄 멘토입니다

지원 프로그램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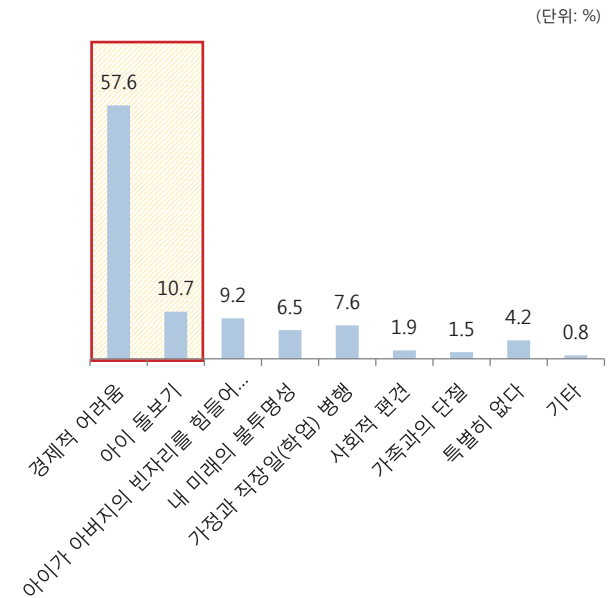
2. 자립과 양육 - 실태조사 ①양육

청소년 미혼모의 80% 이상이 자녀양육을 주로 본인이 담당하고 있어 학업이나 취업의 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의 어려움을 제일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 자립 지원 시 자녀양육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가정에서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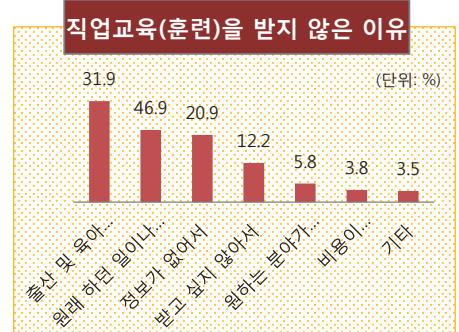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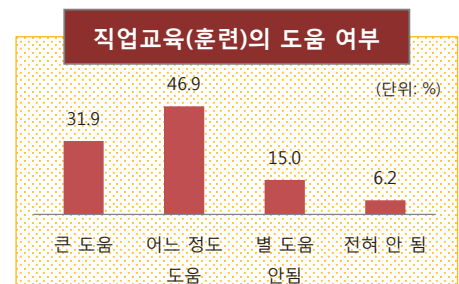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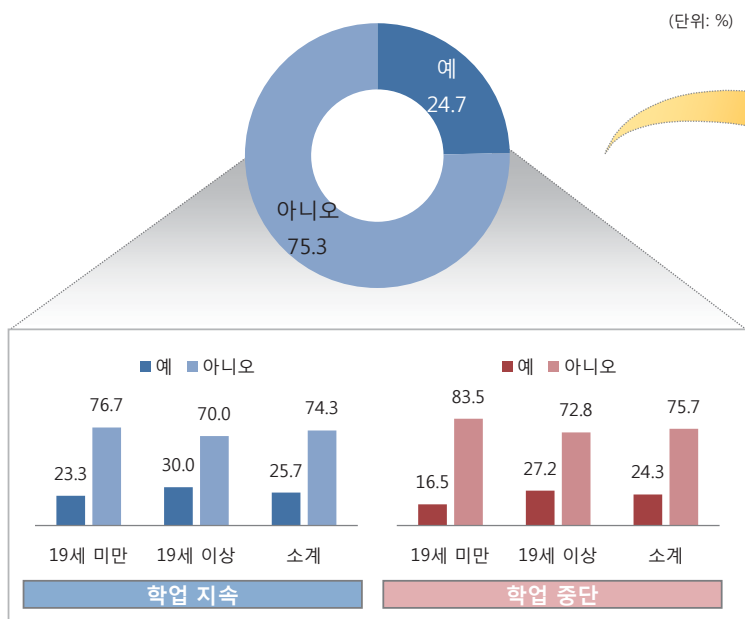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2. 자립과 양육 - 실태조사 ②직업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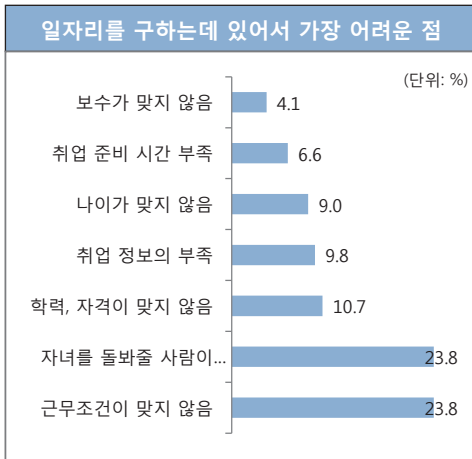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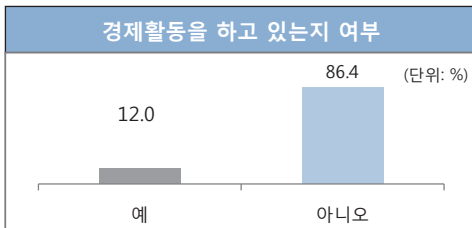
청소년 미혼모 75.3%가 정규학교 이외의 곳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으며 이유로는 출산 및 육아 등의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 후 육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야 함

학교 이외의 곳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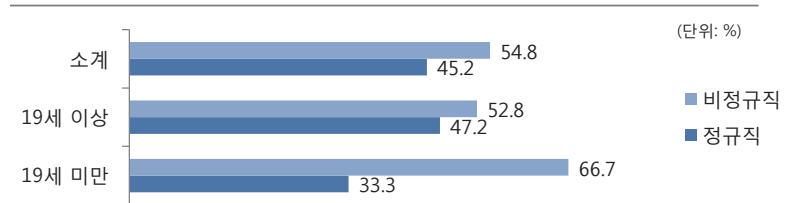


2. 자립과 양육 - 실태조사 ③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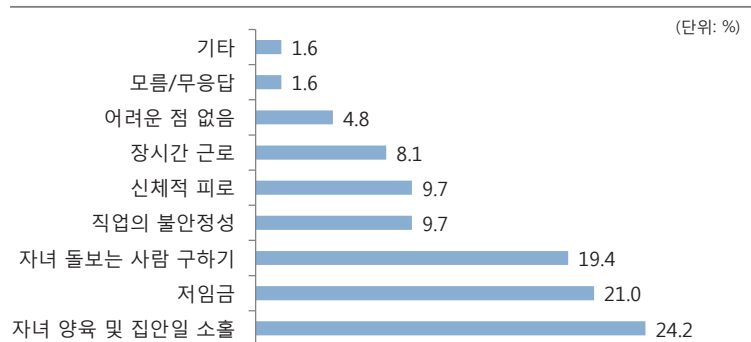
청소년 미혼모 중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3%에 지나지 않았으며, 자녀양육, 낮은 학력 등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고용형태



현재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2. 자립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고용의 안정, 현실적인 직업교육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비정규화·고용의 불안정화

- 청소년 한부모 1/4 취업경험 있었고,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당시 받는 평균 임금 82만원입니다. 가장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하려면 자기는 적어도 10시나 되어야 할 수 있고 아이는 6시에 돌봄이 끝나니까 그 전에 가서 픽업해야 하고, 그런 우리 사정에 맞는 취업 찾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파트타임만 하게 됩니다.
- 청소년 미혼모들이 주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인데 주말에 일을 할 때도 애를 맡겨야 하는데 맡길 곳이 없어서 다 포기하게 됩니다

- 10대중에도 취업한 친구들 몇 명이 있는데 교육은 지역사회 기관이 많은데 노동부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연계해서 교육 받는데 교육 받고 취업하는 경우에 사회적 차별이 늘 있습니다
- 열심히 하는 엄마들 능력 개발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바리스타 등등 재로비는 자부담 몇 십만 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로 취업이랑 연결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미혼모분들을 보면 자격증은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걸로 제대로 취업을 하시고 자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직업교육

자녀 양육 지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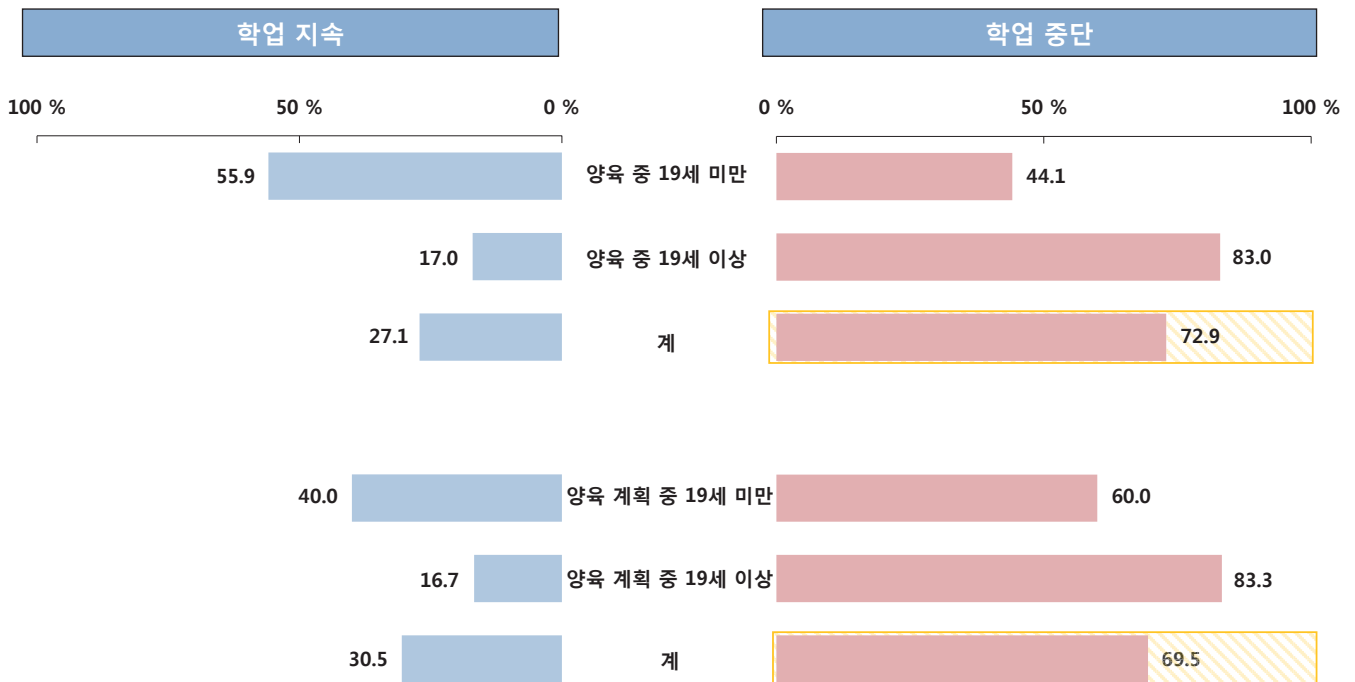
- 어머니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싶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는 미혼모들이 취업해서 일을 나가실 때 보육이 기본적으로 지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립하기가 너무 힘들니다
- 엄마들이 활동하는 제약이 아이문제다 보니 보육은 엄마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취업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밑거름 되는 기본문제이기 때문에...

- 보육시설에 맡길 수도 있지만 맡기는 순간 그 어머니는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육시설에 맡기는 순간 그 엄마는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수급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양육수당도 못 받습니다
- 한부모지원센터에 관해서 늘 나오는 이야기라 다 아시겠지만 제한시간이 있어서 연속적으로 도움 받기가 힘들고, 무엇보다도 당장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보호하라고 하는데 사전 교육에 의해서 서비스 진행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의 필요성

3. 교육 - 실태조사 ①학업 지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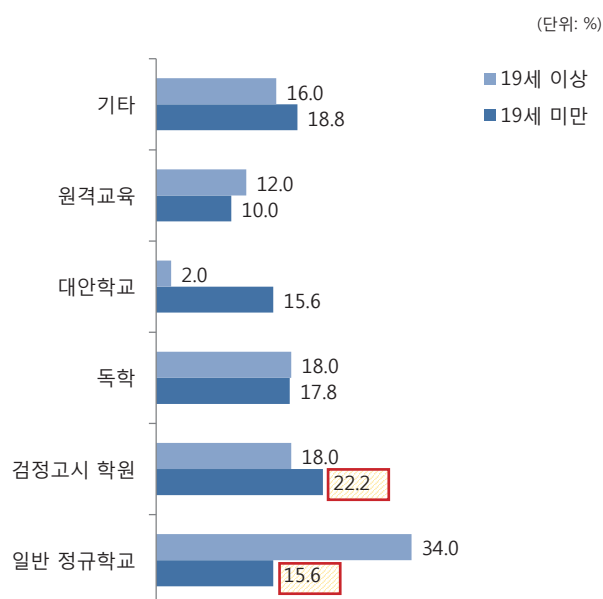
학업을 지속하는 청소년 미혼모는 전체 응답자의 30.6%에 불과하였으며, 양육을 선택하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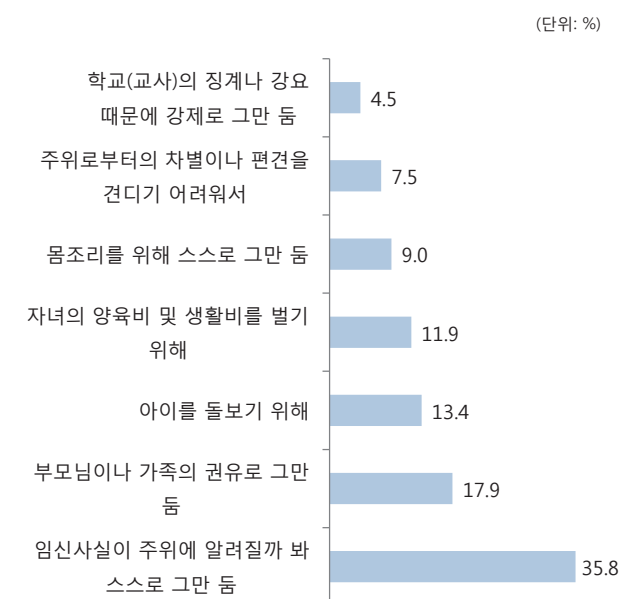
3. 교육 - 실태조사 ②교육 지속 유형 및 학업 중단 사유

임신을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 다니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을 그만 두게 된 사유로는 사회적 편견, 가족의 권유, 양육, 양육 및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 등으로 확인됨

현재 받고 있는 교육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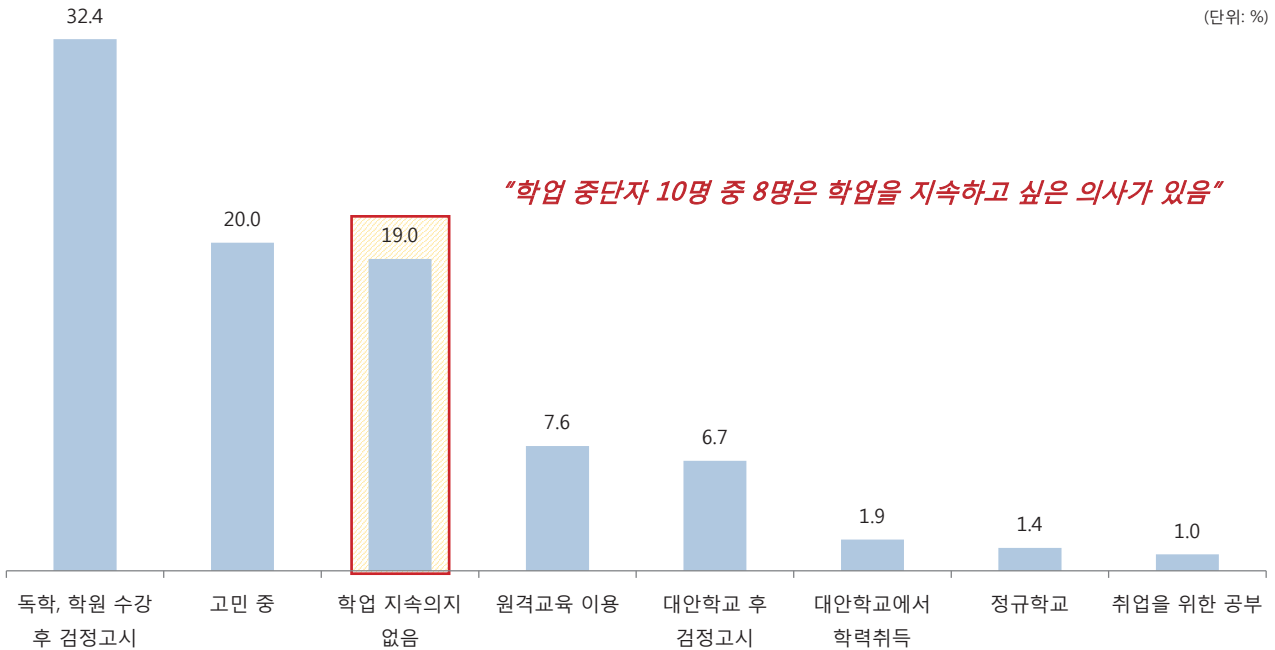


학업을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



3. 교육 - 실태조사 ③향후 학업 계획

고등학교 졸업미만의 학력을 가진 학업 중단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학업계획을 질문한 결과 81%가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음



3. 교육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청소년 미혼모가 되는 순간 직면하는 양육과 교육 병행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제한적인 제도 등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음

교육 지원의 필요성

- **미혼모 학력 단절과 관련해선 자립에 영향을 주니, 그 고리 교육 단절, 빈곤의 대물림 등 이 것을 끊는 것이 교육입니다**
- 성인이면 바로 직장으로 진입하는데, 청소년은 교육이라든지 거쳐야 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어서 자립이 훨씬 더 어려움이 있다
- 저도 제일의 문제는 청소년 미혼모 교육 및 중도 졸업은 상급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력서 쓸 때도 기분이고 그게 안되면 바리스타도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욕구가 확실히 높고...

학업 지속의 어려움

-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생계나 학업단절, 고립이라는 문제다 충돌합니다
- 대안학교가 이슈화가 되어서 임신해도 학교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격 요건 자체가 입소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하지만 대안학교를 가니까...
- **임신한 분들은 재수하면서 이런 친구들 대학 정말 가고 싶어하는데 아기가 너무 어렵고 학비의 문제도 있지만 보육의 문제도 있습니다**
- 어차피 미혼모 되는 순간, 가족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나와야 하고 집에서도 나와야 하고...

- **지금 전국 미혼모 관련 위탁교육기관이 15개 기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4군데 밖에 없습니다**
- 애들이 임신부니까 또래가 있는 학원에 안 가려고 합니다. 이 지원비는 당사자한테 들어오는 비가 아니라 학원에 갔을 때 수강비로 학원에 직접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 공부만 해서 끝나면 자기들이 지원하기가 힘들다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청소년이 좀 더 체험하고, 진로탐색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항상 이 엄마가 공부를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위한 무슨 준비 하거나 할 때마다 **양육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정신적으로 이끌어주고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성도 점검하고 그런 중간단계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 정책의 한계

지원 프로그램의 방향성



* index

청소년 미혼모

III. 프로그램 제안

1.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self-help 집단
2. 키즈카페
3. 청소년 미혼모 교육 지원



사업 후보군 개발

3개의 핵심 이슈에 따른 시사점을 바탕으로 3가지의 사업 후보군을 도출하였음

핵심 이슈	시사점	제안 사업 후보군
신체적, 정신적 건강	- 출산을 하였지만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춘기 시기 - 갑작스러운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으며, 다른 청소년과 같은 기회와 체험에 대한 욕구가 존재함	1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self-help 집단 도래와의 활동을 통해 자조모임과 부모 교육, 심리치료를 함께 지원함
자립과 자녀 양육	- 아이 양육과 생활을 위해 자립을 희망하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많은 청소년 미혼모가 자녀 출산으로 인해 관계 단절을 겪으며 자녀의 일시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부재	2 키즈카페 취업 공간에서 자녀 양육이 함께 이루어지며 청소년 미혼모 자녀의 일시보호를 제공하는 키즈카페 운영
학업 중단 - 교육	-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주변의 시선과 학교의 강요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등은 통학의 어려움과 자녀 돌봄의 부담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여 학업 지속이 어려움	3 청소년 미혼모 교육 지원 검정고시를 지원하는 대학생 봉사단을 운영하고 청소년 미혼모 시설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1. WE(WISH&ENJOY) -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self-help 집단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과 또래 청소년과 같은 욕구를 가진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심리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치료, 아동 돌봄에 대한 교육, 문화 및 여가 체험을 함께 지원함

사업 개요

사업 내용

기대효과

- 청소년 미혼모의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심리정서적 치료, 자녀를 돌보고 놀아주는 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또래와의 활동을 통한 문화여가 체험을 지원함
- 청소년 미혼모 자조모임 및 심리치료 지원
- 여행, 독서 등 문화여가에 관련된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제공
- 부모 교육 지원
-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와 연계하여 자녀와 놀아주는 법, 부모의 역할 등을 교육하고 진행하고, 자조모임 시 자원봉사자들이 자녀의 일시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함
-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나이에 적합한 체험과 기회를 경험할 수 있으며, 심리정서적 안정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인지함
- 학업 중단으로 관계가 단절된 미혼모들이 또래와의 지속적인 만남, 교류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



청소년 한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 놀이, 직업교육, 부모교육,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편하게 오고갈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는 Addison County Parent/Child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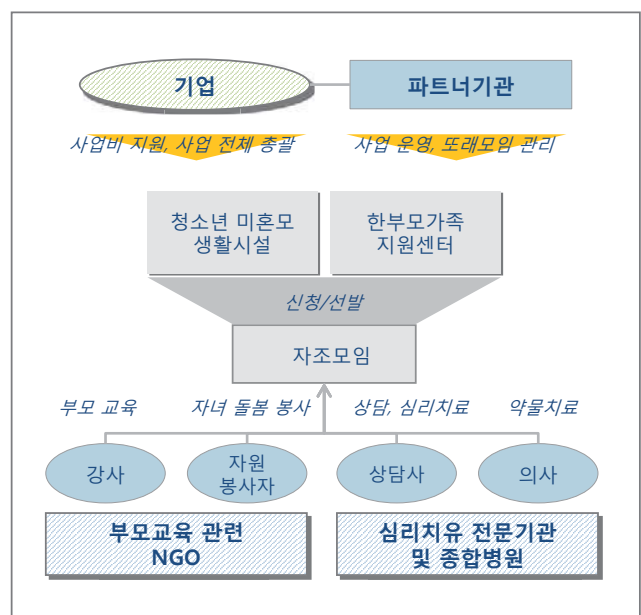
프로그램 1. WE(WISH&ENJOY) -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self-help 집단

WE(WISH&ENJOY)

운영 방식

운영 방식

- 자조 모임
- 자조모임을 구성하고 모임의 리더를 선정하여 모임 단위로 여행, 독서 등 세부 주제와 1년간의 활동 계획을 직접 수립하며, 모임을 위한 공간과 활동비, 활동 시간 중 자녀 돌봄을 지원함
- 심리치유 지원
- 전문 상담사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들의 집단 상담과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지원함
- 부모 교육 제공
- 부모교육 NGO와 연계하여 자녀와 놀아주는 법,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부모교육 제공
- 연간 약 25회(월 2회) 모임을 진행하며 반기, 또는 분기별로 발표회 등을 진행하여 서로의 경험과 모임을 통한 변화 및 성과를 공유하도록 함



프로그램 1. WE(WISH&ENJOY) -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self-help 집단

WE(WISH&ENJOY)

프로세스 및 일정

		2014년				201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기획	파트너십 체결	기업-NGO-상담기관 MOU 체결 및 지원내용 협의				
	자조모임 구성	희망자 모집	연간계획 수립			
실행	자조모임 진행	자조모임 진행				
	심리치유 및 부모교육 진행	심리치유 및 부모교육 진행				
	중간 모니터링	현황 점검		현황 점검	현황 점검	
종료	발표회	결과 발표회				
	평가 및 2차 사업 계획	결과 피드백 개선사항 반영				

프로그램 1. WE(WISH&ENJOY) -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self-help 집단

WE(WISH&ENJOY)

사업 예산

(1년 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세부항목	산출기준	금액
자조모임	모임 활동비	5개 자조모임 각 20인 기준, 1회 인당 2만원 제한(12회)	24
	리더 활동비	30만원 * 5개 모임(1년 기준, 통신비, 운영비 포함)	1.5
	발표회	150인 기준 행사 진행 + 자조모임별 발표회 준비(1회)	10
	공간 대여비	모임 1회당 공간 10곳 필요(모임공간 + 보육공간) 1회 기준 15만원 * 10곳 * 12회	18
	다과비	1회 인당 1만원(12회, 자녀 돌봄 인원 포함 40명)	24
합계			77.5
심리치유	심리 상담	전문 상담 비용 50만원 * 12회 * 5개 모임	30
	약물 치료	치료가 시급한 5인 선정, 1년 치료비용 지원	60
합계			90
부모교육	강의료	부모교육 진행 NGO 연계 30만원 * 12회 * 5개 모임	18
	아이돌봄이 활동비(20명 기준)	아이돌봄이 활동비 및 교통비 적용 (1회 4만원 * 12회 * 20명 * 5개 모임)	48
합계			66
기타	사업 관리비	Project Manager, Supervisor 인건비 360만원/월	43
	예비비	사업 예산의 5% 이내	10
합계			53
전체합계			286.5

프로그램 2. 키즈카페

사회적으로 수요가 높은 키즈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미혼모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자립 기반이 되는 기술 습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사업 개요

- 부모를 위한 카페와 어린 자녀들을 위한 보호 및 놀이 공간이 함께 있는 키즈카페를 창업하고, 청소년 미혼모를 고용하여 이들이 취업과 자녀 양육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사업 내용

- 성인 미혼모를 관리자로 하여 청소년 미혼모를 바리스타, 서버, 캐셔 등 키즈카페의 직원으로 채용함
- 아동 보호 및 놀이 공간에는 보육교사 1-2인을 두어 키즈카페 손님 및 근무 중인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의 보호와 대체 보육을 지원함
- 카페 인근에 거주하는 미혼모의 경우 소액의 비용 지급을 통해 비상시 키즈카페에 자녀 일시보호 가능

기대효과

- 관리자인 성인 미혼모에 의해 청소년 미혼모의 인큐베이팅, 멘토 역할 가능
- 청소년 미혼모 모자와 지역사회 모자가 어울리며 자연스러운 공동체 소속 및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해짐



키즈카페는 부모를 위한 카페 공간과
자녀를 위한 놀이, 보호 공간이
함께 존재하여
저연령 자녀를 둔 부모들의 수요가 큼

프로그램 2. 키즈카페

키즈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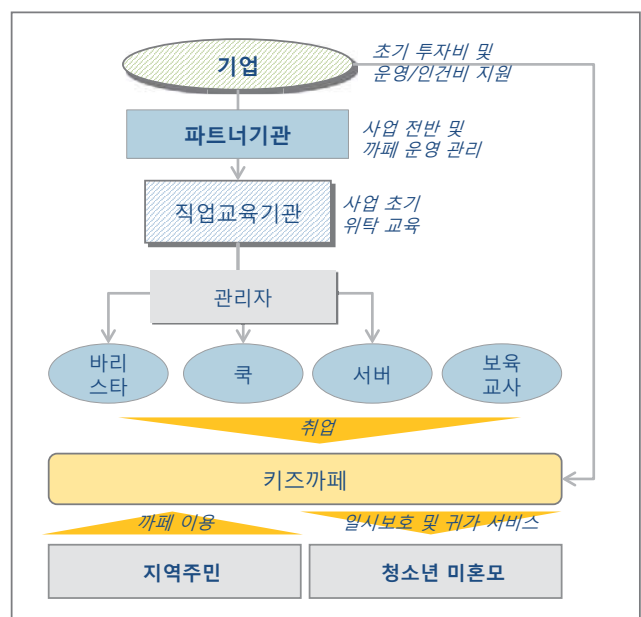
운영 방식

운영 방식

- 젊은 부부 및 청소년 미혼모가 많이 거주하는 마포구, 서대문구, 구로구 등에 키즈카페를 창업하고, 카페 근무/운영 경험을 보유한 성인 미혼모를 관리자로 선정
- 미혼모 대상 공통 서비스 교육과 바리스타, 쿡, 서버 등 특정 역할에 따른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고용함(음료, 이유식, 간단한 음식 판매)
- 인근 지역 청소년 미혼모 자녀 대상 일시 보호를 제공하고, 차량 운행을 통한 자녀 귀가 지원 연계
- 잠재 후원 기업 - 식품, 외식업 : 부모에게 민감한 이슈인 아기 먹거리 친환경/유기농 이미지 강조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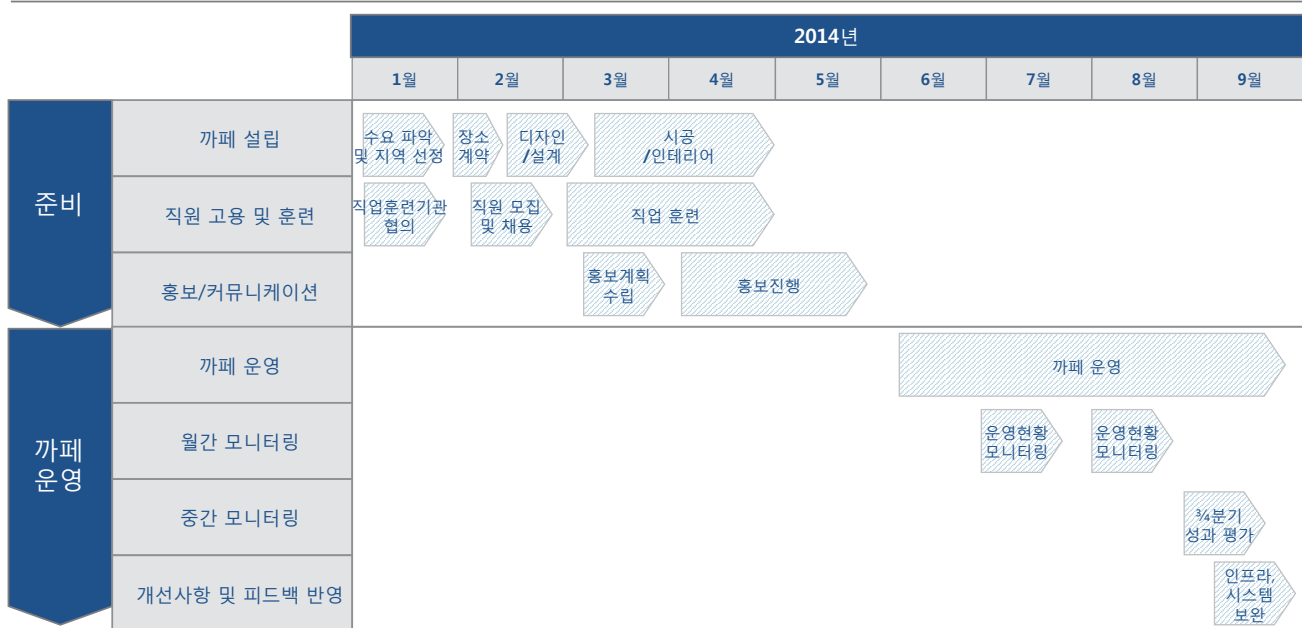
- 일반 소비자 대상의 사업으로 위생 상태와 메뉴, 아동 연령대에 맞춘 공간 등 수요자의 니즈 중요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키즈카페 프랜차이즈와 협력방안 모색 고려(현대차+로보카폴리)



프로그램 2. 키즈카페

키즈카페

프로세스 및 일정



프로그램 2. 키즈카페

키즈카페

사업 예산

(1년 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세부항목	산출기준	금액
초기 구축비 (330m ² 기준, 약 100평)	보증금	1.5억 원	150
	인테리어 비용	평당 300만원	300
	직업교육비	바리스타 학원 사례 참고 : 직원 5인 * 2개월 *150만원	15
합계			465
운영비	임차료, 세금 등 관리비	1,000만원/월	120
	아동 귀가버스 운영비	25인승 버스 주 5일 운행	24
	인건비	관리자/청소원 미혼포 6/보육 및 안전관리 2인 월 0.14억 (초기 6개월 100%, 이후 성과에 따른 50% 지원 기준)	126
	기타 운영비	홍보 및 식자재 등	30
합계			300
기타	사업 관리비	Project Manager, Supervisor 인건비 360만원/월	43
	예비비	사업 운영비의 5% 이내	15
합계			58
전체합계			823

프로그램 3. 청소년 미혼모 교육 지원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소년 미혼모 대상 대학생 튜터 봉사단을 파견하고, 청소년 미혼모 관련시설에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체성 및 방향성 정립 지원

전체 개요

-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 검정고시 참여 등을 독려할 수 있도록 대학생 검정고시 지원단 운영 및 청소년 미혼모 관련시설 내 프로그램 지원

세부 내용

- 검정고시 지원
 - 전국 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생 튜터 봉사단을 구성하고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봉사단을 파견하여 학습을 지원토록 하며, 이후 대학 합격자에게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저금리 대출 제공
- 청소년 미혼모 시설 지원
 - 청소년 미혼모 관련 시설에 진로탐색 교육을 제공하고, 진로탐색 이후의 직업 교육 학습비를 지급하여 실질적 기술 습득과정까지 지원함

기대효과

- 타인의 시선과 현실적 한계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원을 용이하도록 함
- 청소년 미혼모에 현실적인 방식으로 교육 지원



비영리기관 Parent Pathway에서 운영하는 Florence Crittenton School Denver는 매년 약 250명의 미혼모와 60명의 미혼부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차량이동 서비스와 교내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3. 청소년 미혼모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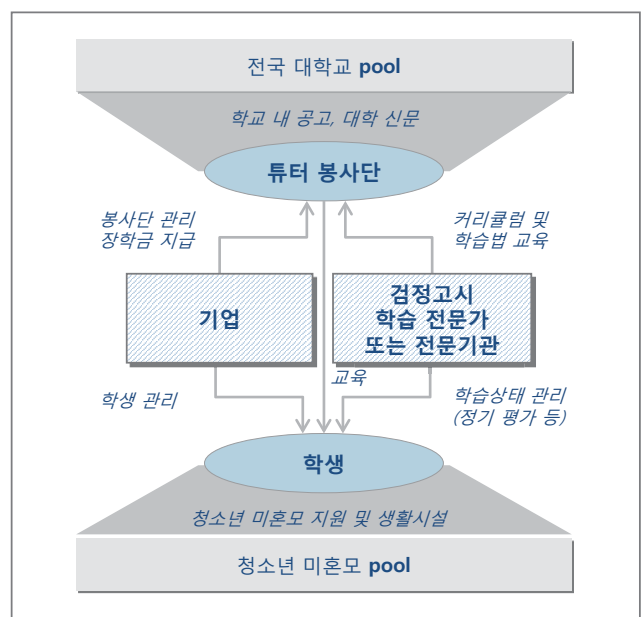
①대학생 검정고시 튜터 봉사단 운영

운영 방식

- 대학교 공고, 대학 신문 등을 활용 봉사단 구성
- 청소년 미혼모 생활시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대상 공고를 통해 검정고시 희망자 모집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구분 모집)
- 튜터-청소년 미혼모 또는 튜터-시설과의 매칭을 통해서 가까운 지역의 봉사자-수혜자 연결
- 학력 취득 이후 수능고시를 통해 대학교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2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이후 2년간 학자금 저금리 장기 대출 지원
-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 미혼모가 튜터 봉사단에 참여하여 다른 청소년 미혼모를 돕는 구조 형성

유의점

- 봉사자의 교육 역량과 수혜자의 교육 의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모니터링 필요
- 단체 학습이 아닌 개인 학습, 가정방문 학습의 경우 여대생 튜터로 구성하여 리스크 최소화



프로그램 3. 청소년 미혼모 교육 지원

①대학생 검정고시 튜터 봉사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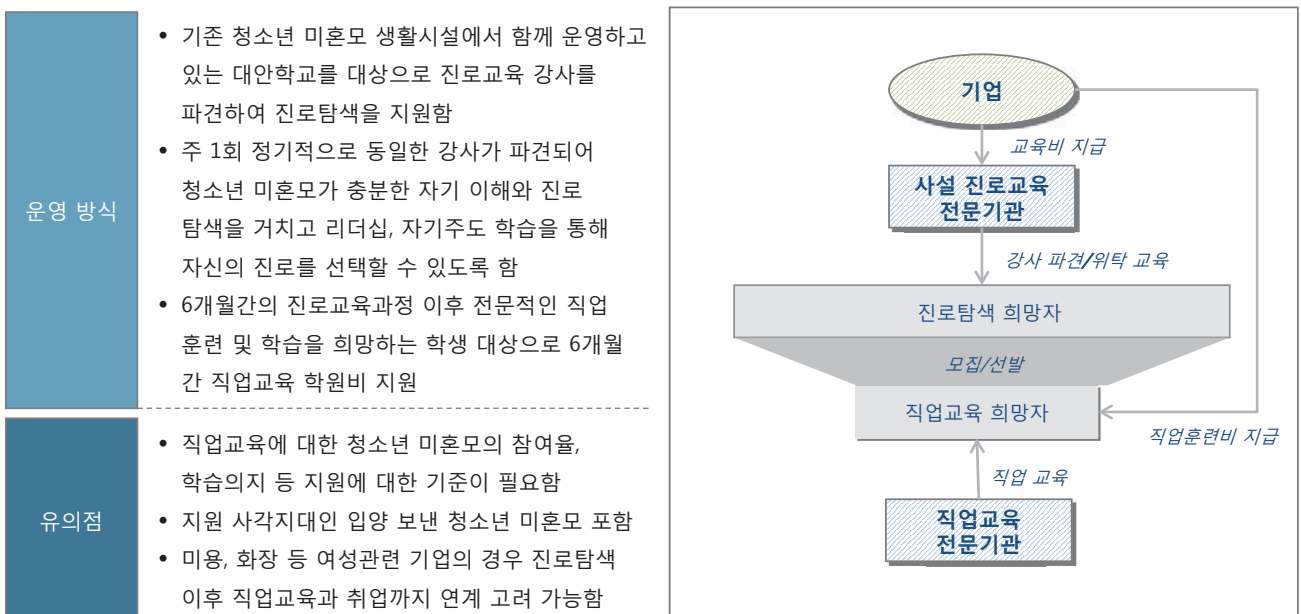
프로세스 및 일정



프로그램 3. 청소년 미혼모 교육 지원

②청소년 미혼모 시설 지원

개요 및 운영 방식



프로그램 3. 청소년 미혼모 교육 지원

② 청소년 미혼모 시설 지원

프로세스 및 일정

		2014년				201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기획	파트너십 체결	기업-대안학교 MOU 체결 및 지원내용 협의				
	교육 내용 구성	진로 교육기관 연계	커리큘럼 /방식 협의			
실행	진로교육 진행	진로 교육 진행				
	중간 모니터링	현황 점검				
	진로교육 종료	진로 결정				
	직업교육 진행	직업 교육 진행				
	중간 모니터링	현황 점검				
	직업교육 종료	직업 결정				
종료	평가 및 2차 사업 계획	결과 피드백 개선사항 반영				

프로그램 3. 청소년 미혼모 교육 지원

청소년 미혼모 교육 지원

사업 예산

(1년 예산, 단위:백만원)

프로그램	세부항목	산출기준	금액
검정고시 튜터 봉사단 (50명 기준)	대학생 장학금	기존 봉사단 사례 : 100~150만원/학기	50
	학습 코디네이터	1인 인건비	40
	학비 지원	10명 기준 입학금(약 100만원) + 1년 학비(평균 667만원)	80
합계			170
진로교육 지원	진로교육 강사비	청소년 미혼모 시설 10곳 기준 강사 인건비 30만원*24회*10	72
	직업훈련비	대안학교 1곳 당 2인 기준 학원비(6개월)	60
합계			132
기타	사업 관리비	Project Manager, Supervisor 인건비 360만원/월	43
	예비비	사업 예산의 5% 이내	15
합계			58
전체합계			360

END OF DOC

SESSION 3.

탈북 청소년 분과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컨설팅 리포트

탈북청소년의 다중적 문제와 정책적 실천적 과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최재성

* 본 고를 완성하는데 있어 아산미래포럼을 통해 전문적 진단과 다양하고 고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탈북청소년 전문가 조명숙, 윤상석, 마석훈, 박상영, 김선화 선생님과 부산대 이기영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산 미 래 포 럼

제 1 장 서 론

-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 당사자 및 그 가족을 넘어 미래사회의 주역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임. 특히, 학교 밖 탈북청소년의 상황은 더더욱 심각하다 할 것임. 남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다양하고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현재도 진행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일 것임. 이러한 어려움은 탈북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을 선택하도록 하며 이것은 향후 통일시대의 핵심인력을 양성한다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입국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중 10세~19세가 2,874명이고, 9세 이하도 1,000여명으로 파악됨(통일부, 2013). 하지만, 정작 정규 초 중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2012년 4월 기준 2,200여명에 불과함(교육과학기술부, 2012). 적어도 몇 백 여명의 학교 밖 탈북청소년이 존재한다는 추정이 가능함. 비록 남한 청소년에 비해 숫자는 작다할지라도 비율로 보면 엄청난 탈북청소년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
- 이들 탈북청소년들은 학교 부적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진로 및 취업에서도 사각지대와 사회적 배제의 연속선상에 놓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 학교 부적응이 결과적인 사회 부적응으로 간단하게 연결되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임
- 탈북청소년들은 청소년으로서의 성장발달과정에서 다양한 고민과 학업의 부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음. 더하여서 탈북이전에 북한에서의 어려운 생활, 탈북과정에서의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고초를 경험함. 특히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가족관계의 유지, 일반적인 양육과정과 보호, 그리고 적절한 교육기회 등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음. 남한에 입국해서도 이질적인 사회경제문화제도, 구별되는 언어, 남한사회의 편견, 이로 인한 열등감 및 소외감 등이 새로운 고난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 결국 가족관계, 학교적응, 사회경제제도 적응, 남한문화 적응, 사회적 편견극복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탈북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어렵게 함. 이러한 어려움은 심리정서적으로도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 탈북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 이들을 이주동포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타 문화권의 난민으로 볼 것인가의 쟁점도 관련되어 있음. 물론 국제법과 정치적인 시각에 따라 달라질 것임. 하지만, 현실적으로 탈북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접근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배제집단(social exclusion)의 한 유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회정책적 접근이며 이들의 권익과 인권차원의 접근이라 할 것임. 따라서 남한이라는 새로운 사회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같은 민족에 대한 적극적 사회포용(social inclusion)적 정책을 적용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다중적 문제를 안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주류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머물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더하여서, 이들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정부정책과 민간의 노력을 조망하여 향후의 개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탈북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의 문제와 진로개발 및 취업의 어려움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자 함
- 연구목적을 위해 국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함. 특히, 아산미래포럼 탈북청소년분과의 다섯 차례에 거친 간담회를 통해 획득한 지식이 풍부하게 반영되었음
- 아산미래포럼을 통해 5회에 걸쳐 전문적 진단과 다양하고 고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탈북청소년 전문가 조명숙, 윤상석, 마석훈, 박상영, 김선화 선생님과 부산대 이기영교수님께 감사를 드림. 이들 전문가들의 경험적 비판과 제언,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자유로운 논의가 탈북청소년 문제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분석과 이해를 가능하게 했음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탈북청소년 현황

제 1 절 탈북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탈북주민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논의도 증가하는 추세임
- 하지만 탈북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그나마 이러한 연구들은 부분적인 실태 및 특정 변수를 중심으로 한 분절적 연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구체적으로 탈북청소년의 부적응 양상에 대한 관심으로 편중되어 보고되는 경향이 있음(김명선·이동훈, 2013; 백혜정·길은배, 2008). 또한 최근에 일부 중단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기도 하나, 대부분 횡단연구로 진행되어 그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이향규 외, 2011; 한만길 외, 2010)
- 탈북청소년의 경우, 남한사회에 입국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매우 다양하여 일반화하여 설명하기 어려움.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탈북청소년의 삶, 적응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적 측면에서 실태 파악과 정책적 대안 모색 연구를 진행함. 기존 연구들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삶과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김명선·이동훈, 2013; 백혜정·길은배, 2008)
 -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연령, 건강상태, 종교 등
 - 시간적 요인: 제3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남한사회에서의 거주 기간 등
 - 심리·정서적 요인: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자존감, 자아통제력, 공격성, 우울 등
 - 교육적 요인: 교사관계, 또래관계, 학교 수업 등
 - 사회적 지지요인: 가족, 이웃, 후원자 등의 사회적지지 요인 등을 보고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 부적응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김명선·이동훈, 2013; 나용선, 2011; 안권순, 2010; 백혜정·길은배, 2008; 백혜정 외, 2006; 문성호, 2005; 정병호, 2005; 길은배·문성호, 2003; 김형태, 2004; 정진경 외, 2003; 홍순혜 외, 2003; 민성길, 2002; 이기영, 2001). 남한사회의 적응은 주로 남한사회 전반에 관한 적응 연구와 남한 내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로 나뉠 수 있음

〈표 1〉 탈북청소년 적응 관련 연구 동향

구분	요인	논문 편수	주요 연구 내용
심리적 적응	불안	11	탈북청소년의 탈북과정 혹은 입국 후 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 혹은 정신적 문제가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연구함. 주요 내용으로 탈북청소년의 외상경험 실태 파악 및 불안, 우울, 공격성,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탈북청소년의 부적응, 자존감, 자아정체성 향상 등을 통한 적응유연성 및 내면적 자기 향상을 통한 적응문제 해결방안 논의가 이루어짐
	외상후스트레스	15	
	우울	7	
	공포심	2	
	정체성 혼란	9	
	열등감	4	
	공격성	5	
	죄책감	2	
	폐쇄성	3	
	외로움	2	
	분노	3	
가족 관계	관계 결핍	9	탈북청소년의 부적응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족관계가 연구가 이루어짐. 부모 부재 및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불일치 등으로 인한 관계 결핍, 부모-자녀 간의 공감대 부재 및 경직된 의사소통으로 인한 가족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역할 개념 차이, 사고방식 차이로 인한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 부모와의 심리적 단절로 인한 남한 사회 적응수준의 차이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적응 속도 차이	6	
	가부장적 지위	3	
학교적응	학습	15	학교적응은 탈북청소년 연구 중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분야임. 탈북청소년의 학교 교육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 연구, 교육지원 및 학습 환경, 학업실태 등과 관련 연구, 진로교육 실태 및 진로지도 연구,
	대인관계(교사)	7	
	대인관계(또래)	12	

	진로 및 진학	5	청소년의 신장 및 건강과 관련한 문화 충격에 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룸. 최근에는 교육체계 개선 방안, 민간교육시설 현황 등의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음.
	외모	4	
	신체적 건강	2	
사회문화 적응	가치관 차이	12	탈북청소년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 쉬움. 이와 관련하여 탈북청소년의 가치관, 일상 및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언어의 생소함 또는 의미 파악의 어려움, 남한청소년과의 감정표현 차이, 다양한 매체 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북한과는 다른 경제관념으로 인한 남한사회에서의 부적응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룸. 사회문화적응은 탈북청소년이 느끼고 있는 문화 및 가치관에 대한 이질감을 언급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이방인, 주변인으로서 인식되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기도 함
	언어차이	5	
	감정표현차이	6	
	첨단매체 활용	3	
	경제	3	
연구 동향 특징	• 탈북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함 • 탈북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질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양적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함 • 탈북청소년에 대한 제도 및 정책, 서비스 등과 함께 탈북청소년의 취업 및 진로 관련한 연구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함. 또한 중단적 연구도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음 • 탈북청소년 연구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분적이고, 파편적 연구가 주를 이루며, 현황 및 실태 파악에 그쳐 탐색적 또는 기초자료 수준의 연구가 많고, 탈북청소년의 부적응 양상만을 보고하는 등의 연구 한계가 있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음		

자료: 김명선·이동훈, 2013. p.64 ; 윤혜순, 2013; 진은영 외, 2013; 백혜정·길은배, 2008. 수정 및 보완.

- 그 외 탈북청소년의 정착지원 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김신동 외, 2013; 김윤나, 2010; 김선화, 2009; 문성호, 2005; 길은배·문성호, 2003; 홍순혜 외, 2003), 탈북청소년의 문화 및 심리에 관한 연구(김신희, 2012; 홍순혜 외, 2003; 정향진, 2005), 탈북청소년의 학교 교육(학업) 및 사회·문화적 적응 연구(문희정, 2012; 이향규, 2007; 김미숙, 2004)가 있음. 최근에는 청소년기의 취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

면서 취업과 진로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고 있음(김경준 외, 2008; 오성배, 2008; 최동선 외, 2007)

- 관련 연구 동향과 관련, 김명선·이동훈(2013)의 논문이 특히 주목됨. 이들은 국회도서관, RISS, KISS에서 “탈북학생“, “새터민 청소년“, “탈북 청소년“ 주제어를 검색하여 나온 자료 중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 관련한 국내 논문 및 단행본을 1988년부터 2012년까지 25년간을 검색함. 검색된 자료 중 학위 논문은 117편, 학술지 논문 95편, 단행본 192편 연구물 중 1)심리적 특성, 2)가족관계 특성, 3)학교 적응 특성, 4)사회문화 적응 특성관련 논문 66편만을 분석함. 표에 제시된 논문편수의 빈도수는 한편의 논문에서 한 개 이상의 적응 변인을 다룰 경우, 그 수만큼 논문 편수로 고려한 것임

제 2 절 탈북청소년 현황

-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북한이탈주민 수는 2만 명을 넘어섬. 또한 최근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탈북 무연고 청소년의 국내 유입 증가로 탈북청소년의 비율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여전히 탈북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학술적 논의가 혼재되어 있으며, 탈북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서비스 규모 및 대상 논의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남한 내 탈북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탈북청소년의 대부분은 정규학교에 재학하여 재학생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탈북청소년에 대한 중도탈락률은 감소 추세를 보임

1. 탈북 청소년에 대한 논의

- 탈북청소년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려움. 탈북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용어가 존재함. 즉, 탈북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새터민 청소년 등 법률, 학술적 논의가 혼재되어 있음

- ‘탈북청소년’에 대한 용어와 관련하여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에서 ‘탈북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47조의2항에서 만 6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그 교육연령을 제한하고 있음
-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연령범위를 만 9세 이상-24세 이하로 보고 있으며, 탈북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음
- 탈북청소년의 연령 및 범주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 및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임. 또한 탈북청소년의 경우 문화연령과 실제 연령 간의 괴리가 존재함으로 복지서비스 및 정책적 혜택에 있어서 실제로는 욕구가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표 2〉 탈북청소년 관련 논의

법령	설명	대상 및 연령 범위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을 말함 ● 탈북청소년 :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집단을 말함 ● 무연고청소년: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탈북청소년을 말함	만 6세 이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복지지원법	●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그 외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을 말함. 이주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이주 노동자 자녀 등, 탈북청소년도 이주배경청소년의 한 유형으로 봄	9세 ~ 24세 이하
-	● 새터민 청소년 :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등장한 용어로 한국거주 탈북자를 순화한 용어임.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의미를 지님. 그러나 북한을 이탈한 주민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됨 ● 비보호청소년 :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말하며, 정착지원법에 따른 보호결정이 안된 청소년을 말함	● 만 6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비보호 청소년 ① 탈북학생으로 분류 : 만6세- 만 18세 ② 이주배경청소년 분류 : 9세 ~ 24세 이하

2. 탈북 청소년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3년 현재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총 25,431명이며, 그 중 여성의 비율이 약 70%로 남성 비율보다 현저히 높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39세 입국자가 7,42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29세(6,621명), 40-49세(3,983명), 10-19세(2,835명)의 순으로 나타남(통일부, 2013)
- 학력별로는 고등중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16,993명으로 가장 많고, 전문대(2,230명), 인민학교(1,580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3〉 연도별·성별 입국 현황

(단위: 명, %)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남	565	511	472	624	423	512	571	608	671	589	797	405	196	6,944
여	479	632	810	1,272	959	1,510	1,977	2,197	2,258	1,813	1,909	1,097	627	17,540
합계	1,044	1,143	1,282	1,896	1,382	2,022	2,548	2,805	2,929	2,402	2,706	1,502	823	24,484
여성(%)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2	70	69

자료 : 통일부, 2013.07.

〈표 4〉 재북 학력별 입국 현황

(단위: 명, %)

구분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	전문대	대학 이상	기타 (불상)	계
누계	644	217	1,580	16,993	2,230	1,711	826	24,201
비율	3	1	6	70	9	8	3	100

주)~12.10월 입국자 기준임. 사망·탈소·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 제외함.
자료 : 통일부, 2013.07.

2) 탈북 청소년 일반적 현황

- 탈북청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국내 북한이탈자 중 20세 이하의 탈북청소년은 약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중·고 연령의 청소년 입국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한국교육개발원, 2012)

- 직계존속 가족이 없는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5〉 연도별 탈북청소년 입국자 수

(단위: 명)

연도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합계
전체	1,141	1,282	1,898	1,382	2,026	2,551	2,801	2,914	2,401	2,706	1,509	24,614
6~20세	211	220	331	224	336	366	378	464	321	501	306	3,896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12.

〈표 6〉 무연고 탈북청소년 수

(단위: 명)

연도	' 01	' 02- '04	' 05- '07	' 08- '10	합계
전체	29	143	103	163	438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11.

3) 탈북청소년 재학현황

- 탈북청소년의 학교 재학생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초등학교 재학이 가장 많고(1,204명), 고등학교(437명), 중학교(351명)의 순으로 나타남. 탈북청소년의 대부분은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초 54.7%, 중 15.9%, 고 19.8%), 전일제 대안교육시설* 재학이 9.5%로 나타남(교육과학기술부, 2012)
- 연도별 탈북청소년 입국자수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20세 이하 청소년 3,896명 중 약 절반 정도(51.1%)만이 정규 학교 교육을 받고 있다고 예측됨

* 대안교육시설은 전일제 민간교육시설에서 수학하는 학생임('12.04월 기준임).

〈표 7〉 연도별 탈북청소년 정규학교 재학생 수

(단위: 명, %)

구분	정규 학교			합계
	초	중	고	
2007.4	341(49.6)	232(33.8)	114(16.6)	687
2008.4	495(51.2)	288(29.8)	183(19)	966
2009.4	562(49.2)	305(26.7)	276(24.1)	1,143
2010.4	773(54.5)	297 (21.0)	347 (24.5)	1,417
2011.4	1,020(60.7)	288(17.1)	373(22.2)	1,681
2012.4	1,204(60.4)	351(17.6)	437(21.9)	1,99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의 중도탈락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됨

○ 중도탈락의 사유로는 이민 등 출국(43%), 진로변경(21%), 장기결석(21%)이 타 사유보다 큰 비중을 차지함

〈표 8〉 연도별 중도탈락률

(단위: 명, %)

구 분		초	중	고	계
’ 08년도	’ 07. 4. 재학생 수	341	232	114	687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 11년도	’ 10. 4. 재학생 수	773	297	347	1,417
	중도탈락률(%)	2.5	4.4	10.1	4.7
’ 12년도	’ 11. 4. 재학생 수	1,021	286	374	1,681
	중도탈락률(%)	2.6	3.8	4.7	3.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 중도탈락률=(연도별 중도탈락자 총수/연도별 재학생 총수) *100
 변화추이(’08년 74 → ’12년 56명)

〈표 9〉 연도별 중도탈락 사유

(단위: %)

구분	2008학년도 (07.3~08.2)	2009학년도 (08.3~09.2)	2010학년도 (09.3~10.2)	2011학년도 (10.3~11.2)	2012학년도 (11.3~12.2)	2012학년도 비율
학교부적응 (기초학력부족, 고연령 등)	21	20	24	8	5	9%
장기결석 등				9	13	23%
가정사정 (경제사정, 가정환경 등)	10	9	9	16		
진로변경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	14	14	6	6	12	21%
건강	3	2	3	6		
취업				1		
이민 등 출국	-	-	-	12	24	43%
행방불명	-	-	-	4	2	4%
기타	26	14	14	1		
미가입				4		
계	74	59	42	67	56	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4) 탈북청소년의 진학

-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의 대부분은 정규학교에 재학 중에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기술 또는 전문 교육 등을 이수하기도 함. 탈북청소년들은 일반고 졸업 이후 대부분 대학교에 진학함(교육과학기술부, 2013)
- 탈북청소년 중 연령 및 학업수준 차이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은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 혹은 특화 학교에 재학하고 있음(한국교육개발원, 2012)

제 3 절 탈북청소년과 복지사각지대

○ 사회적 약자(사회적 소수)로서의 탈북청소년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적 소수자는 주류에서 벗어난 소수의 계층으로, 사회의 전반적 영역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 외의 요인 등과 같은 이유로 지배계층의 기준과 상이한 입장에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함(이지경, 2012). 이 계층은 타계층보다 상처받기 쉽고, 정책이나 제도적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인구집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혜택 인구라고 지칭할 수 있으며, 다른 관점에서는 사회적 배제집단이라는 관점에서 빈곤집단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기도 함(이정은·조미형, 2009; 허만형, 2011). 탈북이주민 역시 사회적 약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은 성인보다 더욱 미성숙하고 보호받아야할 대상으로 간주되기에, 더욱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쉬우며 다중적 배제상태에 놓인 소수자임(김윤나, 2010)

○ 이주민 또는 난민으로서의 탈북청소년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 및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하여 자국 밖에 있는 자로서, 본인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한희원, 2013). 탈북청소년을 이주민 혹은 난민으로 볼 것 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 존재함. 즉,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남한으로의 입국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이주민의 관점으로 보거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그러하듯이 자국을 떠나 사상 및 정치가 다른 남한으로 입국했으며, 탈북과 입국과정에서 극한의 공포와 폭력과 목숨에 대한 위협,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난민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존재함(신미영, 2013; 김형태, 2010). 그러나 탈북청소년이 모국을 떠나 타국으로의 이주경험을 지녔으며, 정치 및 사상이 상이한 남한으로 입국하였다는 측면에서 이주민 혹은 난민과 같은 사회적 소수 계층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함. 특히, 탈북청소년은 부모나 친지 등 타자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모국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탈북과정에서 타국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 더욱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에 있어서 더욱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김형태, 2010). 또한 청소년의 특성상 성인보다 외

부의 자극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려움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음. 즉, 정체감 형성이 완성되지 못한 청소년기에 모국을 떠나 타문화에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익숙하지 않은 경험들은 다양한 적응 과정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

- 탈북청소년들이 낯선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력이나 지원이 없이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탈북청소년은 탈북 과정에서의 심리·정서적 상처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 청소년 시기의 과도기적 성향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하여 그 동안의 학력손실을 보충하면서 정상적인 학습을 유지해야하는 등의 보다 경쟁적이고 힘든 상황에 직면함(안권순, 2009). 따라서, 탈북 청소년은 과중한 부담 및 압박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를 야기함. 즉, 탈북청소년은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 등의 혼란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이라는 과업을 이중으로 해결해야 함(정병호, 2005)
- 결국,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북한 이탈 성인의 지원과는 다르게 접근되어야 함. 그러나 탈북청소년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 서비스, 관련 제도는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포괄적 형태로 진행되거나(백혜정·길은배, 2008), 이들을 위한 사업 역시 일회적이고 단기성 성격을 띤 사업에 치중되어 있음(김윤나, 2010; 길은배·문성호, 2003). 또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이들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어 그들이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탈북청소년들은 사회적 약자 계층일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개인·사회·환경적으로 다중적 장벽을 경험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배제집단임. 최근에는 특히, 탈북청소년 중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무연고 청소년, 비보호 청소년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도 함(신현옥, 2011)

제 3 장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 남한 내 탈북청소년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지닌 배제 집단이며, 주류 사회에서 벗어난 주변인으로서 다중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임
- 탈북청소년은 가족관계, 신체 및 건강, 정신 건강, 교육, 진로, 사회 환경 등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 및 가족,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제 1 절 가족 관계

- 탈북청소년에게 가족의 존재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는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님.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서 탈북청소년의 가족은 중요한 지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함
- 탈북청소년들의 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59.3%)이 결손가정임. 즉, 한부모 가정 및 무연고 청소년, 조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의 구성 비율이 양부모 가정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이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통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성향과 탈북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함. 또한 이러한 결손가정 현황은 탈북청소년에게 더욱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과거의 남한사회로의 입국은 성인 및 개인 단위의 비율이 높았으나, 현재는 가족단위의 입국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이로 인한 탈북청소년의 수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직계존속 없이 홀로 탈북한 무연고 청소년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단위로 탈북하여 남한으로 온 경우라도, 직계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입국한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가족과 함께 입국하지 못하고, 탈북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일

부만 남겨진 경험을 가진 탈북 청소년들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가족의 생사여부에 대한 불안함과 심리적 좌절감, 죄책감 등의 많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함. 기존 연구에서는 일관된 부모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이 친척 혹은 후원자 등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에 비해 또래적응, 학업적응, 남한사회 적응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음(홍순혜 외, 2003)

- 그러나 부모의 역할이 적절히 작용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남한 사회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함. 실제로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가족의 긍정적인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때로는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함. 대부분의 탈북청소년은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고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조손가정, 무연고 청소년 등), 성장기에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서 결핍상태를 지님(김명선·이동훈, 2013). 이로 인한 부모자녀관계, 가족관계 형성에서 마찰과 갈등, 결핍, 불만, 실망감 등의 감정이 충돌하게 됨(이항규 외, 2011). 특히, 자녀-부모세대 간의 공감대 형성 부재, 경직된 의사소통,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 방식이나 규범 규제 등으로 인한 갈등을 야기하거나, 부모의 남한사회와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새로운 문화적응에 대한 두려움, 자녀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은 자녀인 탈북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한만길 외, 2010)

- 이에 대한 가족관계 지원 및 남한사회에서의 부모 역할 교육 등에 대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제 2 절 신체 및 건강

- 탈북청소년의 신체 및 건강상태는 남한사회에서의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침
- 탈북청소년은 북한에서의 장기적인 기근과 영양결핍으로 인해 성장발육 상의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 탈북청소년의 신체발육 상태는 남한 청소년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함. 키와 몸무게 전반적으로 지체되어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차이는 차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북한 청소년들의 전국적 평균 신장은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 약 12-20센티까지 차이가 남(권이중 외, 2008).

- 탈북청소년들은 탈북 과정에서의 신체·심리 정서적 스트레스,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음주나 약물을 오남용하기 쉬움(안권순, 2010). 장기적인 영양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음주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악화가 우려됨
- 일반적으로 본인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낮은 자존감, 높은 열등감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음(Marlene & Kelly, 2004). 또한 건강상태는 사회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님
- 탈북청소년은 남한 청소년에 비해 왜소한 신체적 특징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한 위축감 또는 열등감을 지니고 있음(이기영, 2002). 또한 건강상태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차이가 남. 이러한 차이는 탈북청소년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고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됨. 즉, 왜소한 신체와 악화된 건강상태는 심리·정서적 위축을 야기하고, 이는 외모지상주의 경향이 높은 남한 청소년들의 문화 속에서 열등감을 경험하게 하며, 또래관계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제3절. 심리·정서.

- 탈북청소년들은 탈북과정과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즉, 탈북과정에서의 가족해체, 남한사회 입국 전까지의 긴장 및 불안감, 남한사회적응에서의 정체성 혼란, 우울감 등을 경험하게 됨
- 탈북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심리·정서적 특성으로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정체성 혼란, 공격성, 우울 등이 있음
- 탈북청소년의 다수는 불안 증세를 지님. 북한에서의 장기적인 기근과 탈북과정에서의 가족과의 이별, 남한사회 입국까지의 안전을 위한 은둔생활, 남한사회적응에 있어서의 진로, 또래관계, 학업 등의 걱정 등으로 인한 불안감을 가짐(안권순, 2010; 최명선 외, 2006). 또한 탈북청

소년은 탈북을 결심한 순간부터 체포와 발각, 가족해체, 영양부족, 극심한 추위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낯선 사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위기와 같은 외상을 경험함(김명선·이동훈, 2013; 김현경, 2007)

- 탈북청소년은 남한의 또래 청소년들에 비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임. 심한 욕설과 폭력, 반말, 비난 등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공격성은 북한사회 및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폭력적 환경으로부터 학습된 결과일 수도 있고, 좌절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현재의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함(이향규, 2007; 이선윤, 2005)
- 이처럼 탈북청소년은 탈북과정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에 노출되면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불안, 공격성,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김명선·이동훈, 2013; 최영미 외, 2008)
- 또한 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탈북청소년들이 자기동일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줄 수 있음(김명선·이동훈, 2013, 재인용, p.44). 탈북청소년은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 및 기술, 사회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관되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낌(황정숙, 2009). 이러한 자아정체감 혼란은 일반적 청소년들이 느끼는 자아정체감 혼란의 특징과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짐(황정숙, 2009)
- 탈북청소년의 우울은 외부자극에 대한 과잉대응, 범죄 참여,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심리·정서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탈북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탈북청소년이 안정감을 느끼고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적절한 기술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할 것임

제 4 절 사회·환경

- 탈북청소년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 및 가치관의 충돌, 성역할 갈등, 언어·감정표현의 한계 등을 경험함
- 탈북청소년의 경우 남한의 문화를 동경하고 그들에 소속되기 원하지만 남한 청소년 문화의 다양성과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낌. 또한 남한 청소년 사이의 지나친 학력 경쟁과 소비 풍토, 외모지상주의 관점은 탈북청소년들로 하여금 괴리감, 소외감, 박탈감, 열등감 등의 부정적 감정들을 야기함(도윤지, 2010; 배임호·양영은, 2010; 안권순, 2009)
- 또한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서의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기도 함. 북한의 경우, 아직까지도 가부장적 규범이 강하게 유지되는 사회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고, 여성성·남성성에 대한 요구가 명확함.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탈북청소년은 남한사회의 성역할 변화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갈등을 야기하게 됨. 특히, 여성이 남성 친구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당혹스러워하기도 함(김명선·이동훈, 2013; 안권순, 2009).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탈북청소년의 부정적 인식은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가족 혹은 생활적응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이향규, 2007)
- 탈북청소년은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조심스러워하는 편임. 본인들이 사용하는 북한 언어의 억양이나 사투리가 남한 청소년들과의 대화에서 표출되는 것을 꺼려하며(안권순, 2009), 학교 수업이나 남한 청소년들과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한글의 생소함이나 외국어 및 은어의 사용으로 인하여 언어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도윤지, 2010; 안권순, 2009). 즉, 단어의 의미나 맥락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학교생활에서도 과제를 회피하거나 수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보임. 이러한 탈북청소년의 태도는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따돌림을 받는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함. 또한 감정표현에 있어서도 탈북청소년은 남한청소년에 비해 직설적이고, 갈등상황에서 보다 공격적인 경향을 보여, 부정적 감정의 직접적인 표현을 절제하고 예의를 강조하는 남한청소년의 일반

적인 감정규범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이에 대해 탈북청소년은 남한청소년에 대해 “이중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함(정향진, 2005). 이러한 탈북청소년의 경험은 자기혐오나 자기비하, 열등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형성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함

- 위와 같은 탈북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환경적 특성은 남한사회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탈북청소년 적응과정에 있어서의 언어 및 문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이 요구됨

제 5 절 교육

- 탈북청소년의 대부분은 탈북과정에서의 학력 단절, 남북한의 상이한 학교 교육 내용, 남한 학교 편입학 시 연령 문제, 교사 및 또래 관계 부적응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탈북 청소년의 교육 문제는 남한사회 적응 문제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
- 현재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1,992명이며, 이들의 학업 중도탈락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남한의 일반 청소년에 비해 평균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높아짐(교육과학기술부, 2012; 아산미래포럼, 2013)
- 탈북청소년의 학교 교육은 남한사회 적응의 중요한 요인임.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에서의 정규교육 경험은 남한사회에 대한 소속감 증진과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의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남한에서 학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진로 선택의 폭이 높아질 수 있음(백혜정·길은배, 2008)
- 탈북청소년은 남한사회 학교 적응에 큰 어려움을 호소함. 탈북청소년은 탈북과정과 제3국 체류과정 등의 이유로 인해 남한사회 입국 전에 학습공백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탈북청소년의 제3국 체류기간은 평균 2-3년에서 최대 10년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이향규, 2007). 이러한 학습 단절은 탈북청소년의 기초학력저하 및 학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임. 이처럼 심각한 학력결손은 탈북청소년의 정규 학교 편입학 및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어렵게 함(박윤숙, 2007; 정병호, 2005). 또

한 체류기간의 장기화는 탈북청소년의 남한학교 편입학 시 본인의 연령보다 낮은 학년으로 배치되게 함으로써 문화연령과 실제연령 간의 차이를 야기함. 이에 따라 탈북청소년은 연령 차이와 더불어 의사소통의 문제, 또래관계 형성의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면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게 됨(안권순, 2009; 정병호, 2005)

-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 방식 및 내용도 탈북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탈북청소년은 노동 혹은 근로(일)를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북한의 교육과는 달리 지식을 강조하고 다양한 교과목을 학습하는 남한의 교육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음. 특히, 영어, 역사, 컴퓨터, 국어 수업 등은 탈북청소년이 이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교과목이거나 언어 및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기초학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과목으로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됨(한만길 외, 2010; 이수연, 2008; 장창호, 2001)
- 위와 같은 학교부적응 경험은 남한사회에서의 또래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여 따돌림과 같은 사회문제를 경험하게하기도 하고, 교사와의 부정적 관계 형성을 경험함. 특히, 교육 현장에서 탈북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사는 북한 및 탈북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탈북청소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들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됨(박일권, 2006; 김명선·이동훈, 2013). 또한 학업을 포기한 탈북청소년 중 심각한 경우, 정착금을 탕진하거나, 폭주족이 되거나, 음주 및 약물 남용, 다양한 비행에의 가담, 자살 시도 등 여러 사회적 일탈 행동을 하기도 함(김명선·이동훈, 2013; 정진경 외, 2004)
- 이와 같은 탈북청소년의 학교부적응과 관련하여 탈북청소년의 특성 및 교육적 환경을 고려한 교육지원체계의 마련과 교육 현장 종사자의 북한과 탈북청소년 이해 교육이 필요함

제 6 절 취업 및 진로

- 탈북청소년은 학교부적응으로 인하여 남한사회 정규교육을 받기를 포기하거나, 대안학교로 재 진학하는 경우가 많음. 혹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도 함.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탈북청소년은 학교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곧 다양한 정보 획득 및 문화적 이해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연결됨. 이로 인해 탈북청소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됨(안권순, 2010)

- 실제로, 탈북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향후 필요한 지원에 있어서도 ‘진로(진학 및 취업) 상담지원’은 경제적 지원, 학습 및 학업 지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 경제적 욕구는 탈북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욕구 중 하나로서, 경제적 자립은 남한사회의 적응의 대표적 척도이기도 함. 탈북청소년에게 있어서 학교적응 및 학업기회의 획득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10대 후반-20대 청소년의 경우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역시 생활하는데 있어 필수적 요소임. 탈북청소년은 학교에 연령보다 낮게 편입학하여 아직 학업을 수행중이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및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교를 졸업하였더라도 장기적인 실업상태에 놓이는 경우도 있음(안권순, 2009)
- 단기간의 진로 교육 및 취업 교육, 직업 교육만으로는 탈북청소년이 정보를 획득하고 기술을 습득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탈북청소년은 직업능력을 배양해야할 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 설정, 남한의 다양한 직업군의 이해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안권순, 2009)
- 이에, 탈북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장기적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취업 후 사후 적응 관리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요구됨

〈표 3-1〉 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의 비교

구분				남한청소년	탈북청소년	비고
가족관계	가족 ¹⁾ 구성 (%)	양부모 가정		89.0	36.7	● 탈북청소년의 가족구성은 남한 청소년의 가족구성에 비해 결혼 가정 비율이 높게 나타남.
		한부모 가정		7.3	53.5	
		조손 가정		1.0	2.4	
		무연고		-	3.4	
	고민 ²⁾ 상담 대상 (%)	부모님		27.8	66.6	● 탈북청소년은 고민 상담 대상으 로 부모님을 응답한 비율이 높 은 반면, 남한청소년은 친구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음.
		형제 자매		4.7	8.6	
		선생님		2.5	22.6	
		친구		39.8	14.3	
		혼자 고민		22.8	14.9	
신체 및 건강 ³⁾	평균 신장 (cm)	초등	남	150.2	134.7	● 탈북청소년은 남한청소년에 비 해 신장 및 체중 차이가 크게 나 타남. 탈북청소년은 남한 청소년 에 비해 왜소한 체격일 지남.
			여	151.2	138.2	
		중등	남	168.9	155.6	
			여	159.6	152.7	
		고등	남	173.7	167.1	
			여	160.9	156.0	
	평균 체중 (kg)	초등	남	46.1	33.2	
			여	44.4	34.3	
		중등	남	61.5	47.1	
			여	53.2	46.0	
		고등	남	68.1	57.7	
			여	55.6	49.4	
심리·정서	진로성숙도 ⁴⁾ 평균 (점)			29.01	26.60	● 탈북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하위 영역 중 진로선택의 주체적 결 정과 관련한 독립성이 남한청소 년보다 낮음
	우울 ⁵⁾ (%)			32.8	42.0	● 탈북청소년의 우울이 남한청소 년보다 높게 나타남
	불안 ⁶⁾ (%)			8.9	24.2	● 탈북청소년은 불안정도가 심함. * 비교로 제시된 남한청소년의 수 치는 남한 일반인의 수치로 대 체된 것임(박상민, 2011).
학교 생활	학업 중도탈락률 ⁷⁾	초	0.6	2.6	●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도탈락률은 남한청소년에 비해 평균 3.7배	
		중	0.9	3.8		

	(%)	고	1.8	4.7	높음.
	방과 후 학교 참여율 ⁸⁾ (%)	초	50.4	31.7	● 탈북청소년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남한청소년에 비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
		중	48.3	27.5	
		고	80.9	44.8	

주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탈북청소년 값); 성운숙 외, 2011(남한청소년 값) 재구성.

주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탈북청소년 값); 통계청, 2012(남한청소년 값) 재구성.

주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탈북청소년 값); 통계청, 2012(남한청소년 값) 재구성.

주4) 허은영·강혜영, 2007.

주5) 박상민, 2011(탈북청소년 값); 통계청 2011(남한청소년 값). 재구성.

주6) 박상민, 2011.

주7) 교육과학기술부, 2013.

주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탈북청소년 값); 통계청, 2012(남한청소년 값) 재구성.

* 표에 표기된 수치는 참고용으로만 구성된 것임. 각 연구의 모집단, 대상이 상이함으로 정확한 비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제 4 장 탈북 청소년 지원 정책

-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크게 법률적 지원, 정책적 지원, 민간 지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음
- 탈북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용어 및 정착 지원 내용이 포함됨
-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부 정책지원은 크게 입국, 초기 적응지원, 사후관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점차적으로 정부주도의 지원체계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지원체계로 변화하고 있으나 그 협력체계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관련 부처가 산재해 있어 산발적이며, 정책 수립 역시 단기적 계획 수립에 집중되어 있어,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요구됨
- 탈북청소년에 대한 민간 영역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민간 영역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실천함. 그러나 민간 영역의 서비스는 지역적 편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전문성 증진과, 재정적인 안정성, 조직·인력 확보 측면에서의 정부 및 지자체의 협력이 요구됨

제 1 절 탈북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과 한계

1. 법률 지원 특징과 한계

1) 법률 지원 특징

- 현재 탈북청소년과 관련하여 「탈북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두 법률 상에서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음
- 도, 시, 군, 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 됨

〈표 4-1〉 탈북청소년 관련 법률

관련 법률	지원 내용	특징
탈북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 보호신청 :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 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 임. 거주지 보호 기간은 5년임. • 정착지원: 사회적응교육, 정착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 및 정착물품 지원 • 생활지원: 연령·세대구성 등에 따른 주거지원, 교육 여건 등에 따른 교육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복지지원, 법률지원	탈북주민의 자활 및 자립 중심으로 정착지원 제도가 변화함
청소년복지지원법	• 특별지원청소년: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 지원 등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이 포함됨.
지자체 조례	•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지원 • 상담지원: 고충, 생활, 법률 등 • 취업훈련,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 보건의료지원 • 문화·체육행사 • 정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기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 등	현재 58개 지자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개정 됨.

주) 법률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포괄적으로 포함함.

자료: 법제처, 2013; 아산미래포럼, 2013 재인용, p.18;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13.

2) 법률 지원 한계

- 탈북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용어가 존재함. 지자체 조례 역시 탈북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새터민 청소년 등 법률상에서도 탈북청소년에 대한 상이한 용어를 혼용함
- 탈북청소년의 연령 및 범주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의 차이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 및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 또한 지자체 조례에서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논의 없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합적 지원 내용 안에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음

2. 정부지원 특징과 한계

1) 정부지원 특징

-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부 정책지원은 크게 입국, 초기 적응지원, 사후 관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입국 시 보호 결정 후 시설보호를 통하여 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거주지 편입 후, 초기적응지원을 제공받으며, 거주지 보호(5년) 단계로 이동함. 이 후 부적응 방지 및 재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거주지보호담당관제가 시행됨(통일부, 2013). 탈북청소년 정책지원은 점차적으로 정부주도의 지원체계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지원체계로 변화하고 있음(문성호, 2005; 이기영·윤경애, 2003)
- 그러나 탈북청소년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북청소년 관련 부처가 산재해 있음. 또한 단기적, 일회성 사업이 주를 이루어 중장기 대책이 부족하거나, 심리·정서적 측면의 지원이 부족함

〈표 4-2〉 정부부처별 탈북청소년 지원

관련 부처	지원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기관(학교)를 통한 적응 지원 • 탈북청소년 지원 민간단체 지원 • 탈북청소년 연구사업 및 교육사업 • 학교 교육지원 : 학생 역량 강화, 교사지도 역량 지원, 전문 교육인력 발굴 등 • 학교 밖 탈북청소년 지원 :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 지원, 민간 교육 시설 지원, 학교 복귀 및 교육 지원, 평생교육지원 등 • 교육보호담당관 지정 운영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 하나원 및 하나둘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 중도입국청소년 초기 적응 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 • 무지개청소년센터 지원
통일부	• 하나원 초기 적응 지원 • 지역사회적응 지원 • 지역 네트워크 운영(지역적응센터) • 하나둘학교 운영 및 지원(인력파견 및 교육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 생활안정, 교육지원, 자립 및 자활지원 등 • 다양한 교육지원 • 탈북청소년 연구 사업
노동부	• 하나원 내 기초직업적응 훈련 • 지역사회 내 정착지원 활동(고용지원센터) : 전문직업훈련 및 취업상담, 사후관리

자료: 아산미래포럼, 2013; 문희정, 2012. 수정·보완.

○ 정부는 탈북청소년의 정책지원에 있어서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의 주요부처를 통하여 민간 위탁을 실시하고 있음. 통일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하여 매년 민간단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함.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선 교육청을 통하여 탈북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무지개청소년센터를 통하여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 대상의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되, 정부가 하기 어려운 여러 업무를 대행” 하는 기관으로서, 통일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준정부기관의 정체성을 가지며(김화순·최대식, 2011, 재인용, p.66), 정부와 민간, 또는 민간 기관들 간을 연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취업 및 자립 지원, 교육지원, 민간단체와의 협력, 실태 조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그러나 북한이탈주

민지원재단이 정부를 대변하고 정부-민간, 민간 기관 간의 연계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중복서비스 제공 등의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표 4-3〉 정부의 민간위탁(지원) 사업

관련 부처	중간지원체계	민간 지원 사업 내용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위탁	정착도우미 사업
		지원	민간공동협력사업(아동청소년 교육, 정신건강지원, 전문상담사 육성, 기타 정착지원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 학교 지원 및 지역단위 정착지원 사업 지원	
여성가족부	무지개청소년센터	-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적응지원 사업 - 탈북청소년 과년 연구사업 지원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9 재인용, p.94.

2) 정부지원 한계

- 탈북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은 다양한 부처의 개입과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논의된 바와 같이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가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청소년의 적응 지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민간 영역과의 협력도 확대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들 기관들은 직접사업을 실시하기도 하고,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함. 그러나 일관된 목표와 방향성을 공유하기 보다는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들이 각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효과성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09). 또한 이에 따른 부처별 책임전가, 중복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함
- 또한 탈북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원되고 있는 교육사업 역시 일방적인 강의중심의 교육으로 체험활동

이 부족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아산미래포럼, 2013)

- 또한, 탈북청소년의 자립과 직결되는 진로 지원 및 취업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함. 실질적인 진로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교육, 진로설정 교육 등이 요구됨(아산미래포럼, 2013)
-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단기적이고 일회성 성격을 지닌 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음. 이로 인해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개발이 미흡함(아산미래포럼, 2013)
- 탈북청소년 정책지원이 점차적으로 정부주도의 지원체계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지원체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취약하다고 할 것임

3. 민간지원 특징과 한계

1) 민간지원 특징

- 민간 영역의 지원은 제도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민간교육시설은 탈북청소년이 정규교육에서 벗어난 경우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의 사회·문화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함. 또한 학력결손을 보완하고, 학교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문희정, 2012; 한만길 외, 2009)
-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하여 있으며, 대부분 시설에 맞춘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곽재석 외, 2012; 문희정, 2012)
- 탈북청소년 지원에 있어 민간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 수준의 정책과 제도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전문성

증진과, 재정적인 안정성, 조직·인력 확보 측면에서의 정부 및 지자체의 협력이 요구됨

2) 민간지원 한계

- 탈북청소년 지원 단체의 지역적 편중화 현상이 나타남(곽재석 외, 2012). 이는 탈북청소년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탈북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전문 인력 부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탈북청소년 지원 정책 및 지원 기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보다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더라도, 여전히 전문적 자격을 지닌 상근자가 부족하여 전문 인력의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곽재석 외, 2012). 전문 인력의 부족은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문성호, 2005). 더하여서, 향후 탈북청소년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대한 준비가 요구됨

〈표 4-4〉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 현황

유형	단체명	소재지
전일제 대안학교	남북어울림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명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우리들 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하늘꿈 학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천안 드림 학교	충청남도 천안
	한꿈 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한울 글로벌 비전 학교	경기도 남양주시
	늘 푸른 학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민족래넌트 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룹홈	꿈사리 공동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두리하나 그룹홈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자여명의 집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원한 도움의 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우리집	경기도 안산시
	한우리공동체	서울특별시 강북구
방과 후 교육시설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통만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유터 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누리학교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터학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겨레얼지역아동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북 하나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자료: 광재석 외, 2012; 문희정, 2012 수정·보완.

- 앞서 정부지원 한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여전히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인 업무는 일부 사업에 국한되어 있거나,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역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그나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활동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역부족인 상황으로 평가됨

제 2 절 해외 이주민·난민 정책 사례

1. 해외 정책 사례*

1) 독일

□ 언어 촉진 정책

- 독일 바이에른주의 아동보살핌법(Das Bayerische Kinderbildungs-und betreuungsgesetz)에 따르면 부모 모두가 독일어 언어권 국가 출신이 아닌 경우, 표준화된 진단평가 도구를 통해 기본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줌
- 또한 언어능력의 결손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학습학급을 따로 구성함. 사회 및 자연과학 교과에서 제2언어로서 독일어를 할 수 있는 교사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 학교와의 연계합동 수업을 실시함

* 아산미래포럼 내부자료(2013) 발췌 및 정리.

□ 통합 정책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어 촉진 과정으로, 이주법(Zuwanderungsgeset)의 규정을 근거로 독일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주민이 의무적으로 독일어, 독일의 법질서,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2) 미국

□ 초기 적응 지원

- Reception and Placement 프로그램은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입국 후 3개월까지 제공됨. 연방정부의 현금지원은 첫 4개월-6개월까지 지원되며, 일부의 경우 8개월 동안 현금지원을 하거나 5년 간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국제구호위원회(IRC: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에서는 미국 입국 난민에 대하여 일상생활 기능 워크샵 및 재정착 서비스를 제공함. 여기에는 미국식 인사, 집과 신변의 안전관리, 식품 구매방법 및 대중교통 이용법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적응 훈련과, 미국문화에서 수용되는 적절한 자녀 양육 방법, 교육제도, 법률, 세금제도 등의 정착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포함됨
- 난민 중 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들을 국가복지정책 중 하나인 임시지원프로그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대상으로 포함함.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난민은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현금 서비스 제공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의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김도혜, 2012)

□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 미등록 외국인 청소년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틀라스’라는 민간단체는 이주민 혹은 난민의 지위에 상관없이 보호자 없

* 김도혜(2012) 논문에서 발췌 및 인용.

이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실시함. 사업 내용에는 교육, 법률, 의료지원서비스가 포함됨

- 또한 ‘Mi Nueva Casa’ 와 같은 단체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청소년들에게 임시 쉼터를 제공함
- 이주민 혹은 난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미등록 이주민 혹은 난민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김도혜, 2012)

□ 탈북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법률

- 미국은 2012 북한아동복지법(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을 제정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 발효됨. 북한 아동들에게 가족 상봉과 적절한 입양의 기회를 제공하며, 탈북 아동 및 탈북자 자녀 입양을 희망하는 미국인 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함

3) 영국

□ 생활 적응 지원

- 노팅햄 난민 멘토 프로그램은 영국에 입국한 11세-25세의 난민 및 망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멘토를 연결시켜주어 난민 및 망명신청자가 지역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고, 진료·법률 예약 등에 동반하거나 대화 상대가 되어 줌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예방함
- HEARTS(Help Each Asylum seeker and Refugee to Settle)서비스는 난민과 망명 신청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주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 특히 14-19세의 부모비동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가계, 요리, 안전, 영국 문화, 성 건강 등을 포함하여 일상생활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

2. 시사점

- 독일의 경우, 난민 혹은 이주민의 표준화된 학습 능력 평가도구가 마

련되어 보다 정확하고 적합한 교육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움. 또한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간의 연계활동을 구성함으로써 일반학교 및 또래와의 고립을 최소화할 수 있음. 이는 남한 내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재 개발과 평가도구 개선, 또래관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 미국 정부의 정책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난민 혹은 이주민에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교육이나 복지 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지자체 혹은 민간단체의 적절한 보완 정책이 수반됨. 즉, 미등록 난민 혹은 이주청소년에 대한 중앙정책의 부재에도 기본적인 교육 및 생활은 보장될 수 있음(김도혜, 2012). 이와 같은 논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혜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남한 정책과 비교했을 때, 지자체 및 민간 영역의 역할 설정에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함
- 영국의 정책은 일상생활 적응 지원을 통하여 난민 및 이주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적응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 탈북청소년의 적응 프로그램이 학습 및 강의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따라서, 체험활동 중심적이며, 일상생활 적응을 초점으로 하여 사회로의 빠른 적응을 도모하는 영국의 지원 서비스 사례는 한국의 탈북청소년 적응 지원 서비스 개선에 많은 함의를 제공함

제 5 장 탈북청소년 적응을 위한 제언 및 과제

- 탈북청소년은 그들이 경험해왔던 사회·환경적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사회구조와 체제에 적응해야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음. 적응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언어적, 사회 인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사회부적응을 야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주변인으로 방황하게 함
-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탈북청소년이 타 문화권에서 왔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들을 우리 사회의 부적응 및 문제 집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스스로의 선택과 결과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남한사회 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에, 탈북청소년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 노력과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질 개선 노력, 학계의 보다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 특히, 제도적으로는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보다 통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각 부처 간 협력 및 연계가 요구됨. 민간영역은 정부 및 제도적 정책을 보완하여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이고 다양한 시도들을 보여주어야 함
- 탈북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이고 통합적 접근을 위한 복지정책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

제 1 절 탈북청소년 적응 지원

- 첫째, 탈북청소년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요구됨. 탈북청소년에게 있어 가족의 존재 및 그들과의 관계는 남한사회 적응의 주요한 지지원으로 작용함. 그러나 탈북청소년 가정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결손가정 형태로 인한 부모 역할 부재 등의 가족관계 문제를 경험함. 이에, 탈북 및 남한사회로의 적응 과정에서 겪었던 상처와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원만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요구됨(아산미래포럼, 2013). 프로그램 구성에는 가족 간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간의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지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남한사회에서 요구되는 부모로서의 역할 및 교육 정보 제공을 통한 부모로서의 역할 습득 기회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다양한 가족 체험 활동과 심리 정서 치료, 남북한 가정 결연 지원 등이 시도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가족 없이 홀로 입국한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후견인 또는 후견인 가정 지원도 고려될 수 있음

○ 둘째, 탈북청소년을 위한 의료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탈북청소년의 낮은 신체발육과 건강상태, 탈북 과정과 남한사회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특성은 탈북청소년의 또래관계, 적응에 있어 문제를 야기함. 탈북청소년의 신체 및 건강 개선과 다양한 심리·정서적 치료를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지원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탈북청소년들의 신체 및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탈북청소년의 자존감, 정체성, 자아통제력 향상 등을 포함하여 심리·정서적 위축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의료서비스제공기관의 이용방식이 북한사회와 극단적인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남한사회의 의료서비스기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기초교육도 필요할 것임

○ 셋째, 탈북청소년의 사회·문화적 괴리감을 완화시켜줄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함. 탈북청소년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문화 및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고 이것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탈북청소년의 사회·문화 적응을 위하여 또래집단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또래집단의 지속적인 교류와 관계 유지를 통하여 북한청소년은 남한청소년들의 문화(놀이 문화 포함)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으며, 학업과 관련하여서도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남한청소년 역시도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또래집단 프로그램에는 봉사활동, 스포츠 등의 공동체적 성격을 띠는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정서적 교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통합형 해외자원봉사프로그램의 운영, 사회통합형 축구동아리운영, 사회통합형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넷째, 탈북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전문 교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함. 탈북청소년은 탈북과정에서의 학력단절,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내용, 실제 연령보다 낮은 학년으로의 편입학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이에, 탈북청소년들의 하나원 퇴소 후, 일반학교 편입 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대안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목적을 위한 탈북청소년을 위한 가칭 ‘브릿지 학교’ 또는 ‘브릿지센터’는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중도 탈락 및 사회적 일탈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아산미래포럼, 2013). 여기서의 교육은 공교육으로 가기 전 중간 과정으로서 ‘실질적인 적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임. 따라서 학습 중심의 접근보다는 남한사회 전반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활동 및 일상생활 적응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 다섯째, 탈북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탈북청소년은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낌. 또한 자립을 위한 훈련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탈북청소년이 미래를 위한 계획 수립과 본인의 진로 및 취업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를 위하여 적절한 진로 탐색과 실질적인 취업을 위한 전문시설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특히, 남한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프로그램 내에는 포괄적인 진로 탐색과 장기적인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 적응을 위한 지도 및 상담이 포함될 수 있음(안권순, 2009). 다양한 직업군의 강사 특강,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맞춘 취업 지원 매뉴얼 작성,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더하여서, 민간기관의 교사 혹은 직원들을 위한 전문적 정보제공 및 교육기회제공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함

제 2 절 사회적 인식 개선

- 탈북청소년과 관련한 법률적 용어뿐만 아니라 사회적, 학계의 논의에서조차 탈북청소년에 대하여 ‘북한이탈청소년’, ‘탈북청소년’, ‘새터민 청소년’ 등 탈북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연령의 구분도 불명확함. 그와 더불어 아직까지도 탈북청소년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처럼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곧 이들의 사회적 차별 혹은 낙인의 문제로 연결됨

- 따라서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부

적응 문제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탈북청소년에 대한 낙인, 차별 등이 존재함. 그로인해 탈북청소년은 본인을 드러내기를 거부하거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기도 함. 이를 위한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탈북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탈북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및 학교, 관련 기관 구성원들의 인식전환 및 통합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함

제 3 절 전문성 강화

- 탈북청소년의 욕구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들이 지속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 탈북청소년의 증가와 그들만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탈북청소년을 지도할 전문적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임. 또한 기존의 탈북청소년 관련 종사자의 소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공교육 시설의 교사들은 탈북청소년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무하거나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탈북청소년을 이해하기까지는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이에, 각 학교 내 탈북청소년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탈북청소년 지원 매뉴얼을 개발하여 탈북청소년이 소속된 현장에서 탄력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탈북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탈북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또한 탈북청소년 관련 종사자들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실무자 보수 교육과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 등의 재충전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탈북청소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성과의 측정은 사업 혹은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함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현재 탈북청소년에 대한 사업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명확한 성과 및 평가 지표는 없는 상황임. 따라서 탈북청소년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의 전달을 위하여 구체적인 성과 혹은 평가 지표의 마련이 요구됨

제 4 절 탈북청소년 관련 연구 활성화

-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탈북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비해 여전히 부족함. 탈북청소년 연구는 대부분 부분적이고, 파편적 연구가 주를 이루며, 현황 및 실태 파악에 그쳐 탐색적 또는 기초자료 수준의 연구가 대부분임. 또한 탈북청소년의 부적응 양상만을 보고하는 등 청소년기의 발달단계 특성과 탈북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동시에 지닌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긍정적 사회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임의적 관점이 아닌 탈북청소년의 관점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탈북청소년에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부처 및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천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탈북청소년 연구 지원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실태조사, 탈북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기적 정책 수립 및 영향 요인 파악을 위한 종단적 연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제 5 절 정부 관련 기관의 협의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탈북청소년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탈북청소년 관련 부처가 산재해 있음. 이로 인한 부처별 책임 전가, 중복 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으로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마련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함. 따라서 탈북청소년 관련 부처 간 협의 기구 개발이 필요함.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 간 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 부처 간 정책의 개선 사항 및 변화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합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김윤나, 2010)
- 이와 함께,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즉, 민관 협력체계 구축 있어서, 정부는 일관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협력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 계층을 발굴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민-관의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을 고려해볼 수도 있음. 가령, 각 부처 담당자와 민간 기관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협의체 형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임

제 6 절 민간 부문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사례관리 강화

- 탈북청소년 지원에 있어 민간단체의 적절한 보완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즉, 탈북청소년에 대한 중앙정책의 부재에도 민간단체는 그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하여 민간단체는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각 기관 간 상호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중복적 서비스를 방지하고, 다양한 민간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탈북청소년 중에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거나, 다양한 사회적 일탈 행동에 가담하여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즉, 학교 밖 청소년의 대부분은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례 발굴과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지자체 및 지역사회 복지관 등의 지역 복지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의 구축은 학교 밖 탈북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사업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9).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특별기획 심포지움 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2012). 탈북청소년 주요 통계자료.
- 곽재석 외(2012).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 운영진단 및 컨설팅. 한국교육개발원.
- 권이종·이상오·김용구·김수연·정유희(2008).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법·제도보완 방안. 통일부.
- 길은배·문성호(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개발원.
- 김경준·정병호·김찬호(2008).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Ⅲ.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도혜(2012). 한국 이주배경 청소년 분류와 관련 정책의 한계점 : 미국 사례와 비교.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305-333.
- 김명선·이동훈(2013).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20(1), 39-64.
- 김미숙(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윤나(2010). 시민청소년관점에서의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정책 및 서비스 방향. 청소년학연구, 17(11), 27-46.
- 김현경(2007). 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태(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태(2010).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특성 비교 및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9), 27-59.
- 김화순·최대석(2011).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 “정착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통일정책연구, 20(2), 37-73.
- 나용선(2011). 북한 이탈 주민 자녀(청소년) 사회적응 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8(1), 5-30.
- 도운지(2010).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성호(2005).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 청소년복지의 과제. 청소년

- 년복지연구, 7(1), 5-17.
- 문희정(2012). 다문화관점에서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국가 교육정책 분석: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3(2), 145-166.
- 박윤숙(2009).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배임호·양영은(2010).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1(4), 189-224.
-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2006).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 백혜정·길은배(2008).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통합적 이해: 적응-부적응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4), 221-240.
- 법제처. www.moleg.go.kr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2).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 신미영(2013).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선택과 학교적응: 대안학교와 일반학교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옥 외(2012).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신현옥 외(2011). 무연고 탈북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아산미래포럼 내부자료(2013).
- 안권순(2009). 북한(탈북)청소년의 사회화 문제. 청소년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_____(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17(4), 25-45.
- 오성배·강태중·정유성·조정아·이부미(2008). 북한이탈청소년 종합대책연구Ⅲ.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진로실태와 정책방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기영(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175-224.
- 이기영·윤경애(2003). 북한이탈주민의 지방정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동원 전략: 부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5, 103-130.
- 이선윤(2005).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81-113.

- 이정은·조미형(2009). 사회적 배제 집단의 잠재적 유형 분류 및 성별과 학력에 따른 차이분석. 사회복지정책, 36(3), 79-103.
- 이지경(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문제의 개선방안.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13(1), 101-124.
- 이향규(2007).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 인간연구, 12, 1-17.
- 이향규·이강주·김윤영·한만길·김성식(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중단연구Ⅱ.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 장창호(2011).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한국사회복지, 5, 203-235.
- 정병호(2005). 탈북청소년의 현황과 ‘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 정진경·정병호·양계민(2004). 탈북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16(2), 209-239.
- 정향진(2005). 탈북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11(1), 81-111.
- 최동선·강일규·김임태(2007). 새터민 청소년 진로 실태 조사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최명선·최태산·강지희(2006). 탈북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 모색. 놀이치료연구, 9(3), 23-34.
- 최영미·김석웅·오수성(2008). 크로싱-탈북자 및 새터민에 대한 심리적 이해와 상담 개입 : 탈북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및 학교적응문제, 부모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04-305.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2012). 북한이탈주민 정책.
- 한국교육개발원(2012). 탈북고등학생 지도교사용 진로:진학지도서.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윤종혁·이향규·김일혁(2009).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이향규·김윤영·채정민(2010). 탈북청소년의 교육 중단연구Ⅰ: 예비조사 및 연구설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허만형(201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지방행정연구, 12, 25-52.
- 홍순혜·정익중·박윤숙·원미순(2003).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연구. 통일부.

황정숙(2009).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 사회 부적응과 적응 방안 모색.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Marlene, B. S. & Kelly, D. B.(2004). Obesity and body image. *Body Image*, 1(1), 43-56.

[탈북 청소년 분과] 사업 제안



탈북 청소년 분과 사업제안 목차

STEP.1 환경분석

1. 사회 이슈
2. 정부 정책
 - 관련 법률
 - 탈북 후 국내 정착 흐름도
 - 주요 부처별 정책
3. 주요 통계 및 현황
 - 입국 현황
 - 교육 현황
 - 가족 및 주변 관계
 - 정체성
4. 핵심과제 도출

STEP.2 핵심과제 검토

1. 교육
 - 교육권 지원 부족 영역
 - 교과학습과정 준비 정도
 - 학교 생활에서 어려운 점
 - 교육권 지원이 부족한 대상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2. 가족 관계
 - 부모와 떨어져 생활한 기간
 - 부모와의 대화 정도
 -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
 - 부모에게 바라는 점(1순위)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3. 또래 관계
 - 학교 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STEP.3 사업 제안

1. 전환기 교육 - 브릿지센터
2. 가족관계 회복 - 사이愛
3. 또래통합 - CiAT



* index

탈북 청소년

- I. 환경분석
 - 1. 사회 이슈
 - 2. 정부 정책
 - 3. 주요 통계 및 현황
 - 4. 세부 핵심과제 도출



* index

탈북 청소년

- I. 환경분석
 - 1. 사회 이슈

1. 사회 이슈

국내로 입국한 탈북 청소년은 남한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어와 교육 내용 등의 차이로 학업수행에 장벽이 되고 있어 이를 위한 지원이 시급함

2013년 ~

- 01. 16 “北, 경비 강화에도 가족동반 탈북 증가”
- 02. 08 한국 탈북 청소년 37%, 해외 거주 희망
24 탈북 청소년들 “지방도 진로진학 선생님 계셨으면...”
- 03. 07 탈북청소년 절반이 한부모가정에서 자라
- 04. 30 “탈북자에 무관심한 한국은 북한인권 사각지대”
- 06. 05 국내 초중고 재학 탈북학생 해마다 증가·5년만에 3배 ↑
10 탈북청소년 10명 중 1명 기초학력 미달
11 “탈북 청소년 학업 포기, 일반 중학생의 11배”
- 07. 17 “같은 핏줄인데...손가락질 받는 이방인”
- 08. 12 ‘탈북 청소년들’, 부정적 모습 이면엔 아픔이 ...
19 탈북학생 70% 수도권 몰려·관심과 배려 필요
- 09. 12 탈북 청소년 “교사와 관계형성 욕구 강해”
학령기 입국 탈북학생 28%, 교육경험 전무
24 “학교 다녀서 뭐해요? 수업은 못 알아듣고 애들은 간첩이나고 놀리는데”
28 탈북 청소년 ‘마음의 상처’ 못 보듬는 한국 사회
- 10. 01 탈북청소년 학교 부울경에 한 곳도 없다
02 “새터민이라고 반장선거 다시... 어떡하나요?”
09 탈북청소년 학업중단 이유는 ‘학교 부적응’보다 ‘한국 부적응’
15 “탈북청소년 10명 중 2명, 한국어 전혀 못해”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기관 지정·설립 필요”
22 탈북 후 태어난 ‘탈북 2세’는 특례입학 못해
31 탈북청소년엔 검정고시 지원금 ‘0원’

‘가족’ 동반 탈북 증가세에 따라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 요구됨

언어, 교육 내용 등의 차이가
학업수행에 장벽이 되고 있음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남한 사회가 이들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함

또래 관계 문제, 사회 문화적 괴리는
통합교육과 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있음

* index

탈북 청소년

- I. 환경분석
2. 정부 정책
 - 2-1. 관련 법률
 - 2-2. 탈북 후 국내 정착 흐름도
 - 2-3. 주요 부처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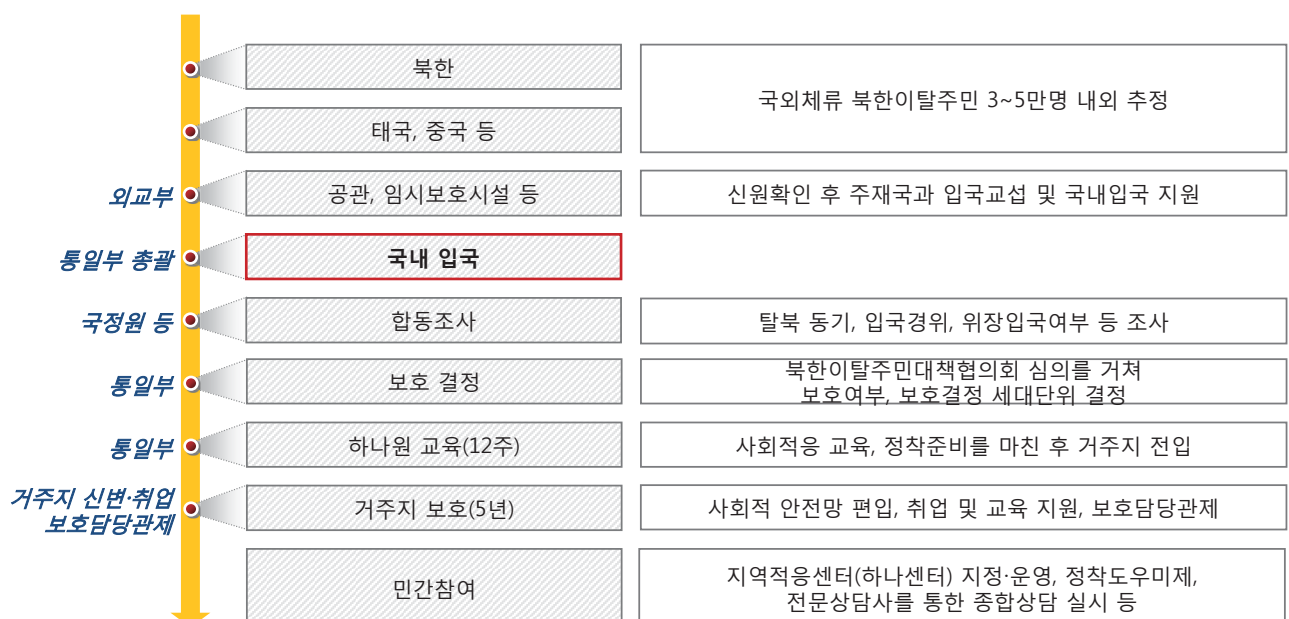
2-1. 관련 법률

탈북 청소년의 남한 정착 및 적응지원을 위한 법률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구분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7.1.14 제정)	목적
	•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
	지원 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 (2004.1.9 제정)	• 보호신청: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임
	• 정착지원: 사회적응교육,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정착금 또는 정착금품 지원
	• 생활지원: 연령·세대구성 등에 따른 주거지원, 교육 여건 등에 따른 교육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취업지원, 복지지원, 법률지원
	특징
	• 정책의 기본 방향이 '수혜적인 보호·정착지원' 중심에서 2004년 이후 북한 이탈 주민이 건전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자활' 중심으로 변화하여 정착지원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됨
	목적
	• 청소년 복지 증진
	지원 내용
	•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청소년은 차별 받아서는 안되며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짐
	• 건강보장: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특별지원 청소년: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 지원 등을 해야 함
	• 교육적 선도: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권장함
	특징
	• 처음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이 포함되어 탈북 청소년, 다문화가정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 다양한 이주경험이나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포괄하여 지원함

2-2. 탈북 후 국내 정착 흐름도

탈북 청소년의 국내 정착 과정을 살펴보면, 국내 입국 후 국정원 등의 합동조사를 받고 보호 여부가 결정되면 하나원에서 12주의 교육을 받고 이후 거주지에서 5년간 보호를 받음



2-3. 주요 부처별 정책 ①통일부

통일부에서는 교육 및 진로 선택, 취학 및 취업관련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3년 전체 예산의 60.3%(1,341억원)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사용함

1 개요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초기 적응과정 및 안정적인 거주지 정착에 걸쳐 전 지원과정을 담당하는 부처로, 통일부 내의 정착지원과에서 수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과정 전반이 탈북 청소년 지원에 해당됨

2 주요 지원 내용

- **하나원 입소 및 하나돌 학교**
- 일반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학교로 진학할 경우 예비학교 재학기간을 정식교육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교육지원**
-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24세 이하의 탈북 청소년이 거주지로 이전 후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하나센터(지역적응센터)**
- 전국 16개 시도, 32개 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교육과 사후지원서비스를 지원하며, 탈북 청소년에게 교육 및 진학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3 예산

통일부 2013년 전체 예산 2,221억원 중 1,341억원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60.3%)

탈북 주민정착 행정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책운영	26억96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47억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265억7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억9900만원
하나원 운영	하나원 시설관리 외부위탁	27억4500만원
탈북 주민교육 훈련 및 정착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840억원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30억7100만원

2-3. 주요 부처별 정책 ①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주요 기능은 탈북 청소년 장학사업, 민간단체 지원, 리더양성, 캠프 및 박람회 개최 등임

1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이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과 생활안정,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 총괄적인 지원하는 것임

2 주요 지원 내용

- **생활안정**
- 무연고 청소년 그룹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 탈북 청소년을 위해 공동생활시설 운영 지원(13개소)
- 전문 상담사: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의 상담 서비스 (약 100여명의 전문 상담사 활동)
-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
- **교육지원**
- 청소년 교육·장학사업: 장학금, 해외연수 지원, 학습지원(주1회), 대안교육시설 지원(8곳), 방과후공부방 지원(24곳)
- 청소년 미래리더 육성: 진로진학지도, 예비대학 운영,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등
- **자립자활지원**
- 직업능력개발: 청년세대 취업지원 바우처

3 예산

통일부 2013년 탈북자 지원 관련 예산 1,341억원 중 265억7300만원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예산(19.7%)

초기정착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	90억700만원
자립, 자활지원	50억5300만원
청소년 장학 및 주민교육	41억3300만원
주민통합 및 홍보	19억8100만원
기획운영 및 연구지원	15억5500만원

2-3. 주요 부처별 정책 ②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는 탈북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을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초기적응 지원, 지역 정착 지원, 일반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진행중임

1 개요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북한이탈·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문화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통합적·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2 주요 지원 내용

- **하나원 하나돌학교와 협조체계 구축**
 - 통일부 하나원과 협약을 체결하여(2009년) 하나원 내 하나돌학교에 교사 파견 지원, 문화체험학습 지원, 사례관리 및 상담 지원
- **중도입국청소년 초기지원사업(Rainbow School)**
 - 한국어 지도, 편·입학 지도, 정체성 및 교우관계, 생활법률 등 지원
 - 2010년 2개 지역 시범실시과정에서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2012년에는 10개 지역 15개 기관에서 위탁 운영 중
- **통합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2012년 8월 시행)**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기틀 구축

3 예산

2013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255억원 중 16억6700만원이 북한이탈 및 다문화청소년 지원 예산(6.5%)

사업비	이주배경 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3억5000만원
	상담 및 사례관리	1억5000만원
	통합캠프 및 1:1멘토링 등 운영	8000만원
	인적자원 양성	2800만원
	프로그램 개발 및 토론회 등 홍보	1억0800만원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1억7000만원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 지원 프로그램	1억원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4억6800만원
	경상비(운영비 등)	2억1300만원

2-3. 주요 부처별 정책 ③교육부

교육부는 탈북 청소년의 학교·사회 적응력 제고 및 자립역량 강화와 통일 대비 교육기반 구축을 목표로 시·도 교육청, 탈북 청소년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원함

1 개요

교육부는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전반을 총괄함.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탈북 청소년교육지원센터 등의 주체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2 주요 지원 내용

- **초기 적응교육**
 - 하나원 초기 적응교육 지원, 한겨레 중고등학교 기능 강화 및 운영 내실화(2011년), 탈북 청소년 학력인정 절차 개선 및 학생 교육정보 공유
- **학교교육 내실화**
 - 탈북 청소년 밀집학교 및 밀집지역 지원, 학생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교사 지도 역량 강화, 전문 교육인력 발굴 및 역량강화, 학부모 교육지원 역량 강화
- **학교밖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 지원, 민간교육시설 교육역량 강화, 학교 복귀 및 교육 지원,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

3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탈북 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교재 개발, 탈북 청소년 연구사업, 교사 연수, 민간교육 단체 지원 등임

- **탈북 청소년 적응 단계별 지원**
 - 기초학력진단 도구 개발, 하나돌학교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 탈북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재 개발 및 보급, 교사 연수,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민간교육시설 지원 등
-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종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 NK청소년 리더양성 프로그램, NK교사 아카데미, 예비대학 프로그램, 탈북학부모 대상 자녀교육 매뉴얼 개발
-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연구 및 기초연구 수행**
 - 기초 자료와 데이터 관리, 연구 수행 등

3. 정부 정책 - 결론 및 시사점

탈북 청소년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과 각 부처 간의 업무 협력이 필요하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심리 정서적 지원, 자립 기반 확충, 사회적 통합이 요구됨

결론 및 시사점

중장기 대책 마련 및 각 부처 간의 업무 협력과 기능 조정 필요	- 탈북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진출을 위한 중장기대책 부족 - 각 부처와 실행기관 간의 일부 지원 사업은 중복되며, 지원 범위가 달라 현장 혼선 - 탈북 청소년의 중장기 대책 마련과 부처 간 업무 협의를 통한 사업 조정, 공동 추진 등을 제안함
탈북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요구	- 일반 학교 내 통합 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학업 능력, 입시 위주의 교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 적응을 어려워 하고 있음 -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 체계, 대안학교 확충 및 전문 인력이 미비함 -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 상담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충이 시급함
심리 정서적 지원	- 초기 입국 시, 조사, 공교육 적응 등에 집중하는데 반해 불안정한 심리 정서적 서비스는 부재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멘토링 서비스를 확장하여 심리 정서적 지원을 하거나, 생활밀착형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진로 지원, 취업 교육 등 자립할 수 있는 기반 확충	- 탈북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진로 지원, 취업 교육 등이 현저히 적음 - 무연고 탈북 청소년 및 전환기 청소년의 시설 퇴소 대비가 미비하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훈련 과정이 마련되어야 탈북 청소년의 진정한 자립이 이루어질 것임
가족, 또래 관계 형성 등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 필요	- 탈북 청소년을 지지하는 가족, 또래 관계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 느슨해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미비하거나 부재함 -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남북 청소년 간의 문화적 이해 부족, 네트워킹 부재를 채울 수 있는 소속감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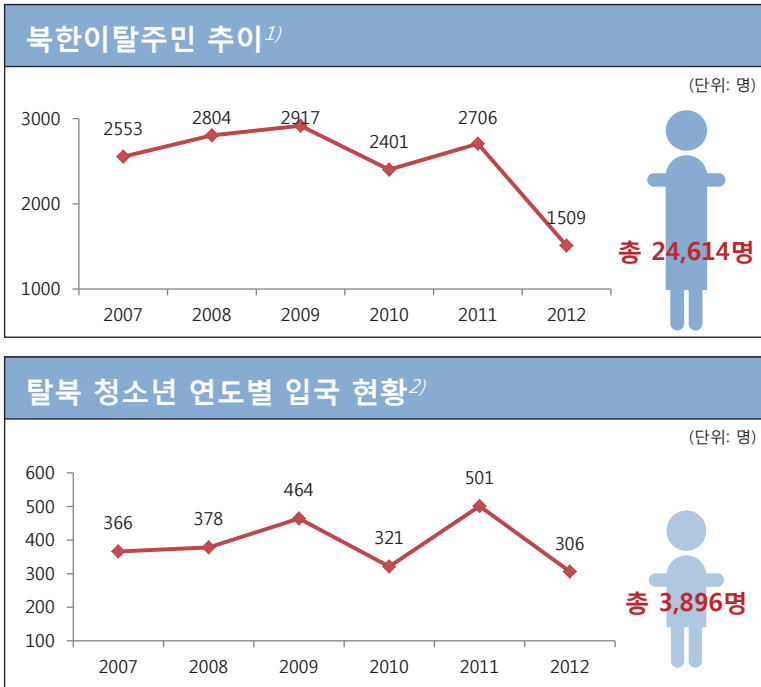
탈북 청소년

- I. 환경분석
 3. 주요 통계 및 현황
 - 3-1. 입국 현황
 - 3-2. 교육 현황
 - 3-3. 가족 및 주변 관계
 - 3-4. 정체성



3-1. 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총 24,614명(2012년 기준)을 넘어섰으며, 아동·청소년의 입국자 수는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2명 가까이로 추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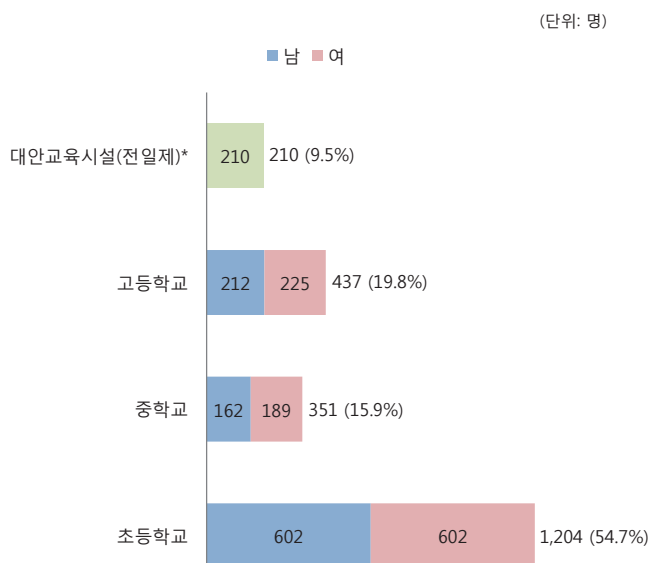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은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2012년 기준 총 24,614명이 국내에 입국함
- 아동·청소년의 입국자 수는(6세~20세) 3,896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약 15.8%를 차지함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2명 가까이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3-2. 교육 현황 - 정규 학교 재학 현황 및 학업 중도 탈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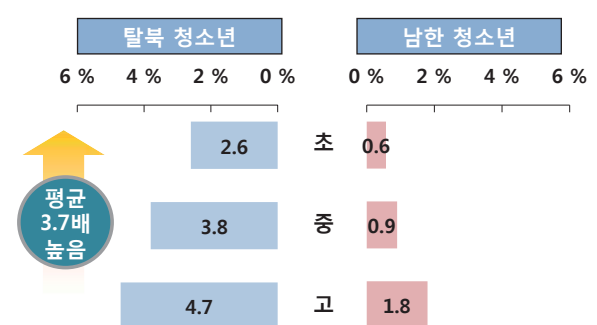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의 수는 1,992명, 전일제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 수는 210명이며, 학업 중도 탈락률은 남한 청소년에 비해 평균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정규 학교 재학 현황



* 대안교육시설은 전일제 민간교육시설에서 수학하는 학생임('12년 4월 기준)

학업 중도 탈락률(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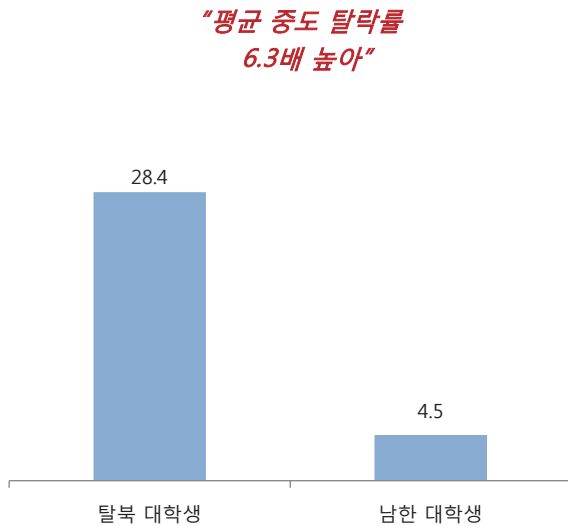
- 탈북 청소년의 학업 중도 탈락률은 상급 학교로 올라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탈북 청소년의 지난해 학업 중도 탈락률은 남한 청소년에 비해 초등학교 4.3배, 중학교 4.2배, 고등학교 2.6배 등 평균 3.7배 높은 수준이었음

3-2. 교육 현황 - 대학교 중도 탈락률

자퇴, 제적, 미등록 등으로 중도 탈락한 탈북 대학생은 주요 10개 대학 입학생 475명 가운데 135명으로 28.4%로 남한 대학생에 비해 6.3배 높았으며, 휴학률도 재학생 220명 가운데 96명으로 43.6%로 남한 대학생에 비해 2.9배나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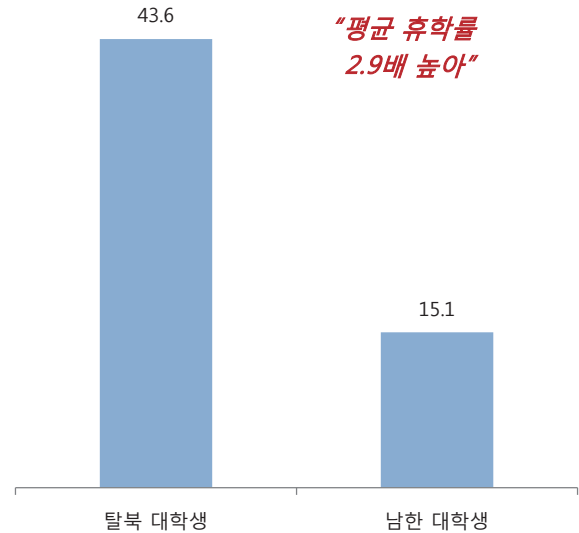
대학교 중도 탈락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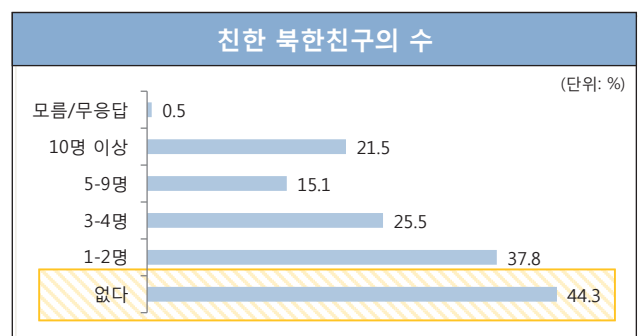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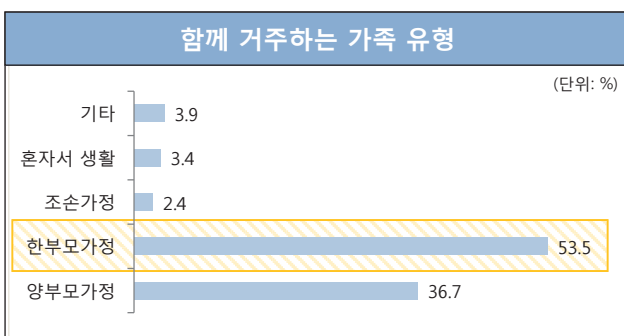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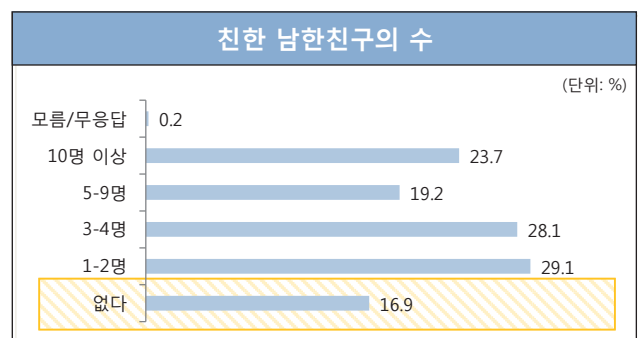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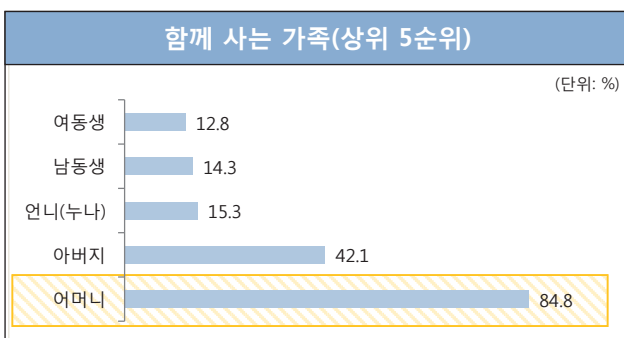
대학교 휴학률

(단위: %)



3-3. 가족 및 주변 관계

탈북 청소년들이 함께 사는 가족으로는 '어머니'가 가장 많았고 절반 이상이 한 부모가족이었으며, 전체의 16.9%의 청소년이 남한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주요 통계 및 현황 – 결론 및 시사점

탈북 청소년이 남한사회에서의 건강한 성장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체계 마련,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지지기반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가 주요 시사점으로 도출됨

결론 및 시사점

탈북 청소년의 상황/특성에 기초한 다양한 교육 지원 체계 마련

- 정규 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탈북 청소년은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중도 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탈북 청소년이 학업 단절, 중단 등을 선택하지 않고 학업에 대한 희망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상황과 특성에 기초한 교육 커리큘럼과 지원체계 등이 요구됨(예. 브릿지 교육, 다양한 대안 교육)

사회적 유대 관계를 원활히 형성할 수 있는 지지기반 확대

- 탈북 청소년은 남한의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이 어렵고, 대부분이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이는 탈북 청소년이 겪는 새로운 사회 적응, 언어 차이로 인한 두려움 등과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 등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탈북 청소년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남한사회의 사회적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

탈북 청소년을 향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 가까운 사람들에게 출신 정보를 밝히고 싶지 않은 탈북 청소년이 많으며 그 이유 중에서 '어색하게 느껴져서', '차별대우를 받을 까봐'의 응답이 2, 3위를 차지함
- 탈북 청소년이 남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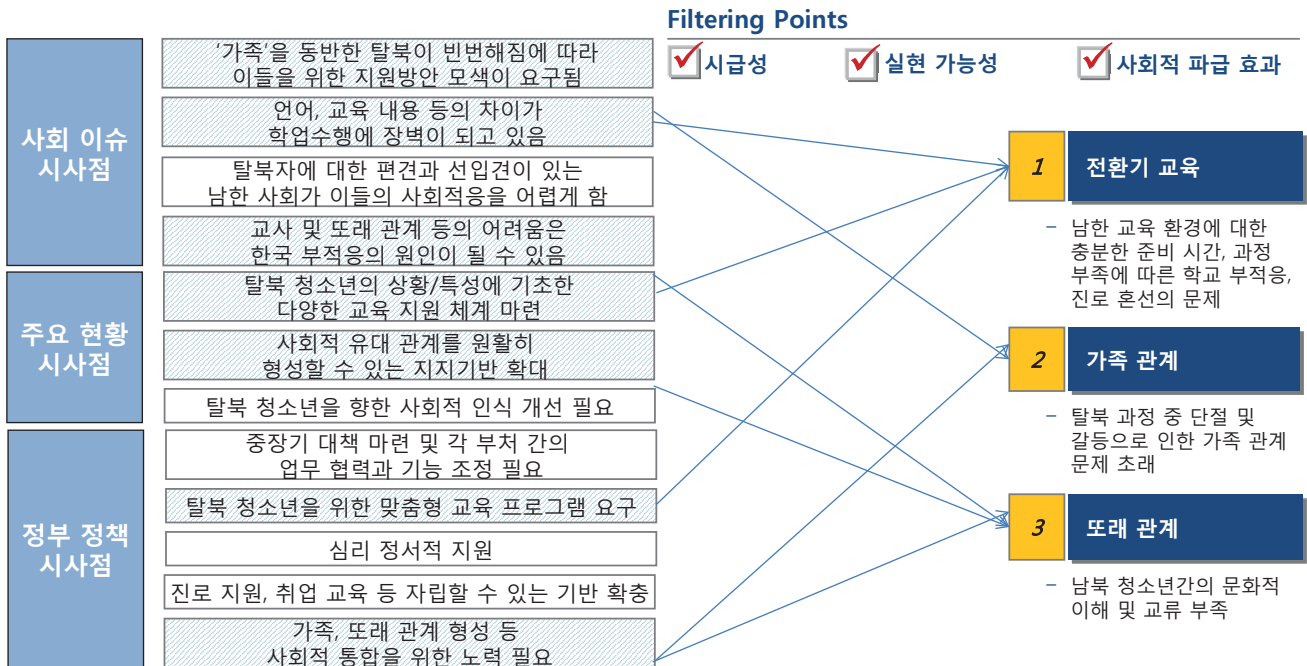
탈북 청소년

I. 환경분석

4. 세부 핵심과제 도출

4. 세부 핵심과제 도출

주요 현황 및 정부 정책과 사회 이슈의 시사점을 종합하고 시급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세부 핵심과제 즉, 교육, 가족 관계, 또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탈북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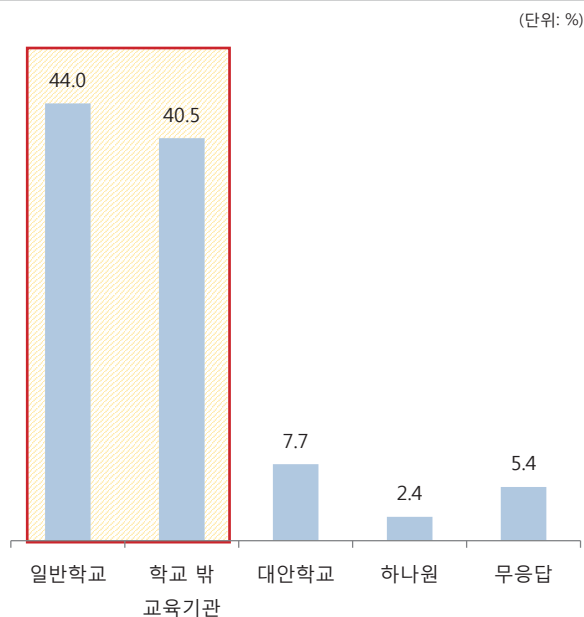
II. 핵심과제 검토

1. 교육
2. 가족 관계
3. 또래 관계

1. 교육 - 실태조사 ①교육권 지원 부족 영역

탈북 청소년의 교육권 지원이 부족한 단계를 조사한 결과 일반학교 44.0%, 학교 밖 교육기관 40.5%, 대안학교 7.7% 순으로 나타났음

교육권 지원이 부족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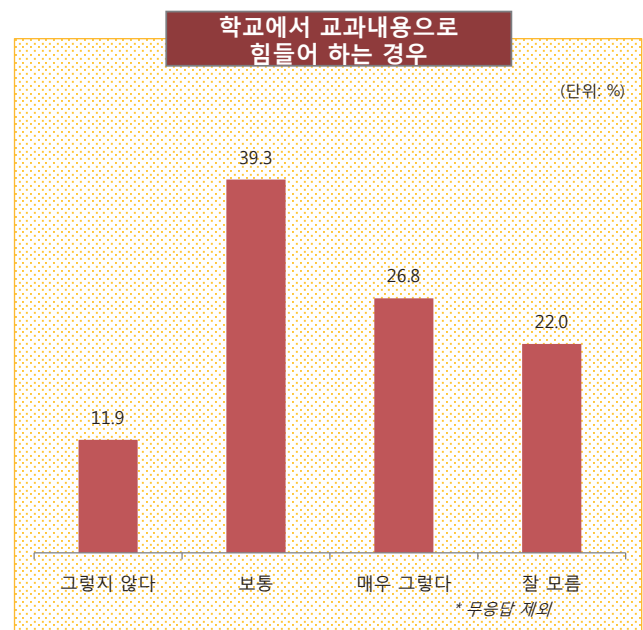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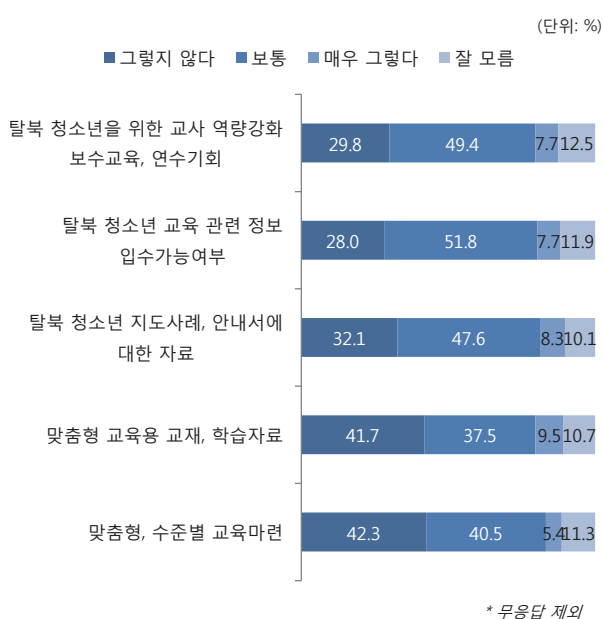


각 유형별로 교육권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일반 학교	- 탈북 청소년에 대한 남한학생과 교사의 편견, 사전교육 불충분 - 언어적·문화적 차이 - 탈북 청소년을 위한 맞춤 교육 부족 - 따돌림과 부적응
학교 밖 교육기관	- 교사들의 이해 부족 - 규정의 미비와 다양한 교육 내용 부족 - 차별과 편견 - 각 기관의 여건에 따른 교육환경이나 내용의 차이 발생
대안학교	- 교육 자원 부족 - 교육 내용 제한 - 부정적 사회

1. 교육 - 실태조사 ②교과학습과정에 대한 준비 정도 및 힘들어 하는 경우

탈북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교과학습과정에 대한 준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의 교과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따라가지 못해 힘들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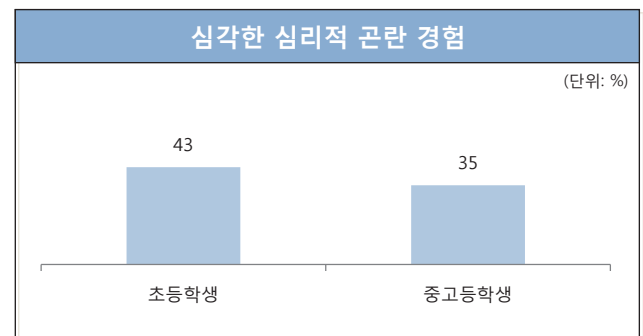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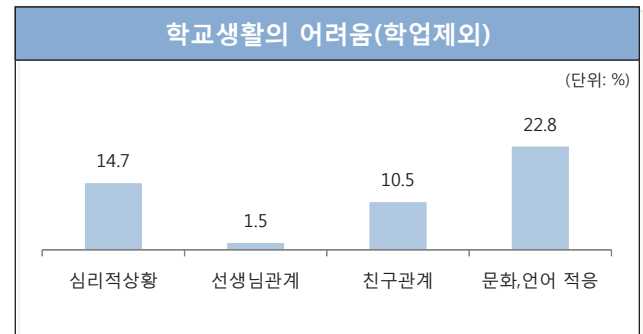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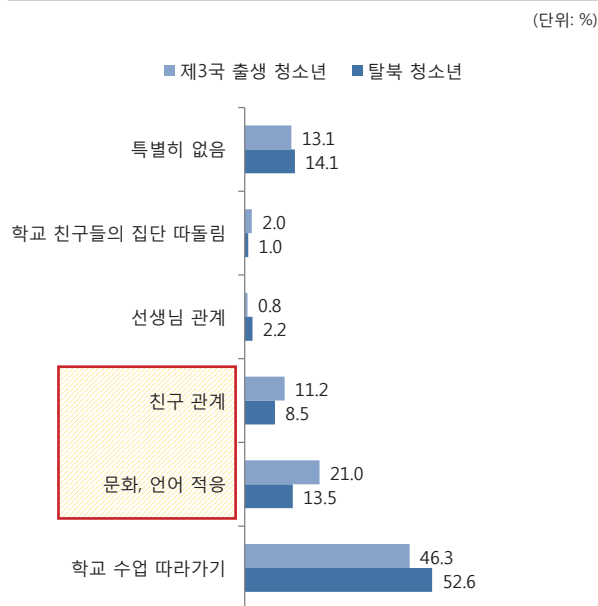
교과학습과정에 대한 준비 정도



1. 교육 - 실태조사 ③ 학교 생활에서 어려운 점 및 필요한 지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들은 '학교 수업 따라가기', '문화, 언어 적응', '친구 관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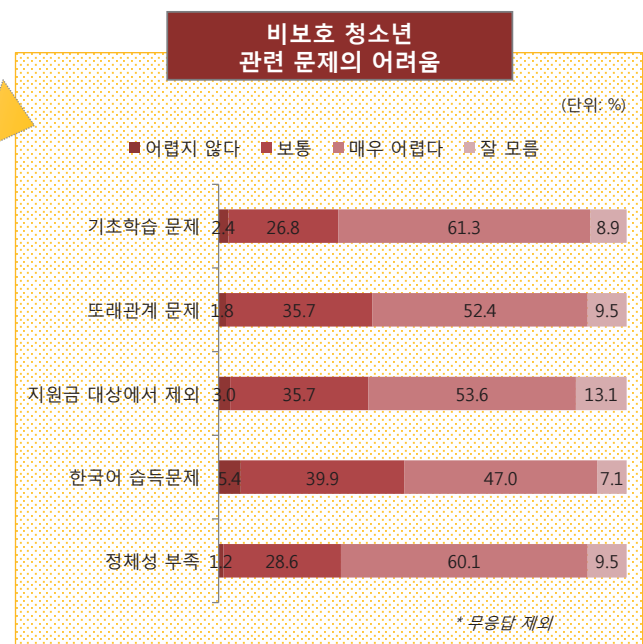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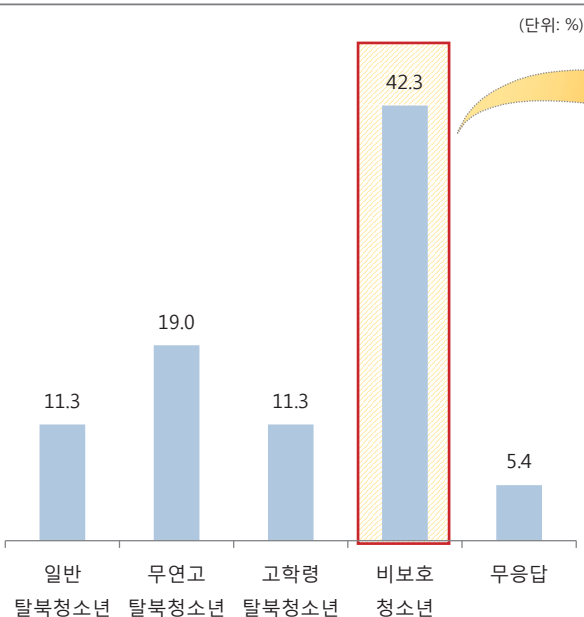
학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1. 교육 - 실태조사 ④ 교육권 지원이 부족한 대상

탈북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탈북 청소년의 교육권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교육권 지원이 가장 부족한 대상은 비보호 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으로 나타남

교육권 지원이 부족한 단계



1. 교육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탈북 청소년의 초기 적응 교육을 보완하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며 일반학교 및 대안 학교를 가기 전 브릿지 교육과 같은 중간과정이 필요함

초기 적응 교육의 중요성

- 3-6개월 정도 심문을 받는데 그 시기에 심문 받는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 아이들이 남들이 심문 받을 때 TV보거나 등등 방지됩니다. 초기지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 탈북 청소년 학교 적응은 초기에 심리, 정서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한 적응훈련중심의 예비프로그램들이 준비돼야 합니다.** 풍성하게 갖춰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실하다 보니까..
- 소규모로 배려하고, 아이들을 집중 케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입학초기에 그런걸 하고, 거기에서 내공이 길러지면 일반학교에 갈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합니다
- ...초기단계 교육에서 우리가 할 부분을 보완해야 할 듯 합니다

- 대상에 맞춰서 탈북자라면 특성이 있다 남한사람과 다른.. 이를 감안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현재 학습능력을 진단 해본다든지..
- 탈북자들은 학교 와서 2학년 1학기로 편입했는데 다니다 보니 수준이 안 맞아서 전학하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부적응 상태로 그 학교에 있든지, 그만두든지 하는 'All or Nothing'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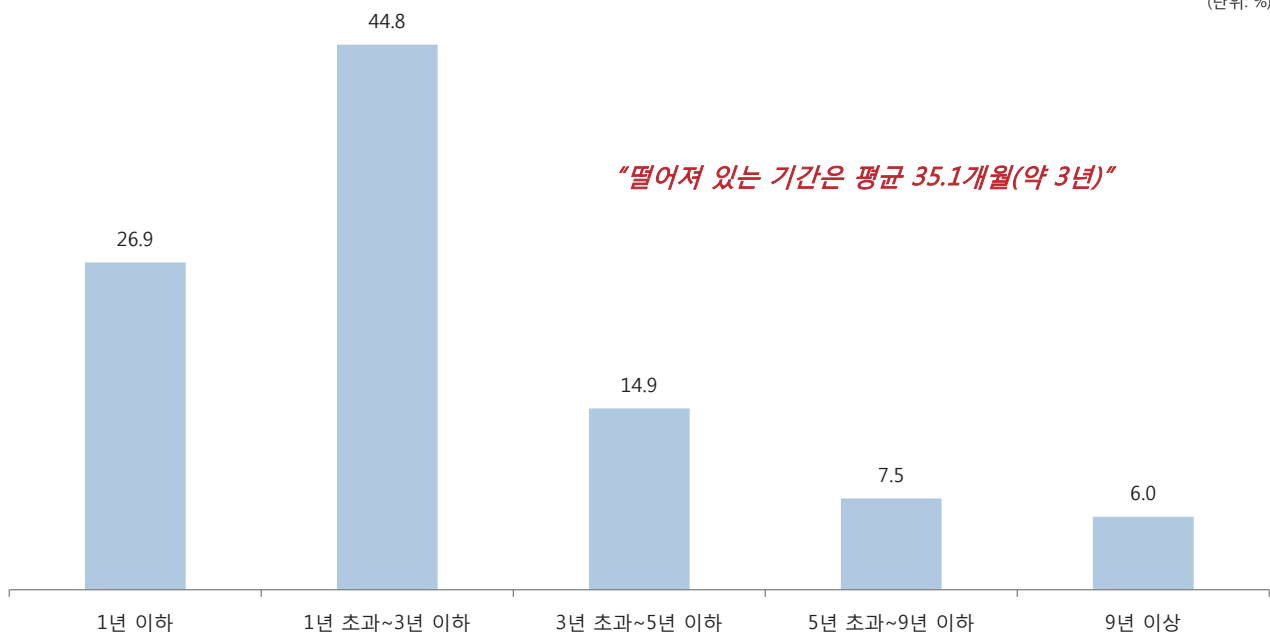
브릿지 교육의 필요성

- 연령 높고 학력이 낮거나 학습경험이 적고 부모지원 미약, 심신외상이 있는 학생들은 연령이 낮더라도 입시 위주의 일반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겠냐고 했을 때 사실 불가능합니다
- 브릿지 교육과 같은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탈북 청소년도 대안학교나 일반학교에서 브릿지하는,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고 나서 이 아이들에게 중학교 과정이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 유독 탈북 청소년 교육문제는 그냥 인큐베이팅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에 무조건 들어가게 하고 적응이 안되면 다시 대안학교로 오는데 이 순서가 문제입니다.** 사실 초기 인큐베이팅 과정은 탈북자 아이들의 내공과 상처 치유 과정을 두고 그 다음 단계에 일반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정책을 스크리닝 해보면 탈북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기간도 달리하고, 그냥 프로그램 참여만으로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디딤돌이 하나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나원을 퇴소한 이후 공교육에 들어가거나 남한사회에 진입할 때 최소한의 적응지원단계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정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또 다른 대안으로서 회복이나 정서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중간 과정의 대안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치료, 회복이 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중간과정을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가족 관계 - 실태조사 ①남한으로 오기 전 부모와 떨어져 생활한 기간

남한사회로 오기 전 부모와 떨어져 생활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6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떨어져 있는 기간은 평균 약 3년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심리정서적 재결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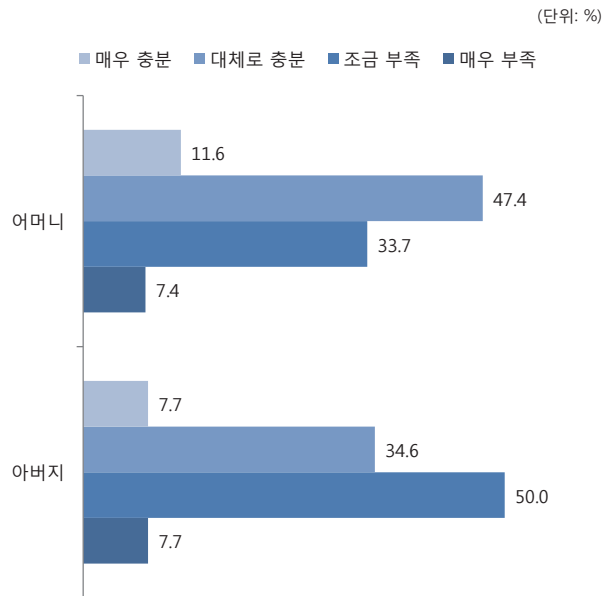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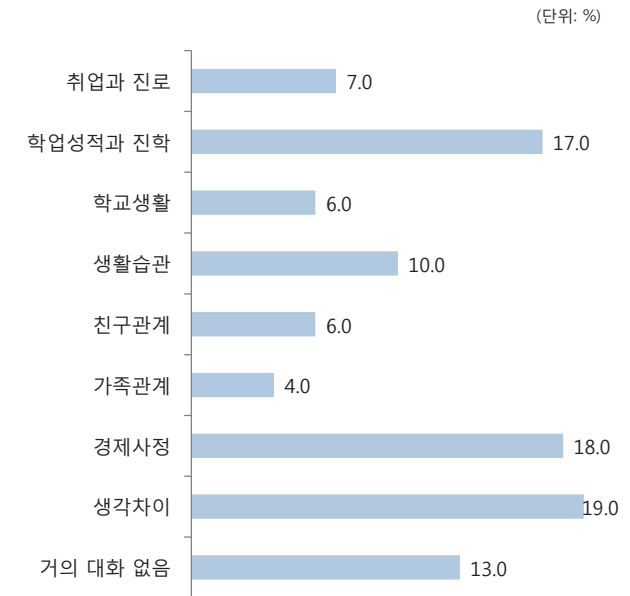
2. 가족 관계 - 실태조사 ②부모와의 대화 정도 및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

부모와의 대화 정도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부모와의 '생각차이'로 의사소통 시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부모와의 대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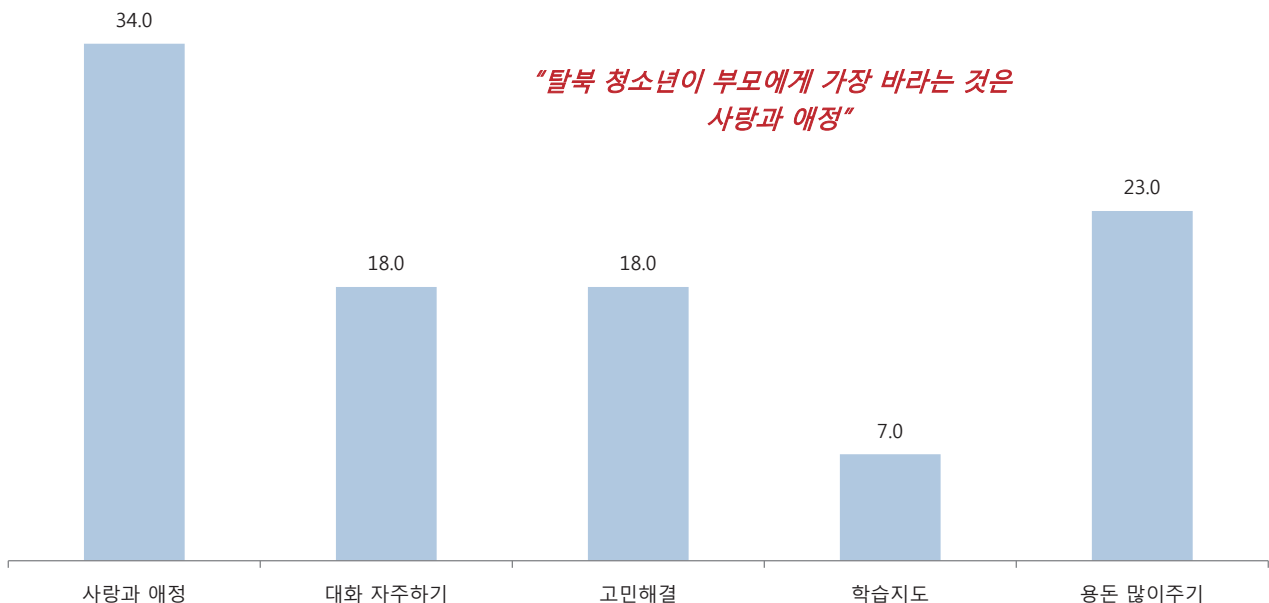
부모와 의사소통 시 어려운 점



2. 가족 관계 - 실태조사 ③부모에게 바라는 점(1순위)

탈북 청소년이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사랑과 애정'으로 나타났으며 '대화 자주하기' 등의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보아 부모와의 관계 증진을 바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단위: %)



2. 가족 관계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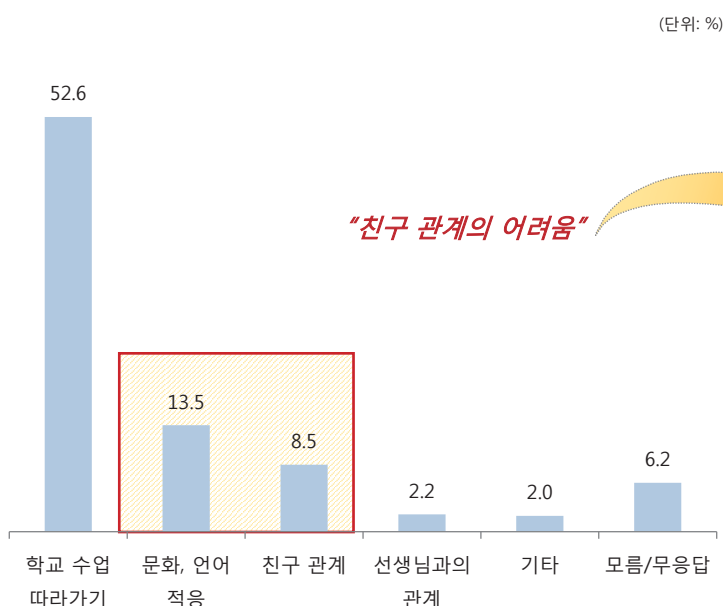
탈북 청소년과 부모는 탈북 과정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로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어렵게 다시 만나지만 마음의 상처와 현실적인 장벽 등이 가족관계 회복의 장애가 되고 있음

적절한 양육의 어려움	마음의 깊은 상처
- 엄마가 가진 트라우마로 인해서 적절한 양육이 안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신체적 폭력, 언어 폭력 등이 누적이 되더라고요. -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정보나 경험이 부족해서, 정착지원시설에 전적으로 의지해버립니다. 키울 여건이 있는데도 제3자에서 부모역할 떠넘기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 초창기 탈북 청소년들은 성장기 결핍을 경험한 애들인데 요즘에 오는 아이들은 굉장히 유아기 때 엄마 보호 떠나서 애착을 충분히 갖지 못한 애들이 많습니다 - 무연고 청소년의 부모들 적응이 어려운 상태에서 아이들 케어가 잘 안되니까 방임도 많고 폭력도 많다고 합니다	- 자녀들은 버려진 듯한 마음에, 엄마는 죄책감이 듭니다 - 엄마는 살려고 갔는데 인신매매 당해서 임신해버렸고... - 부모들이 방임이라기보다는 짊어지기 어려운 짐인 것입니다 - 탈북 여성은 본인의사에 반해서 강제 매매나 인신매매로 아이를 출생하면 아이를 보면 잔학기도 하지만 애 아빠 생각나서 증오심에 불타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고 합니다
떨어져 지낸 시간	현실적인 장벽
- 너무 긴 시간을 떨어져있다가 가족이 재결합되는 것이 통일보다 어려운 집들이 많습니다 - 공통의 기억이 없어서, 느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중국에서 인신매매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가족과 오랫동안 이산상태에 있게 됩니다 - 누가 한국에 먼저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이들은 훨씬 더 유연하니까 자본주의에 빨리 적응하는데 부모들은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경우가...	- 탈북 아이들도 부모님을 그리워하다가 만났는데 서로 불편해질 수 있으니 대안학교로 보내는 것이고... - 부모들도 살아야 하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열심히 뒷받침하면서 떨어져 살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남한에서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사실 엄마는 너무 애쓰고 아이를 사랑은 하는데 그것을 표현할 계기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데려왔는데 여기서는 코드가 안 맞아서 힘들어 하는 겁니다

3. 또래 관계 – 실태조사 ① 학교 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탈북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중 또래 관계에서 일어나는 괴롭힘(무시나 따돌림, 욕설, 폭력, 갈취 등)이 학업 중단, 학교와 사회 부적응, 심리적 상처 등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괴롭힘 당하는 탈북 청소년들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남한에 왔지만 기다린 것은 같은 반 친구들의 멸시와 따돌림, 폭력뿐이었어요”

같은 학교에 다니던 탈북 청소년 친구 3명이 김 군에게 “일진 4명이 욕하고 괴롭혀 못살겠다. 매일같이 때리고, 옷까지 빼앗아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김 군은 이들과 함께 일진을 만나 사이좋게 지내자고 했지만 돌아온 건 주먹들뿐이었다. 김 군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 어느 탈북 청소년의 '눈물' 중, 동아일보, 2012-03-07

그는 어눌한 말투 때문에 초등학교 내내 놀림을 당했다. 중학교 때는 “너 간첩 아니냐”며 시비를 거는 아이들을 종종 두들겨 때렸다.

“전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고1 때 같은 반에 북한에서 온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어딜 가도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다’면서 두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 “학교 다녀서 뭐해요? 수업은 못 알아듣고 애들은 간첩이냐고 놀리는데” 중, 조선일보, 2013-09-24

3. 또래 관계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남한 사회와 청소년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로 인해 탈북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과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북한에 대한 잘못된 편견

- 탈북자도 중요한데 탈북자와 관계돼있는 탈북자와 한 공동체로 사는 남한사람들의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 **탈북자들도 건강해야 하겠지만 이들을 맞이하는 또래집단과 남한사회의 사람들 또한 60년간 가진 편견과 선입견해소가 필요합니다**
- 남한사람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위화감을 갖는 것이, 북한과 관련한 일이 터지면 주변에서 북한 정권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볼까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걸 대변해주고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인식 개선할 수 있는 사람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이들을 강하게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인식을 품고 내보내지만 남한 시선 속에서 파도 두 번 치면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알아서 인식 개선시켜 줄 것입니다
- (탈북 청소년) 아이를 지도했던 남한의 또래대학생은 집안의 부모로부터 걱정스런 질타를 받아야했다. 그러다가 빨갱이 되는 거 아니냐고...
- (탈북 청소년) 아이들의 홈스테이 경험을 하게 해 주셨던 친절하신 아주머니도 사전 미팅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내 집과 주변관계에서 뭔가 정보를 빼내 가는 거 아니냐고.

또래 관계의 중요성

- 일반학교 갔다가 오는 애들이 더 힘들고 상처 너무 많이 받았는데...
- 탈북청소년들은 굳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 못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북한에서 온 것이 흥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부터 숨겨야 하기 때문에...
-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 꿈을 현실화 시켜가는 과정에는 남한의 또래친구들이 함께 해주어야 한다
- **탈북 청소년들이 길찾기 과정에서 의미 있는 남한의 또래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공통의 체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일이다**



탈북 청소년

Ⅲ. 프로그램 제안

1. 전환기 지원- 브릿지센터
2. 가족관계 회복 지원- 사이愛
3. 또래 통합 지원- CiAT

핵심 이슈

시사점

제안 사업

전환기 교육

-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사회와 문화, 교육 환경에 대해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공교육, 직업 훈련 현장에 적응해야 함
- 심리정서적 안정과 자아정체성 확립, 미래와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과 프로그램 부재
- 남한 사회와 교육 환경에 대한 충분한 준비 시간, 과정 부족에 따른 학교 부적응, 진로 혼선의 문제 초래

가족 관계

- 탈북 과정 중 단절 및 갈등으로 인한 가족 관계 문제 발생
- 북한이탈가족의 심리정서적 재결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부재
- 가족관계 문제는 부적절한 양육, 탈가정, 가족 해체 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 초래

또래 관계

- 준비되지 않은 대학 입학으로 탈북 대학생들의 장기 휴학, 중퇴 등 중도 탈락률이 높음
- 통일에 대한 남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필요성 인식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탈북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이질감 높음
- 남북 청소년간의 문화적 이해 및 교류 기회 부족

1 브릿지센터

-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교육과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브릿지센터 설립 및 운영

2 사이앳

- 북한이탈 가족들의 심리적 치유, 소통,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CiAT

- 탈북 대학생들과 남한 대학생들의 또래 통합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1. 전환기 지원 사업 개요

경기도 고양시 거주 중학교 3학년 A군(18세) 학교 부적응 문제로 2번째 자살 실패..

- 2013년 1월 9일 기사 중

브릿지 센터: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교육과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목적

- 하나둘학교 기초교육 후, 학습과 입시 중심의 공교육 환경에 바로 적응해야만 하는 대다수의 탈북 청소년들에게 중간 적응 과정을 통해 조기 개입하여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현실 적응력을 높이는 심리적 기초 토대 마련
- 중도 탈락, 탈선 등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문제 축소
- 학업 및 직업 훈련 등의 효과성 증대
- 국가 지원 및 사회적 비용 소모 축소

지원 대상

- 심리정서 상태 혹은 학력 수준 등의 문제로 일반학교로 진학하여 통합교육이 어렵다고 진단되는 중, 고등학교 진학 연령기 청소년 (13~24세) 및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 비보호 청소년 우선 지원

사업 내용

탈북 청소년 학교·사회 부적응

-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사회와 문화, 교육 환경에 대해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공교육, 직업 훈련 현장에 적응해야 함.
- 심리정서적 안정과 자아정체성 확립, 미래와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과 프로그램 부재
- 이는 남한 사회와 교육 환경에 부적응으로 이어져 사회문제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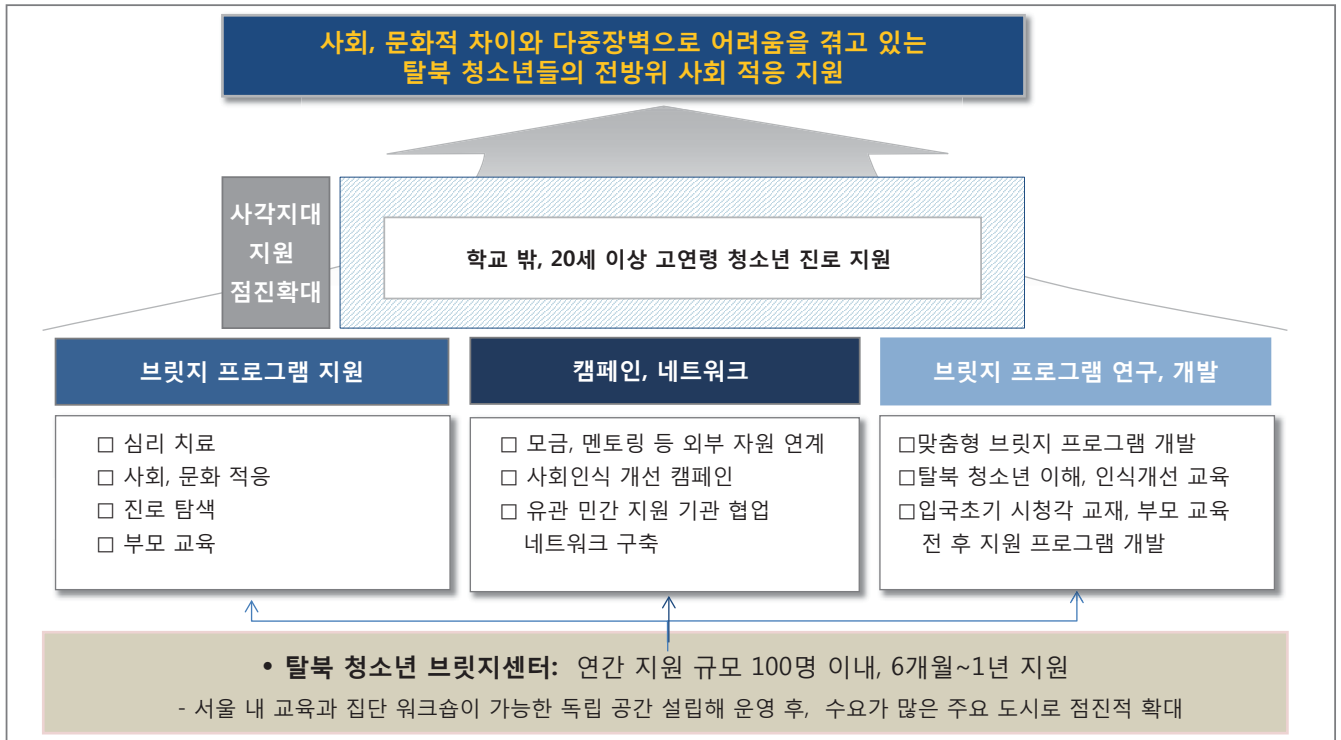
브릿지센터



- 하나둘학교와 공교육, 대안학교, 직업 훈련 등을 잇는 중간 과정의 프리스쿨 프로그램
- 심리정서적 안정과 치유, 자아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 진로 탐색 및 미래 전망에 중심
- 학습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 커리큘럼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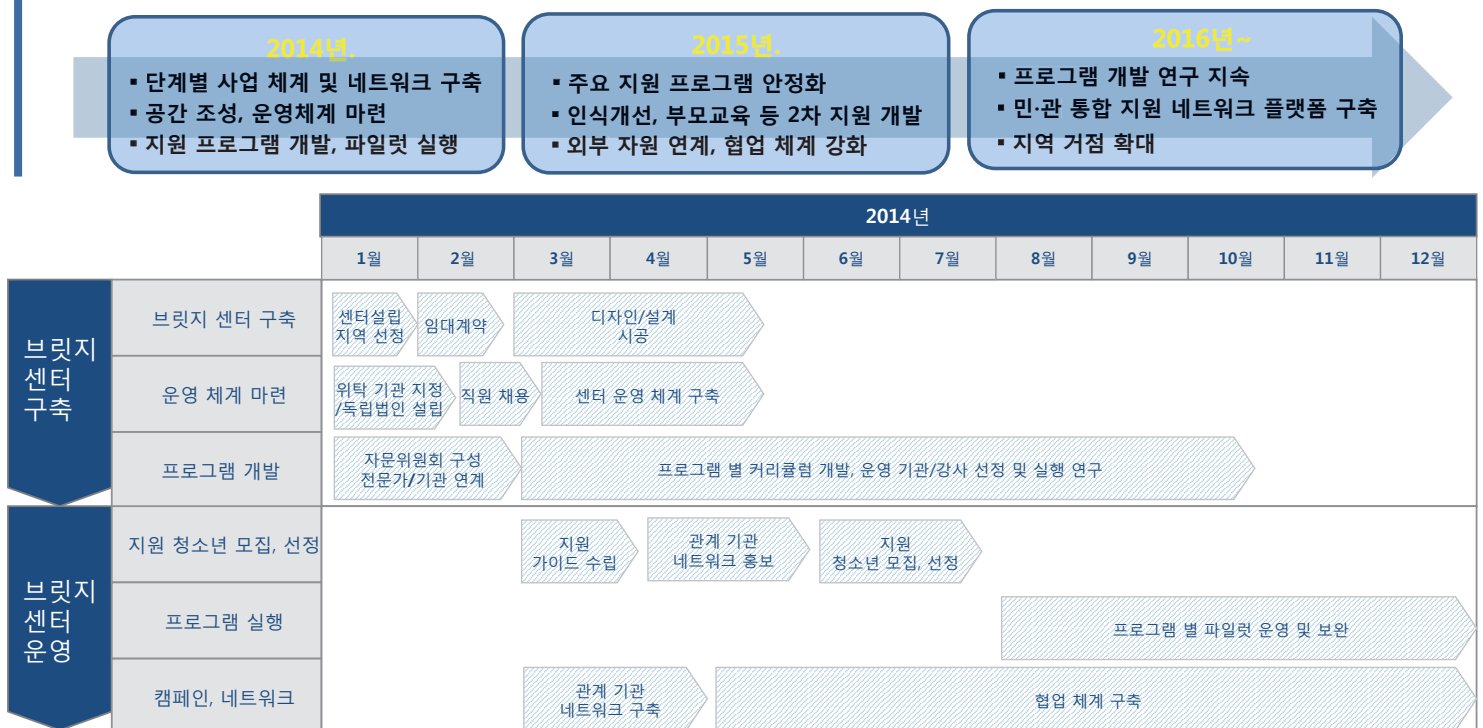
프로그램 1. 전환기 지원 사업 운영 체계

□주요 사업 및 역할은 1) 브릿지 프로그램 지원 2) 캠페인, 네트워크 3) 브릿지 프로그램 연구·개발



프로그램 1. 브릿지센터 구축 프로세스

□초기에는 지원 사각지대인 비보호 청소년들과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민간 기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중, 장기적으로 학교 밖/ 20세 이상 청년들을 위한 진로 모색, 사회 진출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인식개선 캠페인 및 자원 연계 확대



프로그램 1. 브릿지센터 예산(안)

(1년차 예산, 단위: 천원)

구분	세부항목	산출기준	금액
센터 구축	보증금	임대 보증금	100,000
	센터 환경 조성	인테리어, 시공, 집기 구매 등	150,000
	센터 초기 세팅	홈페이지, 브로슈어 제작 등	30,000
소 계			280,000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프로그램 개발	5개 프로그램	100,000
	지원 프로그램 실행	100명 내외, 6개월 지원	250,000
	보조 지원	교통, 식비 등	50,000
소 계			400,000
센터 운영	임차, 관리비/공과세금	1,000만원/월	120,000
	인력 운영	센터장 외 5명 인건비 등	200,000
	사업 추진 등 기타	센터 운영 경상비, 사업 추진	40,000
소 계			360,000
합 계			1,040,000

프로그램 2. 가족관계 회복지원 프로그램 개요

가족의 이해 부족으로 대학 중퇴 후, 탈남할 수 밖에 없었던 지나(가명)

- 셋넷학교 사례 중

사이애: 북한이탈가족들의 심리적 치유, 소통,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 목적

- 탈북 및 입국 과정 시에 겪었던 북한 이탈가족들의 상처 회복과 시간, 물리적 격차에서 오는 심리적 이질감 해소
- 가족간의 이해와 화해, 소통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지 기반 구축
- 가족관계 문제로 인한 탈북 청소년들의 가출 등 탈가정 및 사회 문제 발생 축소

지원 대상

- 북한이탈가족 및 청소년
 - 양부모 가정, 한부모 및 모자 가정, 비보호 청소년 가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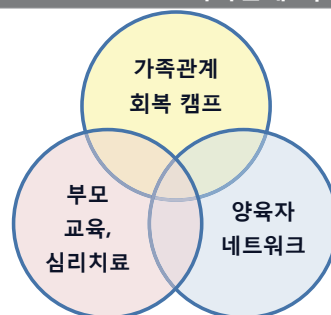
사업 내용

북한이탈가족 관계 문제

- 탈북청소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족의 지지와 관계 회복은 필수적 요소
- 북한이탈가족의 심리정서적 재결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부재
- 이는 부적절한 양육, 탈가정, 가족 해체 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 초래



가족관계 회복 지원 프로그램



- 가족 간 상처 치유와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 캠프 지원
- 부모 양육 교육과 정신건강 치료 지원
- 상호 지지와 정보 교류를 위한 양육자 간 네트워크와 남한 부모와의 교류 지원

프로그램 2. 사이앳 프로그램 구성

가족 관계 회복 캠프

프로그램 방향

해소, 마음열기

소통과 공감

회복, 공동체 결합

- 가족여행의 형태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자신과 가족 관계를 돌아보고 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지원
- 부모와 자녀 각각의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개별 몸풀기, 마음열기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해 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점진적 응집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서로를 감싸 안을 수 있도록 함
- 문화예술을 매개체로 경직되어 있는 마음에 쉼과 여유,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며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관계 회복, 공동체 결합 유도
 - 초기 프로그램은 심신의 이완, 비언어적 교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가능한 무용 동작 치료, 커뮤니티 댄스 적용
 - 주요 프로그램은 연극을 매개체로 역할극 등을 활용해 감정 표출, 상호 이해를 하도록 하고, 함께하는 극화 작업을 통해 응집력 강화,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하도록 함.

부모 교육/ 심리 치료

- 캠프 후속 프로그램으로 장기 부모 교육 지원
 - 자녀보다 사회적응이 더딘 부모를 위해 남한 사회문화/교육 시스템의 이해와 비폭력대화 등 자녀와의 소통 증진 교육 실시
 - 심리정서적 불안정, 정신 건강 문제로 정상적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문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운영

자조모임 지원

- 상호 지지와 정보 교류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양육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남한 교육 시스템 이해 및 정보 교류, 사회 적응 촉진을 위한 남한 부모와의 만남 지원

프로그램 2. 사이앳 추진 프로세스



프로그램 2. 사이愛 추진 예산(안)

(단위:천원)

구분	세부항목	산출기준	금액
캠프 개최	대관, 교통, 숙박, 식대	70명(15가족, 강사/스태프 포함), 2박 3일	25,000
	프로그램비	프로그램 기획, 강사/슈퍼바이저, 공연 등	12,000
	물품 구매, 기록 등	사전 준비, 보험, 재료구매, 홍보물 제작 및 촬영	8,000
소 계			45,000
후속 지원	부모 교육	3개월, 12회 교육장소 대관, 강사비 등	8,400
	부모 상담	부모 상담치료 지원	7,500
	자조모임 지원	월 1회, 4개월	2,000
소 계			17,900
프로그램 운영	사업 운영비	슈퍼바이저 1, 프로젝트 매니저1	36,000
	사업 추진비	사업 추진 경상비	4,000
소 계			40,000
합 계			102,900

프로그램 3. 또래 통합 프로그램

남한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통일에 관심도 없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 외로운 민수(가명)

-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인터뷰 중

CiAT(Circle, Abroad, Together): 탈북 대학생들과 남한 대학생들의 또래 통합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 목적

- 남한 대학생들과의 건강한 교류의 장 형성을 통해 탈북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및 사회 적응 지원
- 일방적 수혜자였던 탈북 대학생들이 사회적 약자를 만나고 이들을 도와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함
- 남북 청년들이 주축이 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으로 통일 의식 고취 및 통일 준비 토대 마련

지원 대상

- 탈북 대학생, 남한 대학생
 - 무연고, 비보호 포괄 탈북 대학생

사업 내용

탈북 대학생 부적응

- 준비되지 않은 대학 입학으로 탈북 대학생들의 장기 휴학, 중퇴 등 중도 탈락 높음
- 통일에 대한 남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필요성 인식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탈북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이질감 높음

»

또래 통합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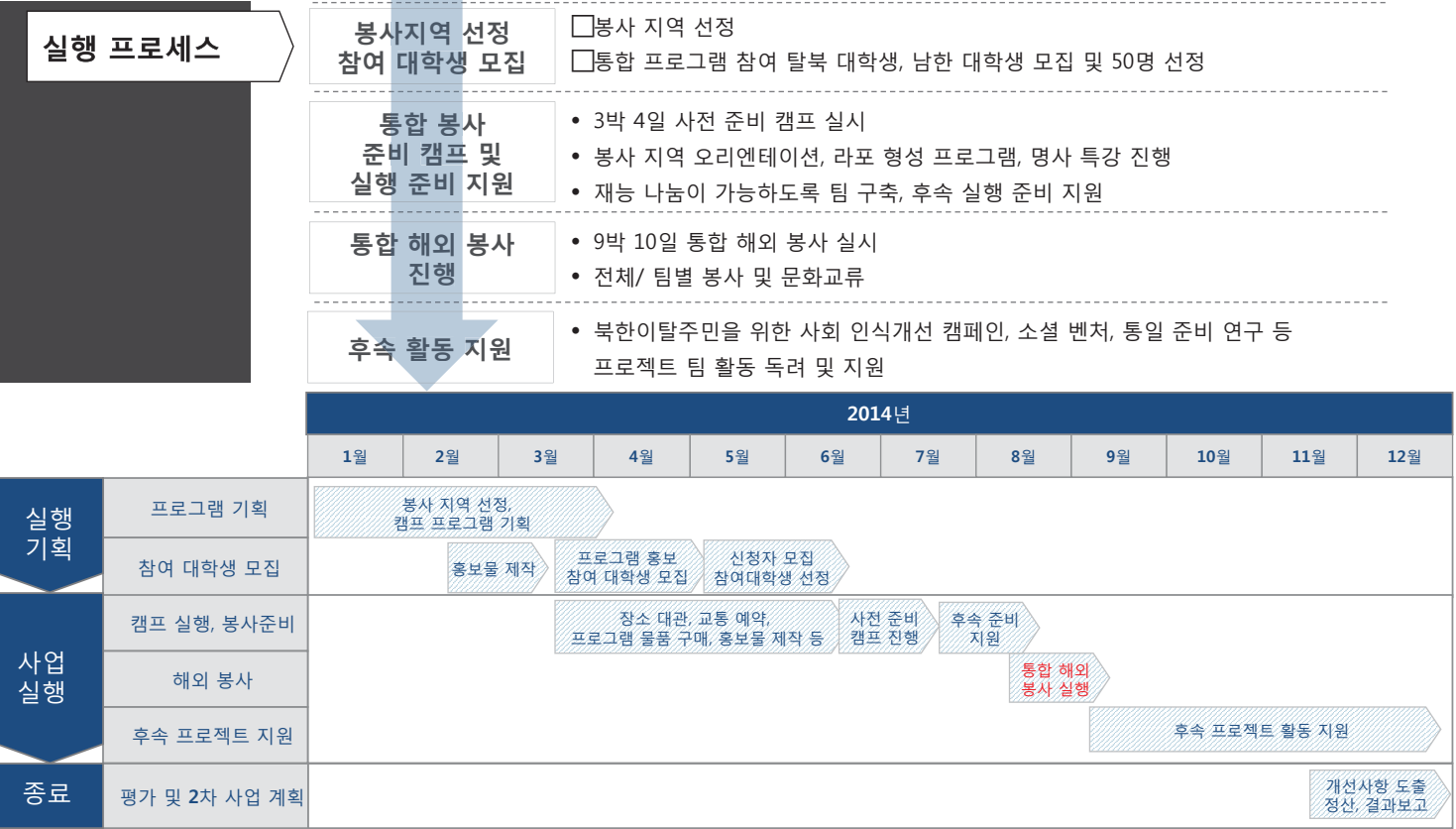
탈북, 남한 대학생 통합 캠프

탈북, 남한 대학생 해외 봉사

후속 활동 연구 지원

- 통합 해외봉사 활동을 위한 사전 캠프 및 팀 준비 활동 지원
- 통합 해외 봉사활동 진행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식개선, 소셜벤처, 통일 준비 연구 등 다양한 후속 활동 지원

프로그램 3. CiAT 추진 프로세스



프로그램 3. CiAT 추진 예산(안)

(단위:천원)

구분	세부항목	산출기준	금액
사전 캠프	대관, 교통, 숙박, 식대	70명(대학생 50명, 강사/스태프 포함), 3박 4일	25,000
	프로그램비	프로그램 기획, 명사 특강 등	10,000
	물품 구매, 기록 등	사전 준비, 보험, 재료구매, 홍보물 제작 및 촬영	8,000
소 계			43,000
해외 봉사	교통, 숙박, 식대	60명(대학생 50명, 스태프 포함), 9박 10일	180,000
	봉사 프로그램	-	20,000
	물품 구매 등	보험, 물품 구매 등	10,000
소 계			210,000
후속 지원	프로젝트 개발	5개 팀, 300만원	15,000
	팀 활동 지원	5개 팀, 40만원	2,000
소 계			17,000
프로그램 운영	사업 운영비	슈퍼바이저1, 프로젝트 매니저1	36,000
	사업 추진비	사업 추진 경상비	4,000
소 계			40,000
합 계			310,000

END OF DOC

SESSION 4.

장애 청소년 분과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컨설팅 리포트

발달장애청소년의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

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

아 산 미 래 포 럼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장애청소년의 고등학교 시기는 의존적인 존재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이동하는 전환기로써 일반적으로 변화와 성장의 시기이며, 이 시기에 오는 급속한 변화들은 장애청소년에게 적응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
 - 특히 고등학교에서 성인생활로의 전환에 대비, 학교와는 다른 지역사회 환경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해야 하며, 직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활동이 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복잡한 상황과 역할 혼란을 초래함
 - 구체적으로 장애청소년들은 생활연령과 신체적 성숙, 기능적인 능력 사이에 불일치로 인해 가족, 또래, 자기 자신의 역할기대에 따른 갈등과 적응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성공적인 진로개발과 직업을 구하는 것 뿐 아니라 성적인 문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문제, 정상적인 가정과 지역사회적응 문제 등 다양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됨
- 특히 전체 등록 장애청소년(14-18세)의 65.7%¹⁾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지적·자폐성장애)청소년은 아동기에 발생하는 장애로 인지력·의사소통·자기통제 능력의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어 평생 동안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보건복지부, 2012)임에도 능력개발과 일자리 지원이 미흡하며, 활동지원 등 타 장애영역에 비해 활용 가능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임
 - 발달장애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다중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의 차이는 있지만 두 장애 모두 사회성 부족과 적절한 자기감정 표현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
 - 지적 및 자폐성 장애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원활한 사회통합을 실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성인이 된 후 정서장애나 정신장애와 같은 2차 장애에도 노출되기 쉬움

1)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은 전체 등록 장애아동 수(86,099명) 중 51,907명으로 60.3%(지적 46.97% + 자폐성 1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기(14-18세)의 발달장애인은 37,345명 중 24,539명으로 65.7%에 달함

- 현행 제도적 지원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아동 수당, 장애아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등이 있고, 2012. 7 관계부처합동으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분절적이고 병렬적인 지원방안(성년후견제도, 의사소통지원, 조기발견체계, 실종예방, 재활치료, 특수교육, 직업교육,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으로 구조화되고 통합적인 서비스 접근이 결여되어 있음
- 따라서 발달장애청소년의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그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실제 생활의 공간에서 학습을 결합시키고 다양한 직업과 생활의 대안을 탐색할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최근 특수교육 영역에서 학령기를 보낸 장애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성인기 진입과 고용, 중등 이후의 교육, 지역사회 참여 등의 다양한 성인기 성과의 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환서비스²⁾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이영선·김환희, 2013).
- 전환서비스는 장애인의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능력, 사회생활능력, 직업재활능력을 모두 고려해야 함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민간단체, 가족들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개인적인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함
- 전환서비스는 발달장애청소년들에게도 성공적인 진로개발과 직업을 구하는 것 뿐 아니라 성적인 적용문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문제, 정상적인 가정과 지역사회적응 문제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함(박정식, 2005)
- 결국 전환서비스는 발달장애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체계적인 전략이자 사회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의 기능과 기술들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음

2) 전환서비스는 포괄적으로 탈시설을 돕는 서비스로도 사용되며 한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 즉 유, 초, 중, 고, 성인기로 나아가는 ‘수직적 전환’과 학급과 학급간의 이동,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의 이동 등의 ‘수평적 전환’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육을 마친 장애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성인 독립생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의도적인 지원서비스로 국한하여 사용함

- 그동안 ‘장애인 자립생활’이 신체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구체화되는 가운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발달장애청소년의 생애주기적 발달과업으로서 성인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준비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전환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in community and by community)’이라는 가치에 바탕을 둔 결과지향적인 과정이어야 하는데, 전환서비스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은 발달장애청소년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삶과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자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임
- 그동안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장애청소년의 전환교육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으나(박현숙, 2004; 신은경, 2004; 김유리, 2011; 성유진·이영선, 2011; 이영선 외, 2011; 이영선·김환희, 2013),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전환서비스에 대한 연구(위대현, 2012)는 희소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의 개념과 프로그램의 구성내용, 추진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재구조화함으로써 발달장애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생활을 원만히 영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 2 절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발달장애인 관련, 전환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를 포함한 기존의 조사연구물과 다양한 문헌자료를 고찰했으며, 이를 토대로 전환서비스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성과, 실천모델 등 내용전반에 반영하였음
- ‘아산미래포럼’을 통한 의견수렴
 - 본 연구는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포럼 위원들이 ‘13년 8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차례에 걸친 좌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을 거쳐 주제를 선정하고 매회 차 역할분담에 따라 토론 자료를 작성하여 공유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장애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연구테마로 개별화 전환계획 수립, 직업전환지원, 주거생활지원, 사회성 기술, 계속교육, 문화예술지원 등을 포괄하는 상위 서비스체계로써 ‘전환서비스’를 도출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추진체계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음

제 2 장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현황

1. 발달장애인 현황

- 2011년 말 기준으로 장애 등록한 지적장애아동 수는 40,439명으로 전체 지적장애인의 24.2%이며, 자폐성 장애아동은 11,468명으로 전체 자폐성장애인의 72.3%임
- 이들 두 유형의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아동의 수는 51,907명으로 전체 장애아동 86,099명의 60.3%에 달함

〈표 1〉 등록장애인 수 - 연령별,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인구현황		
		전체장애인 수	장애아동 수	전체장애아동 별 분포율
장애유형	지적	167,479(6.65)	40,439(24.15)	46.97
	뇌병변	260,718(10.35)	13,609(5.22)	15.81
	자폐성	15,857(0.63)	11,468(72.32)	13.32
	지체	1,333,429(52.9)	7,522(0.56)	8.74
	청각	261,067(10.36)	5,371(2.06)	6.24
	시각	251,258(9.97)	3,903(1.55)	4.53
	언어	17,463(0.69)	1,715(9.82)	1.99
	심장	9,542(0.38)	694(7.27)	0.81
	간	8,145(0.32)	347(4.26)	0.40
	신장	60,110(2.39)	308(0.51)	0.36
	정신	94,739(3.76)	241(0.25)	0.28
	간질	8,950(0.36)	221(2.47)	0.26
	안면	2,715(0.11)	119(4.38)	0.14
	장루 요루	13,098(0.52)	75(0.57)	0.09
	호흡기	14,671(0.58)	67(0.46)	0.08
전체		2,519,241(100)	86,099(3.42)	100

자료: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2011.12기준

- 2012년 4월 현재 85,012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데, 이들 중 지적장애 46,265명, 자폐성 장애 7,922명으로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63.7%로 파악되고 있음
- 이들 재학생의 29.4%인 24,941명이 고등학교(전공과 포함) 과정에 재학 중임

<그림 1>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관별 분포현황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2.09기준

- 2012년 2월 현재 고등학교과정 졸업 장애학생 6,139명 중 취업을 한 학생은 1,651명으로 45.8%의 취업률을 보이나 복지관, 전공과 등을 제외하면 실제 취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표 2>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

구분		졸업생 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	
			전공과	대 학	농·어·임·업·노·무	포·장·조·립·반·공·예	IT·정·보·서·비·스·무·상·업	이 료	복·지·관 등	기 타		소계
특수학교		2,469	1,224	112	8	66	25	90	80	171	443	39.1
일반학교	특수	2,576	536	373	68	186	176	-	354	214	1,013	60.8
	일반	1,094	43	529	11	30	22	-	14	111	195	37.4
계		6,139	1,803	1,014	87	282	223	90	448	496	1,651	45.8

※ 진학자수 중 대학 1,014명 : 전문대학 517명, 대학교 497명

※ 진학률은 전공과 29.4%, 대학 16.5%(전문대학 8.4% 대학교 8.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2.09기준

- 2012년 4월 현재 전공과설치 특수학교는 모두 108개교이며 학급 수는 359개로 여기에 3,262명이 재학 중이며 이들 중 지적 장애학생이 2,621명으로 80.3%에 달함

- 2012년 인천과 경기 일반학교 3개교에도 전공과 5학급이 설치되었으며 30명의 학생과 8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음

〈표 3〉 전공과 설치현황

특수학교	장애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학교수	9	4	79	9	7	108
	학급수	24	10	283	20	22	359
	학생수	188	97	2,621	168	188	3,262
일반학교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3		5		30		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2.09기준

- 2012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생 1,354명 중 687명이 취업하여 51.2%의 취업률을 보였는데 취업학생 중 38.3%는 복지관 등에 일 자리를 얻었음

〈표 4〉 전공과 졸업생 취업률

전공과 이수자	진학자 수	취업자수							취업 률 (%)
		농업 어업 임업 노무	포장 조립 운반 공예	IT정보 서비스 사무 상업	의료	복지관등	기타	소계	
1,354	11	37	149	79	30	263	121	687	51.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2.09기준

2.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 현황

- 학교 이외에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와 관련하여 추진체계상 유사한 명칭의 조직과 사업들이 일부 있으나 이들은 탈시설 관련 서비스 혹은 직업에 초점을 둔 특정 목적을 가진 협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을 지원함
 - 교육청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는 일자리 등 직업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복지관, 장애인단체 및 직업재활시설 6개소에 전환기 직업재활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는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외부 펀드에 기반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완주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장애인복지관 단위에서 1-2명의 사회복지사 혹은 직업재활사가 기획과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제 2 절 문제점

- 고등학교와 전공과 재학생 24,941명 중 약 70%를 발달장애청소년으로 추정했을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환서비스의 주요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약 17,5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을 얻고, 주거생활을 하며,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국에서 이루어진 전환종단연구(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2, NLTS2)의 결과,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의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학생들은 다른 장애 영역으로 판별된 학생들과 비교하여 절반정도 낮은 중등 이후 교육기관 등록률 및 취업률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음(Newman et al, 2009)
 - 또한 이들의 중등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훈련의 참여형태는 다른 유형의 장애학생들과 비교하여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합교육보다 분리교육 환경에서 중등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Wagner et al., 2003), 실제 고용현장에서 진로직업교육 및 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보다 교내 혹은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프로그램(예. Work study program)이나 일상생활훈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음(Newman et al., 2009)
- 최근 발표된 발달장애청소년의 전환성과에 관한 국내의 연구결과(이영선·김환희, 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 발달장애청소년들도 학교에서 체계적인 전환교육과 성과의 부족으로 지역사회 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많은 것으로 보고됨
 - 첫째, 발달장애학생의 졸업 시점의 전환성과는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고용성과에 있어서

취업이 이루어진 학생들도 단순한 초기 수준의 직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중등 이후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전공과 또는 복지관서비스 등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음. 독립생활은 가장 낮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는 영역이었으며 조사대상 학생 중 2%만이 독립생활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여가성과의 경우 절반 이상의 학생이 가족, 또래, 동아리 멤버 등과 함께 정기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한다고 보고하여 다른 전환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둘째, 학교에서 제공한 진로·직업교육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업 교과수업, 직업박람회 및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정보 및 사업체 추천 등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 지역사회와 연계된 실제 고용경험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제공되고 있었음
 - 셋째, 개별화교육계획(IEP)에서 전환영역의 목표가 포함된 경우는 전체의 57%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은 고용관련 목표였음
 - 넷째, 발달장애청소년의 졸업 시점의 전환성과 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별화전환계획의 작성과 실시, 전환 목표의 포함 여부 등이 보고되었음
- 선행연구결과들은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기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직업, 주거, 사회성, 교육, 여가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제 3 장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의 의의와 구성

제 1 절 전환서비스의 의의

- 전환서비스(transition services)³⁾란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생활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성인기 초기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중등 특수교육을 마친 후 직업을 갖게 되는 사이에 주어지는 일련의 지원서비스로 미국에서 장애인의 진로교육과 공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되었음
-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의 정의 : 장애 학생이 중등이후 교육, 직업훈련, 고용(지원 고용포함), 평생교육, 독립생활 및 지역사회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서비스
- Halpern(1994)의 정의 : 장애학생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기에는 사회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 즉, 주로 학생의 행동으로부터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성인의 역할을 이행하도록 하는 지위의 변화로 취업, 중등과정 이후의 교육 참여, 가정의 유지, 지역사회의 적절한 참여, 만족스러운 대인 및 사회관계 경험을 포함토록 함
- 결국 전환서비스는 개개 장애청소년의 요구와 결과중심 과정으로 고안된 서비스 활동으로 성인교육, 직업훈련, 통합된 취업활동(취업 지원서비스 포함)과 교육, 성인생활을 위한 서비스, 독립생활 또는 사회참여 등 학교에서 사회로의 적절한 전환을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특히 발달장애청소년의 전환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 통합적 프로그램은 미흡한 수준이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발달장

3)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transition, transitional services, transition from to society, transition for life’와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었는데, 이 용어가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전환교육’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전환서비스, 전환과정, 직업전환, 전이, 전이서비스’ 등의 용어로 사용되었음(조인수, 2002). 본 연구에서는 학교체제에서 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전환서비스’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

애청소년들은 특수학교의 전공과나 보호작업장 등으로 진로를 선택하거나 오히려 가정에서 방치가 되는 경우도 많음

-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전환훈련 프로그램과 성인 생활에의 적응 관계를 조사한 다수의 연구들은 중등학교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전환훈련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직업과 성인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음(Benz & Lindstrom, 1997; McMonnell et al,1996; Wshman, 1996)
- Hasazi 외(1985)는 장애학생들의 현장실습 유무와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한 관련성을 조사하였는데, 고등학교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훈련 프로그램(현장실습)을 체계적으로 받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직업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음
- 전환교육모델을 제시한 Wehman 외(1985)는 실제로 통합된 환경에서 장애학생들이 교육받는 것이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장애학생들은 가능한 한 실제사회와 같은 통합된 학교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작업현장을 방문하고 그 곳에서 훈련의 기회를 가져야한다고 하였음
-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성인이 된 후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제 지역사회에서 적응과 생활을 돕는 지역사회중심의 전환기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제 2 절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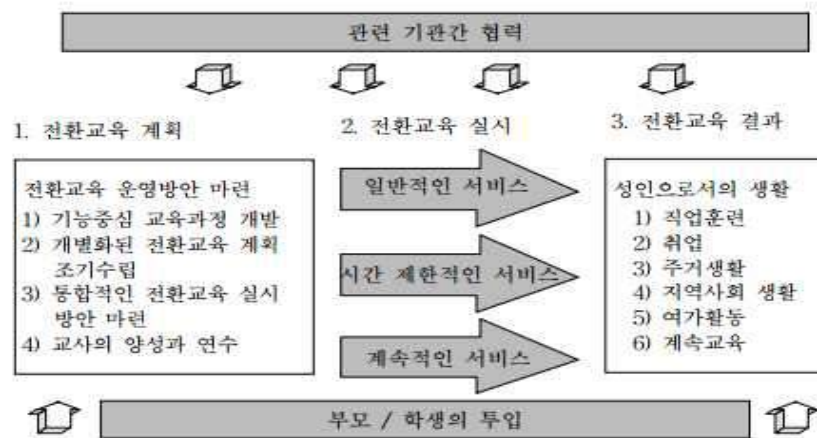
1. 발달장애인의 전환이슈와 지원 영역

- 지적장애청소년에게 있어서 전환이슈는 진로나 직업유형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목표를 개발하기 위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나 진로 흥미를 탐색하기 위한 기회가 필요함(Wehman, 2006)
-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기술훈련과 기능적 교육과정은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며, 사회적 기술은 중등학교 이후 교육환

경에서 지속적인 상호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와 함께 전환서비스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됨 (Crites & Dunn, 2004)

-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은 여타 장애를 가진 학생에 비해 사회적응에서 보다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모든 장애학생보다 또래관계, 과외활동 참여(운동, 취미활동 등)가 적고 심지어 사회적 고립, 의존, 그리고 일을 비롯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Howin, et. al., 2004)
 - 전환이슈로는 보다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성 기술훈련이 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며 이러한 훈련은 전환서비스 계획안에 통합되어야 함
- 앞서 고찰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성인전환기의 발달장애청소년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중심의 전환서비스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발달장애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졸업 후 성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사회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학교에서의 교육 중심의 전환교육 모델은 전환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전환교육을 실시하며 전환교육의 결과로 직업훈련과 취업, 주거생활, 지역사회생활, 여가활동, 계속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Susan et. al., 1994)

<그림 2> 교육중심의 전환교육모델



자료: Susan et. al.,(1994)

- 미국의 경우 전환서비스가 주로 교육영역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여 프로그램 모형을 상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전환성과를 고려했을 때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교육영역과는 또 다르게 사회복지영역 중심의 모형을 개발하고 적극 시도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오히려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 가치를 구현하는데 더욱 유용할 수 있음

2. 전환서비스의 구성

- 발달장애인의 전환이슈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는 직업전환, 주거생활, 사회성기술, 계속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그리고 이들 개별 서비스는 전환서비스의 우산(umbrella) 아래에서, 개별화 전환서비스계획(ITP)에 기반하여 상호 연계성을 갖고 작동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함
- 발달장애청소년의 전환을 돕는 실천가들은 서비스의 전체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과정을 설계하고 경로를 선택하는데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에 대한 신념을 가장 높은 원칙으로 간주하면서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개념을 개별화 전환서비스계획 수립과정 전반에 반드시 반영해야 함
- 구성요소로 포함된 하위 프로그램 군은 모듈화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와 기관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추진체계에서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함(ITP는 필수)

〈그림 3〉 전환서비스의 구성



1) 개별화 전환서비스계획

(1) 개념 및 필요성

- 개별화 전환서비스계획(Individual Transition Plan, ITP)은 일반적으로 발달장애 청소년기 중 특수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기 전인 만 14세부터 (1997년 IDEA개정안)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계획서로, 개별화 교육계획(IEP)이 학령기 학습권에 관한 내용을 담보하고 있다면 ITP는 졸업 후의 삶을 준비하는 총체적 계획이라 할 수 있음
- ITP의 필요성은 장애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부터 졸업 이후의 수직적 전환을 용이하도록 실천되는 것인데, 발달장애청소년들의 고등교육, 진로지도를 보다 구체화하는 체계적 과정으로의 의미가 있음
 - ITP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구성요소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음. 현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는 고등부 졸업 이후 성인의 삶으로의 전환기에 필요한 직업전환지원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이 커다란 범주에서 어디에서 살 것인가? 무슨 일을 하면 살 것인가? 그리고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점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면 ITP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는 많이 달라질 것임

- 교육현장에서 ITP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많이 있으나 실제로 ITP를 통해 현장에서 개별지원을 행한 연구물은 전무한데, 이는 IT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많은 부분이 학교 이외에서 실현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학교 교사나 부모가 장애청소년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관점의 한계 때문이기도 함

(2) 서비스 개발영역

- ITP에는 장애학생의 개별적 강점과 단점 뿐 아니라 졸업 이후 성인기에 어디에서 거주할 것이며(그룹홈, 생활시설, 단기생활시설 등), 누구와 함께 살 것이며(가족, 동료, 혹은 독립 등),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일반고용, 지원고용 혹은 보호고용 등), 직업과 일상 이외에 인간적 성숙을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문화, 여가, 복지 등)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장애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을 하고 생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이 요구되므로 ITP의 범위는 종합적이어야 함. 구체적인 직업기술 훈련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의 다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돈을 제대로 쓰거나 관리하며, 혼자 일터에 출퇴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 따라서 이 계획서는 장애청소년의 전반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 영역을 기술하여야 함
 - 또한 직업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들을 중심으로 하여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를 설정해야 함

2) 직업전환지원

(1) 개념 및 필요성

- 직업적으로 특별한 요구와 관련된 문헌에서는 공통적으로 진로·직업교육, 유급고용 경험 등이 졸업 후 장애청소년들의 긍정적인 고용성과를 이끈다는 점이 발견됨(sitlington & Clark, 2006; Seconte, 2007)

- 진로·직업교육은 경제적·사회적·개인적 성취와 개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생산적인 직업 활동 참여 등 각 개인의 잠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학교, 가족,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를 함께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임
- 진로·직업교육은 전환서비스에서의 핵심적인 실천으로 장애청소년들의 진로 인식, 탐색, 준비 및 유지 등과 같은 공통된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성인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임
- 경쟁 유급고용 경험은 획득된 진로 및 직업교육 지식과 기술을 강화시키고 적용을 촉진시킴. 직업개발, 직업배치 및 직업 코칭 유형 안에서의 특별한 지원은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직업경험을 촉진시키는데 유용함

(2) 서비스 개발영역

- 직업 준비교육(Job Readiness Training)은 개인을 직업의 세계에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적절한 직업행동, 시간 지키기, 적절한 복장, 차림새 등을 포함함
-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은 미래의 고용주에 의해 제공된 구체적인 직업능력 훈련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은 이 기간 동안 임금을 받으며, 훈련 이후 비슷하거나 혹은 훈련분야와 같은 직업영역에서 일하게 됨
- 사업체주도의 적응훈련은 정식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수행 기능과 태도 등을 습득함
 -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기능과 태도 등을 사업체에서 평가한 후 발달장애청소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이나 학교, 부모의 지원을 받고, 훈련의 대부분은 회사에서 적응훈련을 주도함
 - 목표 정해주기, 개별지도, 단순한 것부터 단계적 지도, 현장지도, 환경을 고려한 훈련, 설명-시범-시킴-반복, 보상하기 등의 접근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짐

○ 경쟁 유급고용 경험은 고용가능성이 있는 사업주와의 만남, 실질적인 직업과 훈련 탐색 등을 통해 직업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음

- 지역사회 서비스기관 혹은 학교와 기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직무분석 → 직업배치 → 지속적인 지원의 형태를 유지하여 지원고용으로 연계 가능함

○ 지역사회 기업과의 지원고용 연계

- 지원고용은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장애인 복지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경쟁적 고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거나 혹은 심한 장애로 인하여 고용이 때때로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된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쟁적 고용으로 정의됨
-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한 경험이 있는, 그리고 현장훈련의사가 있는 지역의 사업체 중 식품, 자동차 조립, 수산, 제과점과 커피숍, 의상과 관련된 곳에서 발달장애청소년이 소속된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의 직무지도원 파견을 통해 계속지원을 유지함으로써 가능함

3) 주거생활지원

(1) 개념 및 필요성

○ 장애인은 가능한 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향한다는 원칙⁴⁾에 따라 대규모 보호·시설 수용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거주형태로,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생활에서 지역사회 내에 통합된 생활로, 규제가 많은 생활에서 자율성과 선택이 보장받는 생활로, 의존적인 생활에서 자립적인 생활로의 이전이 삶의 질 향상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

4)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이러한 권리와 사회의 완전한 통합 및 참여의 완전한 향유를 추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a)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거주,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b) 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로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또는 격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정 내, 거주지,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c)대중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한 기초위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할 발달장애청소년의 거주생활지원의 범위는 그동안 특수 주거형태, 즉 생활시설이나 요양원, 단기보호시설에 한정되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왔고 지역사회생활과 자립생활 중심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여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그동안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는 원 가정에서 가족과 생활하거나 지역사회 내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구해 독립생활을 하거나 공동생활형태로 그룹 홈이나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정도임
- 삶의 주기를 통합적으로 조망할 때, 발달장애청소년은 언젠가 부모를 떠나 독립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이 될 것임. 부모와 거주해야 하는 제한성으로 인해 직업생활을 위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 수 있고, 의존적인 성향은 이들의 가능성을 더욱 한정하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지역사회 내의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거생활지원과 더불어 주거생활이 다른 직업, 교육, 여가 활동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음

(2) 서비스 개발영역

- 발달장애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의 질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다 심층적인 사례관리 접근이 요구됨
- 발달장애청소년의 주거생활지원은 본인 및 가족의 상황, 개별적 선호, 서비스 요구수준 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룹 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생활지원 및 서비스 대안마련이 필요함
- 지역사회 내 주거환경 적응 및 활동유형(완전독립형, 부분독립형, 공동생활형, 요양형 거주시설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접목하거나 의뢰할 수 있음

4) 사회성 기술

(1) 개념 및 필요성

- 사회성 기술은 인간관계 및 주어진 사회 환경에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국립특수교육원, 2009)로 정의되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 인격체로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기술임
- 독립생활을 위한 자기관리, 금전관리, 건강관리, 옷차림새, 의사소통기술 등 일상생활기술을 포함하는데 이는 발달장애청소년들에게는 지역 사회에서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영역임
- 전환기 장애청소년에게 사회성 신장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생애초기 또래형성 기회부족에 따른 낮은 사회성 능력을 개선할 수 있고 자기 존중감, 자기결정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신장, 진학 또는 취업 역량 증진, 사회활동 참여역량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사회성 기술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 본격적인 사회활동에 이르기까지 유아-아동-청소년의 성장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습득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장애청소년들은 장애로 인해 보호, 치료, 재활 등의 특수한(격리, 또는 분리) 환경에서 자라나므로 대부분 사회성 발달에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음

(2) 서비스 개발영역

- 수단적 기능 향상을 통한 사회성 기술 신장(‘나’의 전제)
 - 자조능력 : 착탈의, 이동, 식사 등의 자기생존 기술
 - 청결과 위생 : 이 닦기, 세면, 목욕, 대소변 처리, 생리처리 등 청결유지 기술
- 사회 정서적 기능 향상을 통한 사회성기술 신장 요소들
 - 인사 : 소개, 상황에 따른 인사
 - 커뮤니케이션 :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화 등

- 의상 : 옷의 종류와 기능, 어울리는 의상, 시간·장소·상황에 따른 옷의 선택 등
- 사교 : 방문, 맞이, 경조사, 식사, 음주, 차 등
- 공공장소 : 거리, 엘리베이터 이용,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기차·비행기 이용, 공연관람, 공중화장실 이용 등
- 직장 : 면접, 근무(동료관계, 근태) 등

5) 계속교육

(1) 개념 및 필요성

- 계속교육⁵⁾은 특정 시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생의 모든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데 특징이 있음 (박원희, 2002).
- 발달장애청소년 역시 그들의 자아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계속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체제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학습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음
- 일반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프라(일부 장애인복지관, 이대 평생교육원 등)는 매우 취약한 실정임
-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연구(곽승철 외, 2010)에 따르면 장애인 성인들은 자립생활, 교양교육, 여가교육, 직업교육의 순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음
 - 최복천 외(2010)의 연구에서는 자립생활, 직업교육, 문해교육, 정보교육, 여가교육의 순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음

5) 학교 졸업 이후에도 가정, 사회 등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식화된 학교교육과 학교 외의 교육을 포괄하는 전 생애에 관련된 평생교육의 의미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함

(2) 서비스 개발영역

- 교육내용으로 자신의 신체지수 측정 및 변화 모니터, 음식의 칼로리, 조리법, 유해성에 대한 이해 증진, 운동하는 방법 습득, 바디펌프, 요가를 통한 건강관리, 부모교육, 현장학습, 자기주장 및 옹호기술훈련,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기술, 동료 관계에서의 예절,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 직업생활에 필요한 소양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음

6) 문화예술

(1) 개념 및 필요성

- 장애인의 문화권 실현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과 힘을 일깨워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문화예술 활동은 장애인들의 자존감이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장애로 인한 본인에 대한 정체성, 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 등은 장애청소년들에게 내적, 외적 영향력으로 크게 작용하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장애청소년들에 문화예술 활동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의 개발을 하여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변화와 성장을 이룰 권리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활동 참여기회의 확대는 이들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재활을 촉진시켜줌
 - 나아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적인 소질을 개발·발달시킴으로써 문화예술관련 직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동과 청소년에게 전문적으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뷰티플 마인드’와 ‘몸짓과 소리’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며 경기도 에이블 아트센터 및 그 외 기존의 복지관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일회성이나 계절학기 캠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변경희 외, 2012)

- 따라서 문화예술의 무한한 기능적 역할을 고려해 문화예술 활동은 발달장애청소년의 전 생애주기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임
- 특징적으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몇 가지 활동을 제외하고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적장애 학생이 많이 하는 ‘댄스’와 ‘합창’은 집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폐성장애 학생은 참여가 저조한 반면 자폐성장애 학생이 많이 하는 ‘피아노’는 연주 스킬의 학습을 요구하므로 지적장애 학생들의 참여가 오히려 저조함(변경희 외, 2012)

(2) 서비스 개발영역

- 예술프로그램에는 그림, 직조, 도예, 바느질, 음악, 연극, 무용, 데코파쥬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서 예술작품 전시회, 대학이나 학교에의 현장배치학습, 가족친지 초대행사, 지역사회단체방문 발표, 지역산업체나 기구와의 연계 활동 등이 가능함
- 최근 등장한 스마트 태블릿과 같은 기기는 이동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이제까지 가능하지 않았던 기능들을 가능하게 해 줌과 동시에 특수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지닌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방법으로 문화예술 체험이 가능함
-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iPad 등의 사용으로 다양한 교육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폐아가 스마트 태블릿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게 된 사례가 다수 있음

제 4 장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 추진체계

제 1 절 전환서비스의 생태학적 접근

- 장애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전환하는 곳은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이며, 각 지역은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지역단위 체제 내에서 지원 방안이 구축되어야 함

- 생애사적 측면에서 발달장애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제공되어야 할 전환서비스의 내용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간의 협력적인 연계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함
- 개인의 발달과정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생태학적 접근에서 본다면 환경을 고정된 방식으로 장애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정적인 성격이 아니라 개인과의 상호 작용에 의한 역동적이며 항상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장애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전환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영향을 주는 환경은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외체계와 거시체계, 연대체계의 5가지 수준으로 구성됨
 - 미시체계(microsystem)는 가족, 보호자, 친구와 같은 장애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환경으로서, 장애청소년과 직접 접해있는 환경 사이의 관계를 나타냄
 - 중간체계(mesosystem)는 학교나 교회 등 장애청소년의 미시체계들 간의 연결이나 상호관계임
 - 외체계(exosystem)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등 장애청소년이 직접 접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임
 - 거시체계(macrosystem)는 정부, 사회·경제·정치적 체계 등에서 장애청소년이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 법률, 관습 등을 의미함
 - 연대체계(chronosystem)는 장애청소년의 발달이 시간적 차원 안에서 일어남을 강조함
-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이 그동안의 성장과정에서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에서 머물러있었다면, 성인기를 준비하는 전환시점에서는 외체계와 더 나아가서는 거시체계와의 관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가 재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함
 - 중요한 전환단계에 있는 발달장애청소년들을 더욱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 교육 및 고용 준비체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만 하며, 중등교육 이후 교육 및 성인 생활로의 전환은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의 많은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임

〈그림 4〉 장애청소년의 생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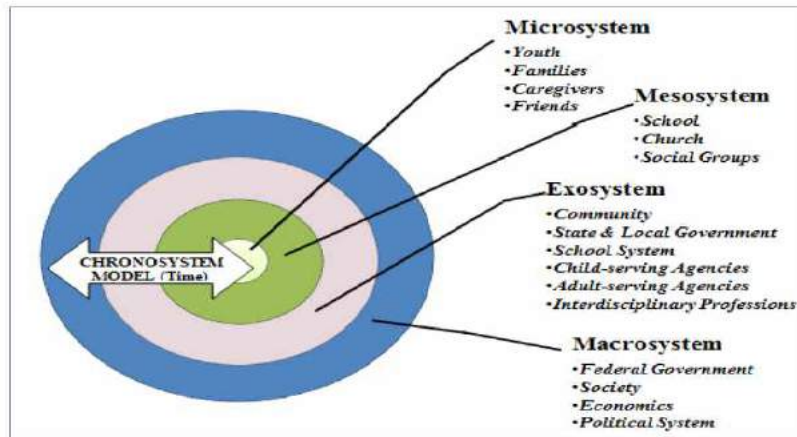


Figure 2.1. The ecology of transitioning youth with disabilities, based upon Bronfenbrenner Chronosystem Research Model (1996)

제 2 절 전환서비스 주도기관으로서의 적합성 검토와 협력체계 구축

- 발달장애청소년의 전환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임. 그렇지만 누가 선도기관(leading agency)이 되어야 하는지, 개별적인 전환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어떠한 조건에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 지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함
- 전환서비스 협력체계와 관련된 조직들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사업체 등으로 볼 수 있음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지사,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유관기관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

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작업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업체 :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일반 사업체

○ 지역사회 조직들의 전환서비스 주도기관으로서의 적합성은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민간 유관기관의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음(김치훈, 2013 아산미래포럼 장애청소년 분과 내부자료)

- 이는 전환서비스를 위한 협력체계구축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전환계획(ITP), 주류환경 통합, 졸업 전 임금고용의 경험, 적극적인 가족의 개입, 서비스 간 조정, 구직 및 직업 배치, 사례관리 등의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음

○ 지역사회 공공기관 중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상대적으로 전환서비스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경기도 등 일부지역에서 운영 중인 전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훨씬 포섭하고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감당한다면 선도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 다만 공공기관인 만큼 법적·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데 제한적일 것임

〈표 5〉 공공기관 적합성

구분	전환서비스 협력체계 핵심요소						
	전환계획 (ITP)	주류환경 통합	졸업 전 임금고용 의 경험	적극적인 가족의 개입	서비스간 조정	구직 및 직업 배치	사례관리
특수교육지원센터	○	△	△	△	△	△	○
학교(특수학교)	○	×	×	△	×	△	○
장애인공단	△	△	○	×	△	○	△
국민연금공단	△	△	×	×	△	×	○
장애아동·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	△	×	○	△	×	○

○ 지역사회 민간 유관기관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이 전환서비스를 주도하는데 적절성이 가장 근접해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수학교, 사업체 등

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그램 모형개발과 추진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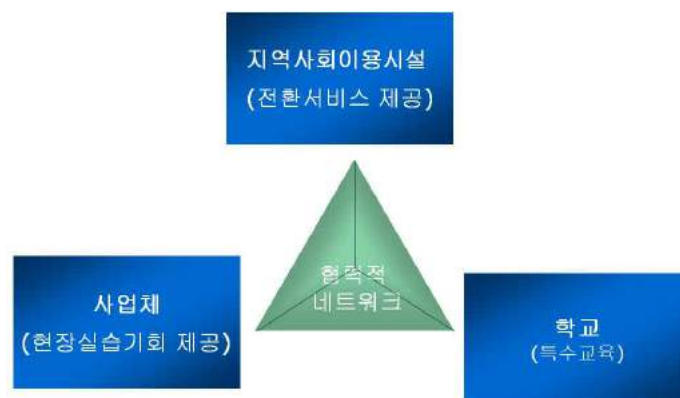
〈표 6〉 지역사회 민간 유관기관 적합성

구분	전환서비스 협력체계 핵심요소						
	전환계획 (ITP)	주류환경 통합	졸업 전 임금고용의 경험	적극적인 가족의 개입	서비스간 조정	구직 및 직업 배치	사례관리
장애인복지관	○	△	△	△	△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	○	△	×	○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	○	×	○	△	×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	×	△	△	△	△

○ 전환을 위한 기관간의 협력체계는 지역사회이용시설과 학교 사이의 자원공유를 촉진하고 서비스와 체계적인 사정과 평가를 강화할 수 있음 (Kochhar-Bryant, 2008)

- 또한 협력체계는 사업체의 파트너의 역할을 기부자와 자선가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과 학교 내의 작업환경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좀더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적극적인 파트너로 바꿀 수 있음

〈그림 5〉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를 위한 협력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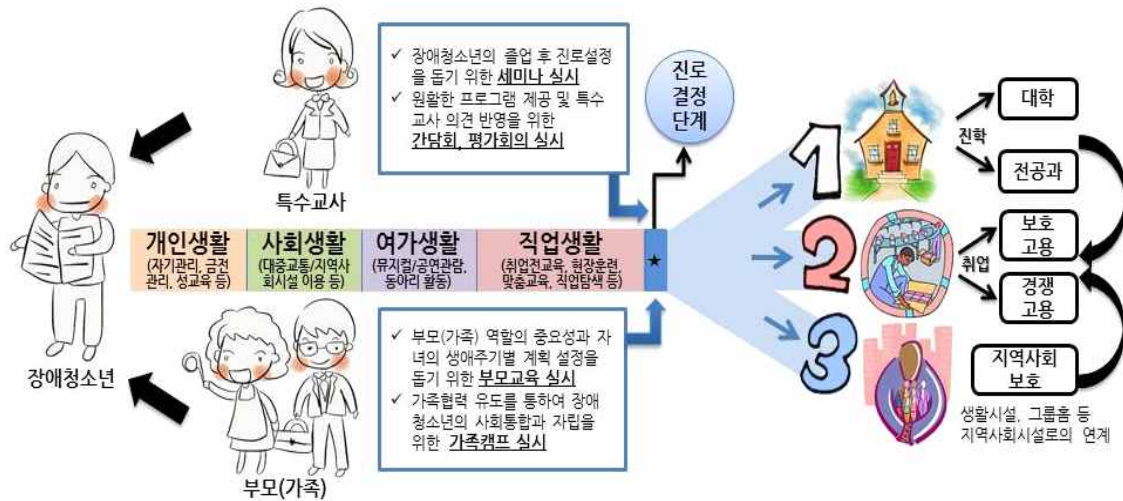
-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은 특수교육기관과 사업체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데, 이용시설의 경험 있는 실천가는 네트워크의 기반위에서 특수학교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ITP를 수립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학교와 사업체 등과의 조정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토록 할 수 있음
- 이때 일선 현장 실천가들 간의 소규모 지역단위에서 다양하게 연계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하며 더불어 조직내, 조직 간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함. 그리고 이러한 협력관계 안에서 발달장애청소년의 전환의 지원시기에 따라 그 역할과 책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 모델은 기존의 학교중심의 전환교육모델과 비교해 볼 때, 서비스제공의 주체, 서비스의 과정과 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차별성을 담보할 수 있음

제 3 절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례

: 완주군장애인종합복지관

- 사업명 : 우리들의 잡(job) 스케치
- 사업목적 : 장애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함
- 대상 : 지역사회 내 특수학교 고등부 및 일반고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청소년 30명

○ 전환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반영한 사업모형



자료:완주군장애인복지관(2012), 장애청소년의 직업준비를 위한 전환교육프로그램
‘우리들의 잡(job) 스케치’ 매뉴얼.

○ 연차별 사업의 변화(2012년-2013년)

구분	2012	2013
대상자	-46명	-30명
직업평가 (사전/사후)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수립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수립
전환서비스 P/G	-개인생활(자기관리, 금전관리, 시간관리 등) -사회생활(지역사회이동훈련, 지역사회 시설이용 등) -여가생활(영화관람, 문화재탐방 농촌체험 등) -직업생활(사업체/기관 견학, 취업전 교육 등)	-개인생활(자기관리, 금전관리, 시간관리, 성교육 등) -사회생활(지역사회이동훈련, 지역사회 시설이용 등) -여가생활(뮤지컬관람, 동아리활동 등) -직업생활(사업체/기관 견학, 취업전 교육, <u>현장훈련</u> , <u>전문직종 맞춤형교육</u> 등)
네트워크	-부모간담회 -특수교사 간담회 -고용주 간담회	-부모간담회 -특수교사 간담회 -고용주 간담회 -특수교사지원(특수교사 대상 <u>세미나</u>) -가족(부모)지원(<u>가족캠프</u> , <u>부모교육</u>) -사후지원(‘12년 졸업생 대상 <u>나들이/간담회</u>)

○ 추진체계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성과

- 참여자의 지역사회 적응수준 변화 : 30명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결과 15명은 지역사회적응수준이 1-7점 증가, 14명은 동일점수, 1명은 1점 감소되었음. 참여자의 기본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전 영역에서 사전검사 대비 부분적으로 향상됨
- 참여자의 자존감, 사회기술 변화 : 34명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결과 자존감은 2점, 사회기술은 3점 향상(검사지는 최저점 1점, 최고점 4점으로 담당교사가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평가)
-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 대폭 확대·강화 : 특수학교·특수학급, 사업체, 대학생자원봉사 등

제 5 장 정책 제언

○ 전환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함

- 전환서비스는 장애청소년의 성인기 준비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실천가는 상담자, 중개자, 조정자 등 미시차원으로부터 거시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게 되므로 정책적으로 경험과 전문성이 겸비된 전문 인력 양성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도입

을 제안함

- 바우처는 서비스 공급체계에서 민간역할을 유도하고,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의 일차적 권한을 담보하는 장점이 있음
-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으로는 지역사회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등) 및 통합교육기관으로 전환서비스를 위한 제반시설과 지역사회 자원(학교, 기업체 등)연계가 가능한 곳으로 설정가능하며, 서비스 제공인력(코디네이터)의 자격은 특수교육 전공자,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상정할 수 있음⁶⁾

○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의 확대적용을 위해 제도적으로 특수학교 교과과정 개편을 제안함

- 현재 인문계 과정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특수학교 교과과정을 지역사회 참여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학교행정에서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현장중심의 교육, 생활기능중심의 접근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를 정착 및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정비 등 제도화의 노력이 요구됨

- 광역지자체별로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서비스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명시된 ‘지역사회 전환서비스지원’ (제25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실행방법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에 전환서비스의 개념을 명시하고 전환서비스 제공관련 조문을 신설함. 또한 전환서비스 실시 시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와의 연계’ 조문을 추가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을 것임

6) 바우처 도입은 시장규모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발달장애청소년의 표적인구 수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청소년 (고3+전공과 9,400여명, 전체 고교재학생 24,500명)의 약 70%에 달하고 있으므로 그 수요는 충족될 것으로 보임. 경우에 따라 대상을 전체 장애유형의 청소년으로, 혹은 발달기에 있는 전체 장애아동 및 청소년으로 확대한다면 시장의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음

-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진 발달장애청소년의 학대와 방치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사회적안전지원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이용시설과의 전환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학교에서 중도탈락한 상당수의 발달장애청소년은 정신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건강을 문제를 동반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위협에 노출되어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정신적 장애청소년의 학대 및 방치에 대한 접수 및 조사, 정신적 장애청소년에 대한 옹호활동(법률적 옹호 포함), 학대 및 방치상태의 정신적 장애청소년에 대한 위기개입, 학대 및 방치 피해청소년의 보호 및 치유프로그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정신적 장애청소년의 안전지킴이 자원봉사단 조직 및 운영 등으로 상정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 김기룡(201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 장애성인 평생교육 개선 방안 토론회 발표자료집.
- 김유리(2011), 지적장애 청소년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사회성 기술 중재 프로그램 고찰, 지적장애연구, 13(3); 47-68.
- 김은영·김주영·김치훈·변경희·이계운·이용표·최복천(2013), 아산미래포럼 장애청소년분과 내부자료.
- 김형일 외(2001), 장애학생 전환과정 지원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박정식(2005), 특수교육 전환교육 실행수준과 촉진방안, 대구대 박사학위논문.
- 박현숙(2004), 장애 청소년 전환교육에 관한 재고, 특수교육, 3(1); 167-197.
- 변경희 외(2012),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접근성과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한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보건복지부(2012),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관계부처합동.
- 성유진·이영선(2011), 장애청소년의 종합적 전환계획요구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내용타당도 검증, 특수아동교육연구 13(4); 83-105.
- 신은경(2004), 발달장애 청소년의 전환교육에 관한 인식 연구 : 고등부 직업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14(1); 133-164.
- 완주군장애인복지관(2012), 장애청소년의 직업준비를 위한 전환교육프로그램 ‘우리들의 잡(job) 스케치’ 매뉴얼.
- 위대현(2012), 직업전환교육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청소년의 직업준비기술에 미치는 효과 : 복지관 직업전환교육 참여자 중심으로, 장애복지현장연구집 15; 121-148.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 유애란(2000), 직업교육 현장특수교육, 국립특수교육원.
- 이영선·김환희(2013), 발달장애청소년의 전환성과 탐색, 장애와고용, 23(3); 83-103.
- 이영선·이영실·이익동·김환희(2011), 장애청소년의 전환교육 관련 연구동향과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46(3); 131-161.
- 이철수 외(2009), 사회복지학사전, 블루피쉬.
- 정현주 외(2011).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교육과 치료에 관한 연구. 사)몸짓과 소리, 문화관광부.

조인수(2000), 전환교육 계획수립과 과정, 특수교육 23(1); 171-192.
조인수(2009). 전환사정, 대구대학교 출판부.
조인수의 역(2013), 전환서비스: 성공적인 전환지원체계, 시그마프레스.
한경은·박정은(2009),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전환교육 운영 실태와 인식 연구.

- Halpern, A.(1994), The transition of youth with disabilities to adult life: A position statement of the Division on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17, 115-124.
- Hasazi, S., Gordon & Roe(1985),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mployment status of handicapped youth exiting high school from 1979 to 1983, Exeptional Children 51, 455-469.
- Kochhar-Bryant(2008), Collaboration and system coordination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From early childhood to the postsecondary years, Merrill/Prentice Hall.
- Newman, L., Wagner, M., Cameto, R., & Knokey, A.-M. (2009). The Post-High School Outcomes of Youth with Disabilities up to 4 Years After High School. A Report of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2 (NLTS2). Menlo Park, CA: SRI International.
- Susan J. Severson, John H. Hoover and John J. Wheeler(1994), Transition: An Integrated Model for the Pre- and In-Service Training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 Wagner, M., Newman, L., Cameto, R., Garza, N., & Levine, P. (2005). After high school: A first look at the postschool experiences of youth with disabilities. A report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2 (NLTS2), Menlo Park, CA: SRI International.
- Wehman. p., Kregel & Barcus(1985), From School to work: A vocational Transition model for handicapped students., Exeptional Children 51, 25-37.

[장애 청소년 분과] 사업 제안

ARCON
arts & community network

장애 청소년 분과 사업제안서 전체 프로세스

STEP.1 환경분석

1. 사회 이슈
2. 정부 정책
 - 장애인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 주요 부처별 정책
3. 주요 통계 및 현황
 - 장애 청소년 현황
 - 교육(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현황 / 순회교육 현황)
 - 진로 현황
4. 핵심과제 도출

STEP.2 핵심과제 검토

1. 인식개선
 - 학교생활에서의 차별경험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과성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2. 직업교육
 - 진로·직업교육 관련 각 학교 유형의 역할과 기능
 - 졸업생 취업현황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3. 심리정서적 지원
 - 자아개념
 - 기본 정서발달
 - 우울 및 불안, 문제행동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STEP.3 프로그램 제안

1. My Story
2. This ability
3. 함께 사는 우리



* index

장애 청소년

- I. 환경분석
 - 1. 사회 이슈
 - 2. 정부 정책
 - 3. 주요 통계 및 현황
 - 4. 세부 핵심과제 도출



* index

장애 청소년

- I. 환경분석
 - 1. 사회 이슈



1. 사회 이슈

장애청소년은 성범죄, 폭력 등의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교육, 취업, 자립 등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임

2013년 ~

- 01. 09 “과자사줄게 따라와”...지적장애 성폭력 근절대책 절실
24 대기업, 장애인 고용 저조...내년부터 의무고용률 높아져
- 02. 01 인권위, 국립특수학교서 장애학생 학대 확인
봉지로 묶고 때리고 ‘씻’...특수학교의 두 얼굴
- 03. 26 특수교육, 개선 위한 일시 퇴행? 장애학생 ‘뒷전’ 비판
- 04. 11 인천, 중학생이 지적장애 초등생 살해 뒤 암매장
18 기업 40%, “장애인 채용 부담스러워”
- 06. 19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도자, 선수 폭행·성희롱
26 장애인단체들, 복지부에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삶, 체계적 지원 방안 필요하다
- 07. 08 장애인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몬 ‘장애등급제’...등급 탈락한 장애인
비관 자살
10 자립생활도 결혼도 제한하는 ‘활동지원 자부담’
30 사설학원도 장애인 교육의 ‘사각지대’
- 08. 21 중증장애아, 교육권 보장은 언제쯤...‘산 넘어 산’
26 제때 유치원 다니며 배우고 싶어요
30 완벽한 자립 위해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쌓아야
- 09. 03 늘어나는 장애학생 학교폭력-대안은?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불법인가? 신직종인가?
12 장애인 대상 성범죄, 4년만에 190% 증가
“활동보조인 근로시간 제한은 곧 장애인서비스 규제다”
13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하기 어려워...대안책은?
16 특수학교 수험생, 학교 실수로 수능 무산
17 법·제도로부터 외면 당한 정신장애인

장애인을 향한 인식 부족으로
또래집단, 학교 등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교육권 보장의 어려움

자립생활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돕는 시스템 미비

장애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심리치료와 심층 전문상담 등의 지원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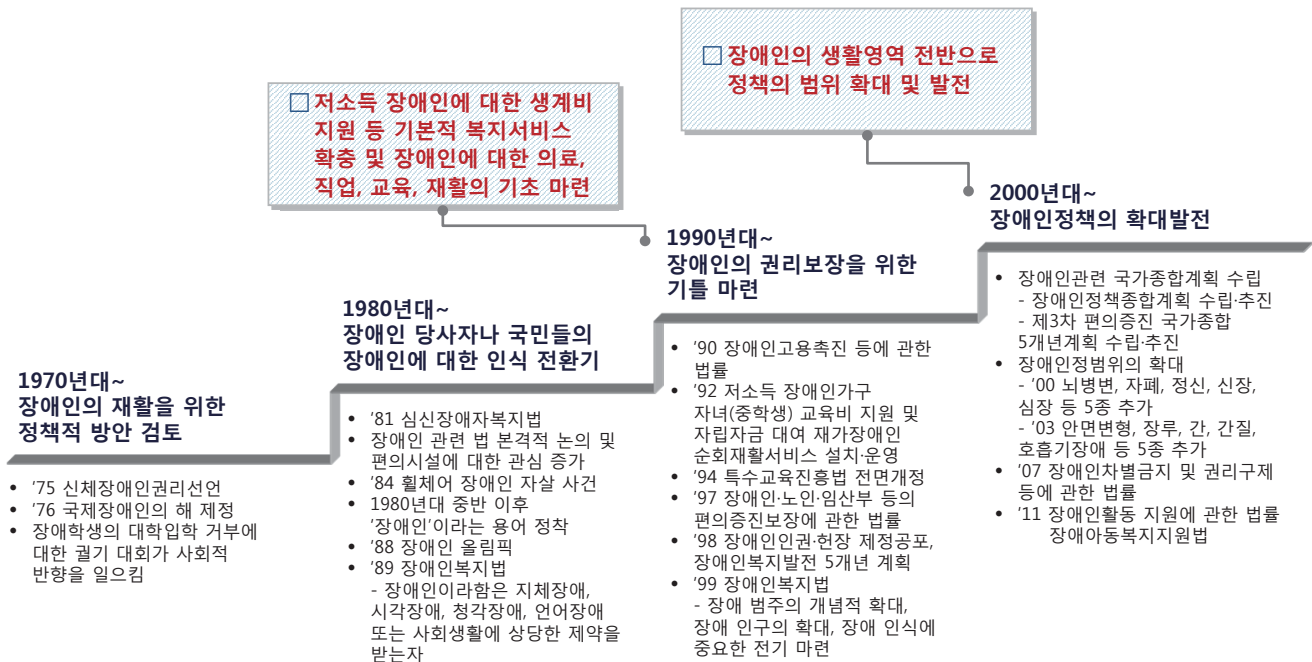


장애 청소년

- I. 환경분석
2. 정부 정책
 - 2-1. 장애인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 2-2. 주요 부처별 정책

2-1. 장애인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점차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생활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2-2. 주요 부처별 정책 ①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의 현금급여와 상담 및 재활치료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1 경제적 지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기초중증 월 20만원, 차상위중증 월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월 10만원, 보장시설 중증 월 7만원, 보장시설 경증 월 2만원을 지급함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등

2 교육적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에게 종일반 월 39만4천원, 방과후 월 19만7천원을 지급함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전액, 고교생 교과서대 125,900원(연1회), 초·중·고교재비 37,500원(연1회), 중·고 학용품비 51,000원(연2회)

4 양육 지원

-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보호 및 휴식 지원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가족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의료적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 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월내 직접 조제)/1,000원 중 750원 지원(그 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전액 지원(식대 제외)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에게 매월 14~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 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 이용
-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2-2. 주요 부처별 정책 ②교육부

교육부는 장애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함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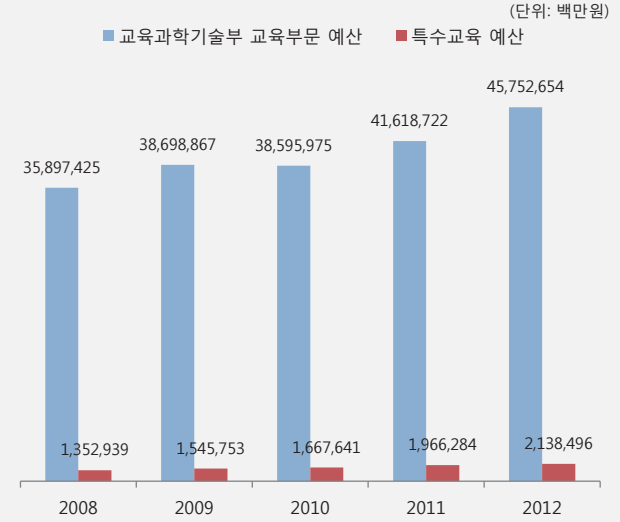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특히 통합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함

2 주요 지원 내용

- **통합교육**
 - 일반 교육에서 전일제 특수학급, 시간제 특수학급을 운영하여 장애청소년 개별화 교육 지원
- **특수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지정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순회교육, 치료지원, 통합교육 지원, 가족 지원 등
- **순회교육**
 - 이동이나 운동기능이 심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시설, 병원, 학교 등을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운영**
 -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병원학교 수업참여, 교육계획 기간 내 화상강의를 출석으로 인정
 - 원격학교 담임교사가 교육지원, 심리·정서 적응지도 등 지원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및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운영,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장애학생도우미, 전공과 운영 등**

3 예산

2012년도 특수교육 예산은 2조 1,385억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문 예산의 4.7%를 차지함



2-2. 주요 부처별 정책 ③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및 취약가족에 장애 청소년을 일부 포함하여 돌봄서비스, 거주형 시설, 부모교육 등을 지원함

1 개요

여성가족부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청소년들이 소질과 역량을 개발하도록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취약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2 주요 지원 내용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장애, 다문화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포함한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량 개발 지원,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시설 지원 및 상담, 학부모 교육 등 지원함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만 9~18세)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을 운영함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경계선 지능 장애, 자폐 및 유사 자폐, 아스퍼거 장애, 단순 빈곤을 연계 중심 개입 모형으로 설정하고 부모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지원함
- **성인권교육**
 - 여성가족부 지정사업으로 2013년 5월 3일부터 김해지역 10개 초·중학교에서 개강함
 - 장애학생에게 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념 형성과 성폭력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한

3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설립 목적**
 - 상담,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
 - 개인적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종합적·전문적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입교 대상**
 - 대상: 만 9세~18세 청소년 (총 60명)
 - 기간: 장기 - 3개월/단기 - 4박5일
- **절차도**
 - 의뢰**
 - 교육청, 학교,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양육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 초기평가**
 - (1차) 신청서류 심사 → (2차) 면접심사 및 심리검사
 - 내담자 need 확인 → 심층면접
 - 입교결정**
 - 입퇴교 위원회 입교결정
 - 입교**
 - 생활규칙, 상담프로그램 소개
 - 반배정, 상담 및 생활선생님 소개
 - 치료·생활·교육**
 - 개인·집단 상담 치료
 - 심리검사(MBTI, MMPI, SCT, 응용예술 등)
 - 음악, 놀이, 모래놀이, 미술, 승마치료 등
 - GRIP(개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 가족 캠프 및 드라마치료
 - 치료 레크레이션, 공동체 프로그램
 - 대안교육, 체험학습, 자립지원
 - 수료**
 - 입교 기간 만료 및 긍정적 목표 달성 등
 - 가정복귀 원칙, 타 기관 연계

2. 정부 정책 - 결론 및 시사점

장애 청소년에 대한 정부 정책은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 교육권 보장,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결론 및 시사점

장애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

- 장애 청소년의 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주체가 분할되어 있어 서비스의 중복과 이용대상자들의 불만을 초래함
- 장애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통하여 부족한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에 노력해야 함

현실을 반영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 필요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지 않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 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인 및 가족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의 부담과 일부 추가적인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외에 장애 청소년의 학업, 생계 유지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의 지원이 필요함

장애로 인해 차별 받지 않는 교육권 보장

- 장애 청소년의 교육권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
- 장애 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요구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장애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진로의 다양성 및 취업률 향상 등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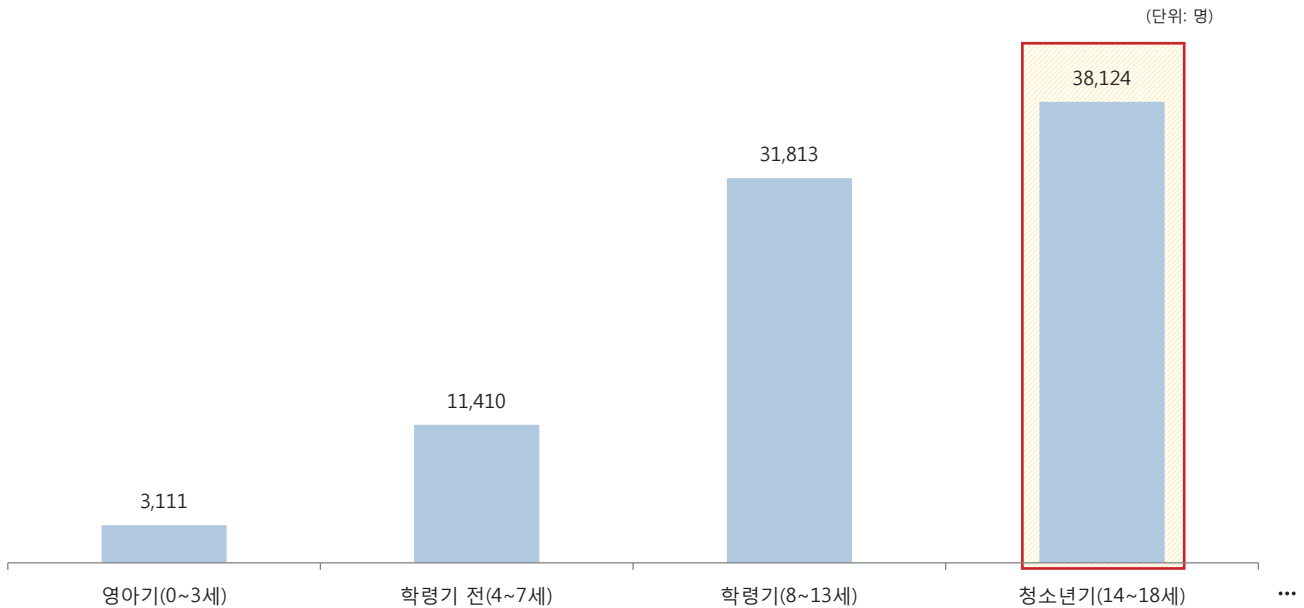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치료적·단기적 접근에만 편중된 문화지원으로 순수 문화예술활동의 제한이 있음
- 장애 청소년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어도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사회적 인식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이동의 문제 등으로 접근성이 낮음
- 장애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제도화, 장애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사회서비스 바우처 활용처의 확장 등의 노력이 필요함

3-1. 장애 청소년 현황

2012년 등록장애아동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본 결과, 14~18세에 해당되는 학령기 장애청소년은 총 38,124명으로 장애아동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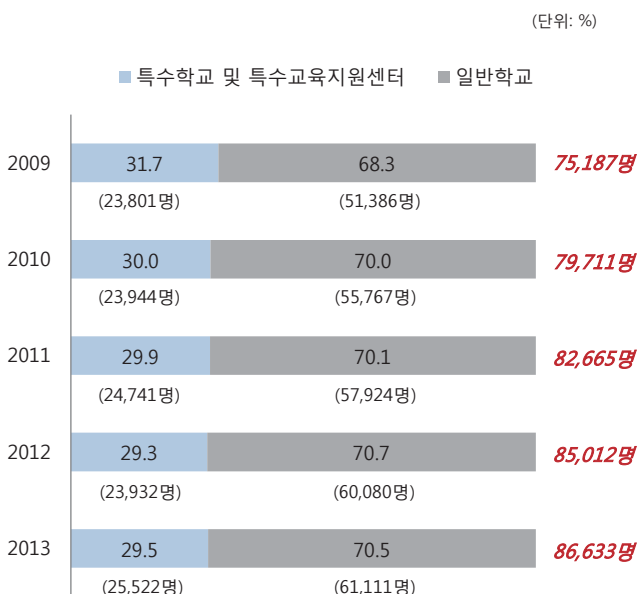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령기 장애청소년은 38,124명임"



3-2. 교육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현황

1970년대 이후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면서 1962년 10개교에서 2013년 전국 특수학교 수는 162개교로 증가하였으며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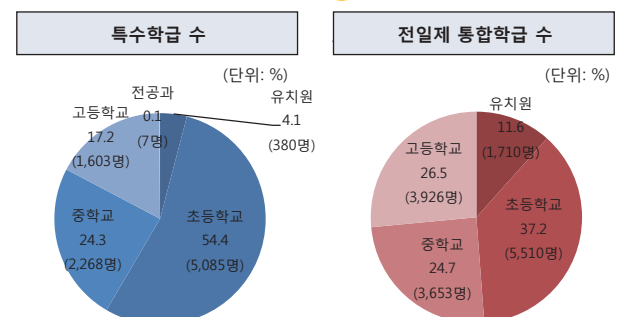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세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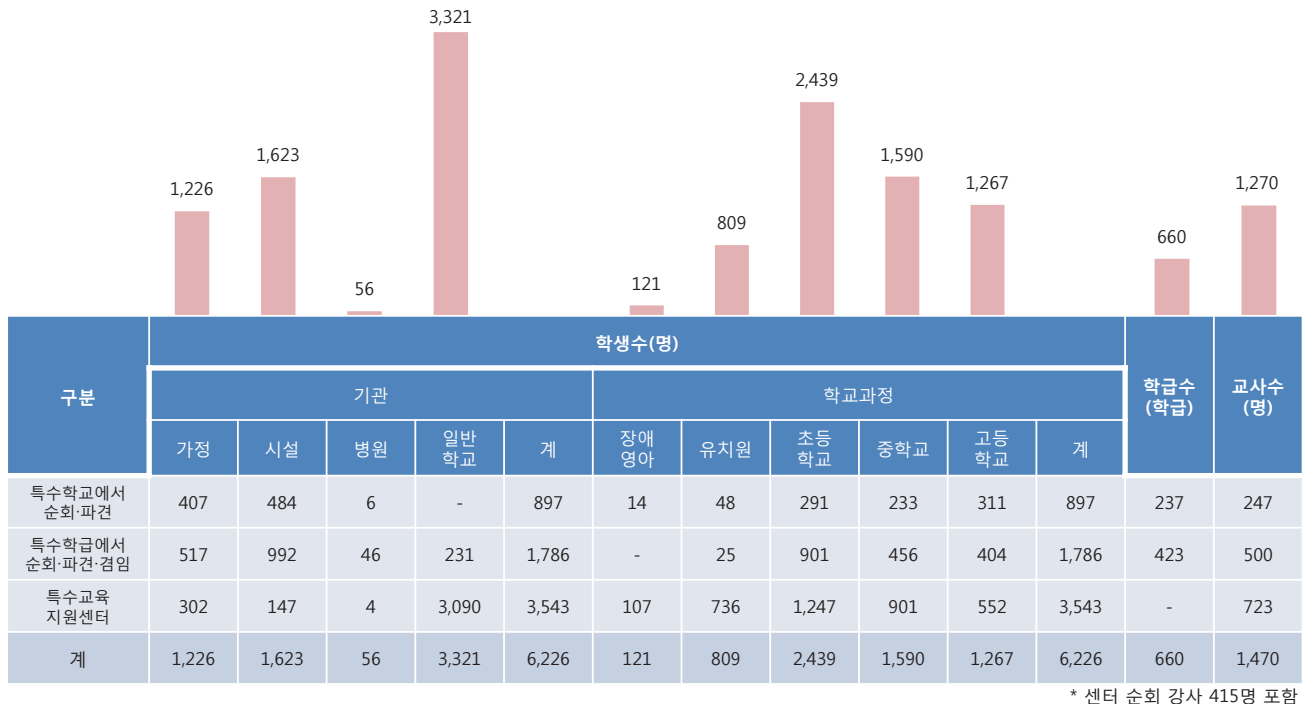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특수학교	162	4,269	25,138	7,509
일반학교	특수학급	6,919	9,343	45,181
	전일제 통합학급	7,229	14,799	15,930

일반학교 세부 현황



3-2. 교육 - 순회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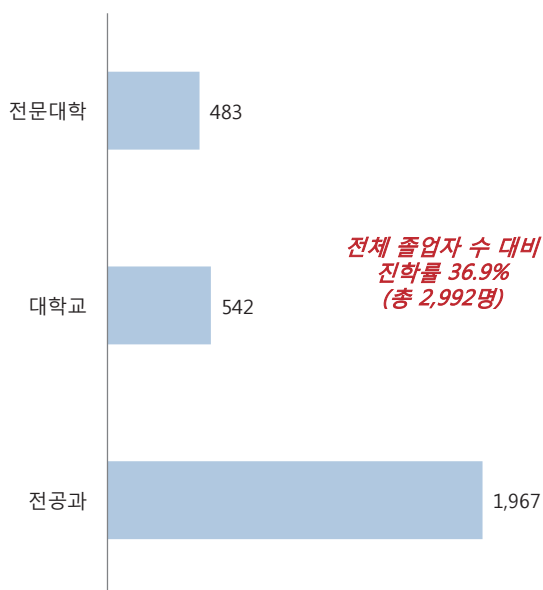
2013년도 가정시설병원학교 등에 순회·파견·형태로 실시되는 순회교육은 전체 660학급에 6,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순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총 1,470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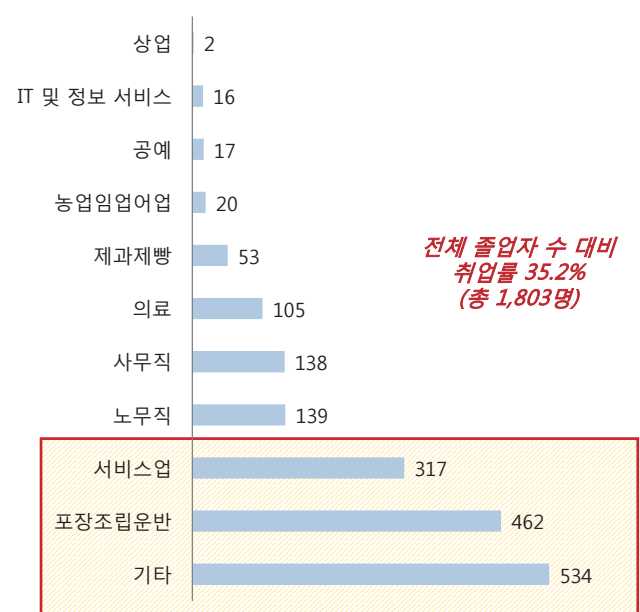
3-3. 진로 현황

2013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학률은 36.9%, 취업률은 35.2%로 매우 저조하며 미진학·미취업자는 3,323명으로 40.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진학자



취업자



3. 주요 통계 및 현황 – 결론 및 시사점

장애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교육 여건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맞춤형 진로지원과 안정적인 취업기회 제공의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결론 및 시사점

담당 교사 확충, 인식개선, 교과과정 개발 등의 질 높은 교육여건 개선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 청소년은 증가하나 담당 교사는 부족하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장애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학교의 교육은 교사와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학생들간에 관계적인 분리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
- 담당 교사 확충, 교육환경 개선 등의 교육적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
-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장애 유형을 반영한 교과과정, 사회성 신장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 청소년의 교육여건 개선이 요구됨

진로지원 활성화 및 맞춤형 진로지원 서비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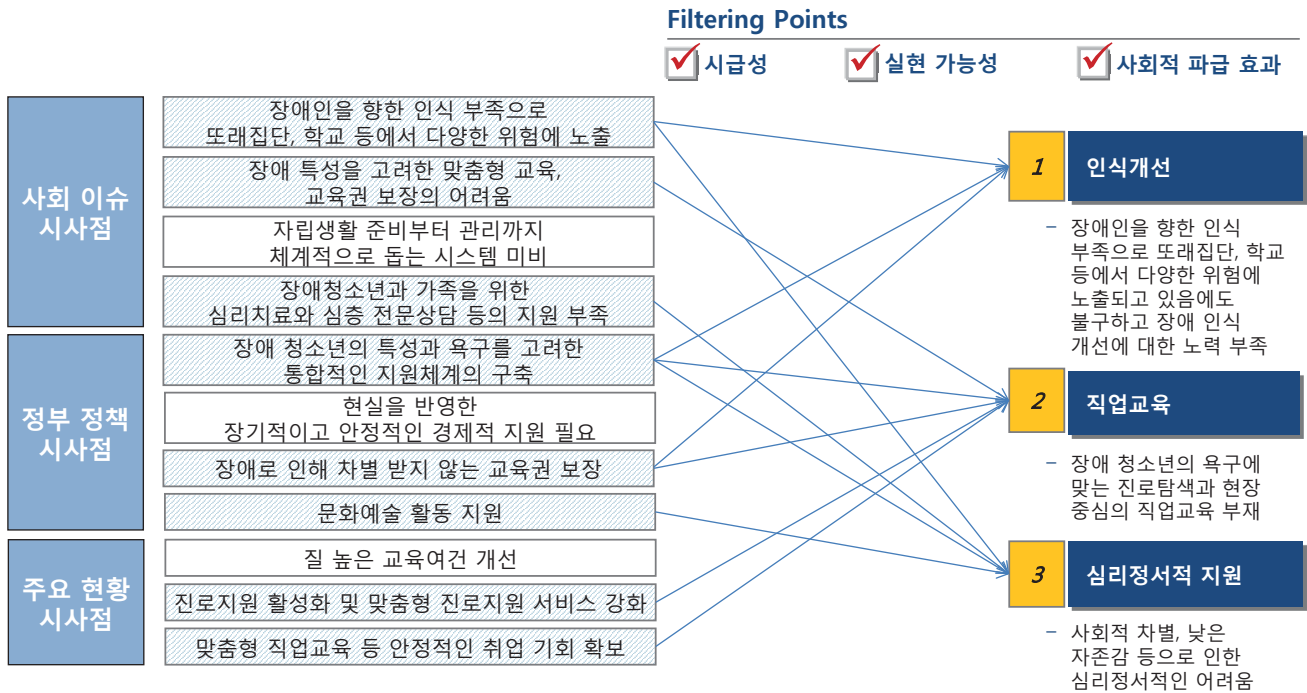
- 장애 청소년의 전체 졸업자 수 대비 진학률 36.9%로 저조하며 전체 진학자 2,992명 중 대학교 진학 542명, 전문대학 진학 483명으로 대학 진학 비율이 낮음
- 장애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진로탐색과 기회의 제공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 마련이 필요함
- 진로 다양화 및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진로체험과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기회 제공, 고용모델의 확대, 장애인 적합 직종 발굴 등을 통해 진로 선택과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직업과 연계되는 맞춤형 직업교육, 기업과 직업 발굴 등 안정적인 취업 기회 확보

- 장애 학생의 전체 졸업자 수 대비 취업률은 35.2%로 매우 저조하며 취업을 중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대부분이어서 안정적인 취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의 적성 및 특수학급 교육내용과 연계되지 않는 직종에 강제근무를 하는 형태가 대부분임
- 장애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작업장 개념이 아닌 기업의 지원고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선 배치 후 훈련을 통한 적응이 담보되어야 함
- 특수학교에서 직업현장과 연결되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직업교육관련 행사를 확대 실시하며 장애 청소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직업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확보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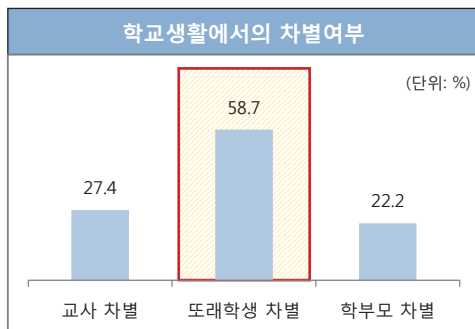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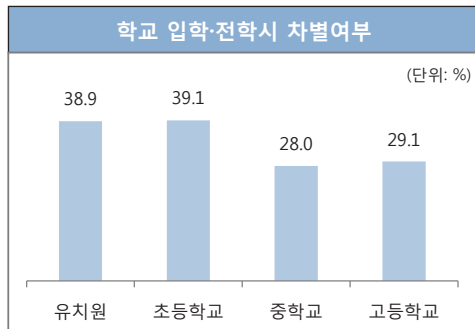
4. 세부 핵심과제 도출

주요 현황 및 정부 정책과 사회 이슈의 시사점을 종합하고 시급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세부 핵심과제 즉, 심리정서적 지원, 직업교육, 인식개선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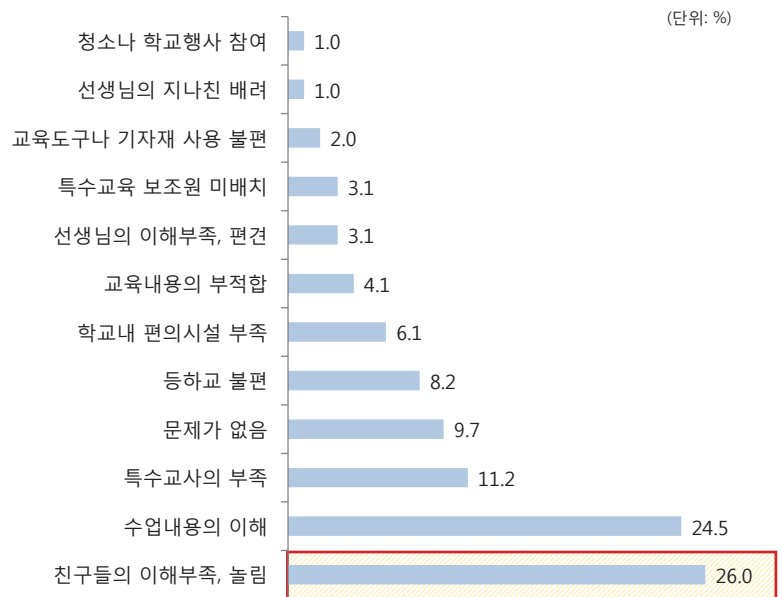


1. 인식개선 - 실태조사 ①학교생활에서의 차별경험

대체로 초등학교 이하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관 생활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또래 친구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차별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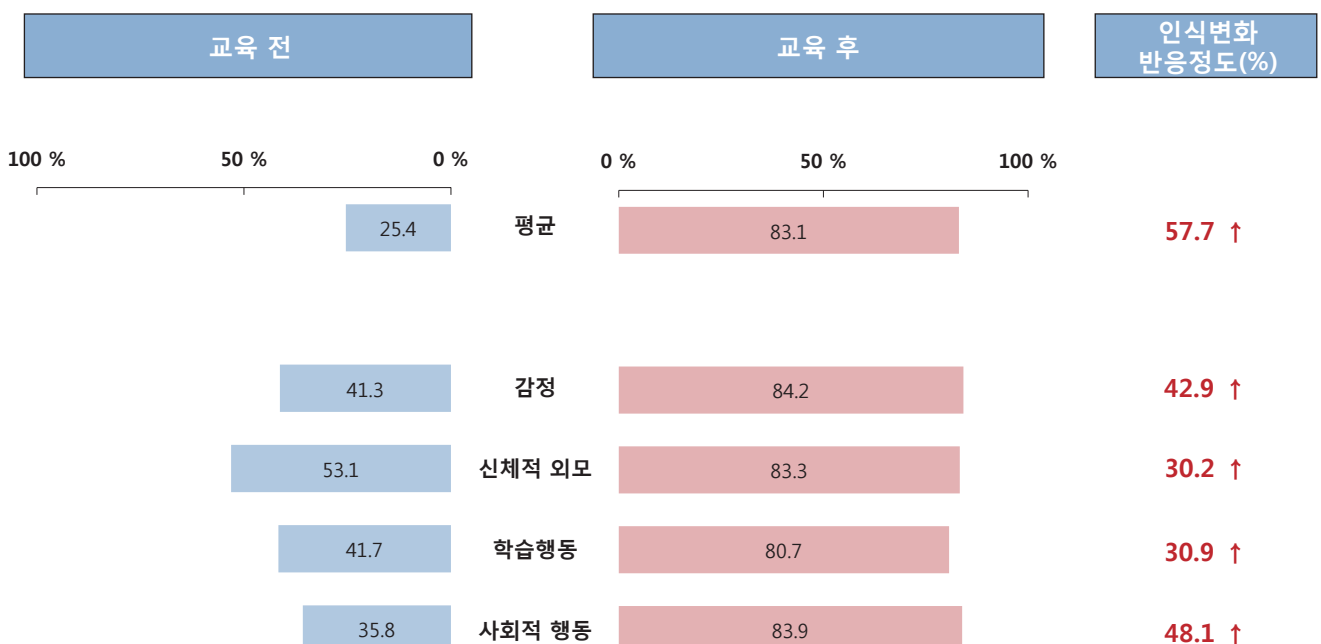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생활시 문제점



1. 인식개선 - 실태조사 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과성

중·고등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 전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25.4%에 불과했으나, 교육 후 긍정적인 인식이 83.1%로 57.7%의 증가를 보였음



1. 인식개선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함

장애에 대한 낮은 사회 인식

- 소위 **왕따의 문제도 발생하고, 이들이 청소년이고 학령기 아동 중에서도 취약한 구조에 있어 일반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 대학교에서 조사를 해보니 장애인들을 보면 자신감이 없어보인다, 인사를 안하는 것 같다, 청결하지 않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 통합을 할 때의 문제는 애가 주변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애한테 적응을 못하는 것이예요
-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어디까지 도와줄 것인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 장애 인식 문제는 지적장애인이 아무리 잘해도 거기까지예요. 제가 지팡이 짚고 다닐 때 힘든 것이 가방을 들어줬으면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요. 인디펜던스와 디펜던스의 갈등이예요
- 고민 중 가장 큰 것은 아이들이 적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적응이라는 것이 자신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학생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 장애아동 부모들이 통합을 많이 하려 하고 초등학교도 통합을 하려 하지만 중학교로 가면 특수학교로 유턴합니다. 결국 **장애인식개선의 문제이고 교사들의 준비들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된 사회의 일원으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장애인끼리만 살아야 하는 상황이 비극인 것이죠**
- 저는 장애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양극화되는 것이 우려됩니다
- 결국 장애 인식의 문제로 돌아와요
- 우리 대학이...외부에는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는 인식이 크니 그 가치가 떨어져있습니다

편견을 가지면 장애인만 보이지만

편견을 버리면 그 사람의 능력이 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 직업교육 - 실태조사 ①진로·직업교육 관련 각 학교 유형의 역할과 기능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방안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학교들과 2011년 설립한 직업교육 중점 특수학교의 역할과 기능은 아래와 같음

구분	특수학교 내 전공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특수학교 학교기업	직업교육 중점 특수학교
대상	• 특수학교 장애학생	• 특수학급 경도장애 학생	• 특수학급 졸업생 • 특수학교 졸업생	• 특수학교 장애학생
주요 담당 영역	• 자립생활훈련 • 직업재활훈련	• 자립생활훈련 • 직업재활훈련	• 직업재활훈련 • 전문직업훈련	• 직업재활훈련 • 일부 전문직업훈련
특징	•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훈련 및 사회적응능력이 필요한 학생 모두를 위해 자립생활훈련과 직업재활훈련을 동시에 실시 •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기관으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수준의 역할 담당	• 특수학교 3학급 이상 설치 전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인근 특수학급 학생 및 교사들에게 직업교육 컨설팅 제공 • 교내외 수업을 균형 있게 실시하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중심 직업교육, 훈련 실시 및 취업 지원 • 특수학교 전공과 수준의 역할 담당	• 일반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직업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직업훈련(인턴) 기회 제공 • 민간 기업의 학교 내 유치 및 지역의 사회적 기업 등과의 연계로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 기업체로 바로 취업 확정될 수 있도록 고용 기회 확대 기여 • 최고로 높은 수준의 진로, 직업교육 담당	• 철저하게 지역사회 및 사업체의 변화 흐름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취업을 목표로 하는 맞춤형 훈련과정을 도입한 혁신적인 특성화 학교 • 마이스터형 고교로 기능중점반의 역할 강화, 학교기업과 연계한 기업체와도 유기적인 관계 형성, 학교기업에서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서로 연계하여 컨설팅 제공 • 직업재활 훈련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주 대상으로 함

2. 직업교육 - 실태조사 ②졸업생 취업현황

2013년 2월 졸업자 7,991명 중 1,788명이 취업하여 전체 취업률은 34.4%이며 취업 분야로는 기타 534명, 포장, 조립, 운반 451명, 서비스업 314명 순이었음

(단위: 명)



*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100

* 취업률 기준 변경: 2013년부터 취업자에 복지시설 또는 보호작업장 등의 직업재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제외

2. 직업교육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업무 시스템과 단순 업무, 단기 계약직 등 열악한 고용 현실에 놓인 장애 청소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과 통합적인 연계 시스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열악한 고용 현실

- 가장 큰 문제는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적 자폐 장애인은 단순노동을 많이 합니다
- 기업, 현장과 관계 없이 장애인들에게 아무 일이나 시키니까 회사의 채용 부분과 장애인의 직업 훈련이 불일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을 준비해야 하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 장애인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혜적인 정책이라고 봐요. 힘들 때 잠깐 쓰다가 고령화되면 폐기되는 시스템이 문제...**
- 낮은 취업률과 진학을 때문에 50% 이상의 장애청소년이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감을 상실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업무 시스템

- 장애인 작업장은 A부터 Z까지 다 해야 합니다... 분업화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생산성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종과 없는 직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어떤 공정에서 장애인이 잘할 수 있는가를 발굴해야 합니다
- 장애인들이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예요**
- 희망하는 일자리와 실제 종사하는 일자리의 관계를 보면 불일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들이 취직을 해야 할 기업을 발굴해야 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교육만 하고 연계를 하지 않습니다**
- 직업훈련이라던가 배려, 모집과정에서의 차별, 배제 등이 없고 일할 때의 직장의 지원 등을 많이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 채용하는 사람들도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관심이 없고, 학교도 기업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
- 대학교 보내는 부모나 장애인을 만나 얘기하면 그들의 관심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시키는 것인데 그것도 답이 없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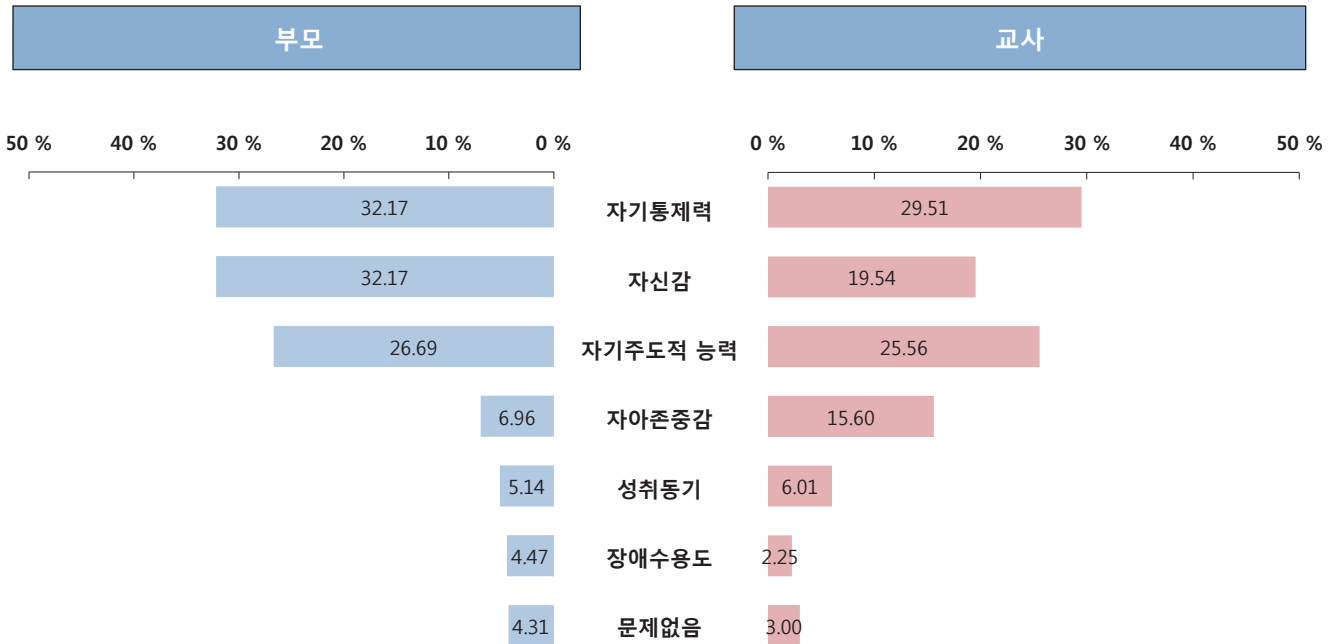
취업 지원의 한계

- 고등학교에서 통합적으로 맞는 직업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직장생활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거나 직접 연결되는 직업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고등학교 재학 중 청소년이 직업탐색에 관심을 가질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 내의 기업 자체에서도 골치가 아프고, 사고가 날까 봐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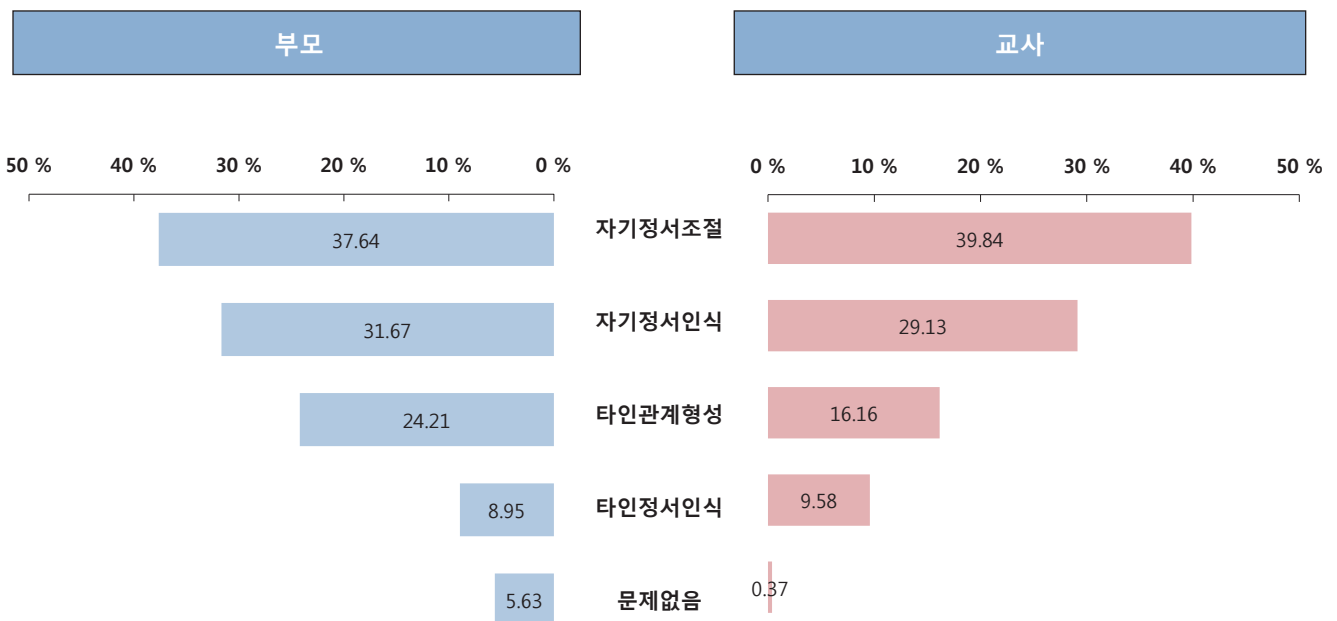
3. 심리정서적 지원 – 실태조사 ①자아개념

자아개념 영역에서 1순위로 시급하다고 응답한 문제로 부모들은 자신감 32.17%, 자기통제력 32.17%였으며, 교사들도 자기통제력 29.51%, 자기주도적 능력 25.56%을 꼽았음



3. 심리정서적 지원 – 실태조사 ②기본 정서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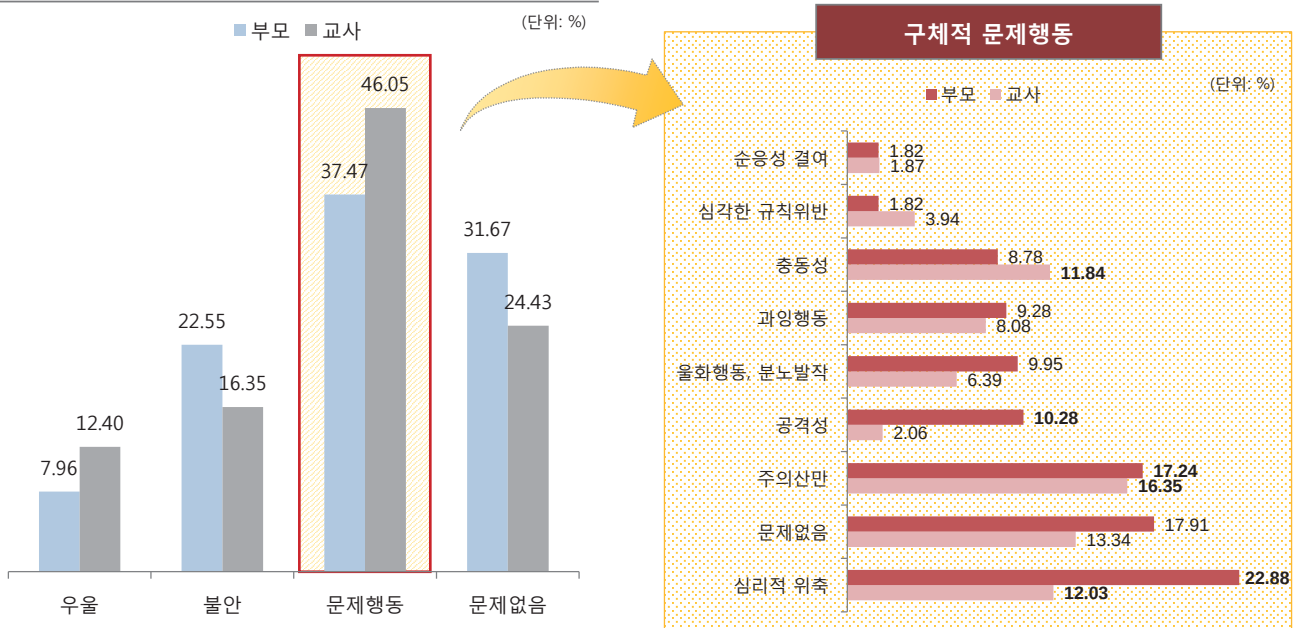
기본 정서발달 영역에서 1순위로 시급하다고 응답한 문제로 부모와 교사는 자기정서조절, 자기정서인식, 타인관계형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3. 심리정서적 지원 - 실태조사 ③우울 및 불안, 문제행동

우울 및 불안 영역에서 1순위로 시급하다고 응답한 문제로 부모와 교사는 문제행동을 꼽았으며, 구체적 문제행동으로는 심리적 위축, 주의산만, 충동성 순으로 나타났음

우울 및 불안, 문제행동



3. 심리정서적 지원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장애 청소년은 정체성의 혼란과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리정서적 치유에 효과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안함

정체성의 혼란

- 장애라는, 사회가 나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정체성 문제가 심각해져요. 불안이 동반되는. 이때는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친구들의 삶의 노선과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노선이 질이 달랐던 것 같아요
- 제가 보기에는 제 앞에 넘버러지가 있지만 그들은 재수삼수도 있는...
- 무슨 피드백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 그 친구(선천적 장애 청소년)들은 매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과보호를 받고 있다거나, 병원에서 장기간 생활하거나, 특수학교나 시설과 같은 닫힌 공간에 머무른 이들은 또래와 경험할 기회가 적고 그 시기에 배워야 할 문화적 틀 등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학교 부적응으로 폭넓은 개념인데, 좁혀 생각하면 다른 아이들로부터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 때문에 오는 부적응인 것 같습니다
-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뺨을 맞은 경우도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

문화예술은 심리정서를 치유하는 데 효과적

- 많은 연구들에서 음악미술 활동이 장애를 극복하거나 더불어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접할 기회를 주니 효과가 높았던 것을 볼 수 있었고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에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아이들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고려했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아동의 선호도를 고려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문화예술의 매력은 정서적인 성장을 제공합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던 아이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창작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됩니다
- 이들에게 문화생활은 치료프로그램의 일환이거나 학교교과 정도의 혜택일 뿐 이들이 문화를 '형성'할 기회가 없습니다. 특히 자아실현을 위해 직업생활만이 아니라 오후나 방과후, 주말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다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글자 익히기, 정보처리 능력, 기억력 등의 일반능력 증진이 가능하며 자기표현 능력 습득에 따른 사회성 향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적 접근 외에도 장기적으로 재능을 발굴하고 키울 수도 있게 해야 합니다

* index

장애 청소년

III. 프로그램 제안

1. This ability
2. My Story
3. 함께 사는 우리

장애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환경분석 및 논의 시사점

핵심 이슈	시사점	제안 사업 후보군
심리정서적 지원	- 장애 청소년은 자신들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장애 청소년의 자존감 및 자신감 회복을 위한 기회의 장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1 My Story - 예술로 담아내는 나의 이야기 만들기 프로그램
직업 교육	-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취업률은 35.2% - 강한 자립에 대한 욕구에 비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현실적 진입 장벽이 존재 - 능력 개발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	2 This ability - 장애 청소년 능력 개발 직업 활동 체험 프로그램
인식 개선	- 장애인을 향한 긍정적 인식 부족으로 장애 청소년들은 또래집단, 학교 등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비장애 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 - 비장애-장애 청소년의 통합의 장 마련이 필요	3 함께 사는 우리 - 장애-비장애 청소년 어울림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프로그램 1. 예술로 담아내는 나의 이야기 만들기 프로그램, “My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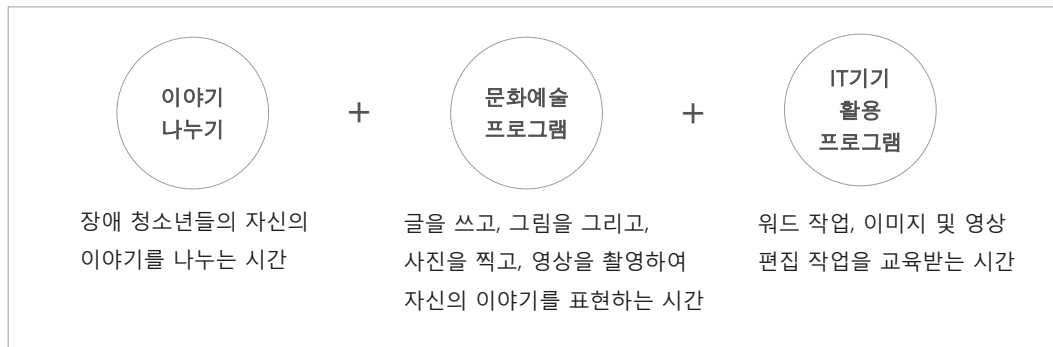
나의 이야기를 찾아서

사업 목적

- 장애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이 꿈꾸는 이야기를 예술로 담아냄으로써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장애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표현력 향상 및 정서적 안정 지원
- 컴퓨터를 활용한 ‘My Story’ 콘텐츠 제작으로 IT기기 활용 능력 향상 지원
- ‘My Story’ 제작은 글과 그림, 음악과 영상 등으로 구성 및 완성되어 콘텐츠 완성에 따른 성취감 획득 가능
- ‘My Story’ 콘텐츠화 및 배포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전달,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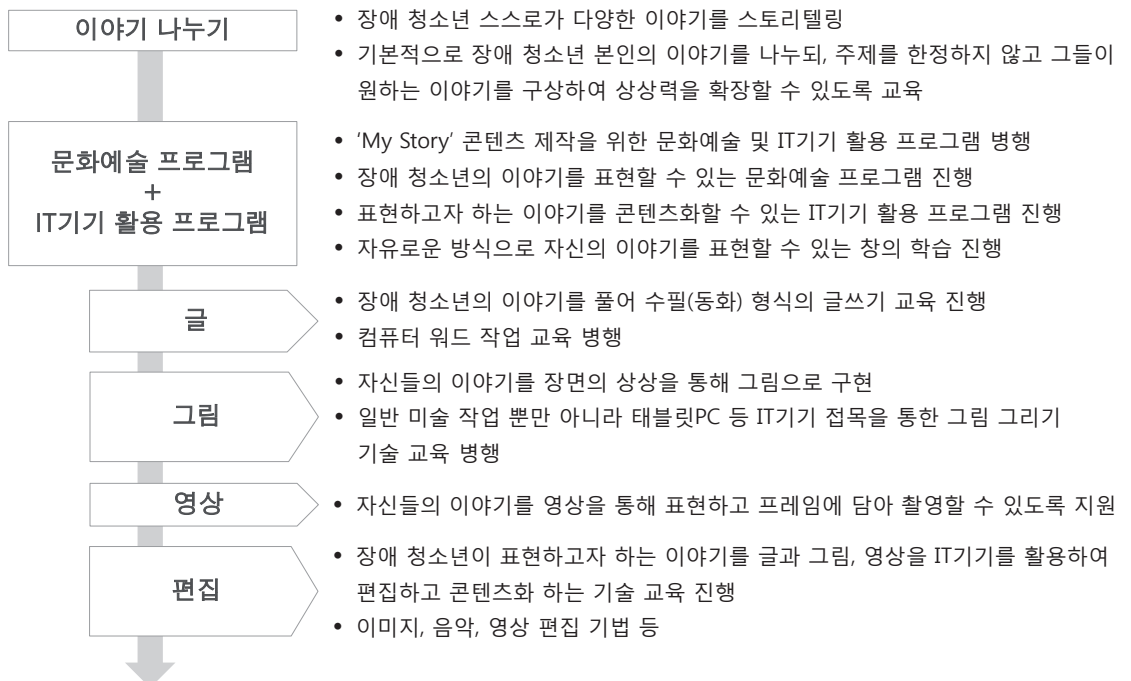
< ‘My Story’ 콘텐츠 완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1. 예술로 담아내는 나의 이야기 만들기 프로그램, “My Story”

나의 이야기를 찾아서

사업 내용



프로그램 1. 예술로 담아내는 나의 이야기 만들기 프로그램, “My Story”

나의 이야기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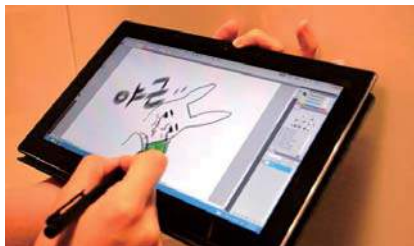
사업 내용

‘My Story’ 제작

-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IT기기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My Story’를 온라인 콘텐츠(E-Book, 영상물 등)의 형태로 제작
- ‘My Story’는 장애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으로써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음

‘My Story’ 배포

- 온라인 콘텐츠 ‘My Story’를 대중 대상 무료 배포
- 대중들이 ‘My Story’를 접함으로써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대
- 프로그램의 지속에 의한 ‘My Story’ 콘텐츠의 확보는 장애 청소년 인식 개선을 위한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 추후 미디어 아티스트와 연계하여 캠페인 목적의 오프라인 전시 가능



태블릿PC를 이용한
그림그리기



태블릿PC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청소년

프로그램 1. 예술로 담아내는 나의 이야기 만들기 프로그램, “My Story”

나의 이야기를 찾아서

기대효과

- 자신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 장애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아정체성, 자존감, 자신감 향상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상상력 개발 및 창의적 활동 도모
- IT기기 활용을 통해 진학, 취업, 일상 생활을 위한 컴퓨터, 태블릿PC 등 기기 활용 능력 개발 가능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My Story’ 콘텐츠 제작으로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음
- 장애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My Story’를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콘텐츠를 축적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



투명인간

화장실 옆 뒤편 벽에 기대어
친구를 기다린 지 벌써 40분.
답장 없는 차가운 핸드폰만 만지작만지작
'아직도 자고 있는 게 분명하군.'
꿈속에서 오늘 약속을 기억이나 할까?

사람들이 쳐다도 안보고 지나가는
나는 투명인간.
네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를 나는 투명인간.



사진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다, 청소년 정서함양 프로젝트 <시간여행자>
청소년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한 권의 도서로 제작

프로그램 1. 예술로 담아내는 나의 이야기 만들기 프로그램, "My Story"

나의 이야기를 찾아서

예산(안)

- 예산(안) : 연 2억 원

	예산 항목	예산(원)	비고
사전 준비비	모집	3,000,000	서류 심사, 인터뷰 등
	홍보비	4,000,000	홍보물 제작(디자인, 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x-배너 등)
	교육 개발비	5,000,000	교육 대상에 적합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논의
	소계(1)	12,000,000	
교육 진행비	이야기 나누기	15,000,000	장애 청소년 20명 기준 5회 교육
	문화예술	70,000,000	장애 청소년 20명 기준 15회 교육(글, 그림, 영상 등), IT기기 구입비 포함
	IT기기 활용	34,000,000	장애 청소년 20명 기준 10회 교육(IT기기 활용, 이미지, 음악, 영상 편집 등)
	콘텐츠 제작비	9,000,000	기록, 콘텐츠 아카이브 운영,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자문 및 인력 지원 등
	온라인 강의 구축비	8,000,000	교육 촬영을 통해 온라인 강의 구축
	기록비	3,000,000	사진, 영상 촬영 및 편집비
	장애 유형별 지원비	9,000,000	수화 통역 등 장애 유형별 지원비
	소계(2)	148,000,000	
	인건비	36,000,000	프로그램 운영 매니저 및 어시스턴트
	사업 진행비	4,000,000	회의, 교통, 연구, 사무용품 구입 등
	소계(3)	40,000,000	
	합계(1+2+3)	2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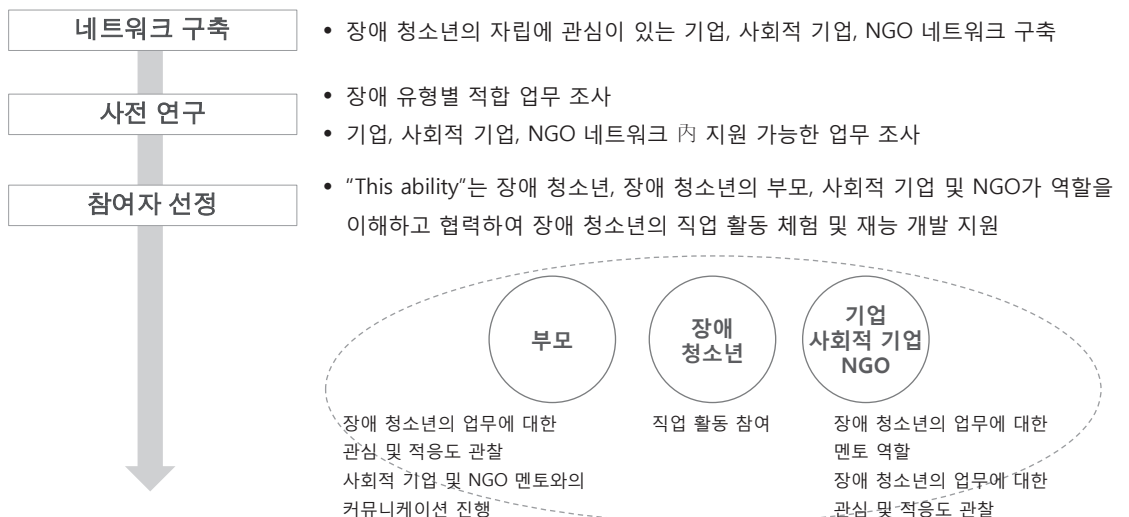
프로그램 2. 장애 청소년 능력 개발 직업 활동 체험 프로그램, "This ability"

너의 능력을 펼쳐라

사업 목적

- 장애 청소년의 직업 능력을 청소년기부터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직업 활동 체험 프로그램
- 장애 청소년 자립에 관심을 갖는 기업, 사회적 기업 및 NGO 네트워크 형성
- 장애 청소년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 및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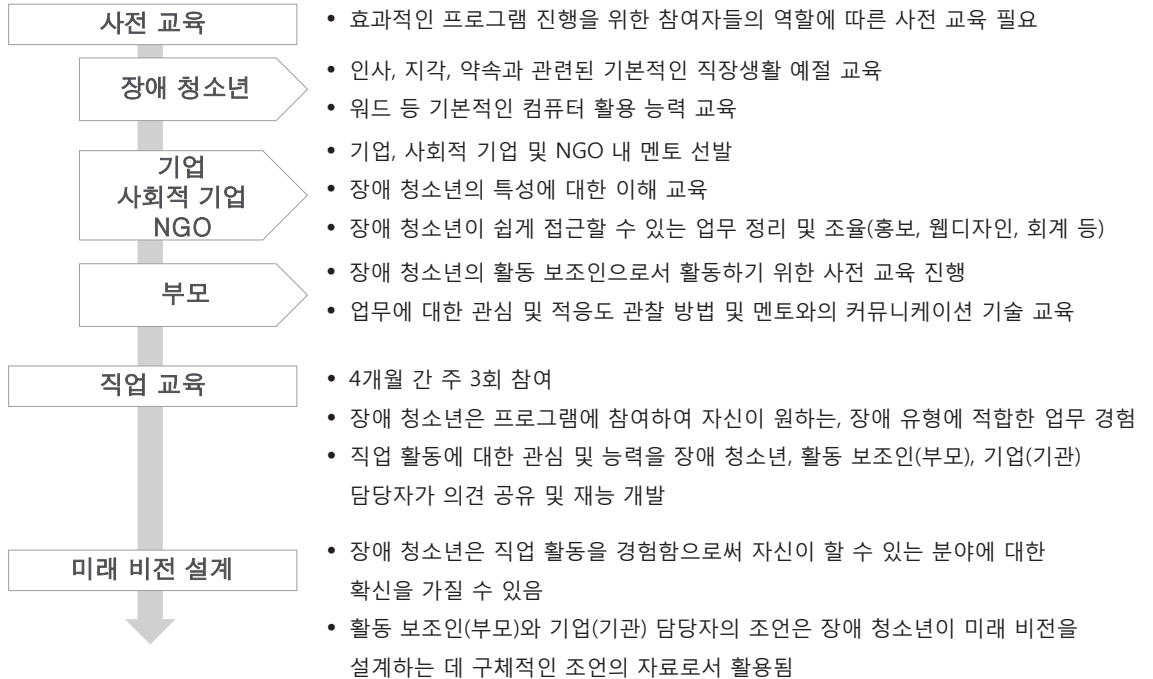
사업 내용



프로그램 2. 장애 청소년 능력 개발 직업 활동 체험 프로그램, "This ability"

너의 능력을 펼쳐라

사업 내용



프로그램 2. 장애 청소년 능력 개발 직업 활동 체험 프로그램, "This ability"

너의 능력을 펼쳐라

기대효과

- 장애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발견 및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 도모
- 장애 청소년의 업무 능력 향상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 장애 청소년의 직업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장애 청소년의 고용 확대 및 취업 문제의 개선으로 연결
- 장애 청소년의 적절한 근로는 장애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도우며 결과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변화 및 사회 통합 실현



스페셜바리스타 자격검정 시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직업영역 개발 훈련

프로그램 2. 장애 청소년 능력 개발 직업 활동 체험 프로그램, "This ability"

너의 능력을 펼쳐라

예산(안)

- 예산(안) : 연 2.5억 원

	예산 항목	예산(원)	비고
사전 준비비	네트워크 구축비	3,000,000	기업, 사회적 기업, NGO 조사 및 사전 인터뷰 진행
	연구 개발비	6,000,000	사전 연구 : 연구자료 구입비, 장애, 교육, 청소년 전문가 자문 등
	홍보비	5,000,000	홍보물 제작(디자인, 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x-배너 등)
	대상 모집비	2,000,000	서류 심사, 인터뷰 등
	소계(1)	16,000,000	
사전 교육비	사전 교육 실행비	33,000,000	장애 청소년 6회, 기업, 사회적 기업 및 NGO 3회, 부모 3회 교육기준
	교육 개발비	5,000,000	교육 대상에 적합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논의
	소계(2)	38,000,000	
직업 교육비	멘토비	80,000,000	사회적 기업, NGO 대상 멘토비 지급
	직업 교육 실행비	74,000,000	장애 청소년 50명 주 3회 4개월 기준, 교통 및 식비, 재료비 등
	비전 설계북	2,000,000	장애 청소년 미래 비전 설계 북 작성 및 포트폴리오 제작
	소계(3)	156,000,000	
사업 운영비	인건비	36,000,000	프로그램 운영 매니저 및 어시스턴트
	사업 진행비	4,000,000	회의, 교통, 연구, 사무용품 구입 등
	소계(4)	40,000,000	
합계(1+2+3+4)		250,000,000	

프로그램 3. 장애-비장애 청소년 어울림 프로그램, "함께 사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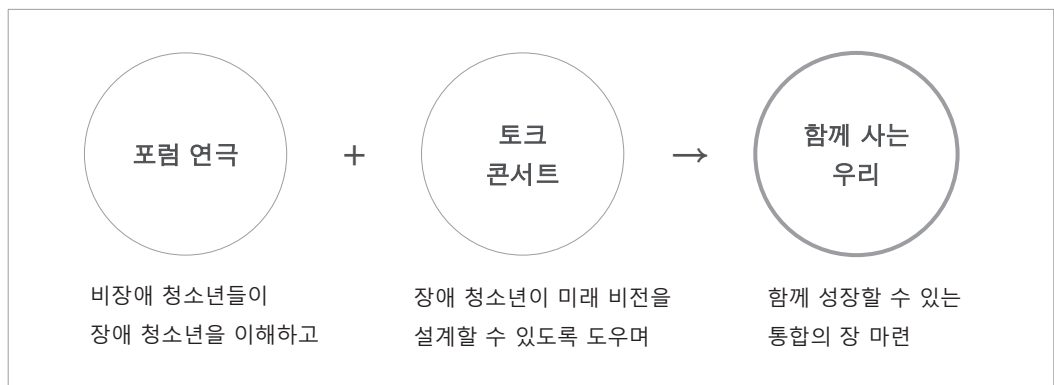
이해에서 공감, 공감에서 소통, 소통에서 통합으로

사업 목적

-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작점 제시
- 포럼 연극,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캠페인성 프로그램 진행
- 장애 청소년들은 성장에 대한 동기 부여 획득
- 비장애 청소년들은 장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음
-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이 서로 공감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사업 내용

< 장애-비장애 청소년 어울림 프로그램 "함께 사는 우리"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3. 장애-비장애 청소년 어울림 프로그램, “함께 사는 우리”

이해에서 공감, 공감에서 소통, 소통에서 통합으로

사업 내용

포럼 연극

- 장애-비장애 통합을 위한 장애 인식 변화 프로그램, 포럼 연극(Forum Theatre) 개발
- 연극을 교육의 톨로 활용하여 비장애 청소년들의 장애에 대한 시선 변화 유도
- 관람에 그치는 연극이 아닌 토론형 참여 연극으로 참여 청소년들은 연극의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참여함
- 상황의 부적절함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짐
- 관객이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주어진 현실을 해결하고 변화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감

비장애
청소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 포럼 연극(Forum Theatre)은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특정 문제나 극복해야 하는 어떤 장애에 대해 더놓고 논의하는 상호 교감적 예술 형식. 공연이 이루어지는 중간에 관객 누구나 배우의 동작을 중단시키고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피드백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우들이 연기하기를 유도할 수 있음. 포럼 연극은 배우가 던진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 하며, 상호 교감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

프로그램 3. 장애-비장애 청소년 어울림 프로그램, “함께 사는 우리”

이해에서 공감, 공감에서 소통, 소통에서 통합으로

사업 내용

포럼 연극

< 포럼 연극의 흐름 >



- 장애 청소년의 학교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담은 한 편의 연극 관람
-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보임

진행자

이 상황이 마음에 드나요?

어디가 마음에 안 드나요?
마음이 안 드는 곳에서 STOP을 외쳐주세요.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직접 주인공이 되어 상황을 바꿔주세요.

아니요!!

비장애
청소년

STOP!!

프로그램 3. 장애-비장애 청소년 어울림 프로그램, “함께 사는 우리”

이해에서 공감, 공감에서 소통, 소통에서 통합으로

사업 내용

토크 콘서트

- 장애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토크 콘서트 “우리들의 이야기”
- 토크 콘서트의 구성

- 1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이들의 세상사는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 2 장애 청소년과 장애를 가지고 청소년기를 보낸 장애인의 대담 형식의 토크 콘서트
- 3 장애인 예술가들의 공연(연극, 무용 등) 관람

- 토크 콘서트는 장애인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그들의 이야기를 무겁지 않게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음
- 토크 콘서트를 통한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 공유는 비장애 청소년들이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
- 토크 콘서트는 장애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삶의 비전을 제시

프로그램 3. 장애-비장애 청소년 어울림 프로그램, “함께 사는 우리”

이해에서 공감, 공감에서 소통, 소통에서 통합으로

기대효과

- 비장애 청소년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비장애 청소년은 장애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도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 마련
- 장애 청소년은 자신감, 도전 정신을 획득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다시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로 공감 및 소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연극 <푸른 고래의 꿈>



장애인 예술강사들이 찾아가 연주하는 '해피스쿨'



국내 첫 발달장애인 호텔리어 이상혁(23)

프로그램 3. 장애-비장애 청소년 어울림 프로그램, “함께 사는 우리”

이해에서 공감, 공감에서 소통, 소통에서 통합으로

예산(안)

• 예산(안) : 연 2억 원

예산 항목		예산(원)	비고
포럼 연극	인건비	22,000,000	2개월 연구 개발, 연출, 제작PD, 작가, 배우 등
	콘텐츠 제작비	20,000,000	2개월 연구 개발, 무대 제작, 공연 연습, 연구개발, 연습진행 등
	공연 진행비	76,000,000	10회 공연 기준
	홍보비	9,000,000	홍보물 제작 및 기록물 제작
	소계(1)	127,000,000	
토크 콘서트	대관료	2,000,000	2회 진행 기준
	프로덕션비	15,000,000	무대, 조명, 음향, 영상 등
	프로그램비	8,000,000	공연 및 프로그램, 사회자, 초청 명사, 무대 크루 등
	행사 진행비	8,000,000	간식비, 음료대, 홍보물, 프로그램 기획, 보험, 물품구입 등
	소계(2)	33,000,000	
사업 운영비	인건비	36,000,000	프로그램 운영 매니저 및 어시스턴트
	사업 진행비	4,000,000	회의, 교통, 연구, 사무용품 구입 등
	소계(3)	40,000,000	
합계(1+2+3)		200,000,000	

END OF DOC

SESSION 5.

비행 청소년 분과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컨설팅 리포트

비행청소년의 현황 및 개입의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아 산 미 래 포 럼

* 본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있어 아산미래포럼 비행청소년분과의 좌담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밝힙니다.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김현정, 명성진, 박현동, 이형섭, 천창암, 황인국 아산미래포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1 장 서론

- 청소년 비행은 성인 범죄와 비교하여 청소년 시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순히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위법행위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적응행동 또는 문제행동의 하나로서 간주하여 가능한 형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박성희, 1997)
-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자기통제력의 부족, 해체된 가정, 입시위주의 교육,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음
 - 출산율 감소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수가 줄어들고 가족형태가 변모함으로써 가족관 및 도덕관이 변하고 그에 따라 고립화, 소외, 정서적 불안정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부모의 과잉보호와 지나친 기대가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 비행이 생기기도 함
 -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혼외출산 등으로 인해 결손가정이 되면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열등감, 소외감 등을 유발하여 비행을 촉발하기도 함
 -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들이 방임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부족해지면서 비행이 벌어지기도 함
-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점으로 가장 빈번히 지적되는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이라 할 수 있음
 - 부모의 지나친 경쟁의식과 학벌위주의 풍토로 촉발된 무한경쟁적 학업방식은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전인교육을 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많은 청소년들이 심지어 어린이집에서부터 입시를 준비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일정한 성적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이미 소외되기 시작함
 -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압박감과 성적 저하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매우 일반적 현상임. 스트레스를 해소할만한 여가활동을 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그 결과로 자살, 가출 등 이탈행동에 빠지기도 함

○ 청소년들은 욕구불만을 개인의 힘으로 해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해결하려 하면서 비행또래집단을 형성하게 됨

- 사회는 이러한 청소년을 보호하기보다 청소년대상 불법영업이나 불법고용 등을 통해 착취하는 경우도 많고 주변의 유해환경은 비행청소년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범죄로 유입되는 과정들은 사회제도의 병폐 또는 사회구조적 모순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음

○ 2008년 이후 전체 소년범은 감소한 반면에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소년범 기소율 및 구속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소년보호송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소년교도소와 소년원 수용인원 추이를 비교해보면, 최근 10년간 소년교도소 수용자 수(2001년 2,035명 → 2011년 114명)는 급감한 반면, 소년원 수용인원은 완만한 감소에서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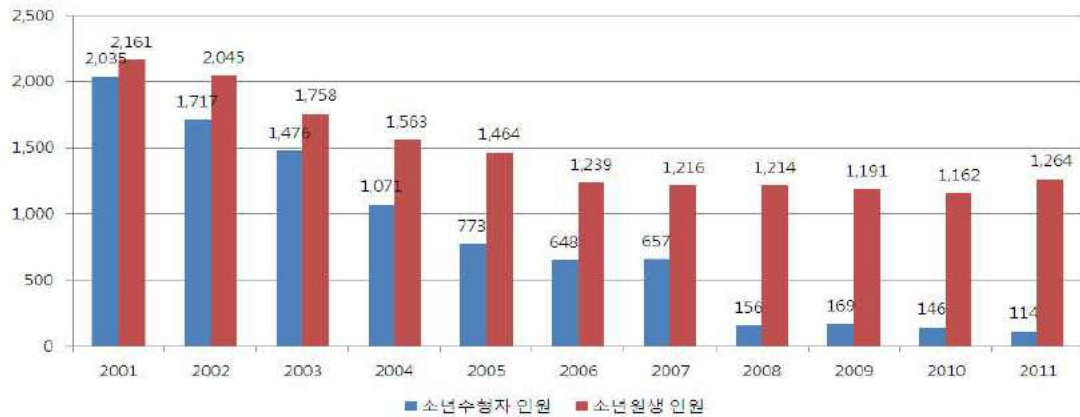
- 이는 결과적으로 이전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었던 비행성이 심각한 소년범들이 소년원 송치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등 보호처분 대상자들의 비행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정교육의 효과성 저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어져 소년범 재범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비행청소년의 재범률이 급증하는 동시에 비행의 지능화 및 조직화 등 청소년 비행이 대담해지고 흉폭화 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 제시가 시급한 상황임

- 재범을 일으키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비행친구와 접촉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가족갈등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정에 돌아가지 않고 가출을 선택하여 비행친구와 어울리고 가정의 괴로움을 잊을 수 있는 음주나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과정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청소년들과 비교하여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표 1〉 최근 10년간 소년수형자 및 소년원생 수용인원 추이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 최근 5년간 전체 소년범죄자 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전체 범죄자 대비 소년범 비율·인원은 감소하였음

- 전체 소년범은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2011년에는 83,060명으로 2008년 대비 38.5% 감소하였음
- 소년인구 10만명당 소년범죄자 수 역시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11년에는 1,426.3명으로 2008년 대비 43.5% 감소하였음

〈표 2〉 최근 5년간 전체 소년범죄자 동향

(단위 : 명)

연도	총범죄	전체 소년범	소년인구	총범죄 대비 소년범 구성비	10만명당 소년범 수
2007	1,989,862	88,104	5,292,760	4.4	1,664.6
2008	2,472,897	134,992	5,347,359	5.5	2,524.5
2009	2,519,237	113,022	5,994,271	4.5	1,885.5
2010	1,917,300	89,776	5,934,461	4.7	1,512.8
2011	1,902,720	83,060	5,823,594	4.4	1,426.3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2008-2012), 통계청 추계인구

○ 소년범죄자 재범률은 증가 추세임

- 최근 5년간(2007~2011) 소년범 재범률 평균은 31.9% 인데 소년범 재범률은 2008년 26.2%로 최저치를 보인 이후, 2009년 증가추세로 전환, 2011년 36.9%로 2008년 대비 10.7% 증가하였음
- 특히 재범 횟수가 1범이나 2범일 때에 비해 3범 이상일 경우 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소년원 수용 경험을 마치고 비행청소년이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처음의 강한 의지는 점차 사라지고, 가정과 사회 내의 복잡한 문제들과 부딪치게 되면서 다시 과거의 비행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박현수·정혜원, 2010)

<표 3> 최근 5년간 소년범 재범률 현황

(단위 : 명, () : %)

연도 \ 인원	계	전과 없음	전 과 횟 수 (재범)				미 상
			소계	1범	2범	3범이상	
2007	88,104 (100.0)	55,543 (63.0)	25,547 (29.0)	11,540 (13.1)	5,332 (6.1)	8,675 (9.8)	7,014 (8.0)
2008	134,992 (100.0)	79,285 (58.7)	35,414 (26.2)	15,476 (11.5)	7,553 (5.6)	12,385 (9.2)	20,293 (15.0)
2009	113,022 (100.0)	65,990 (58.4)	36,583 (32.4)	15,103 (13.4)	7,637 (6.8)	13,843 (12.2)	10,449 (9.2)
2010	89,776 (100.0)	50,830 (56.6)	31,538 (35.1)	12,091 (13.4)	6,546 (7.3)	12,901 (14.4)	7,408 (8.3)
2011	83,060 (100.0)	45,047 (54.2)	30,611 (36.9)	11,391 (13.7)	6,254 (7.5)	12,966 (15.6)	7,402 (8.9)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2008-2012)

○ 대검찰청 범죄분석(2008-2012)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년범죄 검찰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검찰의 소년범 기소율은 감소추세이나, 소년보호송치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검찰기소율을 보면, 2007년 11.8%에서 매년 꾸준히 감소해 2011년에는 5.6%로 6.2%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

- 반면에 소년보호송치율은 2007년 24.3%에서 2008년 약간 감소추세 (21.0%)를 보이다가 계속적으로 상승해 2011년 36.8%로 12.5%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4〉 최근 5년간 소년범죄 검찰처리인원 및 구성비

(단위 : 명, () : %)

구분 연도	계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성매 보호 송 치	불 기 소					가소 중지	참고 인 증 지
		소계	구 공 판		구약식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 음		
			구 속	불구속											
2007	88,104 (100.0)	10,367 (11.8)	1,330 (1.5)	1,485 (1.7)	7,552 (8.6)	21,368 (24.3)	22 (0.0)	21 (0.0)	54,424 (61.8)	44,689 (50.7)	3,029 (3.4)	394 (0.4)	6,312 (7.2)	1,809 (2.1)	93 (0.1)
2008	134,992 (100.0)	15,150 (11.2)	2,096 (1.6)	2,727 (2.0)	10,327 (7.7)	28,360 (21.0)	30 (0.0)	46 (0.0)	88,932 (65.9)	62,977 (46.7)	4,944 (3.7)	2,073 (1.5)	18,938 (14.0)	2,370 (1.8)	104 (0.1)
2009	113,022 (100.0)	7,795 (6.9)	1,770 (1.6)	2,159 (1.9)	3,866 (3.4)	32,453 (28.7)	37 (0.0)	16 (0.0)	71,100 (62.9)	56,715 (50.2)	4,684 (4.1)	1,184 (1.0)	8,517 (7.5)	1,535 (1.4)	86 (0.1)
2010	89,776 (100.0)	5,443 (6.1)	1,386 (1.5)	1,527 (1.7)	2,530 (2.8)	30,143 (33.6)	9 (0.0)	11 (0.0)	52,685 (58.7)	42,021 (46.8)	4,801 (5.3)	339 (0.4)	5,524 (6.2)	1,392 (1.6)	93 (0.1)
2011	83,060 (100.0)	4,691 (5.6)	1,315 (1.6)	1,710 (2.0)	1,666 (2.0)	30,587 (36.8)	10 (0.0)	7 (0.0)	46,224 (55.7)	36,582 (44.0)	4,151 (5.0)	272 (0.3)	5,219 (6.3)	1,455 (1.8)	86 (0.1)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2008-2012)

- 이렇게 일부 청소년들은 범죄 초기에 적절한 교정을 받지 못하여 반복되는 재범의 길로 빠져들고 있음
- 더욱 심각한 사실은 청소년의 범죄자인 경우에는 재범일수록 흉포화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이남희 외, 2009)
- 재범청소년과 초범청소년을 비교한 김현수, 김현실의 연구(2001)는 부모-자녀간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반사회적 및 공격성과 같은 비행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성격특성에 따라 재범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 따라서 청소년 범죄자가 초범에서 재범으로 발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이들이 성인범죄자로 이어지고 강력범죄자로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함

-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에서 비행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임
 -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바라보기 보다는 적극적인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로서 인식되어야 함
 - 비행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이거나 가정이 해체된 환경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여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비행청소년들은 일면 가해자이지만 동시에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생겨난 피해자로도 볼 수 있음
- 따라서 청소년 범죄자는 성인 범죄자와는 달리 보호와 감독, 그리고 적절한 교육 등 성인 범죄자와는 달리 차별적인 처방으로 교정시켜야 할 것임
 -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치료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기까지의 통합적인 과정으로 비행청소년들을 이끌어주어야 함
- 본 분과에서는 사회가 비행청소년에게 또 한 번의 기회(second chance)를 제공하기보다는 낙인을 줌으로써 비행청소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 현 사회 풍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비행청소년이 쉼터로의 도피과정이나 보호관찰과정에서 성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다시 한 번 사회로 재통합되는 과정을 통해 더 심각한 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고자 함

제 2 장 쉼터와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 범죄 후 결과로 인한 공식체계와의 첫 만남은 비행청소년에게 비행경력 시작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끝이 될 수도 있음
 - 첫 만남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하여 비행경력의 끝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함

제 1 절 쉼터의 개선방안

- 한해 가출청소년이 10만 명이지만 현재 전국 103개 청소년쉼터에서 보호할 수 있는 최대 보호인원은 1만 명 정도를 넘지 못하고 있음
 - 나머지 가출청소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청소년가출이 증가하고 있고 저연령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출청소년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보다 가정복귀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정책입안자의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그러나 가출청소년은 가정을 떠나는 동시에 학교에서도 부적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개인적인 불행인 동시에 장기적으로도 이들이 성장한 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됨(정익중, 백혜정 외, 2009).
- 쉼터 이용 대상의 이질성으로 인해 쉼터 내 초기 선별기능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함
 - 가출청소년의 경우 그 유형이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쉼터의 성격도 차별적이어야 하고 보호하는 기간도 매우 다양해야 함
 - 갈등형 가출의 경우는 상담 등을 통해 쉽게 가정복귀가 가능하지만 생존형 가출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개입과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함
 - 일시, 단기, 중장기 등으로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보호체계를 갖추지 않는 한 가출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 또한 쉼터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파악할 수 없고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양극단의 스펙트럼 내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
 - 일시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이 서비스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단기쉼터에서는 입소자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가정 복귀, 학교복귀, 중장기쉼터 입소 등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함. 중장기쉼터는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전까지 보호하며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훈련을 제공해야 함

○ 쉼터는 가출청소년이라는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곳

- 높은 수준의 위험도를 감안한다면 쉼터에는 최고수준의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며 적정사례수도 전문가 1인당 5사례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 쉼터의 가장 큰 문제점

- 쉼터의 인력구성과 역할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
- 많은 쉼터가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함
-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다른 직종이나 비슷한 일을 하는 시설에 비교할 때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움
- 전문 인력이 책임성을 갖고 운영하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쉼터가 24시간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근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쉼터는 생활시설로 24시간 동안 입소자들을 보살펴야 하기에 업무량이 대단히 많음. 적어도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24시간 운영이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라도 신입자교육과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의 질을 높이고 쉼터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함

○ 쉼터의 유형에 따라서 인력구성이 상이한 것이 바람직한 현상(정익중, 백혜정 외, 2009)

- 일시쉼터에는 outreach를 담당하는 높은 수준의 전문 인력이 주로 배치되고 단기쉼터에는 선별,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중장기쉼터에는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생활지도원이 주로 배치되어야 함

○ 대부분의 쉼터는 소규모 시설이며 재정이 열악한 문제를 가지다 보니

소수의 청소년들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서비스의 내용도 보호차원의 제한적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약물에 중독된 청소년, 학대받은 청소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역부족
 - 실무자가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상담을 통해 청소년 문제와 가족문제를 사정하는 것은 어렵다보니 형식적인 문제 사정에 그치기 쉬움
 - 대부분의 쉼터가 서비스 기간을 1~2주에서 1~2달 정도로 제한하다보니 가출청소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조차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성이 의문시되곤 함
 - 가출청소년들 중에는 만성화된 학대문제, 가정의 완전 해체, 기타 가정의 자녀교육기능 상실 등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가정의 청소년들도 많다보니 기존의 쉼터들이 이들을 위한 자립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지원 없이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청소년가출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문제청소년으로서 가출청소년은 오히려 쉼터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유는 기존 쉼터가 원활한 귀가 조치를 목적으로 보호나 양육, 자립지원만의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노숙 및 배회청소년, 이른바 “거리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역할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됨
- 쉼터의 새로운 기능 모색 필요
- 쉼터는 기존의 보호와 양육의 기능은 물론 거리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권(숙식)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병행해야만 함
 - 쉼터의 기능전환을 통해 거리청소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청소년문제, 즉 남학생의 경우 폭행 및 절도, 여학생의 경우 성매매 등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출청소년들을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문제 집단, 비행청소년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가출청소년 관련 서비스 실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남미애, 2008)

- 가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어떠한 청소년이라도 안전에 있어 위협받아서 안 됨
- 청소년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가출청소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보호시설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옴(박현동, 2013)
- “가출팸” 이라는 가출청소년의 집단이 사회문제를 일으키며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이슈화되면서 기존의 보호체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이탈되어 거리에서 지내는 청소년들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함
-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일시쉼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일시쉼터는 2013년 기준 21개소만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호체계 내에서도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구축되지 못해 실질적인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쉼터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쉼터 내 청소년의 전문화된 질적인 보호와 쉼터 밖의 거리청소년을 보호 및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단 한명이라도 놓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의 모색이 필요함
- 첫째, 원하지 않은 보호와 교육은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숙식 등 최소한의 기본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여성가족부 주최 청소년쉼터 실태조사에서 쉼터이용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가출 당시 가장 어려운 때 1순위는 잠잘 곳이 없을 때가 30.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할 때(20.8%), 용돈이 없을 때(20.6%), 외롭거나 불안할 때(9.0%)의 순(박현동, 2013)
- 원하지 않는 서비스는 아무리 좋아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청소년이 요구하고 필요할 때 지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장기적 개입이 필요함

- 컴퓨터에서 성인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할수록 가출청소년은 컴퓨터를 회피하게 되고 더욱 음성적으로 숨어들어 그들을 만나기 어려워짐
- 일시컴퓨터일수록 근사한 시설을 갖추기보다 가출청소년이 거부감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부담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어야 함. 간판이나 시설 없이 간단한 의약품, 세탁시설, 샤워시설, 라면 등의 간단한 음식을 갖추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윤현영, 2004)
- 일시컴퓨터 일수록 가장 접근성이 높아야 하고 가장 노련한 실무자를 배치하여 가출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짧은 시간 내에 청소년의 내면을 건드려 줌으로써 서비스 욕구를 발생시켜 계속 보호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서비스 제공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수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될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변화시키려면 현재의 상태를 부정해야 하고 부정은 또 하나의 저항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한동안 변화보다는 현 상태의 유지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함
- 스스로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므로 통제보다는 자율중심으로 입소와 프로그램 참여도 선택제로 전환

○ 비행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은 매우 중요함

- 청소년범죄의 속성상 비행에 대한 학습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므로 비행에 진행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이 고위험군으로 귀속되기 전 발견하여 적절한 개입을 통해 가정과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위험군으로 진입하기 전의 거리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거리 이동형 컴퓨터를 많이 개발하여 비행청소년 사회안전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제 2 절 보호관찰의 개선방안

- 교도소나 소년원과 같은 수용시설에 구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오염과 가정·학교·직장 등 사회와의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재활이나 사회복귀를 원조하여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들을 활용함으로써 시설 내 처우에 따르는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 보호관찰제도가 제 기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권문일, 정익중, 2005)
 - 보호관찰제도가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주요한 것은 보호관찰예산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을 것.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지역사회 내의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장려하는 등의 활동들을 펼쳐나가기 어려움
 - 보호관찰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보호관찰 관련 민간조직 및 민간 전문인력을 동원하고 이들과 보호관찰소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이들에 의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이승현, 2012). 첫째,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담당인력의 수적 증가와 전문성(이승현, 2012)
 -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1989년 대비 보호관찰 인력은 230명에서 2011년 6월 기준 1,259명으로 약 5.5배 증가하였으나 보호관찰 대상 인원은 약 8,000명에서 220,000여명으로 약 27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1997년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확대 실시 이후 보호관찰 대상자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직원 수는 20% 증가하는데 머무르고 있음
 -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판결전조사, 행정업무 등을 포함한다면 업무과중은 더욱 심각한 수준
 - 보호관찰에서는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의 긴밀한 접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보호관찰관의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둘째, 보호관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박영숙, 2007)

- 보호관찰관이 어떠한 형태의 교육과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보호관찰 관련 학과를 개설한다든가, 전문가 양성자격시험을 둔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 보호관찰관의 전문성을 함양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특히 보호관찰 인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전문성을 함양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전문성 고양 측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함
-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보호관찰에 민간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들의 활용에 있어서 보호관찰소 내에서 자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과정을 통해 적절한 지역사회 내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음
- 보호관찰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대상자에 대한 전문처우를 집행하는 중개자로서의 임무를 하는 방식으로 강화되고,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김기환 외, 2009).

○ 셋째, 보호관찰 초기에 재범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근거로 적절한 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도감독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분류처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이승현, 2012)

- 2011년부터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PRAD)’를 개발하여 보호관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모든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개별 대상자의 위험성 평가점수를 「보호관찰대상자 분류감독지침」에 따라 분류하고, 등급별 지도감독 등 처우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 소년범죄는 초기에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접근이 없으면 재범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상습적인 성인범죄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관리가 중요함(이승현, 2012)
- 보호관찰 교육에 있어서도 소년원 교육과 보호관찰의 지도·감독에

있어서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 원활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단순히 소년범죄 경력자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통해 재범을 감소시키려는 방식은 문제가 있음. 소년 범죄자에 대한 감독과 함께 소년의 욕구를 고려한 처우가 마련될 때 보호관찰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Schwartz, Jones, & Schwartz, 2009)
- 시설수용경험이 있는 소년범죄자의 경우 가족관계의 파괴, 이탈된 또래집단, 학교부적응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겪고 있음(이승현, 2012)
 - 보호관찰이 비행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도우려면 이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일반시민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함
 - 가족, 친구, 직장, 학교, 전문복지기관 등 지역사회와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아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조홍식, 2009)
- 소년범죄자가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소년범죄자와 관련된 민관 기관들이 협력하고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활용한 연계가 확립되어야 함

제 3 장 보호관찰 청소년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 쉼터를 돌아다니는 비행청소년과 지역을 돌아다니는 비행청소년이 다르고, 특히 지역청소년에게 파급효과가 큰 것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비행청소년임
 - 지역을 돌아다니는 비행청소년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화할 것인가가 각 지역 비행청소년 문제해결의 관건이 됨

제 1 절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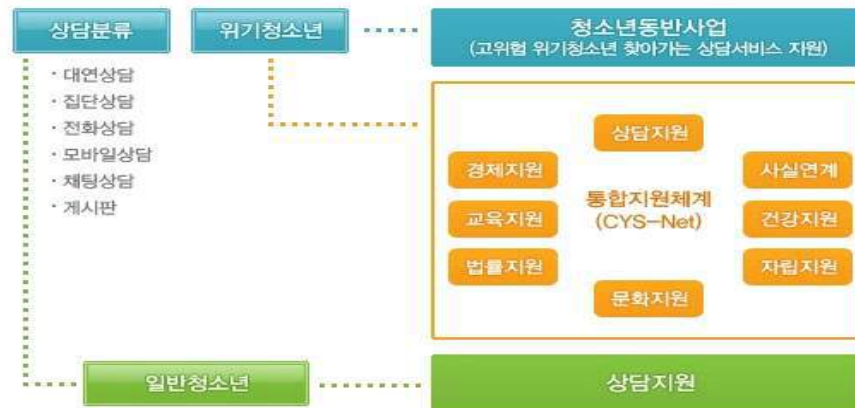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각종 지원시스템이 시행 중이나, 체계적인 연계 부족으로 역량이 분산되어 비행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및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CYS-Net은 지방자치단체(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주도로 운영되어 법무부(보호관찰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실정
이므로 보호관찰 중인 비행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 청소년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CYS-Net은 위기청소년들의 심리적, 경제적, 학업적, 대인관계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내 청소년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들이 가정이나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그림 1〉 CYS-Net의 체계도



자료: 여성가족부 (2012)

〈그림 2〉 CYS-Net의 사례지원과정



자료: 여성가족부 (2012).

- CYS-Net의 운영기관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및 치료 등을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2012년 기준 전국에 176개소(16개 시·도 및 160개 시·군·구)가 설치되어 있음(여성가족부, 2012)
- CYS-Net는 필수연계기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담당관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CYS-Net 연계구축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담당관에게 인지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음
 -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이동이나 다른 업무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개최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음
 - 더불어 이미 지역 내에서도 지역연계체계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다른 지역연계체계와 차별화할 것인지 고민되어야 함
- CYS-Net을 담당하는 상담복지센터 담당직원의 경우 대부분 상담을 전공하여 기관연계, 대외협력, 사업전략 등 상담 외 업무 등에 곤란을 느끼기 때문에 체계도와 사례지원과정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 실행위원회 및 1388청소년지원단은 기존 연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연계기관의 확대, 연계기관과의 사업 진행, 평가와 전망수립 등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전담공무원의 부재, 운영기관의 연계 능력 부족, 형식적 전달체계 등으로 실제적 행정전달체계 작동이 미흡하고 수치관리 중심의 평가체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황인국, 2013)
- 지역 상황 및 여건에 근거한 연계 및 지원전달체계 모델이 필요함

제 2 절 영국의 MAPPA 운영사례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서는 지역 내 모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비해 구체적인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보호관찰소도 자체적으로 원호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활동이 부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지역사회자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임(이형섭, 2013)
 -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경우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에 핵심 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개입이 시급함
 - ‘보호관찰 청소년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목표는 보호관찰 청소년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강화 및 소년 재범률 감소이며, 지역사회 내 관련 자원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사회로의 건전한 복귀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 보호관찰 청소년의 개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운영, 정기적인 회의 및 사후평가, 피드백을 통한 통합지원 등을 목표로 해야 함
- 영국의 MAPPA는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의 약자로 모범사례임
 - MAPPA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범죄자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위한 여러 기관들 사이의 협력체계임
 - 사회 내 처우를 받는 폭력범죄자 그리고 성범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호관찰소, 경찰서, 교도소 및 다른 기관들이 서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일종의 거버넌스 임(이형섭, 2013)
 - 2001년 MAPPA 설치 전에도 국가기관 간 협조는 있었으나, 성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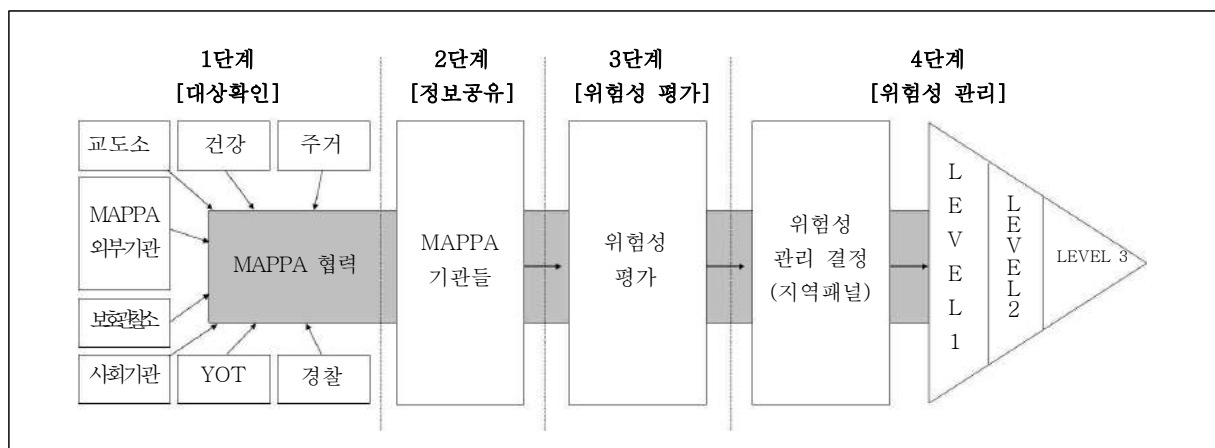
재범률 증가, 피해자 후유증의 심각성, 국민 치안 불안감 증대로 국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성범죄자 및 폭력범죄자 위험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회적 해악이 높은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Criminal Justice Act 2000, Criminal Justice Act 2003에 근거해 형사사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철저한 공조체제가 구축됨

- 1990년대 말 시작된 경찰과 보호관찰과의 업무공조가 그 시초이며, 보호관찰·경찰·교정기관이 책임기관이 되었음

○ 고위험범죄자의 확인→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체계적 위험성 평가→다기관 참여를 통한 통합 범죄자 관리를 세부목표로, 이들 범죄자 관리를 통한 사회보호를 최종 목적으로 함

- 주요절차로는 보호관찰, 경찰 등 개별기관별로 MAPPA 표준지침에 따라 MAPPA 대상자 확인 후, ViSOR 시스템 입력 및 지역 코디네이터에 통보하며, 인지된 대상자 정보에 관해 개별 MAPPA 기관간 정보공유 실시하고, 각 기관별 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한 평가결과를 ViSOR 시스템에 입력하고 공유함

<그림 3> MAPPA의 과정



자료: 이형섭 (2013).

○ 구성은 사법기관(책임기관)으로는 경찰, 교정 및 보호관찰 기관이 있으며, 기타기관(협력기관)으로는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취업훈련원, 소년범죄자 관리팀, 지방주거지원기관, 전자감독기구 등이 있음

- 대상자의 효과적인 위험성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위험성 판단이 필수요소임(이형섭, 2013)
- 대상자 위험성 평가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서 사용하는 OASYs와 Risk Matrix 2000이 이용됨

○ MAPPA의 위험성 수준별 대상자 관리는 3개의 단계로 되어 있고 단계가 높을수록 다자간 협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뜻함

- 대상자의 단계는 적절히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함. 지역 MAPPA에서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수준을 결정함
- 통상 관리(level 1)는 대부분 신상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기관에 의한 통상감독 및 정보공유를 실시하며, 기관 간 관리(level 2)는 두 개 이상의 기관에 의해서 관리감독,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실무자간 정기 미팅(2~3월에 1회)이 이루어지고, 다기관 관리(level 3)는 두 개 이상의 기관 관여, 기관 간 정보공유,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의 정기 미팅(1월에 1회), 및 집중감독을 실시함

○ MAPPA의 핵심적 과정은 초기정보부터 모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실제적으로 모든 사례를 심사함

- 이 과정은 낮은 수준에서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사례 Level 1 수준과 동시에 보다 높은 수준의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요구하는 Level 2,3 수준의 사례들을 분류하는 과정이기도 함
- Level 3수준 사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위험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으며, 각 사례에서 관리수준이 확정되면 각 MAPPA의 기관들은 3가지 수준에서 범죄자에 대한 협력, 사정, 그리고 관리를 제공함
- 중요한 것은 위험성이 높은 사례의 경우 관리기간 동안 주의 깊은 감독과 관찰 그리고 정보의 공유, 그리고 MAPPA의 계획에 의하여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과 다른 기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위의 기관들이 지지하는 것이 될 것임

제 3 절 보호관찰 청소년 통합지원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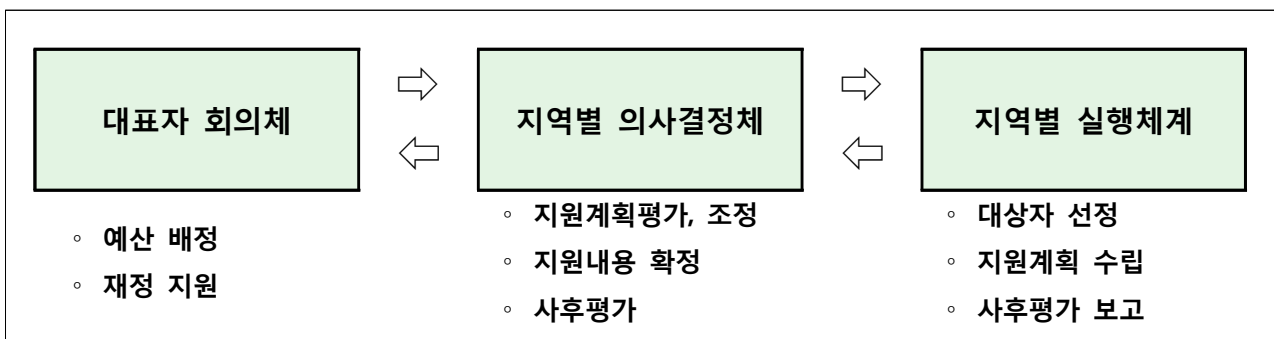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의 MAPPA를 모형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함

- 이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들이 연계하여 다양한 전문프로그램과 가능자원을 토대로 어려움에 직면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호관찰 청소년이 가정·학교 및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함

○ 보호관찰 청소년 통합지원 네트워크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일선 보호관찰소가 허브(hub) 역할을 담당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문제를 파악, 평가한 후 해결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호관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은 교우관계, 학업, 가족, 진로결정에서 경제적 문제, 가출, 비행, 폭력, 약물, 성매매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호관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보호관찰 청소년 통합지원 네트워크의 특징으로는 지역사회 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의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과 상호 연계하는 것, 개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임

〈그림 4〉 보호관찰 청소년 통합지원 네트워크 지원 절차



자료: 이형섭 (2013).

○ 보호관찰 청소년 통합지원 네트워크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대표체 회의체에서 예산 배정과 재정지원을 하며, 지역별 의사결정체(보호관찰소,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 대표: 보호관찰소 포함 5인)에서 지원계획 평가, 조정 및 지원 내용 확정, 사후 평가 등을 실시하며, 지역별 실행체계(보호관찰소/ 대표: 보호관찰소장) 단계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사후 평가 보고를 실시함
- 지역별 실행체계 단계에서는 상담지원, 보호지원, 교육지원, 법률지원, 자립지원, 문화지원 등이 이루어짐
- 보호관찰 청소년 통합지원 네트워크 서비스 내용과 사업수행기관을 살펴보면 상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비행예방센터, Wee센터 등, 보호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청소년쉼터, 그룹홈 등, 교육은 학교,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등, 법률은 지역변호사, 1388 법률지원단 등, 자립은 고용지원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문화는 청소년 수련관 등, 건강은 지역의료원, 보건소, 1388의료지원단 등이 주요기관이 됨

제 4 장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의 제도적 장치

○ 지역사회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비행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지만 이에 성공적인 지역은 많지 않음
- 무엇(what)을 해야 하는지는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있지만 어떻게(how) 해야 하는지는 아직 고민이 적은 편임

○ 지금까지의 연계 경험을 검토해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이태수 외, 2012). 첫째, 개별 기관 중심의 대다수 연계사례들이 그 자체로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 지역사회연계에 호의적인 담당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연계성고가 담당자의 교체나 이동, 관련부처 지침의 변화 등에 의해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는 불안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렇게 대다수 연계 사례는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임. 따라서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연계의 체계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음.

○ 둘째, 행정적 전달체계의 변화 없이 개별 센터나 지역조직의 힘만으로는 상호 불신의 높은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지역사회 연계, 조정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 강구되는 것이며 법률이나 조례 등 공식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함
- 또한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함

○ 셋째, 현장에서의 자발성과 상호신뢰에 기초한 연계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

-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연계 시도의 경험과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제도적인 협력체계의 시도 자체가 탄력을 받지 못하며, 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해도 실제 협력체계가 구동될 지역사회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교, 지역사회기관 차원에서 각기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함

제 1 절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

○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연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임

○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장관이 참여하는 ‘아동정책조정

위원회' 나 여성가족부 내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비행청소년 하위분과를 만들고, 그 아래에 실·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법무부,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세 개 부처에서 담당하는 주무 실·국장 및 실무담당자들 간에 실제적인 협력구조를 갖추는 것임
-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법무부가 관장하는 소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능함

○ 둘째, CYS-Net처럼 민간기관이 대표기관이 되도록 하기보다 보호관찰소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대표기관이 되도록 하여 회의소집의 공적 권위가 부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의 해당사업들에 대한 사업지침들에 있어 지역사회 안에서의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들을 분명히 적시하는 것이 필요함
- 대상 청소년의 발굴 및 배치, 상호간의 협력사항, 역할분담 등에 대한 논의,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성과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적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셋째, 각 기관 간 정보공유나 공유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

- DB구축은 개별 기관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이 필요함
- DB를 통한 사례에 관한 정보공유가 필요함. 법무부 DB, NEIS,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각 기관별로 사례에 대한 개입정보 및 효과들이 간략한 형태로나마 기록되고 공유되어야 할 것임
-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쉽지 않겠지만 이러한 정보 접근을 철저히 담당자에게만 제한하고 관련 담당자에게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됨.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사례 누락이나 서비스 중복 등의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넷째, 상호 연계를 위해서는 예산상의 유연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대상과 프로그램만 명확하면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교육부의 예산이 어디에서든 지역 내에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 2 절 학교차원

- 비행청소년이 학령기에 있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이 학교 내나 그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를 중요한 관련기관으로 포함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학교 내에 교사 이외 외부전문가 집단이 상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전문상담교사 이외에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임상심리사 등이 모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이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교에 학교사회복지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해 전체 교사의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기존 부서 중 학교사회복지 사업과 관련이 깊은 부서(학생생활부, 진로상담부 등)를 사업 전담 부서로 재구조화해야 함
 - 학교사회복지 전담 부서에는 담당 교사와 함께 보건교사, 특수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함
- 학교와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해서는 학교 교사들의 교육이나 연수과정에서 지역사회연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판단됨
 - 학교는 항상 자기 완결적 조직으로서 기능하던 경험 때문에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활동을 부가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계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음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계의 문화를 먼저 형성할 필요가 있음(이태수 외, 2008, 정익중, 2009)
 - 학교가 외부 기관과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학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 내적 동기가 없이 외부적인 강제를 통해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 사회연계는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지금까지 학교는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밖으로 문제를 노출하기보다 학교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려웠음
-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과과정의 개선을 통해 교육성과는 학교 내에서의 교육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이 강조되어야 함
- 예비교사로 하여금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인식시키고, 지역사회협력과 관련된 과목들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정규 교과과정 속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 현직교사들의 경우도 지역사회협력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이므로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함
- 교사들은 승진점수 0.1점에 매우 민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협력을 교사승진점수와 연계하여 진행한다면 좀 더 현실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 3 절 지역사회기관 차원

- 지역사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제도적 장치의 부족 이외에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이태수 외, 2012)
- 첫째, 인력의 부족
 - 어떤 기관이든 지역사회연계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함
 - 많은 지역사회기관에 이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연계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음
- 둘째, 상호간의 이해 및 신뢰 부족
 - 지역사회연계를 위해서는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며, 상대방의 전문적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서로에 대한 이해,

신뢰와 존중이 부족함

- 본격적인 지역사회연계 구축에 앞서 초기단계에서는 관련된 모든 기관 및 조직의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교육 및 훈련을 받음으로써 다른 분야나 다른 기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통합적인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실시는 전문성의 제고라는 측면과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들 간의 접촉이나 지원 등을 요구함으로써 이후 지역사회연계의 토대가 될 수 있음 (이태수 외, 2008, 정익중, 2009)
 - 서로 상대방 기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야가 대단히 협소한 편임. 기관 간 상호이해를 위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소개 및 설명 등의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연계가 담당자에게 번거롭고 별도의 업무로 여겨지며, 연계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연계를 통해 사례의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관 간 신뢰구축을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임
 - 흔히 자신의 기관에 부여된 역할과 과업에 대해서만 충실하여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사회 전체에서 비행청소년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리고 청소년만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욕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자신들의 역할과 과업 수행에만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협소한 인식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임
- 현재 서비스의 실적은 각 기관에서 각각 해당부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연계를 통한 실적을 어떤 기관의 실적으로 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주요 문제로 부각될 수 있음
- 공동으로 연계하여 운영한 프로그램이 한 기관의 실적으로만 집계될 경우 각 서비스 기관들은 연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사업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이게 될 것임
 - 그러나 지역사회 내에서 기관들이 서비스를 연계하여 운영한 실적은 각 기관의 개별 실적으로 잡지 말고 그 지역의 공동성과나 실적으로

보는 것이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음

○ 사고발생시 책임소재의 문제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지역사회기관이 학교 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바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장이 책임을 지는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동 간 사고 등 서비스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 지는 통합보험을 개발하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함
-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대신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이 보장하도록 한다면 좀 더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 5 장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 소년범 재범률은 2011년 기준 36.9%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1/3은 범죄에서 다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를 통해 임시적으로 격리된 위기청소년의 상당수는 결국 범죄 생태계로 다시 돌아가게 됨

○ 청소년의 행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가정환경에 의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음. 청소년의 변화는 가정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

- 현재의 청소년 교정기관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당사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실시와 다양한 차원의 부모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함
- 특히 돌아갈 가정이 없는 경우, ‘가출팸’ 등이 가정 기능을 왜곡된 형태로 담당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네트워크 안에서 비행과 범죄가 빠르게 전파됨

○ 위기청소년 문제의 핵심은 가정공동체의 붕괴 및 해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가족공동체의 복원이 없다면 비행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음

○ “세상을 품은 아이들(세품아)” 사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명성진, 2013)

- 위기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가정임
- 정착할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생활을 함께 하며 쌓인 신뢰와 관계를 기반으로 삶 속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위기청소년과 함께 극복해가는 방식을 취해야 함

○ 기존 접근은 위기청소년 생태계 자체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고 네트워크 활용이 미비하였음. 범죄 예방을 위해 위기청소년 네트워크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역이용할 필요가 있음

- 핵심 청소년의 경우 100~120명이 그 영향권에 있을 정도로 위기청소년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과 네트워크 영향력이 상당함
- 세상을 품은 아이들(세품아) 사례에서는 리더에게 자원을 집중하여 위기청소년 네트워크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접근 방법을 사용함
- 평소 영향력이 높은 위기청소년이 변화하였을 때 네트워크 전체에 그 영향이 확산되어 일반적 위기청소년들의 새로운 변화 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게 됨

○ 기존 접근에 대해서는 위기청소년들이 복잡한 행정절차, 경직된 감독과 통제, 짜여진 일방적인 프로그램 등 자연스럽게 못한 생활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 한정된 예산, 행정절차의 한계로 인해 프로그램 유연성이 부족하여 속박, 통제를 싫어하는 위기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강요함으로써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음
- 정해진 프로그램 없이 위기청소년의 수요에 따라 상황에 맞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 위기청소년과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찾고, 이들의 욕구를 교육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참여시킴

- 비행경험자를 보호관찰 청소년 통합지원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위기청소년들로 하여금 변화의 모범사례를 직접 목격하게 하고 비행경험자의 자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보호관찰 청소년 통합지원 네트워크와 헌신적인 실무자 조직이 결합 되었을 때 비행청소년의 진정한 변화를 끌어내고 그 변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임
- 보호관찰 청소년 통합지원 네트워크는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던 것처럼 세상을 품은 아이들(세품아) 사례는 실무자의 헌신을 넘어서 전문 직업화하는 방안이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 권문일, 정익중(2005). 보호관찰사업에 있어 민관협력모델의 적용과 과제. 『보호관찰』 제5호, 29-46.
- 김기환, 이국희, 이진영, 이경, 전재홍, 권오경, 김보라(2010). 지역사회자원 활용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제10권 2호, 327-467.
- 김현수, 김현실(2001). 재범 비행청소년의 예측인자 분석. 『신경정신과학』 제40권 2호, 279-191.
- 김현정(2013).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 및 법무부 소년보호기관 운영현황. 아산미래포럼 내부자료.
- 명성진(2013). 비행청소년의 발굴 치료 육성 자립: 세상을 품은 아이들 사례를 중심으로. 아산미래포럼 내부자료.
- 박성수(2004). 보호관찰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조직, 인사, 유관기관과의 협조 중심으로. 『한국교정학회지』 제23호, 151-183.
- 박성희(1997).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지도방안. 『청소년행동연구』 제2호, 99-112.
- 박영숙(2007).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방안. 『교정복지연구』 제8호, 25-42.
- 박현동(2013). 탈출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과 서비스. 아산미래포럼 발표자료.
- 박현수, 정혜원(2010).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청소년의 비행경로 비교: 비행친구, 부모애착, 자기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2호, 5-34.
- 손외철(2003). 영국과 비교한 한국 보호관찰제도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 제56권, 315-356.
-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사업안내』.
- 윤현영(2004).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발전방안. 『가출청소년 보호대책 토론회 자료집』.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경상, 이순래, 박철현(2010).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I. 데이터 분석보고서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3.
- 이남의, 이봉건(2009).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에 따른 재범 위험성 차이에 관한 연구: 비행촉발요인 조사서와 PAI 검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2호, 127-140.
- 이승현(2012). 아시아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의 발전과정을 중심으

- 로. 『보호관찰』 제12권 2호, 219-258.
- 이용교, 홍봉선, 윤현영(2005). 『청소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태수, 이해숙, 정익중, 최영(2012).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 시범사업 성과 분석 보고서』. 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이태수, 정익중, 김신열, 박경수, 이호균, 이경림, 박주현(2008). 『아동청소년 복지네트워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이형섭(2013). 영국의 MAPPA 운영체계. 아산미래포럼 내부자료.
- 정익중(2006).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의 수요와 전문인력 개발의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12권, 95-115.
- 정익중(2008). 참여정부의 아동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한국사회정책』 제14집 2권, 282-313.
- 정익중(2009).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통합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제40권 1호, 297-322.
- 정익중, 백혜정, 박현선, 천창암, 박현동(2009). 『청소년 쉼터 운영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윤오(2012). 소년원 퇴원 후의 재범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9권 2호, 79-98.
- 조흥식(2009).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보호관찰제도의 20년 고찰. 『보호관찰』 제9권 제1호, 7-34.
- 천창암(2013). 진로교육을 통한 비행청소년들의 긍정적 변화. 아산미래포럼 내부자료.
- 홍봉선, 남미애(2008). 『희망충전소 청소년쉼터의 운영 및 성과』.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황성훈, 이강훈(2008).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긴장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3호, 127-145.
- 황인국(2013).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지원 프로그램. 아산미래포럼 내부자료.
- Schwartz, I. M., Jones, P., & Schwartz, D. (2009). Juvenile probation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practices and how it can be improved.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자료집』, 법무부, 9-29.

[비행 청소년 분과] 사업 제안



비행 청소년 분과 사업제안서 전체 프로세스

STEP.1 환경분석

1. 사회 이슈
2. 정부 정책
 - 청소년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 소년법
 - 주요 부처별 정책
3. 주요 통계 및 현황
 -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지수
 - 청소년 자살 현황
 - 가출 현황
 - 청소년 범죄 현황
 - 학업중단 학생 현황
 - 학교폭력 현황
4. 핵심과제 도출

STEP.2 핵심과제 검토

1. 심리치료
 - 가출 이유 및 가출 생활에서
어려운 때
 - 가출 전후 자살시도
 - 청소년쉼터 서비스 욕구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2. 통합 기여
 - 장래희망
 - 국내외 성공 사례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3. 지역사회 지지기반 강화
 -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
 - 외부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STEP.3 프로그램 제안

1. Teen Station
2. 카페 쓰담쓰담
3. 소심이, 대심을 위한
心心 프로젝트



* index

비행 청소년

- I. 환경분석
 - 1. 사회 이슈
 - 2. 정부 정책
 - 3. 주요 통계 및 현황
 - 4. 세부 핵심과제 도출



* index

비행 청소년

- I. 환경분석
 - 1. 사회 이슈



1. 사회 이슈

청소년들은 폭력, 자살, 가출, 학업중단 등의 심각한 수준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2013년 ~

- 01. 31 빈집, 빈차 털어온 10대 청소년 3명 쇠고랑
- 02. 15 비행 청소년, 왕따 피하려다 가해자로
- 03. 07 10대 청소년 동성 성매매 '바텀알바' 활개
11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교생 투신자살
- 04. 25 무서운 10대들 환각상태서 병원 털어
- 05. 09 '신촌대학생 살인사건' 10대 2명 소년범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
14 부산 소년원 집단난동 4명 구속 14명 이송
- 06. 24 학업중단 숙려제 '유명무실'
- 07. 08 예민한 10대들 '소아청소년 우울증' 위험수준!
11 '용인 살인사건' 등 10대 청소년 범죄 갈수록 흉포화 왜?
13 10대 청소년 자살 충동률 1위
19 하우스메이트 전락 10대 청소년 "재워만 주면 성관계 괜찮아"
- 08. 02 청소년수련원 84% 문 닫을 위기
청소년 쉴터 10대여성 성범죄 대책 시급
12 길 잃은 청소년들 위기 짚는 KBS 10부작 다큐
16 잠재적 위기청소년 정후 '빅데이터'로 파악
대한민국 청소년 행복지수는 3년 연속 꼴찌 왜?
20 사이버범죄, 5명 주 1명은 10대
26 교육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
30 경찰, '청소년 성매매 벗어나기' 지원 관심 없다
- 09. 02 5개월간 상가 100곳 넘게 텅 '무서운 10대'
03 초·중·고교 중 학업중단을 높은 '고등학생', 가장 많은 사유는 '자퇴'
04 학교 떠난 학생 28만명·지원 '태부족'
'학교 밖 아이들' 7만여명·절반은 '도움 필요'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청소년들은
폭력, 자살 등에 쉽게 노출됨

가출, 학업중단 등 가정과 학교 등의
사회안전망 테두리 밖 청소년 증가

청소년의 강력범죄,
청소년을 이용하는 범죄 증가

위기 청소년을 보호·지원·예방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한계



비행 청소년

- I. 환경분석
2. 정부 정책
 - 2-1. 청소년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 2-2. 소년법
 - 2-3. 주요 부처별 정책

2-1. 청소년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우리나라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청소년기본법 제13조)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범부처 공동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법령	1987 청소년육성법 제정 1991 청소년기본법 제정 1997 청소년보호법 제정 2000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2004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계획	1985~1987 청소년문제 개선종합대책 1992~2001 한국청소년 기본계획 1993~2002 제1,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 2003~2007 제3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 2008~2012 제4차청소년 기본계획 2013~2017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정책기조 및 과제	- 문제대응에서 건전 육성 중심으로 전환 - 정서적, 문화적 공간 제공 - 빈곤 세습화 방지 - 일반 청소년의 자질 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체제 마련 - 청소년 수련활동 중심의 청소년육성제도 기반 조성 - 미래 준비를 위한 청소년 활동 기반 - 동반자적 청소년 지위 부여와 청소년 참여 기초 마련 - 청소년보호정책 강화 - 주5일제 대비·창의적 청소년활동 기반 조성 - 참여, 인권, 복지의 지속적 확대 - 청소년정책, 사업 인식제고 -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 통합 추진 - 보편·통합적 청소년정책 추진 - 가족·여성정책과 연계발전 전략 지향 - 모든 청소년으로 대상 확대 - 선제·균형적 청소년정책 추진

2-2. 소년법

14세 이상의 청소년 범죄는 소년법 또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대부분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보호처분의 주된 목적은 보호와 교육에 있음

소년법

개요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법으로, 소년을 선도 및 교양하는 특별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구속된 소년을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경우, 소년부판사의 가위탁결정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됨
주요 내용	-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함 - 소년부의 보호사건 - 죄를 범한 소년 -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즉,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함 - 임시조치 -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 보호처분 -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감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 - 비행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관련 정책 수립·시행 등

2-3. 주요 부처별 정책 ①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위기(가능)청소년과 가출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 등 맞춤형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쉼터 운영으로 가정 및 학교,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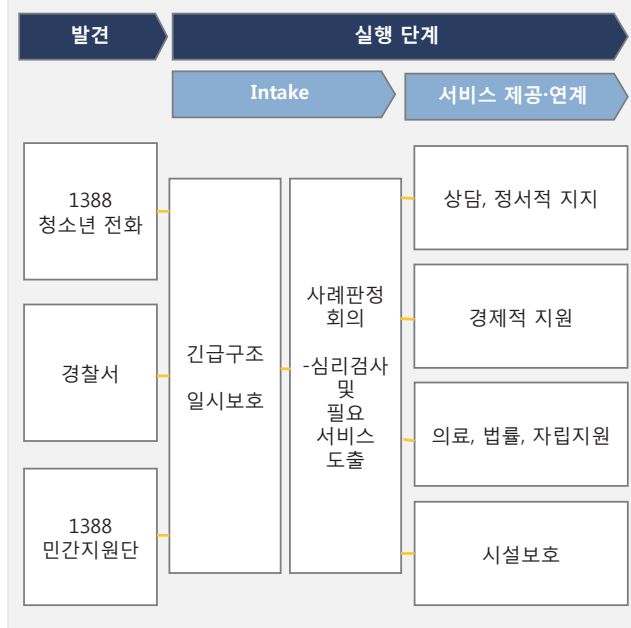
1 개요

여성가족부의 설립목적 중 비행 청소년과 관련된 목적으로는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가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주요 지원 내용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강화**
 -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지원체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 위기청소년 발견, 보호, 상담 및 학습,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허브기능 강화
-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
 - 청소년전화, 문자상담, 1388 청소년 지원단 등 연계망 확대 구축, 다양한 상담채널 확보 및 활용도 제고, 찾아가는 지원서비스(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의료 등) 확대, 거리상담 강화
-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자립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
 - 가출청소년 쉼터 지원 체계 강화, 쉼터 특성화 강화, 조기발견 및 가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 **소년원 출원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강화**
 -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소년원 출원 청소년을 위한 예방적, 회복적 보호 지원사업 확대, 보호관찰 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지원 등

3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지원 절차



2-3. 주요 부처별 정책 ②교육부

교육부는 Wee를 통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서비스망을 중심으로 비행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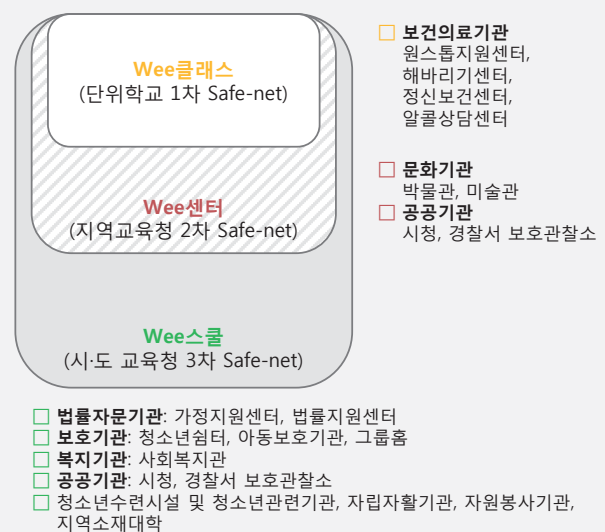
1 개요

교육부는 학생을 위험하게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표로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상담과 치료를 위한 Wee 확대, 고위험군 학생 조기발견 및 치료 등을 지원함

2 주요 지원 내용

- **1차 Safe-net Wee클래스**
 - 대상: 학습부진,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학교폭력, 미디어 중독, 비행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 및 징계 학생
 - 단위학교에 설치하여 학교부적응 학생 조기발견·예방 및 학교적응력 향상 지원
- **2차 Safe-net Wee센터**
 - 대상: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
 - 시도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설치하여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진단·상담·치유 원스톱 서비스 지원
- **3차 Safe-net Wee스쿨**
 - 대상: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장기적인 치유와 교육이 필요한 학생, 학교나 Wee센터에서 의뢰한 학생 또는 학업중단자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설치하여 장기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기숙형 장기위탁교육 서비스 지원
- 이 외에도 대안교육 확대,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

3 Wee 서비스 네트워크



2-3. 주요 부처별 정책 ③법무부

법무부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행 청소년의 교정·교화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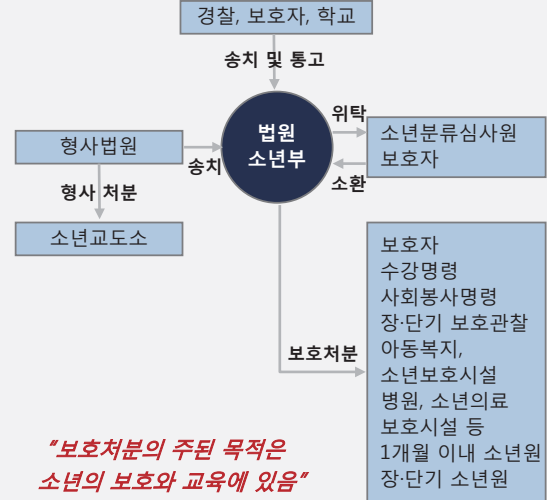
1 개요

법무부는 비행 청소년 특성화 교육을 통해 선도와 교화, 소년교도소 수용청소년 교정 및 교화 등과 같은 청소년보호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비행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시설 지원, 보호관찰활동을 위한 정책을 실행함

2 주요 지원 내용

- **보호관찰**
 - 보호관찰: 교정시설에 구금하여 범죄성과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수단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 **소년보호**
 - 소년원학교: 수용,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
 - 소년분류심사원: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의 수용·분류심사 및 주간출석 상담조사, 법원의 조사·심리자료로 제공
 - 대안교육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및 부모 등에 대한 보호자교육 실시, 상담조사 실시,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 진행
- **치료감호**
 - 정신과적치료, 특수치료, 의료재활치료,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법교육**
 - 법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3 보호처분 절차



2. 정부 정책 - 결론 및 시사점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적인 정책과 예산 확충, 지원 기관 및 지역사회의 통합적 체계 확대,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결론 및 시사점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적인 정책과 예산 확충 필요

- 비행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쉼터, 상담지원센터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각 부처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기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되지는 않음
- 비행 청소년의 전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다양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됨

지원 기관 및 지역사회를 연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 확대

- 여러 부처에 비행 청소년 관련 업무가 중복되며, 상호연계가 잘 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음
- 비행 청소년은 심리정서적 치료와 교육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유기적인 서비스 지원이 부족하므로 비행 청소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비행 청소년 지원 부서의 원활한 연계 및 협력 작업과 통합적인 운영으로 효과적인 비행 청소년 지원을 해야 함
- 지원 기관 및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비행 청소년에게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해야 함

비행 청소년의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시급

- 비행 청소년의 예방 및 발생 초기에 미흡한 대처로 비행 청소년의 증가 및 재비행 발생, 비행의 만성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비행 청소년의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 지원 프로그램, 대안 교육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쉼터, 아웃리치 요원, 거리청소년 지원 활동가 등의 전문인력 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비행 청소년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비행 청소년

I. 환경분석

3. 주요 통계 및 현황

3-1.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지수

3-2. 청소년 자살 현황

3-3. 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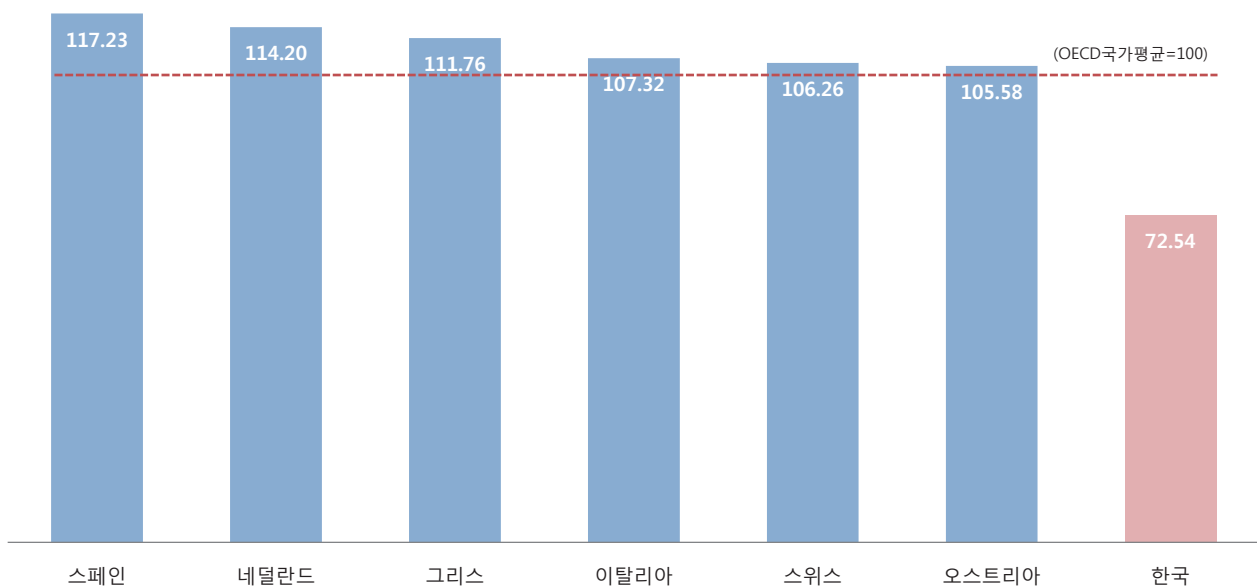
3-4. 청소년 범죄 현황

3-5. 학업중단 학생 현황

3-6. 학교폭력 현황

3-1.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지수 - OECD 국가별 순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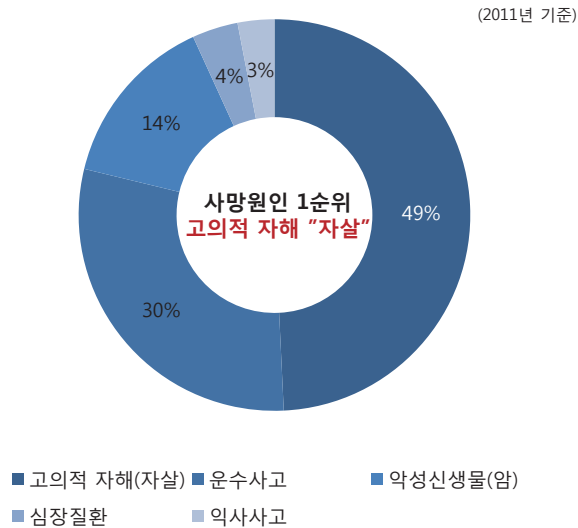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23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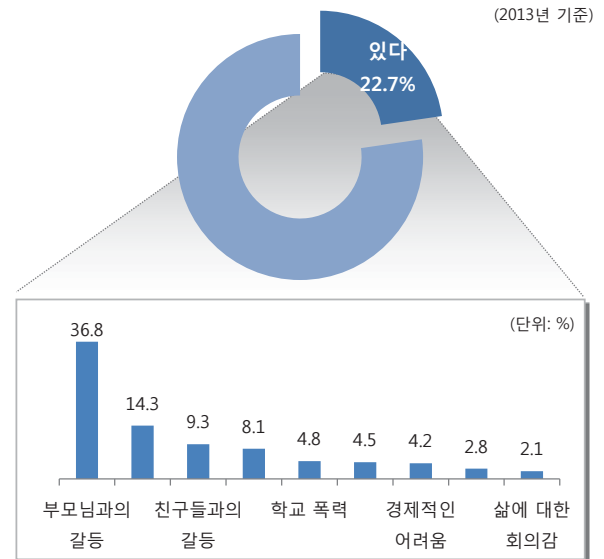
3-2. 청소년 자살 현황

청소년의 사망원인(15세~24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구 10만 명 당 청소년 자살 수는 13명이었으며,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청소년은 22.7%임(11세~19세)

청소년 사망원인(15세~24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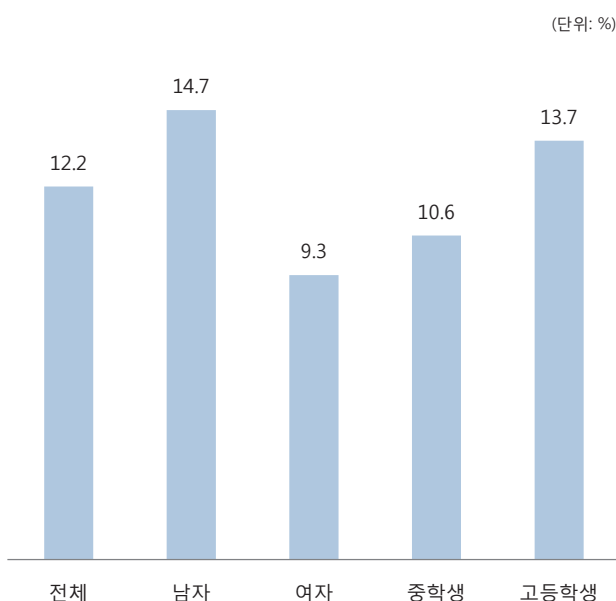
자살 충동 경험률 및 이유(11세~19세)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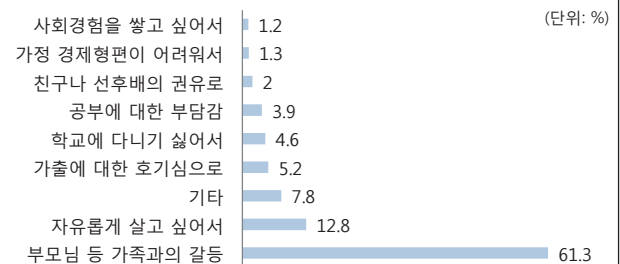
3-3. 가출 현황

2012년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5,350명으로 전체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출의 원인으로 가족과의 갈등 61.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출 후 다양한 문제행동에 노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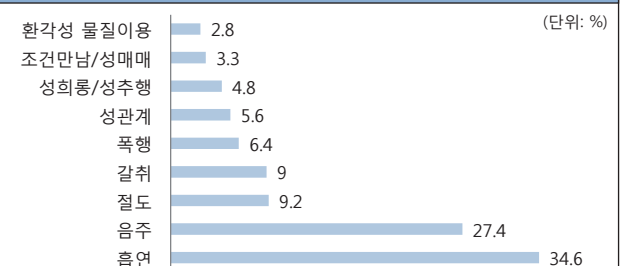
가출 경험률



가출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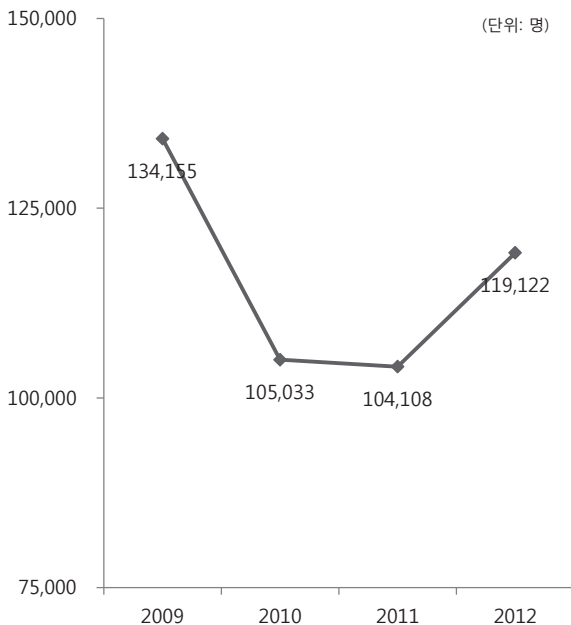
가출 후 문제행동 경험



3-4. 청소년 범죄 현황 - 소년사범 형사사건 및 소년원 현황

2012년 소년사범은 119,122명으로 전년대비 15,014명이 증가하여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년사범을 교화하는 소년원의 대부분이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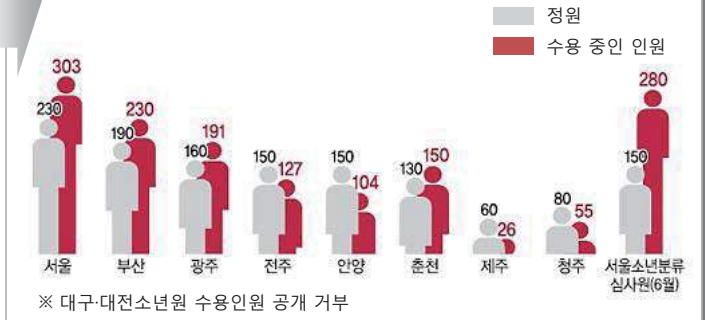
소년사범 형사사건 현황¹⁾



전국 소년원 포화상태 현황²⁾

(단위: 명, 2013년 8월 8일 현재)

- 전국 소년원 11곳 중 7곳이 수용 정원을 초과함
- 소년원 포화상태와 더불어 선생님과 관리 인원이 부족하여 교화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 대구·대전소년원 수용인원 공개 거부

3-5. 학업중단 학생 현황

학교를 도중에 그만 둔 학업중단 학생은 6만8188명이었으며, 고교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들의 학업중단 사유로는 '자퇴', 자퇴의 주된 이유는 학교 부적응으로 조사되었음

20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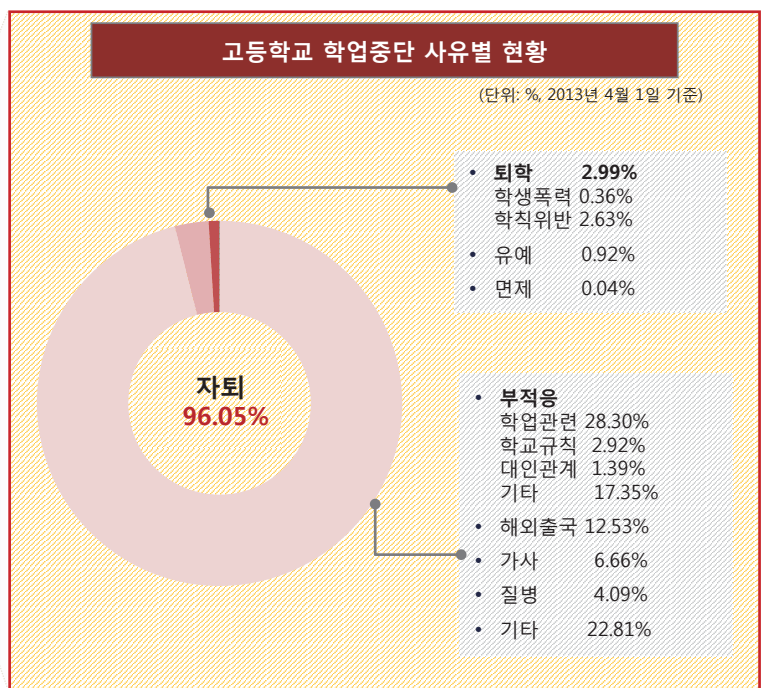


초등학생	1만6828명(0.57%)
중학생	1만6426명(0.89%)
고등학생	3만4934명(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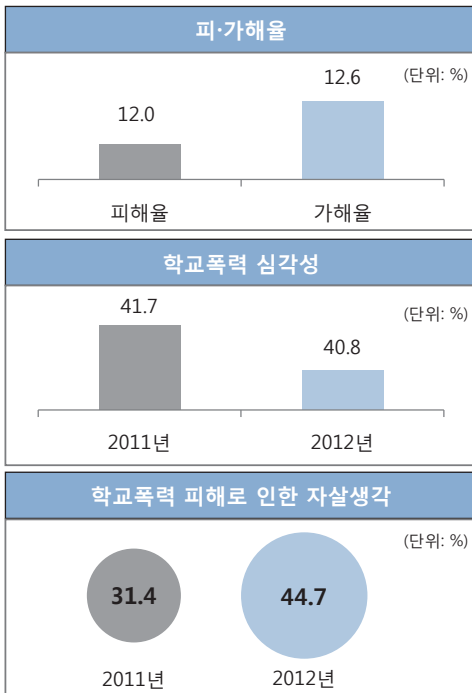
고등학교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

(단위: %, 2013년 4월 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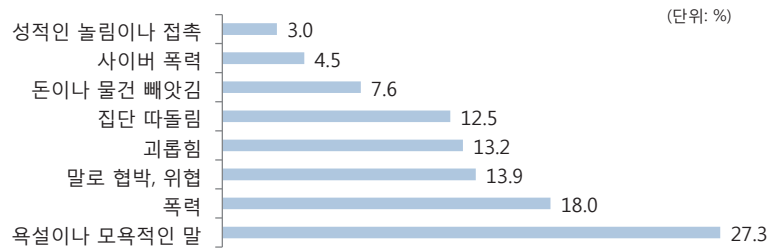


3-6. 학교폭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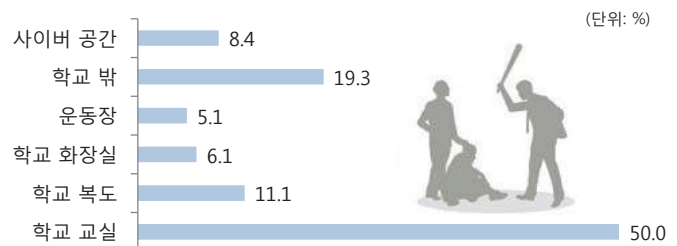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10명 중 4.5명이 자살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학교폭력 피해유형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



3. 주요 통계 및 현황 - 결론 및 시사점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갈등과 부적응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살, 가출, 범죄 등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결론 및 시사점

전문적인 심리정서 치료, 사회적 관심 필요

-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23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청소년의 사망원인(15세~24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구 10만 명 당 청소년 자살 수는 13명으로 나타남
-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인 지지 및 자살 예방이 가정과 학교, 상담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보호되지 않음
- 청소년의 불안한 정서는 가출, 폭력 등 또다른 문제행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전문적인 심리정서 치료의 확대와 사회적 관심으로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함

학교 밖 청소년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구축

- 2012년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소년사범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또한 증가하고 있음
- 학교에 있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 정규 교과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청소년, 가출/비행을 거치면서 문제행동을 접하게 되고 보호관찰소 및 소년원을 오가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책 마련, 사회적 안전망 구축, 지원프로그램 확대 등의 노력이 요구됨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 재범 방지를 위한 다각적 지원 마련

- 2012년 소년사범은 119,122명으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년사범을 교화하는 소년원의 대부분이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소년원, 분류심사원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자원 확보가 필요하며 과밀 수용, 관리 교사 수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함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 보호 네트워크 강화

- 가출의 원인으로 가족과의 갈등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교 폭력과 자퇴 등 학교 부적응이 늘고 있어 가족과 학교 등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이 시급함
-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의식 제고, 다양한 노력 등이 필요함
- 청소년을 위한 가정과 학교의 지지망 지원 및 지역 단위의 집중적인 청소년 보호 연계망 강화 방안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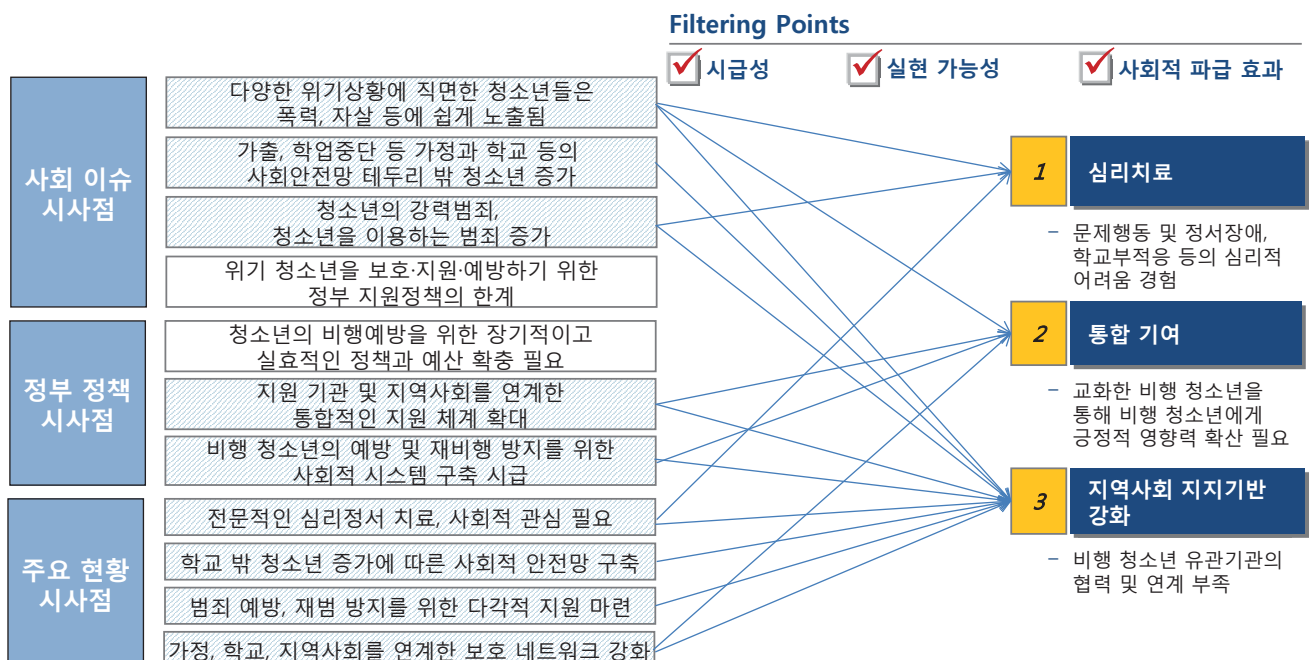
비행 청소년

I. 환경분석

4. 세부 핵심과제 도출

4. 세부 핵심과제 도출

주요 현황 및 정부 정책과 사회 이슈의 시사점을 종합하고 시급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세부 핵심과제 즉, 심리치료, 통합 기여, 지역사회 지지기반 강화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 index

비행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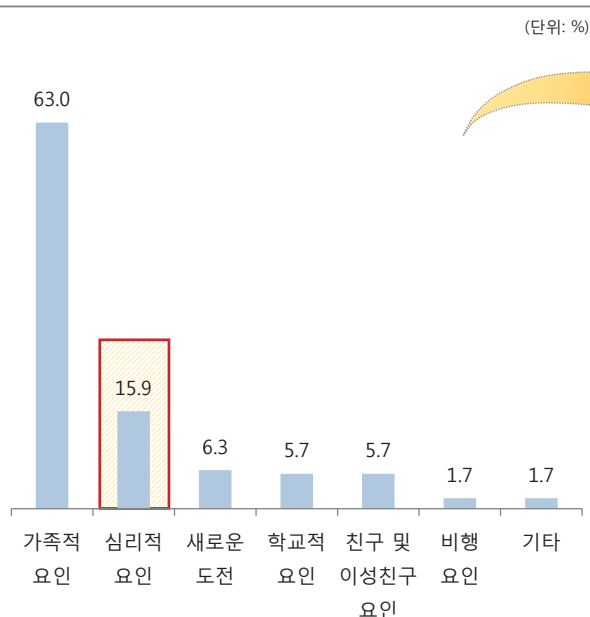
II. 핵심과제 검토

1. 심리치료
2. 통합 기여
3. 지역사회 지지기반 강화

1. 심리치료 – 실태조사 ①가출 이유 및 가출 생활에서 어려운 때(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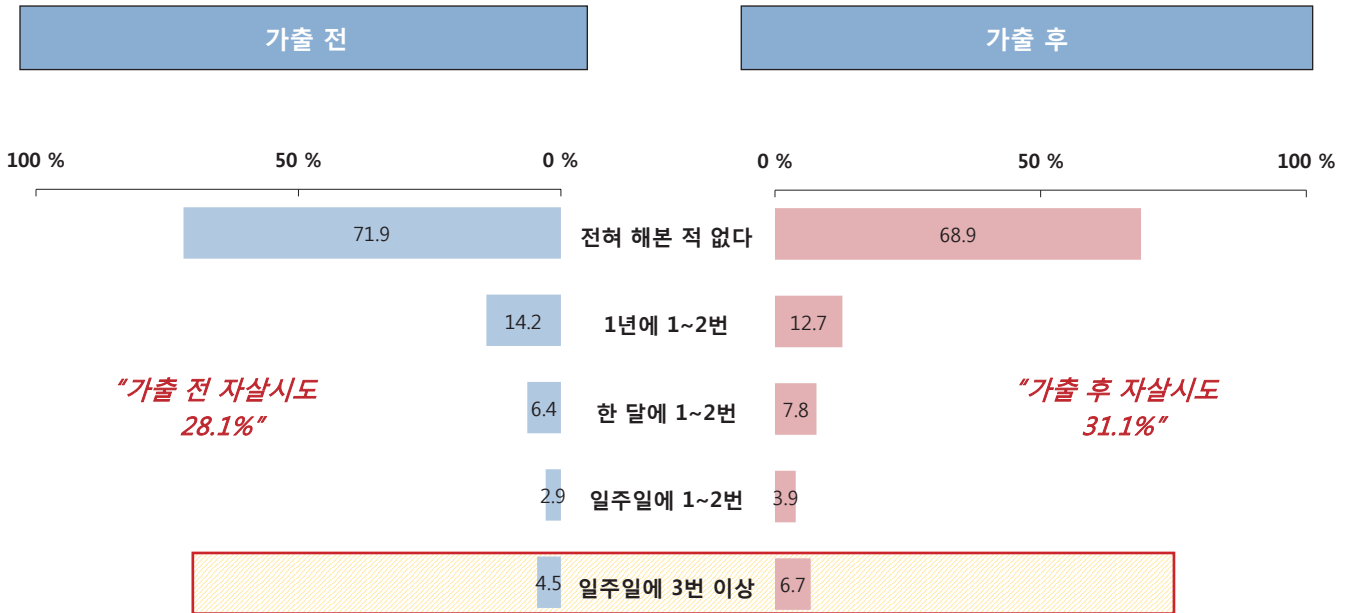
쉼터 이용 청소년의 가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정적 요인이 가장 높았으나 심리적 요인도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가출 당시 외로움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도 높은 수치를 나타냄

가출 이유(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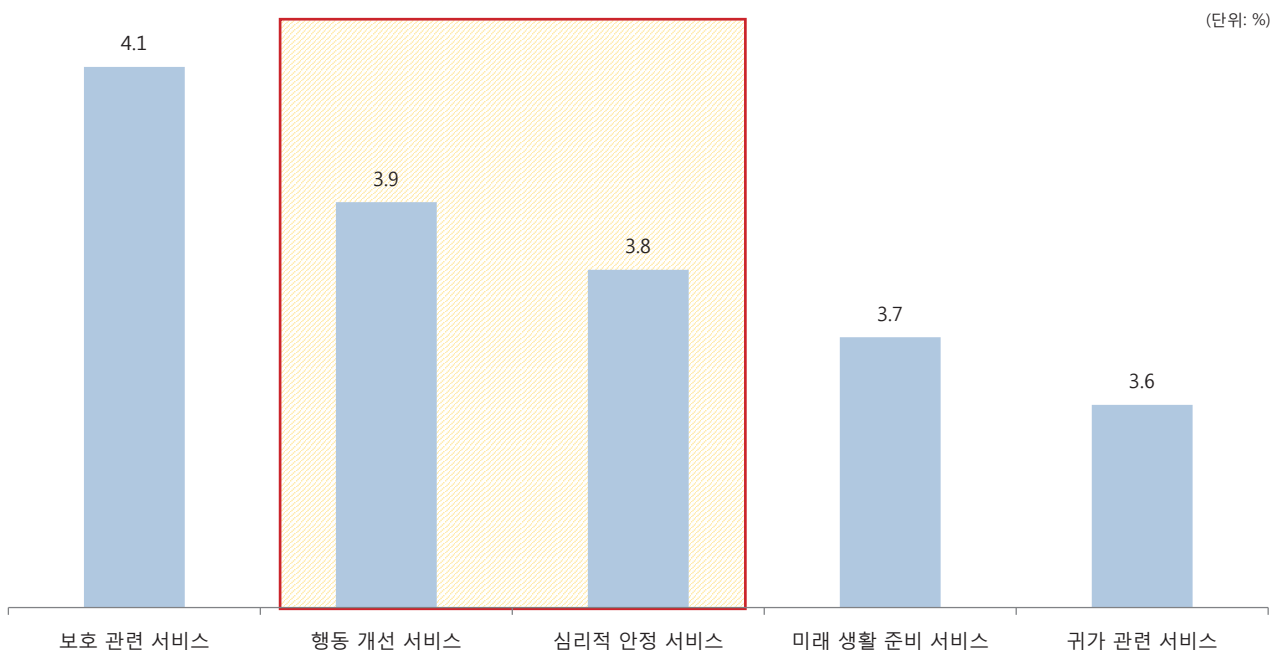
1. 심리치료 - 실태조사 ②가출 전후 자살시도

자살 시도는 가출 전 28.1%보다 가출 후 31.1%에 증가하였으며 상당수의 가출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1. 심리치료 - 실태조사 ③청소년쉼터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

쉼터 이용 청소년들은 행동 개선, 심리적 안정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아 문제 행동 개선, 정서적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심리치료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비행 청소년은 가정 내의 갈등과 학대, 학교 폭력, 사회 범죄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어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심리 치료가 필요함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외부적 환경

- 학업중단하기 전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갖춰져 있어요
-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아이의 심정 상태는 가정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갈등, 부모의 폭력,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 음주습관과 연결됩니다
- 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의 방식이 폭력적인 문화에서 자란 애들은 다른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되고 그게 범죄가 되는 거죠
- **환경적인 열악함도 천차만별이에요. 그 중에서도 누가 봐도 이런 환경에서 비행을 저지러 수 밖에 없겠다 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환경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 밖에 없겠다 싶은 애들도 있죠. 그리고 왕따 당했던 애들도 있어요**
- 학교에서 의뢰되어 온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상담이나 심층조사를 하다 보면 이 아이가 많은 상처를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 제 앞에 있는 아이들은 가해자로 오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의 이전의 생활, 성장과정을 보면 피해의 상황 속에서 적절한 개입이 없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성폭행이나 학교폭력의 가해자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는 것이 현재의 피해자를 미래의 가해자로 전환시키는 것들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아이들의 대부분이 역임적인 가정이나 완전히 파탄 난 가정에서 비행으로 가게 됩니다
- 아이들이 학교에서 쫓겨져 나오거나 배제되면서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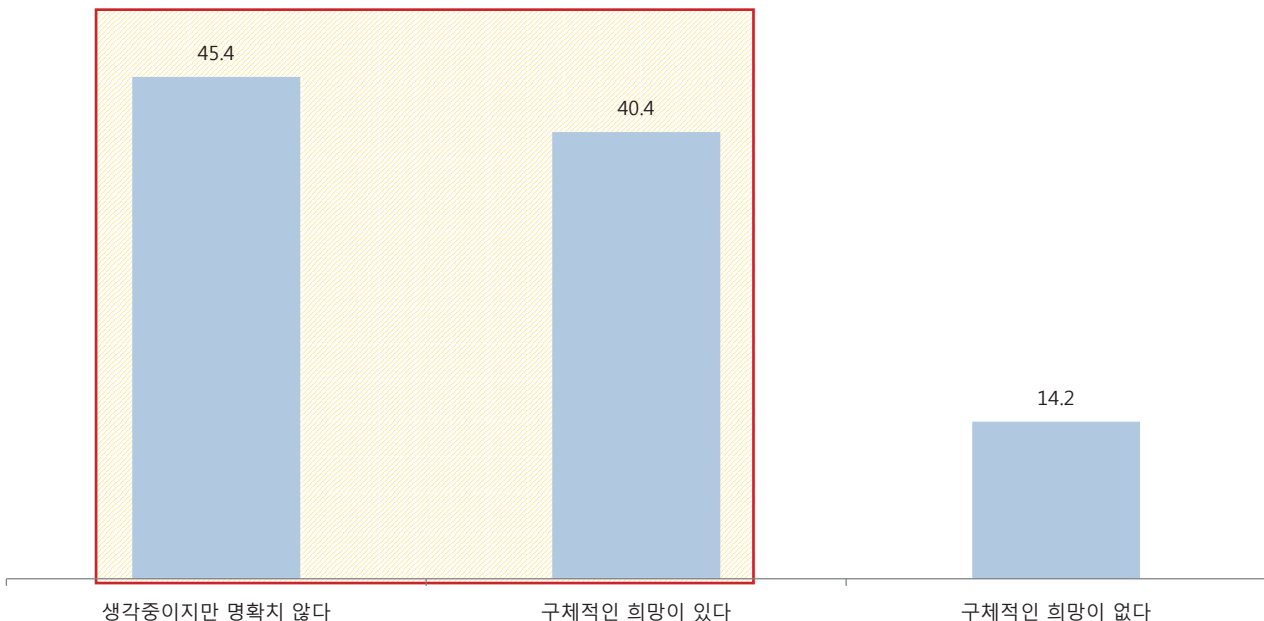
심리 치료의 필요성

- **비행, 가출했던 기간만큼의 기간이 치료를 해야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 비행에 관련된 것들은 내부직원들이 트레이닝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지만 외부에 일반프로그램 같은 것들 보시면 뭐 미술치료 음악치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개입해야 훨씬 더 효과적...
- 그 아이들마다 회복을 위해서는 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거 같아요
- 대체로 우발적으로 (범죄 행동을) 하는 것들이 많아서 청소년 관련 교정프로그램에 분노, 충동 조절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트렌드화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재범기간을 보시면 한 번 범죄를 저질러서 입건되었다가 6개월 이내에 재범하는 경향 큼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아이에게 어떤 개입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재비행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치료나 멘토링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베네수엘라에 엘시스테마도 아이들에게 악기연주를 가르치면서 마약이나 폭력과 멀어지게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보호관찰 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용단이 붙어서 작업을 하고 변화하는 사례를 만들어내는 등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2. 통합 기여 - 실태조사 ①장래희망

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장래 희망을 질문한 결과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장래를 위해 무엇인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구체적이거나 구체화하려고 고심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요구됨

(단위: %)



2. 통합 기여 - 실태조사 ②국내외 성공 사례

비행 청소년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발견하여 극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그 재능을 발휘하여 자신이 속한 또래 관계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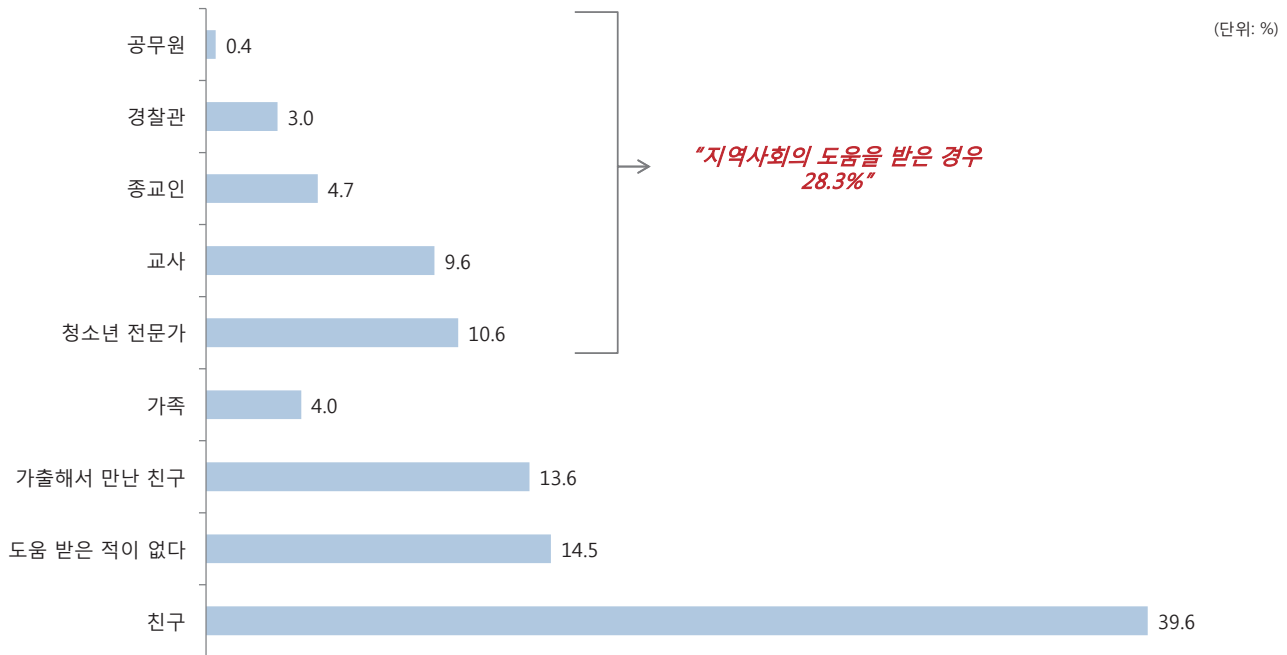
2. 통합 기여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집단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비행 청소년의 특성상 집단 내 변화한 사람이 그 집단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크고, 꿈과 희망을 지원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력이 파급되는 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집단화 경향이 강한 비행 청소년	긍정적인 영향력
비행을 하는 집단 자체가 약화되면 그 지역의 비행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그 집단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변화된 샘플들이 필요합니다 - 결국은 그 핵심(비행 청소년)을 어떻게 장악하고 애들을 빼오는지에 따라서 그 (또래 집단) 밑의 아이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 예전에 한 아이의 연계도를 그렸는데, 이 아이가 400명과 연관돼있더라고요 2009년도부터 절반 이상이 단독비행이 아니라 공동비행으로, 아이들의 집단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확실하게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아이들 보면 다른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균형이 깨지고 아이들이 분산되면서 그 아이들을 모아 돌리면 지역의 범죄율이 실제적으로 떨어져...비행은 혼자만의 성격이 아니라 패밀리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 무리가 깨지면(비행, 범죄율도 줄어듭니다) - 핵심이 되는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 흐름이 약화됩니다 - 과도한 비행을 하고 있는 애들은 접근이 힘들지만 파급력은 가장 큼니다 - 아이들의 또래관계, 여가 등을 잘 구조화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비행으로 다시 전이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세대) 이 아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노는 아이들의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한 1세대 아이들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이 유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어른들과 노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면서...설득력도 너무 좋고 (비행 청소년이었던 아이들은) 우아하고 세련된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아이들을) 다 이해하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가르쳐 주고 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 꿈을 찾고 키우고 끼를 다듬고 ...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서 전문성을 가진... 데리고 있던 아이 중에 본드쟁이 밴드가 있었는데 ...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다른 애들의 삶을 이끅니다 - 애들한테 진로, 직업이... 중요합니다 - 저희 기관 출신 아이들 중에서도 지금 사회적기업 2개를 만들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과정에서 선정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지원해주는 것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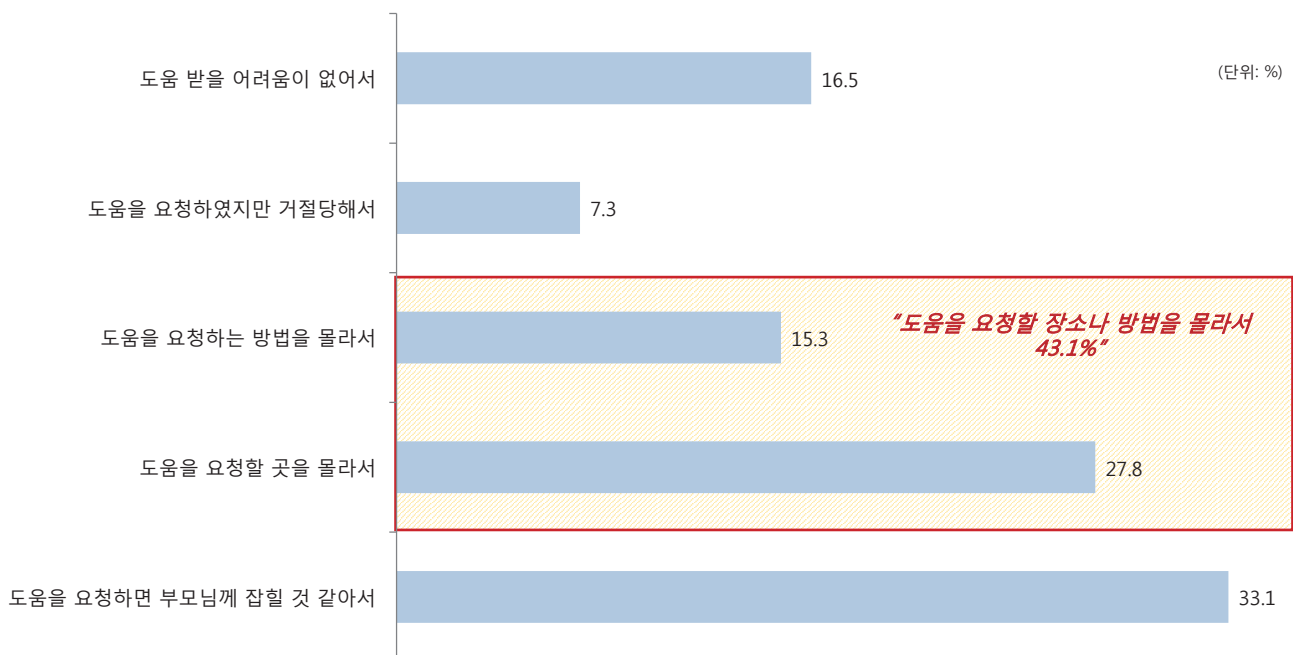
3. 지역사회 지지기반 강화 – 실태조사 ①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

가출 기간 중 청소년쉼터 이외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친구가 39.6%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은 경우는 28.3%였으며, 반면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14.5%나 되었음



3. 지역사회 지지기반 강화 – 실태조사 ②외부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도움 받을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15.3%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으나 43.1%의 청소년은 도움을 요청할 장소나 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3. 지역사회 지지기반 강화 – 전문가 회의 분석 결과

지역사회 연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비행 청소년 예방 및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연계된 지역사회 지지기반 강화가 필요함

미비한 지역사회 연계망	지역사회 지지기반 강화의 중요성
-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곳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혼자 열심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보호체계를 촘촘하게 하기 위한 연계작업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지역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CYS-Net만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버넌스의 구조지 실행조치를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역모델에 있어서는 돌봄과 배움이 지속돼야 예방과 자립으로 간다는 거죠 - 돌봄, 배움이 있는 형태의 대표 사례로 '안산들꽃피는 마을'을 들 수 있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면서 지자체를 포함한 거버넌스가 이뤄진 사례죠. 지역사회 자체가 아이들의 문제적, 비행적 행동과 요인들을 대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고, 그 거버넌스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지역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쉼터 혼자서 이 아이들을 다 감당 못하고 모든 서비스를 줄 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 - 지역사회나 국가 단위의 체계적인 모범 모델을 보이고 해서 성공을 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비행 청소년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사회시스템적으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실 쉼터는 전국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역에 기반해서 지역 속에 뿌리내려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연결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희 혼자만으로는 안됩니다. 저희가 계속 붙들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되고 이 아이들이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지역에서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호관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간 아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 복귀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추적해서 도울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를 일으켜야 확인할 수 있다고요 - 아웃리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고위험군의 아이들과의 접촉점들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방과 관리의 어려움	



비행 청소년

III. 프로그램 제안

1. Teen Station
2. 카페 상담상담
3. 소심이, 대심이를 위한 心心 프로젝트

환경분석 및 논의 시사점

포럼 핵심이슈

전문적인
심리정서 치료

통합기여

유관기관의
협력 및 연계

환경분석

-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23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
- 2012년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5,350명으로 전체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출의 원인으로 가족과의 갈등(61.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출 후 다양한 문제행동에 노출되고 있음
- 학교를 도중에 그만 둔 학업중단 학생은 6만8188명이었으며, 고교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들의 학업중단 사유로는 '자퇴', 자퇴의 주된 이유는 학교 부적응으로 조사
* 교육부(2013), 201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
- 지역 사회, 또래 집단과의 통합 필요
- 비행의 만성화를 극복하는 프로그램 필요
-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갈등과 부적응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살, 가출, 범죄 등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 2012년 소년사범은 119,122명으로 전년대비 15,014명이 증가하여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 소년원 대부분이 포화상태. 지원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긍정적 변화 어려움

제안 사업 후보군

1

Teen Station

- 이동식 쉼터 버스를 이용한 청소년 심리 상담 및 단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카페 쓰담쓰담

- '일상'에서 비행 청소년들이 멘토들의 마음 돌봄과 직업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스페이스 운영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재능있는 청소년 발굴, 활동가로 인재 양성

3

소심이, 대심이를 위한 心心 프로젝트

- 보호관찰 연계 프로그램
- 지역 네트워크 지원 사업
- 코디네이터 인력 배치, 프로그램 기획
- 활동가를 통한 멘토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1. Teen Station

거리를 헤매는 청소년, Teen Station에 모여 정신적 치유와 안정감 찾기

사업 목적

- 가정 내 불화, 빈곤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는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회복
- 문화예술 및 게임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치유
- 가출 청소년들에게 일시 쉼터 제공으로 비행 예방 및 가정 복귀 역할

사업 내용

- 모험 놀이 상담가를 통한 청소년들 눈높이의 상담 진행으로 신뢰 쌓기
- 가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일시적 숙식 제공, 2차 비행 예방
- 이동식 버스 내에서 청소년들의 고민을 듣고 각자의 해결 방안 제시하기
- 3개월 후 나에게 메시지 남기기
-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공연(점배, 비보이 공연 등)을 배워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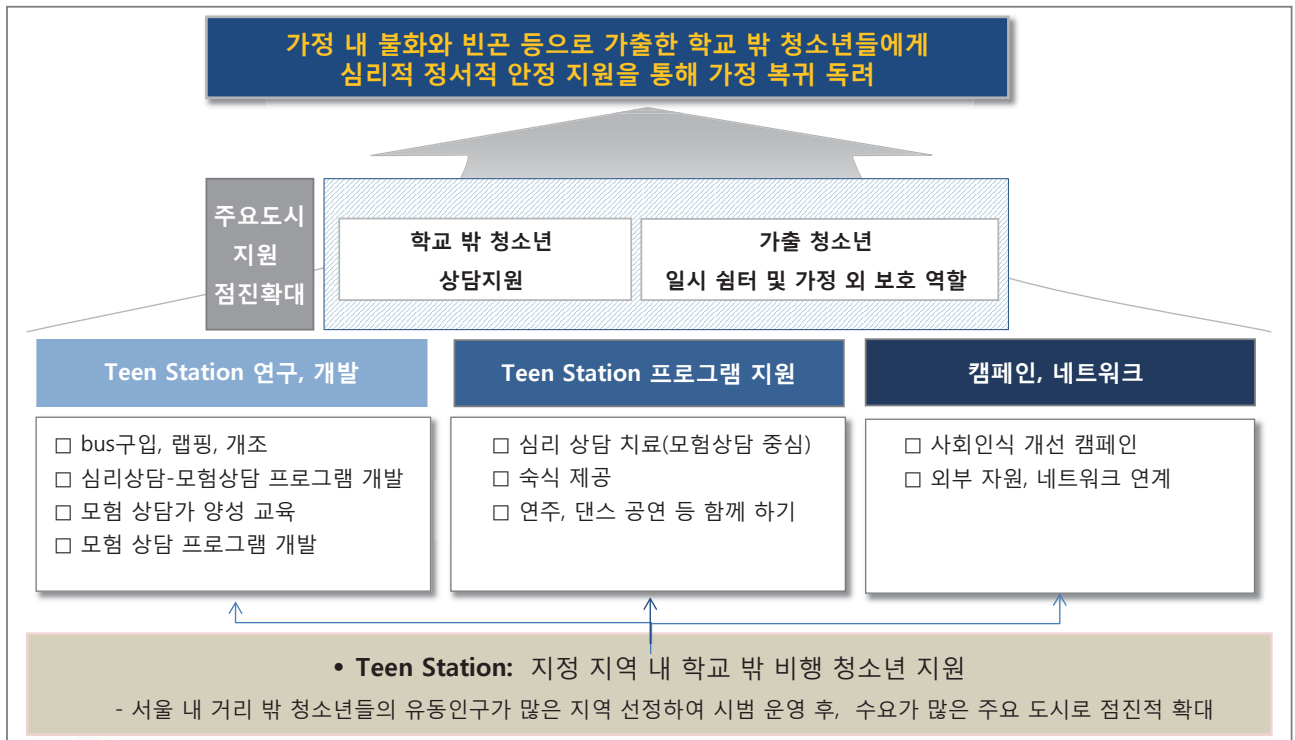
기대 효과

- 가정의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 지원
-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와 문화를 통해 새로운 관심사 유도
- 타인과의 정서 교감이 서툰 청소년들에게 또래 집단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며 심리적 치유 효과 기대 및 자존감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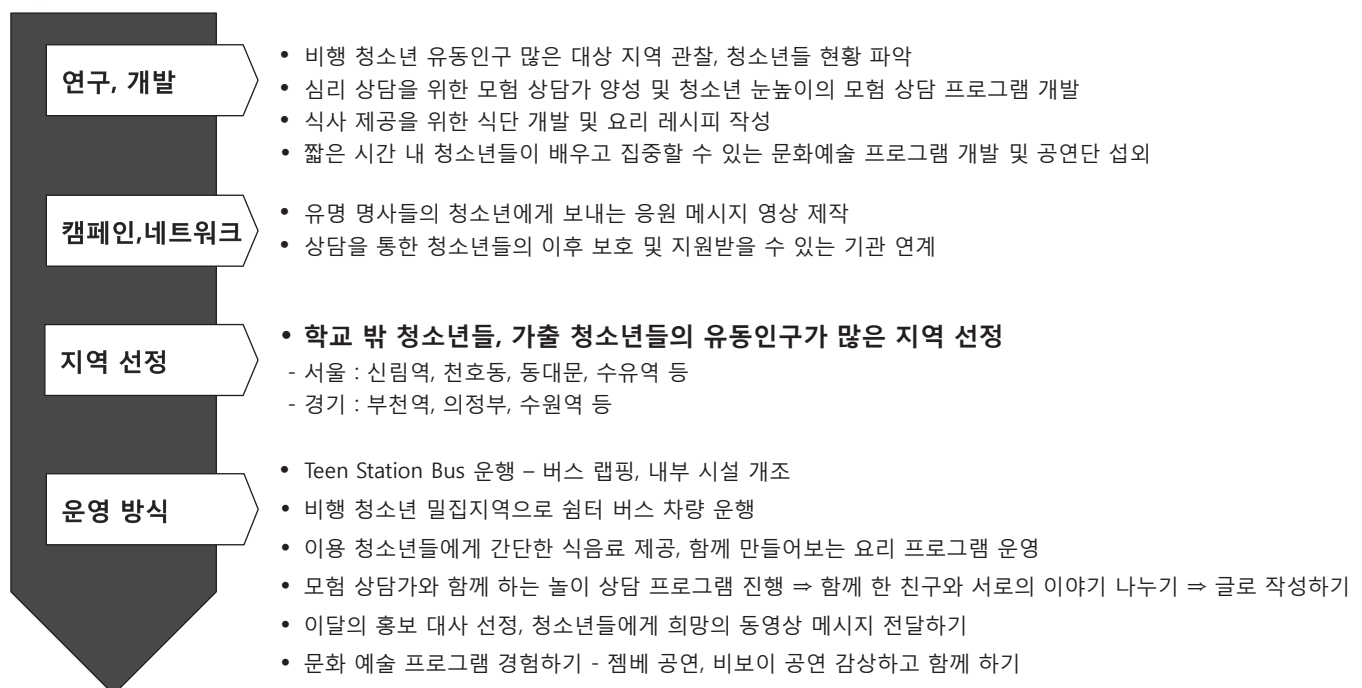
프로그램 1. Teen Station 운영

Teen Station 주요 사업 및 역할은 1) Teen Station 사업 연구, 개발 2) Teen Station 프로그램 지원 3) 캠페인,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학교 밖 청소년·비행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과 정서지원 프로그램 개발, 주요 지역 확대를 추진함



프로그램 1. Teen Station

Teen Station 사업 프로세스



예산안

예산(안)

- 예산(안) : 4억 4천 5백만 원

예산 항목		예산(원)	비고
버스 운영	버스구입, 개조, 래핑	150,000,000	45인승 버스 구입, 개조, 래핑, 보험
	인건비	30,000,000	주 5회 8시간 차량 운행
	간식 및 식대	125,000,000	5000원*100인*주5회*50주
	홍보비	5,000,000	홍보물 제작 및 기록물 제작
	소계(1)	310,000,000	
정서지원 프로그램	모험 상담가 인건비	60,000,000	2인 주 5회 8시간 근무
	프로그램 개발비	10,000,000	게임 기획 및 재료비 등
	프로그램 실행비	25,000,000	매월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 등
	소계(2)	95,000,000	
사업 운영비	인건비	36,000,000	프로그램 운영 매니저 및 어시스턴트
	사업 진행비	4,000,000	회의, 교통, 연구, 사무용품 구입 등
	소계(3)	40,000,000	
합계(1+2+3)		445,000,000	

프로그램 2. 카페 *쓰담쓰담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 ‘격리’가 아닌 ‘일상’에서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 쓰담쓰담: ‘손으로 살살 쓸어 다루만지다’라는 뜻의 ‘쓰다듬다’를 의성어로 표현한 신조어

사업 목적

- 가정 내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보호 공간 마련
-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을 경험하며 책임감 형성
- 정서 지원형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직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향후 청소년들의 진로 모색에 긍정적 영향
- 프로그램을 통한 재능 있는 인재 발굴,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가로 양성

사업 내용

- ‘일상’에서 비행 청소년들이 멘토들의 마음돌봄과 직업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스페이스 운영
- 자립을 위한 직업 체험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감각적인 카페라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체험

기대효과

- 취업환경 조성 즉,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를 마련하고, 또래 집단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가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사회 일원으로서의 성취감 확보와 비행 청소년 친구들과의 어울림을 최소화하고 진로탐색과 예술치료 등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확보
-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활동가로 양성, 비행 청소년들과 원활한 소통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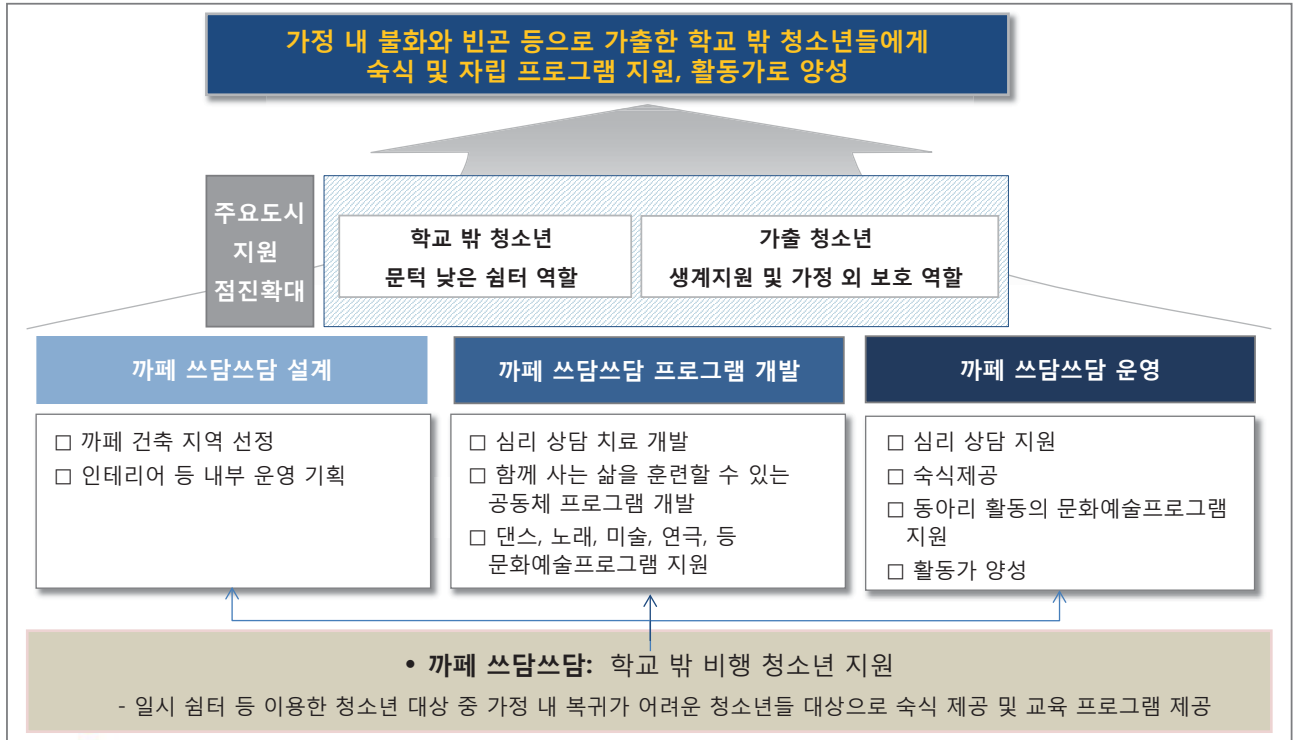
* 재비행 예방을 위한 사회의 역할로는 62.6%가 직업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

-서울중앙지검, 청소년희망재단

‘소년범 비행 실태와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향’
전국 10개 소년원생 1186명(남자 995명, 여자 191명)대상
비행 실태와 원인 설문조사 결과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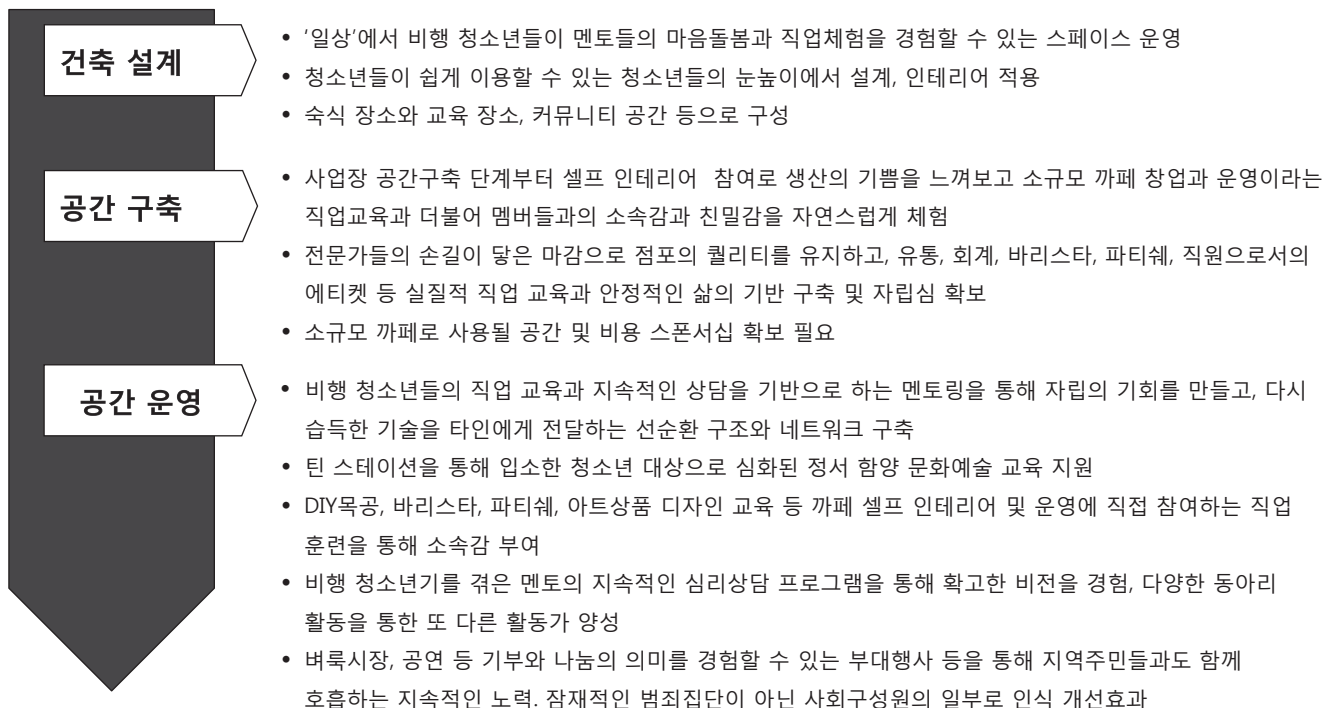
프로그램 2. 카페 쓰담쓰담 운영

카페 쓰담쓰담 주요 사업 및 역할은 1) 카페 쓰담쓰담 설계 2) 쓰담쓰담 프로그램 개발 3) 쓰담쓰담 운영으로 구성되며, 학교 밖 청소년·비행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과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된 청소년들 대상 자립지원 및 생활훈련 교육



프로그램 2. 카페 쓰담쓰담

카페 쓰담쓰담 사업 프로세스



예산안

예산(안)

- 예산(안) : 6억 4천 5백만 원

예산 항목		예산(원)	비고
공간 구축	장소 임대	270,000,000	3층 단독 주택(보증금 1억5천, 월세 1천만 원)
	인테리어 비	200,000,000	내부 공간 교육 장소 및 카페 인테리어 시공
	가전제품 외 집기	30,000,000	카페 주방 집기류, 테이블 등 구입
	홍보비	5,000,000	홍보물 제작 및 기록물 제작
	소계(1)	505,000,000	
정서지원 프로그램	심리 상담 인건비	30,000,000	상주 직원
	프로그램 개발비	10,000,000	취미활동 및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재료비	24,000,000	악기 구입비, 영상 기자재 구입 등
	강사료	36,000,000	음악강사, 영상 강사, 바리스타 등
	소계(2)	100,000,000	
사업 운영비	인건비	36,000,000	프로그램 운영 매니저 및 어시스턴트
	사업 진행비	4,000,000	회의, 교통, 연구, 사무용품 구입 등
	소계(3)	40,000,000	
합계(1+2+3)		645,000,000	*2차년도 사업비부터 임차 보증금 제함

프로그램 3. 소심이, 대심이를 위한 心心 프로젝트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 연계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가정문제로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처를 예술로 풀면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쁘다. -송영림(사)트러스트무용단실장

* 아이들에게 있어 몸은 가슴 속에 웅크린 충동의 리듬과 에너지를 표출하는 미디어 -안은미

사업 목적

- 보호관찰소와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정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상태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관찰사와 협업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인력 양성
-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
-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역량 강화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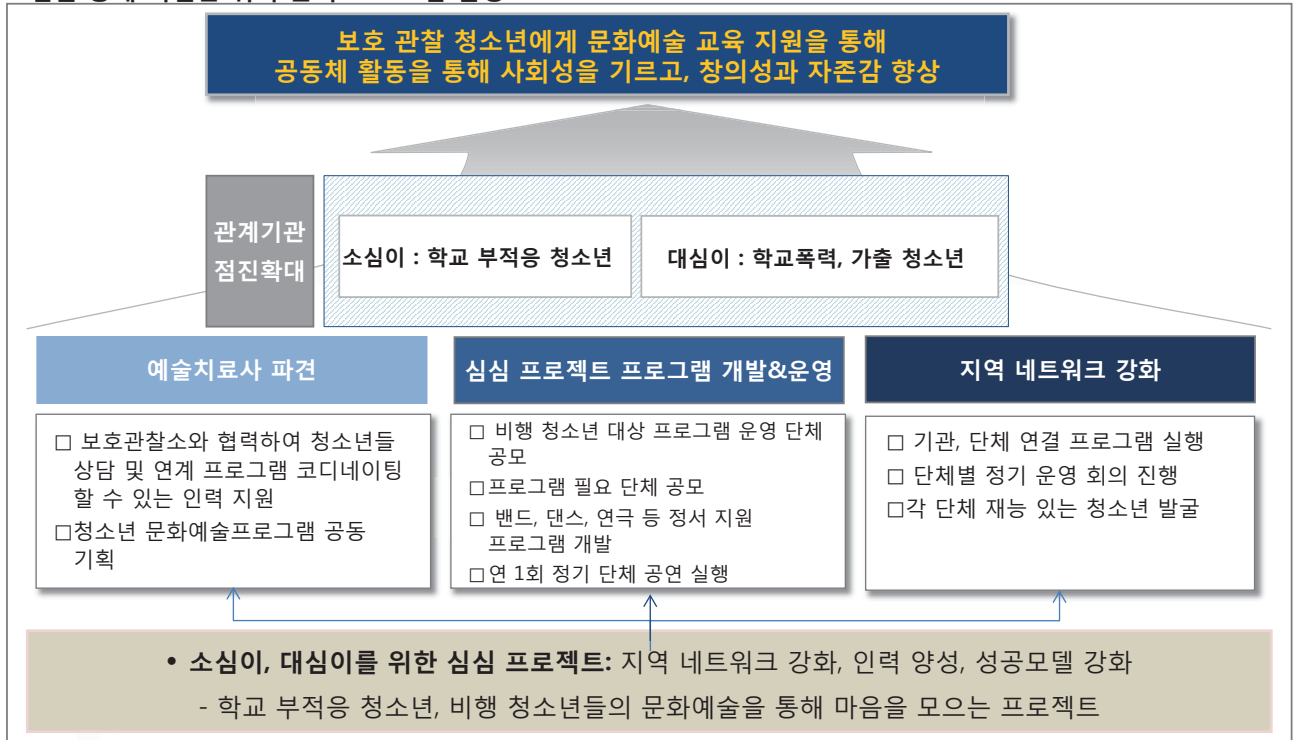
- 가정 내 보호가 부족하여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문제의 원인 파악을 위한 적절한 상담 치료 인력 배치
- 학업 중단 청소년, 심리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의 정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위기 관리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중장기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과 함께 활동가로 양성
- 보호관찰소 연계 프로그램으로 발전

기대 효과

- 인력 지원을 통한 현장 업무 담당의 부담감 해소와 원활한 업무 진행을 통한 비행 선도 역량 강화
- 또래 집단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소통하며 사회성 높이고, 문화예술을 통해 자유롭고 효과적인 정서함양
- 순회공연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부여
- 자신에 대한 표현력과 자아존중감 확대를 통한 정서적 자립 기대
- 보호 관찰관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논의를 통한 기대 효과 상승

프로그램 3. 소심이, 대심이를 위한 心心 프로젝트

心心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 및 역할은 1)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보호관찰소 협력인력 예술치료사 파견 지원 2) 심심 프로젝트 개발, 공모 3) 심심 프로젝트 운영으로 구성되며,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에게 상담 지원과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위기 관리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3. 소심이, 대심이를 위한 心心 프로젝트

心心 프로젝트 사업 프로세스

기관 선정

- 보호 관찰소 및 청소년꿈키움센터와 협력
- 서울 지역, 경기 지역 내 청소년 중장기 쉼터 등 비행 청소년 보호 단체 공모
- 자체 프로그램 운영 단체, 프로그램 지원 단체

인력 양성

- 청소년들의 상태를 파악하여 각 기관과 단체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예술치료사 파견
- 심리 상담, 예술치료 프로그램 기획
- 청소년 활동가 양성
- 비행 청소년 위탁 단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 활동가로 양성, 비행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 담당

운영 방식

- 정서 지원 필요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파악하여 관련 단체 연계, 예술치료 실행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 중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프로그램 지원금을 통해 비행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강화
- 프로그램 지원 공모를 한 단체의 경우 개발 프로그램과 강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모 지원 단체들의 정기 공연 진행
- 보호관찰소 연계 프로그램으로 발전



예산안

예산(안)

• 예산(안) : 4억 1천 5백만 원

예산 항목		예산(원)	비고
지역 네트워크 지원 단체 공모	공모 지원 1	50,000,000	5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 1000만원
	공모 지원 2	100,000,000	5개 프로그램 지원 기관 * 4분기*500만원
	프로그램 개발	5,000,000	문화예술 정서 지원 프로그램 개발비
	공연 & 홍보비	40,000,000	단체 공연, 홍보물 제작 및 기록물 제작
	소계(1)	195,000,000	
보호관찰소 지원	인건비	60,000,000	2인 예술치료사 파견, 순회 근무
	프로그램기획, 운영	120,000,000	심리 상담, 예술치료 기획 및 재료비
	소계(2)	180,000,000	
사업 운영비	인건비	36,000,000	프로그램 운영 매니저 및 어시스턴트
	사업 진행비	4,000,000	회의, 교통, 연구, 사무용품 구입 등
	소계(3)	40,000,000	
합계(1+2+3)		415,000,000	

END OF DOC

더나은미래 보도

2013. 9. 10	청소년 미혼모
2013. 9. 24	탈북 청소년
2013. 10. 08	비행 청소년
2013. 10. 22	가정외보호 청소년
2013. 11. 12	장애 청소년

아이 키우려면 일해야 하는데... 생활도 취업도 힘들기만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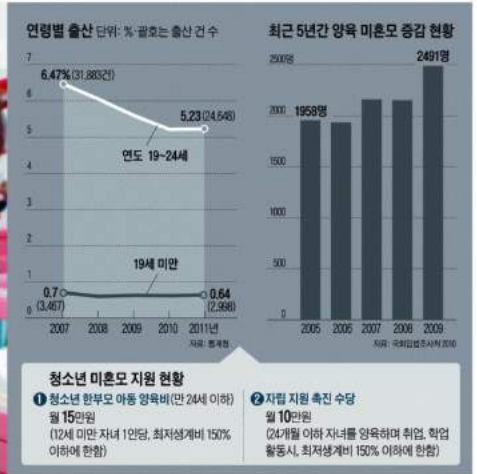
아산미래포럼 기획 시리즈

① 미혼모 청소년

지난 8월,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아산나눔재단은 복합 장벽을 지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기여를 목표로 공동 기획 포럼인 '아산 미래포럼'을 출범했다. 아산미래포럼은 오는 12월까지 탈북·장애·미혼모·비행·가정 외 보호 청소년 등 5개 분야별로 시급한 해결 과제 및 정책 제언, 민간 재원을 통한 사업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나은미래는 5회에 걸쳐 분야별 핵심 과제에 대한 기획 시리즈를 보도한다. 그 첫 화는 '미혼모 청소년' 문제다. 편집자



과거에 비해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수가 늘고 있지만, 아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의 혼외 출생자가 약 1만명을 넘어섰다. 그중 미혼모 청소년(25세 이하)은 약 55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2012년 통계청). 그러나 이들 중 취업 경험이 있는 미혼모 청소년은 25%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미혼모 청소년의 자립을 막는 사회의 장벽 때문이다.

◇양육·생계·취업...삼중고에 시달려
아이들 입양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키우는 '양육 미혼모'의 숫자는 늘고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2005년 1968명이었던 양육 미혼모의 숫자는 2009년 2491명으로 5년 새 26.6% 증가했다. 미혼모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자녀 양육 때문에 직업을 가지기 어렵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직업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미혼모 청소년의 숫자는 34.5%에 불과했고, 이 중 42%가 아이를 돌보느라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혼모의 자녀를 돌봐주고 직업 훈련을 병행하는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동 양육비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미혼모 청소년(만 24세 이하)에게 지원되는 월 15만원(12세 미만 자녀 1인당)이 전부다. 반면 입양 가정엔 소득 상관없이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허난연 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미혼모가 되는 순간 부모와 친구, 사회로부터 단절됨에도 함께 살지도 않는 부

**2005년부터 5년 새
미혼모 수 26.6% 증가
월 15만원 양육비마저도
만 24세 이하만 지원받아
상처받은 청소년 미혼모
정서적 자립부터 돕고
재대로 된 진료 받도록
의료 제도도 개선해야**

모가 자살이 있다는 이유로 미혼모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며 "미혼모 청소년에 한해서라도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미혼모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미혼모에게 매달 약 100만원의 생활비와 학교 교육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스웨덴은 최대 67만원까지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다.

취업의 벽은 더욱 높다. 자녀 돌봄 지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미혼모 김경희(가명·18)씨는 최근 K기업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바리스타로 취직했으나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 퇴사를 고민 중이다. 현재 미혼모 단체 직원 2명이 보수로 받지 않은 채 김씨 대신 수시로 커피숍에 출퇴근하고 있다. 김씨는 "미안한 마음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지만 또다시 아무런 수입 없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두렵다"고 했다. 다섯 살 딸을 가진 양주희(가명·20)씨는 "최근 딸이 분리불안 증세를 보여 작장을 관봤다"면서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의회 대표는 "알레르기 가정을 방문해 소아 알레르기 전문 한국 문화와 전반을 교정해주는 '다문화 생활지도사' 제도처럼 미혼모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면서 "교육·훈련·고용을 연계한 영국의 '20 슈어 스타트 플러스(20

Sure Start Plus)" 프로그램처럼, 세밀한 자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서 및 심리 지원 필요해
"근래 아들한테 짜증을 많이 내요. 저도 모르게 몸이 아프고 지치다 보니까, 안 그래야 하는 것 알면서도..." 이지수(가명·32)씨가 말을 잊지 못하고 아내 눈물을 흘렸다. 긴 원탁 테이블 위로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그녀는 "화나면 욕하면 아버지 모습과 같아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한테 부모는 규범이야. 어제는 화내고, 오늘은 사랑한다고 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 아이가 눈치를 보다 보면 자존감이 수그러들어요." 장보연 국·패밀리 대표(개신대학교대학원 상담학 교수)가 조언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도곡역 굿패밀리상담센터에서 열린 부모 교육 자조 모임 '건강한 엄마 되기' 현장. 에스더의집을 퇴소한 7명의 양육 미혼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며 겪는 고민을 쏟아냈다. 강영도·인선·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양육 미혼모들이 모였다. 6번째 대주 에스더의집을 방문한 심리 상담을 하는 장보연 교수는 "미혼모 청소년들은 애착이 불안정하고 상처가 많아 최소 3년간 전문적인 치료와 개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우울한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는 미혼모 청소년은 41.4%로 일반 청소년의 5배에 달했고, 스트레스 지수도 일반 청소년

보다 20% 이상 높다(여성가족부 2011).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2010년부터 상담 및 치료지원사업을 시작했지만 시설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설을 나와 있는 약 70%의 미혼모 청소년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승희 명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한 양육 지원도 확대해야 하지만 자조 모임과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미혼모 청소년의 정서적 자립을 돕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미혼모 의료 지원 시급
김진수(가명·21)씨는 열여섯 살에 엄마가 됐다. 어떻게 낳은 그녀의 딸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신장·소화 기관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자 보호 시설에서 지원금을 보태주긴 했지만,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아가에게 꼭 필요한 예방 접종도 챙겨주질 못했다. 김씨는 "딸이 천식을 앓고 있는데, 아가 때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 접종을 안 해서 그달마다"면서 "예방 접종 비용만 60만원이라 염두를 못 뒀는데, 아가가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학교 성적이 상위권이던 딸의 갑작스러운 출산 사실이 부모는 "가문의 수치"라며 김씨를 내쫓았다. 학교에서도 자퇴를 권유했다. 버림받은 김씨는 출로 아이를 간요했다. 김씨의 건강도 문제였다. 이른 나이에 준비 없이 아이를 낳느라 출산 전후 진료와 관리를 전혀 받지 못했

기 때문. 그녀는 "나는 괜찮지만 아이는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며 한숨을 쉬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100%가 규칙적인 산전 관리를 받고 평균 13.3회의 산전 진료를 받고 있는 반면, 규칙적인 산전 관리를 받는 미혼모 청소년은 58%에 불과했다(2011). 진료 횟수도 1.7회로 일반인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산후 진료 경험에 있다는 응답도 72.3%로 일반인에 비해 20% 이상 낮았다. 저체중아 출산 비율도 일반 산모의 4배에 달했다.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의회 대표는 "임양 가정은 의료보험 1종 대상자이지만, 미혼모는 의료보험 2종으로 지원받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엄마와 아이가 건강해야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하기 어렵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미혼모 예방 집중과 저체중·미숙아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국내 선임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모가 동성애자 다음으로 차별받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미징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가 있음에도 사회적 편견이 미혼모의 자립을 막아 복지 혜택에 기대게 한다"면서 "사회적 편견이 가져오는 비용과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연영 더나은미래 기자

“임신했으니 학교 그만둬라”... 85%가 학업 중단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학생 미혼모

“안 되는 이유를 꼭 말로 해야 알겠나?” 미혼모 진유정(가명·20)양에게 교장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2009년 가을, 부른 배를 안고 월경단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미혼모보호시설 두리홈에서 딸아이를 낳은 후 어렵게 전학이 이뤄진 학교였다. 진양이 미혼모임을 뒤늦게 알게 된 교장은 새 학교생활 이틀 만에 자퇴를 권했다. “다나계만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지만, 냉소적인 답이 돌아왔다. 결국 진양은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야 했다.

많은 미혼모 청소년이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의 ‘학생 미혼모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2010)에 따르면 미혼모 청소년 중 85%가 학업을 중단한다. 반면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미혼모는 58.9%에 달했다. 최승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혼모 청소년이 어린 나이에 학력이 단절되는 것은, 이후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을 어렵게 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한다”며 학습권 보장을 미혼모 청소년 자립의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높은 편견 앞에 유명무실한 미혼모 대

임신 알려질까 두려워
35.7%가 스스로 그만둬

2009년부터 작년까지
68명만 대안 교육 받아



안학교, 매끄러운 이전 가능해야

2010년 국가인권위원의 ‘미혼모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계기로 미혼모가 출산까지의 기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위탁학교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위탁교육의 혜택을 보고 있는 미혼모 청소년은 드물다는 지적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안 위탁교육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미혼모는 전국을 통틀어 단 68명. 대안 위탁교육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같은 지역의 중·고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학생이 임신 사실을 안 후 학업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한부모 생활 실태조사’ 보고서(2011)에 따르면 학업 중단을 경험한 65.9%의 청소년 중 35.7%가 ‘임신이 알려질까 봐 스스로’ 학교를 관둬거나, 16.7%에 해당하는 학생이 ‘학교의 징계나 강요’에 의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징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의 학습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미혼모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안 위탁교육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행정 처리 절차가 번거로운 점도 문제다. 미혼모 대안교육 장기 위탁교육기관 동방누

리학교의 김민숙 사회복지사는 “미혼모 대안 위탁교육 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원래 다니던 학교에 부탁해 생활 기록부나 학교장 추천서 등 서류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성적 처리 등 학사 진행 관련 업무 연계가 필요한데, 편견이 바뀌지 않는 한 학생이 그 모든 부담을 지고 ‘임신했으니 행정 처리하는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하긴 무리가 있다”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대안학교로 이전해서 학사 처리하는 과정을 매끄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설에 입소하여야만 위탁형 대안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최승희 교수는 “대안학교가 특정 시설 입소자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미혼모 청소년도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선 ‘학생’ 이자 ‘엄마’ 병행 가능해

해외에선 미혼모 청소년이 임신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혼모가 임신이나 양육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10대 양육 프로그램(TAPP·Teenage Parent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내 특별학급과 탁아시설을 운영해서 임신부가 계속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의료 및 상담도 제공하고, 미혼모 아이를 돌보는 일도 한다. 호주에서는 10대 미혼모들을 위한 ‘파워 프로그램(POWER·Parents Overcoming Work and Education Restrictions)’을 운영한다. 학교 시설을 빌려 출산 전후로 수업을 듣지 못한 미혼모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독일의 경우 임신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거나 다닐 의향이 없을 경우 병결로 취급해 출석 처리를 하고,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도 인정해준다. 시설 거주 미혼모 중 아들이 3세 이하일 경우, 미혼모가 학교에 간 시간 동안 시설 근무 사회복지사와 아동 보육사가 전적으로 돌봐주도록 되어 있다.

대만은 미혼모 청소년을 위해 2007년 9월부터 출산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56일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최고 2년의 육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 및 육아 휴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휴가 후 재시험으로 대체한다.

주선영 더나은미래 기자

학생 미혼모 학업 계속 의지

매우 강하다	30.1
강하다	28.8
보통이다	35.7
약하다	2.7
매우 약하다	2.7

단위: %, 자료: 교과부 2010

청소년 한부모 학업 중단 사유

임신이 알려질까봐 스스로	35.7
학교의 징계나 강요	16.7
부모의 권유	15.5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해	8.3
기타	23.8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2011

학생 미혼모 학업 중단 여부

중퇴	65.74
직전 학교 졸업 후 이에 학교 다니지 않음	8.22
휴학	6.84
재학 중	15
기타	4.2

단위: %, 자료: 교과부 2010



한국 사회 멍들게 하는 3가지 '구멍'

더나은미래와 아산나눔재단이 함께 연 공동 기획 포럼 '아산미래포럼'의 분과별 회의에 참석해보니 놀라울 정도로 문제의 현상과 본질이 비슷했습니다. 각 분과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라서 겪는 어려움 외에도 장애, 탈북, 미혼모, 비행, 가정 외 보호 등 또 다른 장벽을 하나씩 지니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분과별 문제의 공통점을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제도나 정책 자체만을 보면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해외의 좋은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놓았습니다. 마치 정책 쇼핑이라도 한 듯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델만 베꼈을 뿐 이를 국내에 적용시키는 전달 체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은 부족합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통일부 등 부처별로 각각 좋은 모델을 들여온 후 각 부처 산하에 '○○센터'나 '○○재단'을 두고 사업이나 지원을 쪼개주는 형태가 많습니다. 좋은 제도라도 결국 이를 적용할 곳은 지역사회(Community)이지만 개별 부처별로 쪼개지는 톱 투 다운(Top to Down) 방식의 정책으로 인해 재원이 많이 낭비되는 건 아닐까 우려스러웠습니다. 복지 서비스든 정책 시행이든 이를 뒷받침할 지역의 촘촘한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이 매우 시급합니다.

둘째, 학교의 문제입니다. 장애, 탈북, 미혼모, 비행, 가정 외 보호 청소년들은 결국 사회에서 함께 섞여 살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는 이들을 위한 통합이나 배려가 없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상처받고 대안학교를 택하거나 거리로 나옵니다. '학교'라는 마지막 소속 집단이 없어지고 나면 이들을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진입시키는 데는 두세 배, 아니 몇십 배의 사회적 비용이 추후에 발생합니다. '과연 지금 이대로의 학교 시스템은 괜찮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나라 각 정부 부처의 공무원 순환 보직 문제입니다. 아산미래포럼에는 대부분 10~20년씩 현장을 지킨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청소년 쉼터에서 20년째 아이들을 돌보는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 전율을 느끼지만, 한편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가장 큰 영향력 집단은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실컷 교육해 놓으면 보직이 바뀌어 떠나가는' 이런 현상은 수십년째 반복됩니다. 고인 물이 썩는 게 걱정된다고 이런 6개월~1년짜리 '찍고 가는' 단기 순환 공무원들이 많아지면 정책의 질은 절대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나은미래 편집장

아산미래포럼 기획 시리즈
② 탈북 청소년

김성민(가명·19)군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성민군은 지난해 10월,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수업 내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으니, 공부가 재미없었다. 학교에 가면 온종일 엎드려서 잠만 잤다.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는 교사와 싸운 적도 있다. 교내 '문제제'로 낙인찍힌 그가 자퇴하겠다고 했을 때, 말리는 사람도 붙잡는 사람도 없었다.

"전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동급생들과 사용하는 언어도, 경험한 문화도 전혀 다르니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 때 같은 반에 북한에서 온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어딜 가도 손가락질당하는 것 같다'면서 힘 들었어요. 결국 괴롭힘만 당하다가 두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탈북 청소년 입학 현황

3000명

2000

1000

0

2009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입국자 수)

6~20세(입국자 수)

531 94 2706 501 1509명 306명

2000~2012년 합계 전체 2만4614명 6~20세 3896명

자료: 통일부

학업 중단한 탈북 청소년

74 59 56 67명

2007년 2008 2009 2010

최근 4년간 탈북 청소년 학년별 이달률

2 8.5 1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7~2010년 합산. 자료: 교육부

일반학교에 진학했다가 상처받은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를 이탈하고, 남한 사회에 부적응하고 있다.

◆연령 높아질수록 충도 하락률 높아
학업이 끝나갈수록 또래 청소년층의 학교 이탈률이 올라갔다고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만둔 청소년은 전체 학생의 2%에 불과하지만, 충도 하락률 그만큼 학생은 8.5%, 고등학교는 13%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 부처들은 주로 해 대안학교를 찾은 탈북 청소년도 증가해 늘었다. 2010년 일반 학교를 지휘하고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5명이었는데, 올해는 37명으로 3년 새 7.4배로 증가했다. 일반학교를 지휘한 학생들은 대안학교에 전체 인원의 약 42%를 차지할 정도다.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은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만 이렇다만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는 은 학생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면, 사생활은 언어 없이 두 배로 듣다"고 말했다. 시가지는 언어·문화·경제적 전이 단계 때문에 통역사 지원에 적절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난 듯, 단계별 학습 지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난한대 S대 공과대학에 특별 입학했다.
공무관 대입이었지만, 수업 자료를 따라
가기 버거웠다. 매일 도서관 자습실을 새
워두는 성직성도 F학급이 가득했다. 복록
성 중공을 넘어오면서 학업이 중단된 성
직들이 때문에, 제대로 된 수학·과학 공부
를 해본 경험이 없었다. 2년간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이젠 자살을 시도
하고, 현재 휴학을 한 채 아르바이트를 거
두고 있다. 2006년 말학한 성직은(가
만 21) 역시 오르지 않고 입학했다가 6개월
만에 자퇴했다. 대학 동기들과도 계속 격차,
결격적 발달상을 느낀 성직은 한국 생활
을 결코 지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따랐다. 실제로 말한 청성도의 37%가
학교를 떠나 다른 나라에 살고 싶다고 희망
할 정도로, 학교 부적응은 말한 청성년

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60%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30%가 약탈죄에 가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북 교섭에서 부모와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자 청소년 불안은 더욱 심해졌다. 한 살 때 북한에 홀로 남겨졌던 홍희희(가명·13살)은 9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집을 만났다. 오만만에 함께 살게 된 일파의는 사사건건 부딪혔다. 친외양은 9년간 자신이 버린 엄마가 되고, 일파의는 또래 아이들보다 한참 더 뒤처진 지꾸만 어긋나는 딸이 못마땅했다. 결국 친외양은 가족을 반박했고, 학교를 결석하는 일도 잦아들었다.

7년 만에 남한에서 어머니를 만난 김경원(가명·16)군도 사춘기를 겪으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김군의 어머니도 어렵게 데려온 아들과 갈등이 깊어지자, 미국으로 훌쩍 떠나버렸다. 김군은 이내 중학교를 자퇴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김선희 서울북부하센터 사무국장은 "부모는 단장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데다 남한 사

◇징검다리·맞춤형 교육으로 통일 미래 세대 키워야

전통기법은 “복합하고 낯선 사회를 모두 경험한 탈북 청소년들이 독일이나 영국 국가의 중요한 일개 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0여년간 탈북 청소년의 숫자는 가파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 및 자립에 성공한 이들은 점차적으로 해외로 떠나며, 학업 및 탈북 탈출 10명 중 한 명도 기조 학력에 미달한 상태이고, 학업 부진을 겪는 이들은 다문화 학생들의 5배에 달한다. 박성영 정책 연구회 대표 교수는 “아학연(아동학력연계) 제도 1~2년간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처럼,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브리지(점점다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의 역할과 부모 교육의 중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진하 북부하센티 사 무국장은 “정부가 탈북 청소년이 다니는 일반 학교에 지원금도 주고 교사 면목도 해줄 필요도 있겠는데, 어떤 교사를 만나는가에 따라 학생의 학교 적응율이 극과 극” 이라며 “탈북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교육해야 하는지, 교사와 부모들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간이 협력하는 방법도 있다.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은 “다문화학교가 단일민족 맞춤형 교육을 통해 브리지 역할을 하면, 탈북 청소년들의 일반 사회 적응을 위한 놀라운 일도 가능하다”면서 “다만 교육 시설이 안정적으로 탈북 청소년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일반 학생보다 이중 이상의 문제를 안고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돌보는 탈북 청소년을 보려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점유진 더 나은미래 기자

영어·국어 배웠던 적응교육 사회 나와보니 헛공부였네요



구명난 입국 초기교육

탈북 청소년이 12주간 받는
하나원의 사회 적응 교육
기본 교과목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인 적응엔 도움 못 줘

편의점 간판 못 읽어
아르바이트 면접 늦기도

실생활 관련된 내용 다루고
심리 정서 지원도 강화해야

“열들 달기 둘 같기는 열(12-2=10).
북한에선 이렇게 읽어요.”

은주희(가명·24)씨가 하얀 종이에 간
단한 뱀썬 문제를 적으며 말했다. 은씨
는 2009년 중국을 거쳐 홀로 한국 땅을
밟았다. 탈북 직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
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
육을 받으면서, 은씨는 생소한 용어 때
문에 애를 먹었다고 했다. 이런 어려움
은 지난 3월 대학에 입학한 뒤로도 계속
됐다.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
수업 때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하던
은씨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됐다. ‘은사마
열풍과 연관 지어서 설명해달라’는 질
문 때문이었다. 은씨는 “은사마란 단어
를 몰라 당황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원
에선 영어 단어를 외웠던 기억이 대부분
인데, 입국 초기에 읽고, 쓰고, 말하는
방법이나 독서·토론 방법을 배웠다면
남한 사회 적응이 훨씬 수월했을 것”이
란 아쉬움도 전했다.

◇당장의 ‘점수 올리기’ 보다 소통·정
서 교육 강화돼야

국내 입국한 탈북 청소년들은 국정원
에서 조사를 받은 뒤, 12주 동안 하나원
에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 국어, 영
어, 수학, 과학 등 기본적인 교과목 중심
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돼 있다. 주말에는
난타, 종이접기 등 문화예술 수업이 진
행된다. 전 과목이 고루 분포돼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맞
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하나원을 나온 이육현(가명·18)군
은 아르바이트 면접 날 1시간을 해맸다.
편의점 간판을 읽지 못해 주위를 빙빙
돌았기 때문. 이군은 “하나원에서 알아
듣지도 못하는 영어·수학 수업을 들으
면서 ‘공부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일반
학교 진학을 포기했다”면서 “남한 사회

문화나 적응 노하우 등 실생활에 꼭 필
요한 내용을 배웠다면 더 유용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박상영 셋넷학교 대표교
사는 “3개월 동안 영어 단어 성적을 올
리는 학습 중심 교육보다는 한국 사회
전반을 쉽게 체득할 수 있는 통합 교육
이나 심리 정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국정원 조사 이후 80여일… ‘방치’와
‘인권’ 사이

북한 이탈 주민들은 입국 직후 국정
원에서 최대 180일 동안 합동조사를 받
는다. 아동·청소년의 평균 조사 기간은
3~7일. 남은 기간에 이들은 식사 시간
을 제외하고 방 안에 갇혀 지낸다. 5~6
명이 한 방에서 TV를 시청하는 것이 일
과의 전부다. 전문가들은 “조사가 끝난
아동·청소년만이라도 남은 기간에 한
국 문화 관련 시청각 자료나 위인전 등
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사회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남은 80여
일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상
석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부소장은
“국정원 조사가 끝나고, 각 아동·청소
년의 심리·인적성 검사를 실시해서 하
나원에 전달한다면, 하나원에서도 시간
을 절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
육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서 “입국 초
기 6개월 교육이 남한 사회 정착 후 2년
교육보다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
선화 서울북부하나센터 사무국장은
“201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에관한법률
이 개정되면서 ‘최대 180일’이란 조사
기간이 삽입됐는데, ‘아동·청소년의 경
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거나 그에 적합한 인권적 배
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더나은미래 기자

조선일보 DB
입국 초기부터 맞춤형 교육으로 탈북 청
소년들의 학교 적응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중국 등 제3국서 태어난 탈북자 아이 탈북자 대우 못 받는 사각지대 놓여

비보호 청소년 문제

중국·태국·몽골 등을 거쳐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늘어나면서,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비보호 청소년’이라 부른다. 2011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36.2%라고 한다(전체 학생 수 1681명 중 비보호 청소년 608명). 초등학교생은 비보호 청소년 숫자(57.4%)가 이미 탈북 청소년(42.6%)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탈북자이면서도 탈북자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는 군대 면제, 대학 특례 편·입학, 생계비·주거비 등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비보호 청소년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방과 후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자녀 어린이집 보육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 윤상석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부소장은 “북한 이탈 주민에게 다문화 자녀는 ‘외국인’이라는 인식이 강해 해당 지원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서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를 새로운 범주로 받아들이고, 명확한 개념 규정과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제3국 북한 이탈 주민 자녀를 바라보는 입장도 다르다. 교육부는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를 탈북 학생으로 인정해 교육 지원을 하고 있지만, 통일부는 비보호 청소년으로 분류해 탈북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정 자녀로 지원하고 있다. 마석훈 새터민청소년 생활공동체 ‘우리

주거비 등 정착지원금과 軍 면제·대학 특례 편입학 비보호 청소년은 혜택 제외

집’ 대표는 “우리 기관 인원의 절반이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인데, 탈북 청소년이든 비보호 청소년이든 똑같은 비용이 지출되지만 정부에서 보전되는 지원금이 달라 어려움이 많다”면서 “각 부처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서 어떤 법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해야 할지 항상 고민되고, 아이들 역시 정체성의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정착지원과 관계자는 “제3국 출생 자녀를 탈북 청소년으로 인정할 경우 중국 인구가 대거 밀려올 우려가 있다”면서 “하나원에 엄마와 함께 들어오는 제3국 자녀에 한해 탈북 청소년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정유진 더나은미래 기자

아산미래포럼 기획 시리즈
③ 비행 청소년

진명철(가명·15·서울 서대문구)군은 작년 5월 처음 집을 나왔다. 틈만 나면 때리는 아버가 싫어서였다. 첫 가을은 하루짜리였지만 곧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됐다. 또래와 어울리며 오토바이를 흠뻑 팔아 생활했다. 계속된 절도 행각 끝에 경찰에 붙잡혔고, 4호 처분(단기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보호관찰 중이던 진군은 5개월 만에 학교와 사립 태두리를 벗어나 거리로 나섰다. 결국 '보호관찰 위반'으로 다시 판사 앞에 섰다. 진군은 현재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이곳은 법원 소년부에서 6호 처분(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명령)을 받은 아이들이 6개월 동안 거주하는 시설이다. 진군은 "이제 바뀌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다. 백준식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센터장은 "아이들이 이 안에서 학교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다지지만, 정작 상담수의 아이는 다시 (시설로) 되돌아오거나, 소년원 등 더 센 처분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거리의 아이들, 브레이크 없는 비행의 길로...

국내의 소년(10~18세) 인구는 약 582만명. 이 중 약 8만3000명이 소년범으로 분류된다(2012. 통계청·대검찰청). 이는 사법 체계를 거친 아이들의 통계일 뿐, 발각된 적이 없거나, 비행 잠재력이 높은 아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소년범의 40% 이상이 절도, 장물 등 재산 관련 범죄다. 2012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소년 범죄 재범률은 35%로, 3명 중 한 명 이상은 재비행에 나선다. 국회 안전행정부 정우 강기을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까지 전과 9명 이상 청소년만 해도 2057명이나 됐다. 이형철 법무부 서울북부 보호관찰소장은 "청소년 비행은 공통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부 갈등으로 인한 폭력, 부모의 음주 등 일탈로 인한 가족이 제1차 원인이 된다"며 "학교를 그만두면서, 또래가 함께 몽치거나 이성 교제를 하면서 경제적인 수요가 생기면 비행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폭력, 본드 사범 등으로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김정은(18·서울 도봉구) 양은 "주위에 소년원에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난 이제 나쁜 짓 안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시 소년원에 가 있다"며 "나와도 할 게 많지 않고, 개선 의지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비행 아이들이 겪어온 변화의 변화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구현진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년과 계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상 아 이들을 맡긴 경우가 있었는데 예산·인력 등의 문제로 상담 횟수가 최대 20회를 넘지 않게 돼 있더라"며 "아이들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했다. 부천 지역 위기청소년 공동체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명성진 대표는 "한 아이 가 비행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행을 했던 기간만큼이 요구된다"고 했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



2008년 이후 소년 범죄자 재범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은 많은데 거리에서 활개치는 아이들에게 접근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담당 실무자에게도 버림받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 아이들을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지켜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 개입 가능한 '핫라인'이 부족하다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안전망도 갖춰져 왔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쉼터(이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하 보건복지부), '위(Wee)클래스'나 '위(Wee)스쿨'(이하 교육부),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이하 법무부) 등 부처별로 보호, 복지, 교정 시설들이 다양하다. 이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엮는 시스템도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이

국내 소년범 약 8만3000명 보호관찰 후 사회 복귀해도 변하지 않는 환경에 재발선 3명 중 1명 재범 저지르고 2057명은 전과 9명 넘기

비행 초기 즉각 대응하는 협의체 간 핫라인 갖추고 가족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해야

대표적이다. 조규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업중단대응 IT팀장은 "전국 106개소가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들 중심으로 1·2·3차 안전망들이 연결된 것"이라며 "위기 아이를 발굴·상담한 후 필요에 따라 쉼터, 직업훈련원, 병원 등으로 연결해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총합한 그물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행 초기에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한 '핫라인'이 필요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담당할 제도를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현정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계장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상담조사와 교육을 마친 후 아이들에게 필요한 복지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 연계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런 네트워크를 기관 대 기관이 개별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여성가족부 등 각

이 주체가 된 협의체는 이뤄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통합 접근할 수 있는 핫라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이상인 중랑경찰서 청소년계 경위는 "여학생들이 가출해서 성매매에 이르는 시간이 보통 한 하루 정도인데, 이 문제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할 경우, 공문이 오고 열흘 후에 상담 약속을 잡아야 하는 게 현재의 구조"라고 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비행하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라며 "위기 아이들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원동 의정부시이동청소년쉼터 소장은 "가출 청소년 수를 최대 20만명까지 추정하는 상황이지만, 쉼터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은 연간 3만명이 넘지 않는다"며 "현장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지도·감독 방식을 벗어나 사심을 기피하는 거리의 아이들까지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정 역할 대신해 손잡아줄 존재 절실

축구 꿈나무였던 김진호(가명·17)군은 중학교 3학년 때 새로 부임한 감독에게 노골적인 무시를 당한 후 운동과 학교를 뒤로한 채 거리로 나왔다. 다른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일진' 무리를 만들어 절도나 폭력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김군의 비행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단들이 사는 할매·의 존재 덕분에. 김군은 "내가 망가지는 걸 보면서는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그저 절 믿어주었다"고 했다. 김군은 스스로 모임을 해체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를 멀리했다. 지금은 "철없이 때 한 문신 때문에 복욕당하는 것도 창피하다"고 말할 정도. 김군은 현재 보호관찰 종료로 올해 말 종료된다.

전문가들은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형철 소장은 "청소년 비행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감성적이고 선진적인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두 번의 실수에 너무 강경한 대응을 하거나 무거운 낙인을 찍으면, 변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청소년이 정말 고통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행의 원인이 대부분 가정에서 비롯된다. 가족의 회복을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도 반드시 필요하다. 김현정 계장은 "비행청소년만큼, 보호자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도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가족 솔루션' 캠프 등을 진행하는데, 이런 캠프를 통해 큰 변화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명성진 대표는 "가출 후 심각한 본드 중독에 빠졌던 아이가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학교로 복귀해 개근상을 딸 정도까지 개선된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소년원에 있던 친구들이 한꺼번에 나오자 이전보다 심하게 무너지는 것도 봤다"며 "아이들 믿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믿어주는 과정을 지루하게 반복해야 한다. 어느 순간 아이 스스로 줄이 주는 때가 온다"고 했다.

정익중 교수는 "아무리 부디 들어차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형성되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라며 "덜 빠진 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위에서 열매가 자라고 있는 '풍나물나무'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욱 대나미래 기자

“내 편이 있구나” 진심으로 느낄 때 아이들은 변하죠

비행 청소년 개선 사례

지난 9월 30일 저녁,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3차안센터'의 2층 작은 방이 시끌벅적해졌다. '중랑청소년휴식(休)카페' 친구들의 수다 소리다. 이 상인 중랑경찰서 청소년계 경위(학교전담경찰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라. 밥 같이 먹게"라는 말로 비행 청소년들과 소모임을 만든 게 이제는 매주 월요일 저녁 정기 모임으로 발전했다. 단순히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 불과했지만, 지역 후원회와 자원봉사자들이 불으며 작은 '가족공동체'의 모습을 갖춰갔다.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77회를 진행했으며, 거쳐 간 인원은 총 920명 정도다. 지역 후원회는 운영비와 식비 등을 지원한다. 이 경위는 "대부분 내 지인이나 친구들"이라고 했다. 자원봉사자 82명은 단순 '말 상대'부터 노래 강사, 극단까지 다양하다. 현재는 지역의 예술 사회회기업과 연결돼 11월 공연할 연극을 준비 중이다.

이날 모임에 참여한 정순길(가명·16)군은 "비누 만들기를 해서 돈도 받고, 아저씨가 선생님들을 연결 해줘서 원하는 아이들은 춤, 노래, 연기 같은 것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이상인 경위는 "시설과 전문가가 넘쳐나도, 거리의 아이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관계를 쌓아나가면 아이들 스스로 경찰서에 놀러 오는 상황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을 제대로 알면, 그들이 원하는 것도 보인다 "본드를 끊은 이유요? 처음 공연을 했을 때 이게 본드보다 몇 배는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인천·부천 지역은 전국 본드 사범의 40% 정도가 몰려 있는 본드 우범지대다. 전수민(가명·18)군은 부천 지역에서 소문난 '본드쟁이'였다. 전군의 변화는 위기청소년 공동체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품에서 시작됐다. 전군은 "내가 했던 모든 대화는 '강요'와 '교육'이었지만, (명성진) 목사님과 사람은 대 사람으로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명성진 세상을 품은 아이들 대표(예수마을교회 담임목사)는 "신뢰를 쌓지 못하면 아이들의 니즈나 동기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며 "아이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원하는 게 보이고, 이를 연결해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움직인다"고 했다. 거의 대표의 재량만으로 꾸려가던 '세상을 품은 아이들'은 2년 전부터 지역사회의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 위기 청소년 안 전망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명성진 대표는 "CYS 넷 같은 지역사회 안전망은 필요한 자원을 찾는 데 효과적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계속 새로운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었다"며 "아이들에게 중심이 돼주는 골격이 생기고 나니 외부의 자원들도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명 대표는 아이들에게 운동이 필요하면 지역사회의 스포츠 클럽을 찾아내 지원받고, 여행을 준비할 때도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등 외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상처에 가려진 재능과 열정에 주목하라 오는 10월 22일,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는 특별한 무대가 열린다. 세트러스트무용단이 준비하는 커뮤니티 댄스 '투게더투게더'가 바로 그것.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 8명이 이



세상을 품은 아이들 대표
전문가들은 "비행에 빠졌던 아이들에게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천천히 신뢰 쌓으면서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중랑청소년휴카페
가족처럼 밥 먹고 대화하며
연극 가르쳤더니 방황 멈춰

세상을 품은 아이들
위기 청소년 공동체에서
밴드 음악하면서 본드 끊어

트러스트무용단
커뮤니티 댄스 배운 아이들
상처 치유하고 무용가 꿈도

번 무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지난 1995년 창단된 세트러스트무용단은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 소외 계층 등 다양한 사람이 어우러져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 등, 춤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형희(세트러스트무용단 대표)는 "3년 전부터 청소년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무용 교육, 공연, 워크숍 등을 해왔다"며 "춤으로 대학에 진학해 전문 무용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친구도 있다"고 했다. 송영립(세트러스트무용단 실장)은 "아이들이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처를 예술로 풀면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쁘다"며 "지금까지 기회가 없어 자신의 능력을 잘 몰랐던 친구가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최태욱 더나은미래 기자

임신·출산 학생에 퇴학 권고 등 징계 못 내리게 될 듯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
미혼모 학습권 침해 규칙 개정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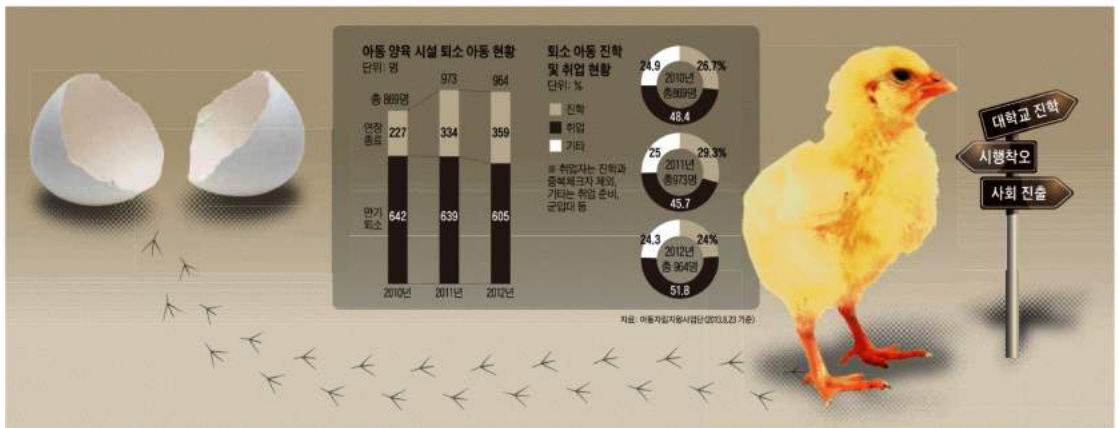
앞으로는 학생이 임신·출산했거나 이성(異性) 교제를 하더라도 학교 측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된다. 아산미래포럼에서 다루고 있는 '미혼모 청소년의 학습권 침해'에 관한 본지 보도(9월 10일자 더나은미래 E3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일선 학교에서 미혼모인 학생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 퇴학·전학·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學則)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이 이성 교제를 하다 적발될 경우 퇴학 처분을 하거나, 학교에서 신체 접촉을 할 경우 징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칙을 가진 곳이 많다. 올 초에는 지방의 한 명문 외고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성 교제를 신고하도록 하는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도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규칙 컨설팅'을 시행해 일선 학교들의 교칙 수정을 돕고,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선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학생 미혼모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선영 더나은미래 기자

보육원 나온 아이들 홀로 서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산나눔재단
아산미래포럼 기획 시리즈
④ 가정 외 보호 청소년

정승진(23·서울 관악구)씨는 20세가 되던 해 1월 1일 보육원을 나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이었다. 14년 동안 단체생활을 하는 게 자궁자궁에 하루빨리 떠나고 싶었다. 자립정착지원금(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1인당 100만~500만 원 상당을 지급)으로 받은 500만원 중 400만원은 누나와 함께 살 집의 보증금으로 보냈다. 신발 매장에서 일해 번 돈은 월세, 전기세, 생활비, 휴대전화료로 통장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에 유용비로 쓰는 돈도 만만치 않았다. 저축은 그림의 떡이었다. 자인에게 사기도 당해 모은 후원금을 모조리 남겼다. 정씨는 "가족이 없는 이들은 대부분 지지 기반이 약해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을 잘 믿는 편"이라고 했다. 현재 그는 심기 일전에 독산동 한 의료 공장에서 일하며 장업 준비를 하고 있다. 신혜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은 "퇴소 후 아동들은 모아놓은 돈을 그동안 자신을 보육원에 방치한 부모에게 쥐 버리거나, 경제 관념이 부족해 본인의 생활 기반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 현실 감각·문제 해결 능력 떨어지기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육원 등 아동양육 시설에 맡겨진 아동(18세 미만)은 2011년 1만5313명이다. 이와 비슷한 규모인 1만5486명은 대리 양육(조손 가정),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등의 형태로 보호받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3만명을 웃도는 아동이 '가정 외 보호' 상태에 있는 셈이다. 한편 2010년에는 869명, 2011년에는 973명의 아동이 대학 진학, 취업 등으로 시설에서 퇴소했다. 시설 아동 중 매년 1000명가량이 사회로 나가고 있지만, 자립은 여전히 숙제다. 전문가들은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양육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것



에 익숙해진 의존성, 수동성이 자립에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은다. 양육 시설에서 생활할 때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못 느끼지만, 퇴소 후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난해 서울 금천구의 A 보육원을 퇴소한 후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미진(가명·21)씨는 "그전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자원봉사자 등 우호적인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보니 적대적인 사람도 많다"면서 "자립 전에도 기업에서 주말마다 경제 교육을 해주기도 했지만 수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느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더라"고 했다. 이어 "막상 시설을 나와보니 청소, 빨래, 하루 세 끼를 먹는 문제까지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고 덧붙였다.

◇친구 따라가는 대학, 부적응자도 늘어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도 많다. 이진수(가명·22)씨는 2년 전 O대 공과대학에 기피군종전형으로 입학했다. "다들 가는 대학인데 나도 가자"라는 생각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진학을 급히

시설에 10년 이상 머문 아동 보호·의존에 익숙해져 현실감각·해결능력 결여
성인 돼 퇴소 하자마자 퇴소정착금 순식간에 쓰고 하층민으로 전락하기 일쑤
계획 없이 대학 진학했다가 학업 놓치고 장학금도 끊겨
"정착금, 자립용으로만 쓰고 3년간 사회 적응기 갖는 등 보호·관리 프로그램 필요"

결정한 이씨였다. 막상 수업을 들으니 따라가기 힘들었다. 공부엔 더욱 흥미를 잃었고, 성적은 비약을 기댔다. 불어나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한 학기 만에 자퇴를 결심했다. 지난해 S대 유아교육학과에 입학한 한유정(가명·21)씨도 대학 입학 첫 학기에 적응을 못 해 F학점을 받으면서 장학재단에서 지원이 끊겼다. 등록금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학업도 놓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시설 퇴소 아동의 20% 정도(2010년 227명, 2011년 245명)가 대학 진학을 결심하는 만큼 부적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단, 2011 시설 퇴소아동 실태조사 및 분석). 김수현 돈보스코 자립생활관 자립지원전담 요원은 "등록금은 장학재단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했다.

이웃 서울SOS어린이마을을 자립지원 팀장은 "고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취업인 지 진학인지 일찍이 결정해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4년 전부터 서울SOS어린이마을은 '언어, 수리,

외국어 3과목 중에 2개가 5등급 안에 들어와야 장학재단에 추천서를 써준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공표하고 있다. 김광빈 동명아동복지센터 원장은 "전공 공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추후 등록금이 대한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대학 중퇴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 중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얻을 수 있는 좋은 취직 기회도 놓치고, 보호 기간 연장 불가로 시설에서도 퇴소해야 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자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퇴소 후 2~3년, 홀로서기를 위한 보호 체계 필요해
아동 양육 시설 입소 기간은 퇴소까지 최소 10년에서 최대 18년 정도다. 이 기간에 투입되는 인건비, 양육비, 운영비 등을 계산하면 매년 1인당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소요된다. 이웃 자립지원 팀장은 "퇴소 후 2~3년을 잡아주지 못하면 약 20년 동안 공들여 양육한 것이 물거품이 된다"고 했다. 자선 관리, 인간관계 등 아이들이 직접 사회에 나가 부딪히면서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육 시설 내

에는 기업들이 사회공헌으로 진행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넘쳐나지만, 퇴소 후 아동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은 물론 자립 지원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2011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아동 10인 이상 생활 시설에 자립 지원 전담요원 인력을 1명씩 배치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사회복지사들은 "시설 아동 수가 30명이면 70명이든 상관없이 1명이 자립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퇴소 아동들에게 개개인의 동향으로 입급되는 퇴소 정착금 전달 방식도 문제로 꼽는다. 동명아동복지센터 김연희 사무국장은 "다들 씨앗통장(CDA)처럼 주거자금, 학자금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제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웃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반 가정의 아동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성인기로 전환하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가 따르게 마련"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약한 가정 외 보호 아동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더 폭넓은 차원의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하 더나은미래 기자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이 마냥 즐겁지 않은 이유는

복지 사각에 놓인 위탁 아동

위탁 아동 수 1만5000여명
시설 아동 수와 맞먹는 수준
70세 이상 양육자가 절반
아동이 되레 부양하기도

새 가족 적응도 쉽지 않아
위탁 부모가 잘 돌봐주지만
불안한 사춘기 심리상태로
비행에 쉽게 빠지기도

“양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가정 위탁 아동이 더 낫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김가을(20·여)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입을 열었다. 2005년 김씨는 세 살 터울의 남동생과 함께 부산의 친할머니댁으로 보내졌다. 사업이 어려워진 아버지는 가정을 떠났고, 어머니는 천안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김씨는 “할머니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해 동생의 머리를 감기거나 이불 개기 등 소소한 일들도 다 내 몫이었다”면서 “편애로 서운한 적이 많았다”고 했다. “재는 할머니랑 같이 살아” “조손 가정이라” 등 수군대는 주위의 시선들도 싫었다.

가정 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가정에서 보호하는 제도로 대리 양육가정(조손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이 있다. 이 중 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대리 양육 가정이 70%에 달한다. 2010년 대리양육가정 위탁 실태 조사 결과 70세가 넘는 고령의 양육자가 49%에 달하는 등 신체적·경제적 여건 자체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윤미 부산광역시가정 위탁지원센터 사회복지사는 “조손 가정은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조부모들이 많아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부양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가정 위탁 아동은 각 가정에 뽀빠이 흠어져서 생활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외부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김씨는 “교육, 체험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이 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친구들만 계속 나오게 된다”고 했다. 이윤미



전문가들은 “가정 위탁 아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조선일보 DB

가정 위탁 보호 현황

(보건복지부, 2011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연도	계		대리 양육 가정		친인척 위탁 가정		일반 위탁 가정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2009	12,170	16,608	7,809	10,947	3,438	4,503	923	1,158
2010	12,120	16,359	7,849	10,865	3,365	4,371	906	1,123
2011	11,630	15,486	7,463	10,205	3,351	4,260	816	1,021

사회복지사는 “영화나 뮤지컬을 보는 등 문화 활동을 하더라도 각 가정에 일일이 전화해서 모으는 수밖에 없다”며 “서울 부산 등 대도시보다 강원도 전라도 등 지방일수록 지원 체계에서 제외된 아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에 사회 공헌 프로그램 제안서를 내더라도 ‘애는 보호자가 있는데 왜 보호를 해야 해?’라는 인식이 많아 항상 2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일반위탁가정 아동은 심리적 어려움을 크게 겪는 편이다. 정상대(23·남)씨는 “친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모와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고 했다. 정씨는 다섯 살 때부터 5년간 보육원 생활을 하다가 친어머니를 만났지만 이내 헤어졌다.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던 어머니와 맞

은 마찰이 생긴 것이다. 정씨는 지난 2003년 부산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로 오게 됐고,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이 시작됐다. 그는 “위탁 부모님들이 여러모로 지원을 해줬지만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사춘기 시절에는 비행에도 빠진 적이 있다”면서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한두 번 만나고 상담도 하면서 점차 안정감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이윤미 사회복지사는 “살아있는 부모와 헤어진다는 경험은 청소년기에 정서적으로 큰 충격일 수 있다”면서 “센터별로 심리치료를 두고 지원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전문 시설도, 인력도 부족하기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김경하 더나은미래 기자

정서 불안·장애 겪는 아이 100만명 어려서부터 심리 지원·치료받아야

초·중·고 학생 6명 중 1명 '관심군'

지난 10일 오전 서울 은평구에 있는 B보육 시설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또 민우(가명·11)야?”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다툼이 벌어지지만 이번엔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대치 중이었다.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미친 xx.” 욕도 서슴지 않았다. 분노를 참지 못한 민우가 건조기를 던져버리려다 이내 선생님들에게 제지당했다. 민우는 한 달 동안 다른 방으로 옮겨져 형들과 생활하는 징계를 받았다.

정신 건강이 빨간불인 아이들이 6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생 668만 2320명 중 648만 2474명(97%)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인 상담·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16.3%인 105만 4447명에 달했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양육 시설에서도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서울SOS어린이마을 정상은 임상심리치료사는 “부모의 이혼·방임과 같은 가정 해체로 인해 일차적으로 상처를 받아 양육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만큼 전문적인 심리 치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심리 지원과 치료는 조기 개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연희 동명아동복지센터 사무국장은 “10년 전쯤 가장 관심을 요하는 2명을 데리고 소아정신과를 데려갔는데, 약간의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어 인지 치료와 약물치료 등 각종 치료

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10년간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결과 지금은 상담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졌다. 서울꿈나무마을 강효봉 수녀도 “아이큐(IQ)가 65에서 70 사이 정도인 경계선급의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일찌감치 인지 및 상담 치료를 받도록 했는데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적인 양육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단 지적도 많다. 서울SOS어린이마을 허상환 원장은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지지해주는 체계가 제대로 없으면 성장하면서 결국 자립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독일의 하임이라는 소규모 치료적 보호 시설에서는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4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 대상은 20세 미만 행동·품행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아이들이다. 4800개 시설에서 8~10명의 아동이 소규모로 치료를 받고 있다. 조규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업중단 대응 TF팀 팀장은 “4명의 전문가가 1인당 2~2.5명의 아동을 관리한다는 것은 전문적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차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며 “투자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현수 들꽃청소년세상 대표는 “결국 사회 복지와 같은 휴먼 서비스는 종사자의 질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개인별 맞춤형으로 보호하고 살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하 더나은미래 기자

1주일에 1시간, 봉투 접는 직업교육... 장애 청소년은 꿈을 접어 버렸다

아산미래포럼 기획 시리즈
⑤ 장애 청소년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은 없으니, 다른 부서에 전화해보세요.”

지난 3년간 조성진(23·가명)군의 어머니 박정숙(74명·49)씨가 취업 연결을 부탁할 때마다 시청 사회복지과로부터 나온 답변이다. 시청 내 다른 부서나 해당 지역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조군은 지적장애 1급 발달장애인이다. 3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에 수차례 실패해왔다. 2011년 우여곡절 끝에 한 공장에 취직했지만, 선임 작업자는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속도가 느리다” “시간 알무를 끝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았다. 망치를 들고 “당장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다. 3개월 후, 회사가 “생산성을 맞출 수 없어 더 이상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조군은 실업자로 전락했다.

조군은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1년에 1~2회 정도 지역 카페나 작은 공장을 견학하는 현장학습 정도만 있었다. 어머니 박씨가 학교에 진로 상담과 취업 연결을 요청했지만, 담당 교사는 “우리가 알아봐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하는 수 없이 3년 동안 자비를 들여 조군을 컴퓨터 학원에 보냈지만, 자격증 2개를 따는 데 그쳤고, 이 역시 취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현재 조군은 경기도 한 복지관에서 매일 교육비 7만5000원을 내고 부품 조립과 포장 업무를 배우고 있다. “3년이 지나면 복지관에서 나가야 합니다. 한 복지관에 5년 이상 다닐 수 없거든요. 제가 죽고 나면 스스로 살아야 하는데, 그 전까지 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어머니 박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체계적·맞춤형 직업교육이 부재한 특수교육현장

국내의 등록 발달장애인 수가 18만명을 넘어섰다. 발달장애인 청소년(10~19세 이하) 약 4만5000명 중 매년 약 3541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2011년 12월 기준·서울대 산학협력단). 하지만 이 중 다수가 졸업 후 진로를 마련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12만9517명 중 취업에 성공한 이는 2만7863명으로, 21%에 불과하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2.19%에 그친다(2011·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수교육법은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직업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발달장애인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복지관을 전전한다.

교육을 진행할 것을 명시했다. 학부모들은 “학교의 직업교육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적장애 1급 고3 딸을 둔 정옥임(가명·50)씨는 “학교에서 하는 직업교육이라고 해봐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이라며 “그마저도 알맞은 포장, 봉투 접기, 칫솔 집어넣기 정도를 가르친다”고 말했다. 정씨는 6년 전부터 딸을 지역 복지관으로 데려가 진로교육을 따로 받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졸업 시기에 집중된 점도 문제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대부분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이 고등학교 3학년생만을 대상으로 약 1년간 진행된다. 일부는 졸업 후 특수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과정 ‘전공과’를 1~2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한다. 직업 평가 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리 아이가 직업 평가를 받았는데 도대체 친구 중 능력이 제일 떨어진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물어보니 1시간 동안 작은 기계를 다루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만으로 아이의 강점을 평가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해요.”

고교 3학년에 몰린 취업 교육 이수해도 회사선 사용 못해 2년 근속은 꿈에 나올 얘기 장애인 개별 특성 고려없는 일반적 재취업 교육도 문제 중학교 때부터 직업 실습하고 고용 지원으로 뒷받침해야

자폐성 1급 아들을 둔 이연주(가명·51)씨가 말했다.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 결국 복지관 전전해

최정수(가명·23)군은 작년 12월 한 보호 작업장에 실습을 나갔다. 3개월 동안 현장 실습을 받았지만, 취업에는 실패했다. “작업장 소장님이 ‘아드님은 여기서 일하는 데 적함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호 작업장에서조차 자폐성 장애인을 쓰기 꺼려할 줄은 몰랐어요.” 정수군의 어머니 이은선(가명·49)씨가 말했다.

학교를 떠난 발달장애인들이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2011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약 40%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실업자가 된다. 자폐성 장애인의 실업률은 무려 78.3%에 이른다. 지적장애 3급의 윤정연(가명·31)양은 2006년 전산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이후 지금까지 다닌 회사가 3군데에 이른다.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계약 기간을 1년 이상 넘기지 못한 채 복지관을 전전하고 있다.

재취업을 위해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센터 문을 두드리는 것도 쉽지 않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실습교육

발달장애인 취업자 비율 만 15세 이상



을 받기 위해 무려 5년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장인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다 보니 발달장애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렵게 시설에 들어가도 포장, 조립, 제과·제빵, 세탁, 용역 등을 배우다 보니 학교 직업교육과 차별성이 없다. 최복현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강점을 살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작 복지 현장에서도 한정된 업무만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교육·지속적인 고용 시스템이 함께 갖춰져야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장기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1977년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를 설립했다. 총 21개 센터에서 개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관련 서비스를 평생 지원한다. 특히 학교를 마치고 성인으로 전환할 때,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개별 전환 계획(Individual Transition Plan·ITP)을 수립하고 지역 내 그룹홈이나 직업재활기관을 연결해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약 20여만 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변경의 한신대 직업재활학과 교수는 “한국의 직업교육은 공교육 이수 등의 문제로 현장 실습 교육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중학교 때부터 사회와 연계해 활동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계윤 전국장애아동보육재정관리위원회 고문은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지원고용·파견고용 사업들은 사립사업의 성격이 강하며, 그마저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 구축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발달장애인법 제정 논의에 계류 중인데,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호 더나아미래 기자

마음의 병 앓는 아이들 편히 쉴 곳, 대한민국에 달랑 한 군데

음지로 숨는 정신장애 청소년

강인석(가명·16)군은 3년 전부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증상을 보였다. 매일 이유 없이 교실에 있는 화분과 유리창을 부수곤 했다.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어 잠만 자기 일쑤였다. 담임교사가 “복수 학급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겠나”고 권유했지만, 거절했다. 놀림거리가 돼 왕따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하루는 갑자기 삼을 들고 주변을 향해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남자 선생님 5명이 달려들어서야 간신히 제압했다. 결국 문제로 적힌 강군은 다니던 중학교를 나와야 했다. 이후 학교 네다섯 곳을 전전했지만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 강군은 현재 어머니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대안 학교를 알아보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 조사(2011)를 따르면, 정신분열증·조울증·우울증 등을 앓는 정신장애인은 10만3894명이다. 이 중 만 29세까지의 정신장애인 수는 약 3532명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19세 아동·청소년 1077만 명 가운데 29만9033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수치보다 85배가량 높다. 이용료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인 낙인을 두려워해 정신장애 판정을 거부하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면서 “정신장애 청소년을 위해 체계적인 재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각지대에 내몰린 정신장애 아동·청소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신장애 청소년은 갈 곳을 찾지 못해 성인 사회 복귀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관, 복지 상담 센터 등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비상’에 상담을 신청한 부모님 중 다수가 지역 시설을 수소문하다가 적합한 곳을 찾지 못해 저희를 찾아오는 경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재활 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혜 청소년사회복지시설 ‘비상’ 시설장이 말했다. ‘비상’은 정신 장애를 앓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다. 전국 243개의 사회복지 시설 중 청소년 전용 시설은 비상이 유일하다. 김 시설장은 “성인 시설 중 상담수가 정신장애 청소년을 받아 들일 때 안전 사고나 일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서 “부모와 장애당사자가 동의서, 서약서 등을 작성해야 성인 시설에 들어갈 기회를 얻는다”고 말했다.

전국에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약 180여개다. 이 중 아동과 청소년을 담당하는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센터는 2011년 현재 42개로, 약 23% 정도다. 이마저도 장기적인 사례 관리나 재활 교육보다는 정신 건강 문제 진단이나 치료비 지원에만 집중

성인시설, 안전·일탈 문제로 청소년 입소를 엄격히 다뤄

미국선 지역·당사자 연계해 사회적응력 향상 훈련하기도

된 상황이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소아청소년 정신보건팀 김진형 팀장은 “최근 일반 시민에게도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중증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은 정작 비중이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서울시는 초·고등학교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치료시설 ‘아이존’을 11개 설립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중·고등학생을 위한 시설은 전무하다. 지방에는 초·고등학생을 위한 시설조차 없다. 정신장애인 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없다. 현행 정신보건법과 아동복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정신장애 청소년을 위한 전문 인력과 모니터링이 시급해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아동 청소년 630만명 중 3분의 2가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거나, 프로그램 이용료가 비싸서였다. 이에 미국 연방정부는 1992년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서비스법’을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아동 정신 건강 서비스 사업’(Children’s Mental Health Initiative)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지역 사회에 정신 건강 서비스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장애인 당사자에게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와 선생님, 카운슬러, 목사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을 논의·수정한다. 이외에도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에는 사회생활을 하고, 밤에는 시설에서 거주하는 하프웨이 하우스(Halfway House) 등의 재활 훈련 기관도 미국과 영국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김은영 슈타이너학교 대표 교사는 “정신장애인은 충분한 관리와 재활 교육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서 “정신과 치료만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 풍토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상호 더나은미래 기자

장애 치료 지원한다는 교육부 1년 뒤 같은 일 벌이는 복지부

部處 칸막이에 막힌 장애인 사회 진출

발달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 극복이 시급한 과제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지만, 현장은 정반대다.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업 재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장애인들이 부처별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인적 사항을 새로 등록하고 전문가 상담을 따로 받아야 한다”면서 “장애인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처들이 서로 협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슷한 프로그램을 내놓아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에서는 재활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위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치료 지원’ 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해왔다. 1년 뒤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바우처 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놓았다. 똑같은 유형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 셈이다. 김주영 한국복지대 교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의 사업을 명확히 인식하고 함께 협력하지 않다 보니 결국 중복 투자가 일어났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없어지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은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교육, 노동, 복지 관련 부처에서 서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의사소통을 할지에 대한 상세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기 위한 행정적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상호 더나은미래 기자

아산나눔재단

THE ASAN NANUM FOUNDATION

아산나눔재단은 아산 정주영 선생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하여 정몽준 의원이 중심이 되어 2011년 10월 설립되었습니다. 아산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이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도 삶의 지표가 되는 아산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누구나 청년 정주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초기기업의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전문성을 지닌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자들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유망한 청년 기업가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내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논의와 해결방안 제시가 이뤄지는 ‘아산 기업가 정신 포럼’은 재단의 보다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적 엔진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외에도 교육, 투자, 멘토링, 네트워킹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우리 시대 청년들의 기업가정신 고취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나눔재단은 세상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청년들이 세계적인 인재로 비상하도록 글로벌리더 양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갈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비영리분야 활동가들이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해외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아산 프론티어 펠로우십’과 ‘UN국제기구 인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국가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지도자 양성 과정인 ‘아산서원’을 아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청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꿈의 주체이자 미래를 창조하는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토양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지향합니다.

아산미래포럼 운영진

이승복 팀장, 박지이 연구원, 이연경 연구원

더 나은 미래

Chosunilbo The Better Future

2010년 5월 창간한 ‘더 나은미래’는 조선일보 유일의 프리미엄 공익섹션으로 월 2회(둘째, 넷째 주 화요일) 발행되고 있습니다.

나눔, 봉사, 기부, 기업 사회공헌, NGO활동, 국제개발협력, 환경, 문화예술, 보건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이슈를 발굴, 취재하며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더 나은미래는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대한민국이 지난 60여 년간 거둔 성공 노하우는 물론, 실패 사례 역시 함께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미래는 공익 섹션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한 컨설팅과 공공과 민간을 매개하는 공익사업 기획 및 실행, NPO 및 사회적기업의 육성 등에서도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내 기업들의 CSR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ISO 26000을 기준으로 한 CSR평가 모델 설명회를 개최하며, 국내 기업 CSR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바 있으며, 향후 국내 토양에 맞는 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는 한국기업공헌평가원과 함께 한국 기업들의 국가·사회 공헌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4일에는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명성조사를 분석해 발표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 기업과 NGO를 위한 다양한 공익 컨퍼런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미래는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 민간 영역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국내외 각종 문제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산미래포럼 운영진

허인정 대표, 박란희 편집장, 조성녀 팀장, 정유진 기자, 최태욱 기자, 김경하 기자, 문상호 기자, 주선영 기자, 임새미 선임연구원, 구애림 연구원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arts & community network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ARCON)는 기업과 공공자원 개발 및 파트너십 매칭을 통해 우리사회의 문화예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기부금 단체입니다.

ARCON은 기업, 사회, 정책 니즈에 부합한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 개발을 컨설팅하고 인큐베이팅하는 기업 나눔과, 문화예술 사회공헌 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사회 지지를 높여 사회공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조사와 캠페인 등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와 공공자원을 매칭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RCON 사업의 특징은 다양한 분야의 단체, 전문가, NGO, 명사 등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효과적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다문화, 장애인, 환우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해와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자 중심의 현장성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자원 연계와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와의 공동 캠페인을 통하여 사회적 임팩트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따뜻한 문화로 보듬는 방법에 대한 고민, 세계공통어인 문화예술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노력, 문화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소통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아산미래포럼 운영진

김민지 사무국장, 박은주 컨설턴트, 장래주 컨설턴트, 정소민 컨설턴트, 정원정 컨설턴트



문화예술, 사회공헌, 네트워크.